
2020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2020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0. 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시민교육본부장 김소연

시민교육팀장 김재경

시민교육팀 김선화

등록

KACES-2080-R001

ISBN

978-89-6748-365-4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1392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20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영식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선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임승희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공동저자 가나다순)

연구보조원

김미연 전남대학교 문화학과 박사과정

박은주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조강원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김경옥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5
II. 문헌고찰	9
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및 실태	9
2.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주요 연구 결과	18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 연구방법	25
4. 질적 종단 연구 연구방법	30
III. 연구방법	43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 연구 계획	43
2. 2020년 양적 연구 주요 연구방법	46
3. 2020년 질적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54
IV. 연구결과	69
1. 꿈의 오케스트라 패널 연구	69
2.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	140
V. 결론	259
1. 요약	259
2. 제언	276
참고문헌	289
부록: 설문지	293

표 목차

〈표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 지원체계	12
〈표 II-2〉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 현황	13
〈표 II-3〉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별 거점기관 수	13
〈표 II-4〉 꿈의 오케스트라 전국 지원규모 거점기관 현황	14
〈표 II-5〉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체계	15
〈표 II-6〉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수업도구 및 운영형식	16
〈표 II-7〉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거점기관 운영 현황	16
〈표 II-8〉 아동 및 청소년 패널 구축 국내 양적 연구방법	27
〈표 II-9〉 국내 질적 종단연구 현황	31
〈표 II-10〉 해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 연구의 주요 내용	34
〈표 III-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단계별 참여현황	45
〈표 III-2〉 꿈의 오케스트라 종단조사 설계 모형	47
〈표 III-3〉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양적 연구 측정도구	49
〈표 III-4〉 아동 대상 효과성 측정 항목	50
〈표 III-5〉 보호자 대상 측정 항목	51
〈표 III-6〉 교육강사 대상 측정 항목	51
〈표 III-7〉 패널 유지율	52
〈표 III-8〉 질적 연구 참여기관	58
〈표 III-9〉 질적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	59
〈표 III-10〉 참여단원을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60
〈표 III-11〉 보호자(학부모)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	61
〈표 III-12〉 강사 및 행정코디네이터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62
〈표 IV-1〉 조사 시기별 조사 참여자 특성	69
〈표 IV-2〉 2020년도 효과성 분석 패널 응답자 특성	70
〈표 IV-3〉 1단계 패널의 음악적 성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73
〈표 IV-4〉 1단계 패널의 개인적 발달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77
〈표 IV-5〉 1단계 패널의 인적 관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81
〈표 IV-6〉 1단계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84
〈표 IV-7〉 2단계 패널의 음악적 성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88
〈표 IV-8〉 2단계 패널의 개인적 발달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92
〈표 IV-9〉 2단계 패널의 인적 관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97
〈표 IV-10〉 2단계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00

〈표 IV-11〉 집단 간 음악적 성장 차이 분석 결과	102
〈표 IV-12〉 집단 간 개인적 발달 차이 분석 결과	104
〈표 IV-13〉 인적관계 차이 분석 결과	106
〈표 IV-14〉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차이 분석 결과	108
〈표 IV-15〉 꿈의 오케스트라 영향요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10
〈표 IV-16〉 음악적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111
〈표 IV-17〉 개인 발달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I	112
〈표 IV-18〉 개인 발달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II	113
〈표 IV-19〉 인적 관계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114
〈표 IV-20〉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115
〈표 IV-21〉 꿈의 오케스트라 만족도 분석 결과	116
〈표 IV-22〉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원인	118
〈표 IV-23〉 보호자 응답자 특성	119
〈표 IV-24〉 보호자 패널 데이터 분석 대상 특성	121
〈표 IV-25〉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가족 응집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2
〈표 IV-26〉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3
〈표 IV-27〉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4
〈표 IV-28〉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5
〈표 IV-29〉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6
〈표 IV-30〉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7
〈표 IV-31〉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8
〈표 IV-32〉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29
〈표 IV-33〉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지식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30
〈표 IV-34〉 1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31
〈표 IV-35〉 1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32
〈표 IV-36〉 2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지식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34
〈표 IV-37〉 2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35
〈표 IV-38〉 2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36
〈표 IV-39〉 교육강사의 자기 평가 개요	137
〈표 IV-40〉 교육강사가 평가한 사회적 효과	138
〈표 IV-41〉 교육강사가 인지한 단원의 유지 원인	139
〈표 IV-42〉 교육강사가 인지한 단원의 이탈원인	139
〈표 IV-43〉 면접조사 선정 방문기관 및 자료수집 방문 일자	141
〈표 IV-44〉 거점기관 별 인터뷰 참여자와 분류 체계	142

〈표 IV-45〉 면접조사 대상자 특징 및 부여 코드	143
〈표 IV-46〉 일반가정 2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146
〈표 IV-47〉 취약가정 2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156
〈표 IV-48〉 일반가정 5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166
〈표 IV-49〉 취약가정 5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177
〈표 IV-50〉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 분석: 변화와 성장 (교육효과)	186
〈표 IV-51〉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 분석: 비대면 교육	187
〈표 IV-52〉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 분석: 참여환경과 제언	188
〈표 IV-53〉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주요 변화	189
〈표 IV-54〉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참여환경 변수와 개선 방안	190
〈표 IV-55〉 행정담당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191
〈표 IV-56〉 2020년 보호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200
〈표 IV-57〉 2020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면접조사 분석결과	213
〈표 IV-58〉 참여 관찰 개요	226
〈표 IV-59〉 참여관찰 비교 분석 결과	227
〈표 IV-60〉 마음기록지 작성자 부여 코드	234
〈표 IV-61〉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결과	235
〈표 IV-62〉 이탈단원 면접조사 참여자 부여 코드와 이탈사유	247
〈표 IV-63〉 이탈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249
〈표 V-1〉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음악적 성장 분석 결과 요약	259
〈표 V-2〉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개인 발달 분석 결과 요약	260
〈표 V-3〉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인적 관계 분석 결과 요약	261
〈표 V-4〉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분석 결과 요약	262
〈표 V-5〉 질적 연구 종합 분석결과: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265
〈표 V-6〉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주요 변화	268
〈표 V-7〉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참여환경 변수와 개선 방안	269

그림 목차

〈그림 I-1〉 2020년 연구체계도	4
〈그림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체계	11
〈그림 III-1〉 3개년 연구계획	43
〈그림 III-2〉 연구모형	44
〈그림 III-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발달 연구 조사 설계	45
〈그림 III-4〉 2019~2021년 연도별 패널조사 설계	46
〈그림 III-5〉 꿈의 오케스트라 설문조사 과정	48
〈그림 III-6〉 연도별 질적조사 설계	55
〈그림 III-7〉 질적 연구의 분석틀	57
〈그림 III-8〉 질적 연구 분석구조	65
〈그림 IV-1〉 조사 시기별 음악적 성장 변화	74
〈그림 IV-2〉 측정 시기에 따른 개인발달의 변화	78
〈그림 IV-3〉 인적 관계 조사 시점별 변화	82
〈그림 IV-4〉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조사 시점별 변화	85
〈그림 IV-5〉 조사 시기별 음악적 성장 변화	89
〈그림 IV-6〉 측정 시기에 따른 개인발달의 변화	94
〈그림 IV-7〉 인적 관계 조사 시점별 변화	98
〈그림 IV-8〉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조사 시점별 변화	101
〈그림 IV-9〉 음악적 성장의 집단 간 비교	103
〈그림 IV-10〉 개인적 발달의 집단 간 비교	104
〈그림 IV-11〉 인적관계의 집단 간 비교	107
〈그림 IV-12〉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차이의 집단 간 비교	109
〈그림 IV-13〉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 만족도	117
〈그림 IV-14〉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가족응집력 조사 시점별 변화	122
〈그림 IV-15〉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123
〈그림 IV-16〉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시점별 변화	124
〈그림 IV-17〉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조사 시점별 변화	125
〈그림 IV-18〉 2단계 보호자 패널의 가족응집력 조사 시점별 변화	126
〈그림 IV-19〉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127
〈그림 IV-20〉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시점별 변화	128
〈그림 IV-21〉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조사 시점별 변화	129
〈그림 IV-22〉 교육강사 평가 음악지식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1

〈그림 IV-23〉 교육강사 평가 연주 역량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2
〈그림 IV-24〉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3
〈그림 IV-25〉 교육강사 평가 음악지식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4
〈그림 IV-26〉 교육강사 평가 연주 역량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5
〈그림 IV-27〉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6
〈그림 IV-28〉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138
〈그림 V-1〉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주요한 변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270

연구요약

□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시작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2단계 패널의 2차년도 연구 수행을 통해 2016년부터 연구에 참여한 1단계 패널들의 변화와 2단계 패널들의 변화들을 확인하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고 사업의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분석 및 패널 분석방법 리뷰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및 실태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 주요 연구 결과
 - 아동·청소년 패널 연구 분석방법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대상 변화 연구 조사
 - 참여 아동 대상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 영향 등 다각적 변화 연구
 - 참여 아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정, 시설(지역사회), 교육자 요인 등 분석
 - 참여 아동 개인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관계자 등) 등에 미치는 영향성 조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도 탈락의 원인 규명
- 조사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제언
 - 2020년 조사결과와 기존 조사결과 비교 분석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개인, 가정, 학교에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와 의의, 발전방안 등 정책적 제언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 변화 외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 발전방안 제언

□ 연구방법

1.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발달 연구 조사 설계

구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
모집단	2019년 패널 참여자와 2020년 2년차, 6년차 거점기관의 신규단원과 보호자		기관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표본추출	양적 패널	전수조사	전수조사 (신규단원이 있는 기관)
	질적 패널	할당표집	할당표집
조사대상	양적 패널	단원, 보호자 각 1명씩 조사 2020년 236명	교육강사 및 코디네이터 전체
	질적 패널	단원 32명, 보호자 13명	강사 16명, 코디네이터 5명
조사방법	양적 패널	기관방문 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질적 패널	집단 및 개인 인터뷰, 참여관찰, 일지	
조사기간	3년(매년 9~10월)		
조사방법	질적 패널	설문지 조사	
	질적 패널	인터뷰, 참여관찰, 일지 내용분석	

2. 양적 연구

○ 분석 대상

- 2020년도의 조사 대상은 2016년도부터 매년 조사에 참여한 1단계 패널과, 2019년도 신규 단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단계 패널로 구성됨.
- 1단계 패널 수는 총 44명, 2단계 패널 수는 총 195명의 데이터로 분석하였음.

○ 측정도구

구분	대영역	소영역	구분	대영역	소영역
효과성	음악적 성장	음악지식	만족도	프로그램 요인 만족	내용 만족
		음악향유			강사 만족
		음악태도			환경 만족
		음악활동			행정 만족
		음악적 경험의 확장*			전반적 만족
	개인 발달	건강-스트레스	만족 및 충성도	만족 및 충성도	재참여 의도
		자존감			타인 추천 의도
		성실	영향 요인	촉진 및 장애 요인	타음악(오케스트라) 경험
		의사소통 능력			단원 자부심
		미래 전망			오케스트라 만족도
		공격성*			부모(보호자)지지 (관심)
		행복*			동료 지지
	인적 관계	협동/협력			참여 적극성
		집단촉진			교육강사 지지*
		팔로워십			공연활동 성취감*
		갈등문제해결			음악적 권태*
		가족 응집력			학업 및 시간 부담*
	공공적 함의	타인 수용도			환경요인(접근성)*
		배려			
		소속감/유대감			
	사회 경제적 혜택	공동체 참여행동	탈락	이사, 진학, 심리적 요인 등*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			

* 2019년부터 신규 추가 항목

○ 분석방법: SPSS 25.0을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 적용

구분	내용
빈도분석/기술통계	인구 통계적 특성과 참여자의 분포 파악/만족도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	패널 아동의 효과성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
분산분석(ANOVA)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계층과 취약계층의 집단 간 효과성 차이 분석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만족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3. 질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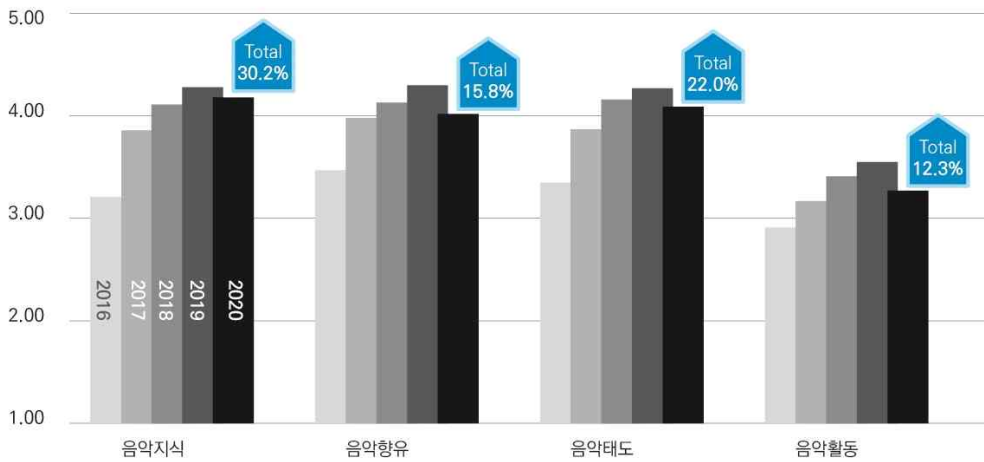
- 질적 연구 중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5개 그룹으로 ①참여아동(n=26), ②음악감독과 교육강사(n=16), ③참여기관의 코디네이터 및 행정담당자(n=5), ④참여아동의 보호자(n=13), ⑤이탈단원(n=6)으로 구성되었음. 연구방법은 ①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②개인면접(Personal Interview), ③관찰(Observation), ④텍스트분석(Text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음.
- 자료의 분석모형은 크게 5개의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배경(동기와 기대효과), 아동의 변화, 비대면 교육, 외부요인, 제언으로 구분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음.
- 자료 분석은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의 과학적 4단계에 따라 수행되었고,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의 본질적 구조를 기본으로 5개 구성요소와 이에 따르는 하위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Giorgi & Giorgi, 2008).
- 이러한 하위요소들은 현상학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s coding) 기법을 통해 도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의미와 효과내용을 구조화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이 분석되었음.

□ 연구결과

1. 양적 연구

- 본 연구는 1단계(2016년 참여 패널)와 2단계 아동 패널(2019년 참여 패널) 데이터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의 참여 효과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함.
- 아동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수준은 2016년보다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2018~2020년은 이전 연도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다만 음악지식의 경우는 2020년 수준이 2017년보다도 유의하게 높아 참여 5년 차(2020년) 수준이 참여 1년(2016년)과 참여 2년(2017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16	'17	'18	'19	'20
음악지식	3.21(0.56)	3.86(0.66)	4.11(0.62)	4.28(0.57)	4.18(0.63)
음악향유	3.47(0.60)	3.98(0.85)	4.13(0.75)	4.30(0.86)	4.02(0.90)
음악태도	3.35(0.56)	3.87(0.96)	4.16(0.81)	4.27(0.70)	4.09(0.87)
음악활동	2.91(0.36)	3.17(0.87)	3.41(0.88)	3.55(0.97)	3.2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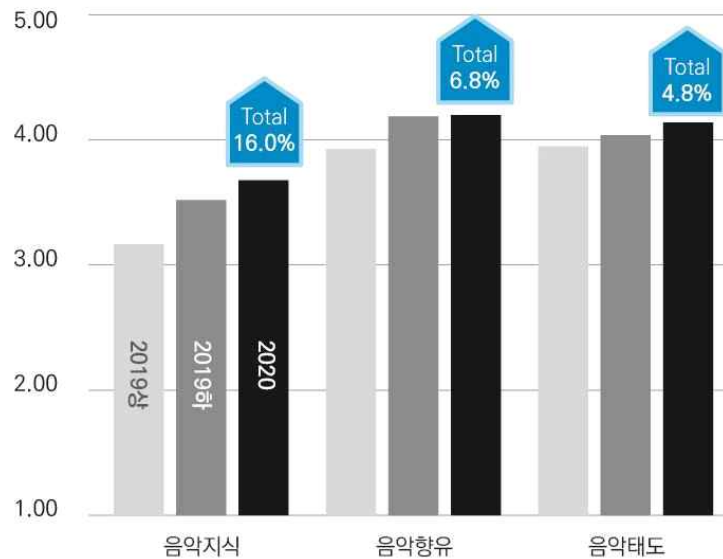


[1단계 패널의 2016~2020년 음악적 성장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2단계 아동 패널의 음악지식은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 2020년에 연차별 유의한 상승세를 보임. 음악향유는 2019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 상승, 이후 2020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음악태도는 2019년과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이후 2020년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함.

	'19상	'19하	'20
음악지식	3.17 (0.99)	3.52 (0.90)	3.68 (0.86)
음악향유	3.93 (0.78)	4.19 (0.80)	4.20 (0.80)
음악태도	3.95 (0.84)	4.04 (0.81)	4.14 (0.75)



[2단계 패널의 2019~2020년 음악적 성장 요인 성장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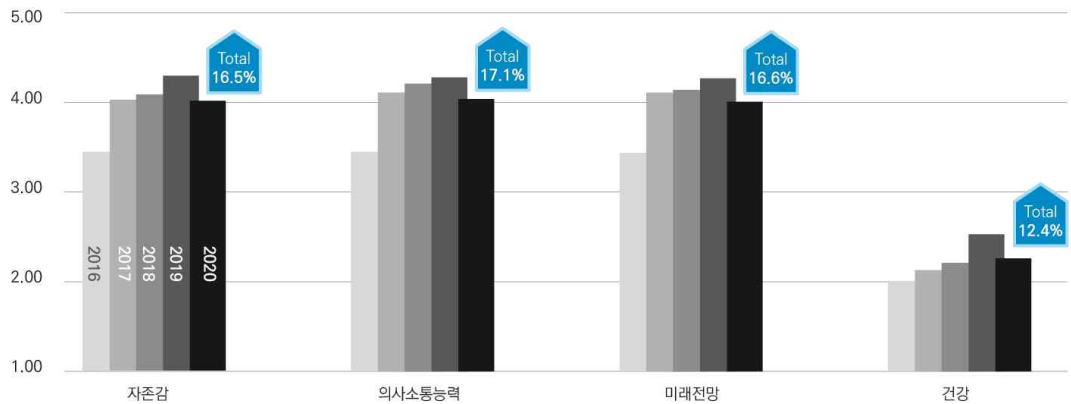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아동의 개인 발달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건강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나타남. 또한 2단계 패널부터 평가 지표에 추가 반영된 행동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도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수준은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2018~2020년은 이전 연도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 요인은 2019년에 2018년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졌음. 이는 음악적 수준 향상에 따른 부담과 음악적 권태와 관련한 오케스트라 활동 요인의 영향 이외에도, 1단계 패널 아동의 대부분이 중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른 학교 생활 변화와 학업 부담 증가와 같은 오케스트라 활동 외 외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됨.

	'16	'17	'18	'19	'20
자존감	3.44(0.64)	4.02(0.62)	4.08(0.77)	4.29(0.82)	4.01(0.81)
의사소통능력	3.45(0.67)	4.11(0.64)	4.21(0.69)	4.28(0.71)	4.04(0.69)
미래전망	3.44(0.55)	4.11(0.87)	4.14(0.69)	4.27(0.72)	4.01(0.88)
건강	2.01(0.91)	2.13(0.97)	2.21(0.97)	2.53(1.06)	2.26(0.89)



[1단계 패널의 2016~2020년 개인 발달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2단계 아동 패널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에 유의하게 향상됨. 행동적 공격성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음.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모두 2019년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세를 보임. 2020년의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2020년의 2단계 패널의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행동적 공격성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상반기, 하반기보다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19상	'19하	'20		'19상	'19하	'20
자존감	3.83(0.81)	3.87(0.86)	4.21(0.74)	건강	1.97(0.94)	2.13(0.97)	1.98(0.89)
의사소통능력	3.82(0.78)	3.79(0.73)	4.04(0.70)	행동적 공격성	2.55(1.07)	2.64(1.14)	2.35(1.00)
미래전망	3.96(0.79)	3.88(0.85)	4.23(0.66)	언어적 공격성	1.72(0.79)	1.90(0.95)	1.64(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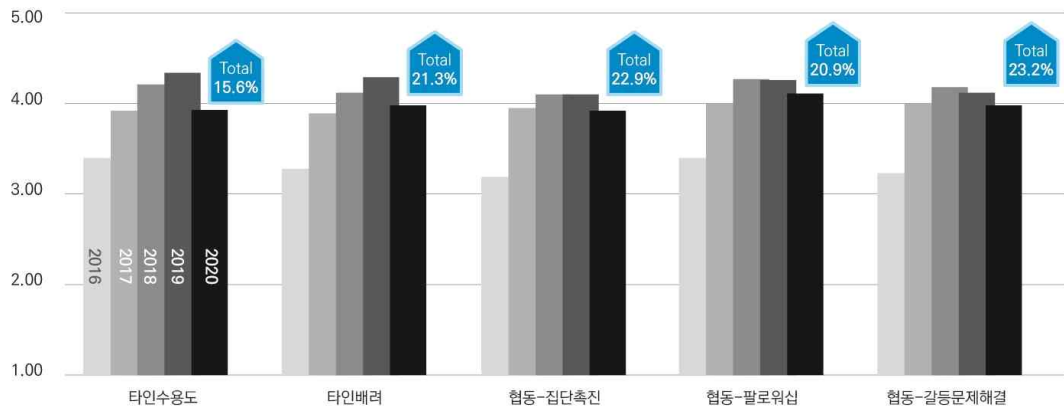


[2단계 패널의 2019~2020년 개인 발달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아동의 인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협동의 팔로워십과 갈등문제해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협동의 집단추진은 1단계 패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타인수용도는 2016년보다 2017년에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2020년의 타인수용도는 2016년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2017년과 2018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2020년의 타인수용도는 2016년보다는 향상되었고, 2017년과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됨. 타인배려, 협동의 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은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성장을 보였고, 2018~2020년은 이전 연도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재화되어 성장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6	'17	'18	'19	'20
타인수용도	3.40(0.64)	3.92(0.82)	4.21(0.73)	4.34(0.68)	3.93(0.91)
타인배려	3.28(0.54)	3.89(0.80)	4.12(0.64)	4.29(0.64)	3.98(0.75)
협동-집단추진	3.19(0.58)	3.95(0.76)	4.10(0.76)	4.10(0.78)	3.92(0.86)
협동-팔로워십	3.40(0.66)	4.00(0.78)	4.27(0.72)	4.26(0.74)	4.11(0.73)
협동-갈등문제해결	3.23(0.70)	4.00(0.77)	4.18(0.70)	4.12(0.86)	3.98(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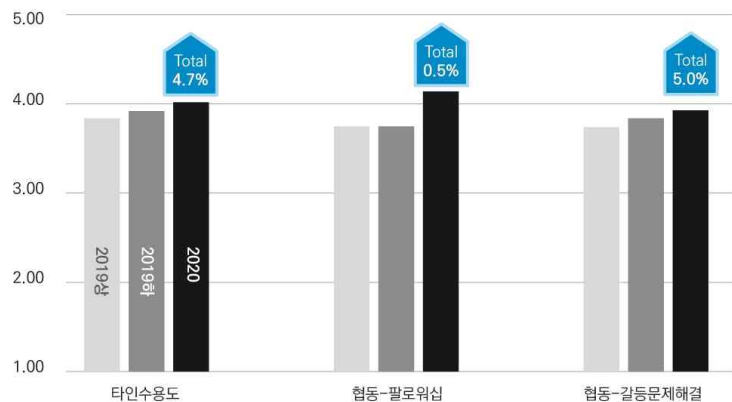


[1단계 패널의 2019~2020년 인적 관계 성장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2단계 아동 패널의 타인 수용도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에 비해 2020년에 한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성장세를 보임. 협동의 팔로워십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에는 유의하게 향상함. 협동의 갈등문제 해결 능력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함.

	'19상	'19하	'20
타인수용도	3.84 (0.84)	3.92 (0.93)	4.02 (0.79)
협동-팔로워십	3.75 (0.82)	3.75 (0.85)	4.14 (0.71)
협동-갈등문제해결	3.74 (0.88)	3.84 (0.93)	3.93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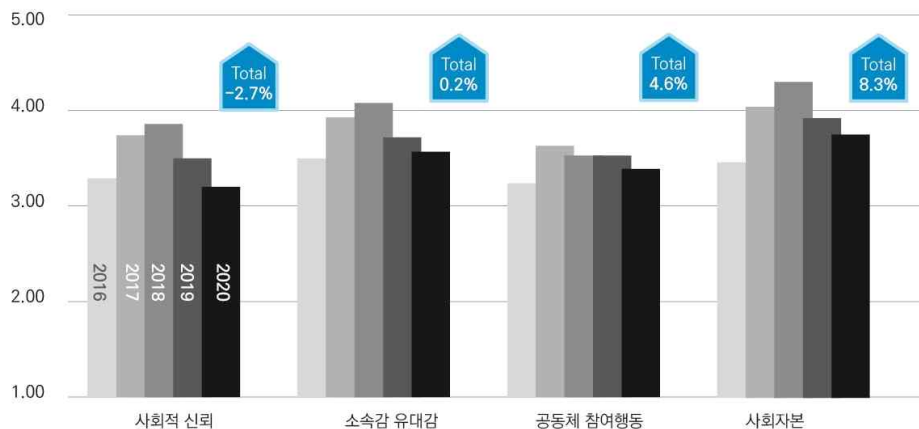
[2단계 패널의 2019~2020년 인적 관계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관련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소속감/유대감은 1단계 패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소속감/유대감과 사회자본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고, 2018~2020년은 이전 연도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재화되어 성장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속감/유대감의 2020년 수준은

2017년과 2018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사회자본은 2020년은 2019년과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2018년보다는 유의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이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러나 2020년의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여 1년차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됨.

	'16	'17	'18	'19	'20
사회적신뢰	3.29(0.61)	3.74(0.77)	3.86(0.90)	3.50(0.83)	3.20(0.70)
소속감/유대감	3.50(0.64)	3.93(0.77)	4.08(0.77)	3.72(0.74)	3.57(0.74)
공동체 참여행동	3.24(0.66)	3.63(0.94)	3.53(0.97)	3.53(0.94)	3.39(0.79)
사회자본	3.47(0.67)	4.05(0.87)	4.31(0.75)	3.93(0.97)	3.76(1.03)



[1단계 패널의 2016~2020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2단계 아동 패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2019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유의하게 높았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에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감소한 2020년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남.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하였고, 2020년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사회자본은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에도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함.

	'19상	'19하	'20
사회적 신뢰	3.79 (0.84)	4.09 (0.93)	3.95 (0.77)
공동체 참여 행동	3.35 (0.85)	3.59 (0.86)	3.57 (0.77)
사회 자본	3.81 (1.02)	3.99 (0.91)	4.24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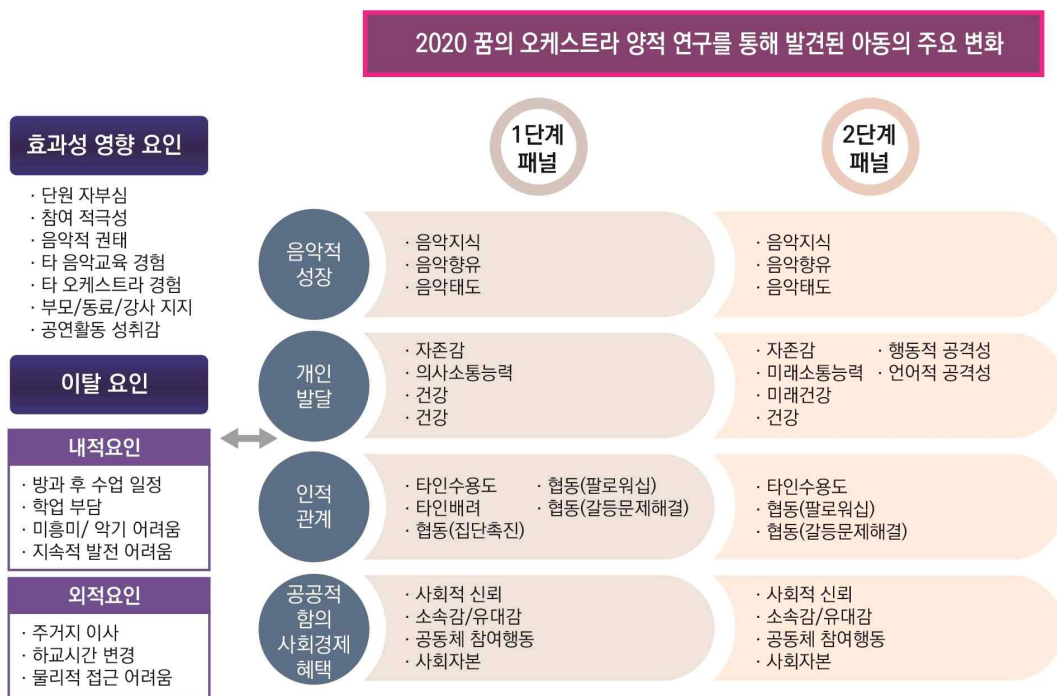


[2단계 패널의 2019~2020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요인 성장비율]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해 도식화한 것임

- 1단계 패널 아동과 2단계 패널 아동 효과성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의미 있는 성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검증됨. 특히 참여 1년 이후부터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었던 1단계 패널과 달리, 참여 이전 사전 조사를 통해 변화의 기저점(baseline)의 데이터를 구축한 2단계 패널 데이터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참여 이전보다 의미 있는 성장이 있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음.
-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효과성의 변화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참여 1~3년차인 2016~2019년에는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에 걸쳐 취약계층보다 일반계층의 평균 수준이 높으나, 4년차 이후에는 집단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 2020년도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와 사회자본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자부심, 오케스트라 참여 적극성, 음악적 권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공연활동의 성취감,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의 타 음악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 부모, 동료, 교육강사 지지가 효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됨.
- 보호자 패널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 보호자 패널에서는 평가 시기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의 수준이 다른 차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2단계 보호자 패널의 경우는 평가 시기에 따라 가족 응집력, 돌봄비용,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검증됨.
- 아동의 음악적 지식, 연주 역량, 협동심에 대한 교육 강사의 평가 결과, 1단계 패널 아동

과 2단계 패널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성장 추세를 나타냄. 또한 교육강사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로 지역 사회 예술활동의 기회가 되었다는 인식이 평가 시기에 따라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양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아동의 주요 변화]

2. 질적 연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질적 연구는 총 3가지 연구방법인 면접조사, 참여관찰, 마음 기록지 텍스트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이탈아동의 면접조사인 부정적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음.
- 질적 연구에 참여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함.
- 개인적 성장의 경우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공통적으로 단원의 자신감 향상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음. 단원과 보호자는 공통적으로 인내심 증진에 주목하였으나 이후 연구참여자 그룹 별로 각각 주요하게 보고한 단원들의 개인적 성장의 결과는 조금씩 다름. 단원들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과 성격의 변화에 주목한 행복함과 즐거움, 좋은 습관, 밝아진 성격, 독립심 증진을 주요한 변화로 보았음. 보호자의 경우 유사하긴 하나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 책임감 신장, 자발적 학습 태도로 의미단위가 분석되었음. 교육강사와 음

악감독은 단원들의 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적극적 태도 발현을 보았으며, 행정담당자는 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수업적응과 자율성을 단원들의 주요한 변화로 보았음.

- 음악적 성장의 경우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모두 단원의 악기 실력의 향상을 주요한 변화로 보고 있음이 분석되었음. 행정담당자를 제외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이에 더해 공통적으로 음악적 지식향상에 주목하였으며, 단원과 보호자는 추가적으로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음악에 대한 관심을 주요한 변화로 보았음. 특징적인 것은 어른들은 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지식과 기술로만 봤다면 단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다채롭게 풀이하고 있었는데, 이는 악기에 대한 애착 형성, 합주의 즐거움, 예술의 내재화로 도출되었음.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합주의 즐거움을 음악적 성장으로 보지 않고 오케스트라 단원활동의 촉진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점의 차이를 드러냄.
- 인적 상호작용으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 모두 단원의 사회성 증진과 친화력 및 유대감 증진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음. 다만 단원들만이 추가적으로 자신의 인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해 가족 간 음악적 교감과 단원 간 피어티칭을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공공의 의미는 단원과 행정담당자 간 일치하는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공공의식 함양이었음. 보호자와 교육강사를 포함한 음악감독의 경우, 공공의 의미로서 해석가능한 단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단위가 도출되지 않았음. 다만 단원들의 경우는 공공의식 함양을 포함하여 오케스트라 내 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증언함으로써 이들의 공동체적 성숙과 발전과정을 의미화하였음.
- 사회경제적 혜택은 4개 연구참여자 그룹 간 단 하나의 의미단위도 공유되지 않은 독특한 특성을 보임. 단원의 경우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일상화, 편안해지는 쉼터, 자기 주변인의 클래식에 대한 관심 증대를 들었다면, 보호자는 음악교육의 경제적 부담 감소,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단원들의 주요 사회경제적 혜택에 속하는 변화로 보았음. 이에 반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단원들의 문화자본 형성을,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주요한 의미단위로 도출되었음.
- 오케스트라 활동에 있어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모든 연구참여자 그룹이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공통적으로 꼽았음. 단원과 보호자는 추가적인 공통된 요인으로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와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을 증언한 반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합주의 즐거움이 이들 단원의 참여촉진 요인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됨.
-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모든 연구참여자 그룹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요인은 불편한 교통수단이었음. 단원과 학부모의 일치된 의견은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었으며, 단원과 행정담당자와 코디의 공통된 의견은 악기 흥미의 감소였음. 단원

들의 경우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실수의 두려움, 자유시간의 제약, 단원 간 연령대 격차가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과 코디네이터의 유사한 의견이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은 단원과 어른들 간의 관점의 격차를 재차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의견 또한 각 연구참여자 그룹 별로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음. 유일하게 보호자와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홍보였음. 단원의 경우는 교통수단 개선, 연습악기 지원, 연습공간 개선, 휴식시간 증대, 간식메뉴의 다양화, 오케스트라단 내 악기의 종류 확대,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으로 분석되었음. 보호자의 경우는 비대면 수업이 아닌 소규모 대면교육으로의 전환, 현장학습 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내용 개선이 도출되었음.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홍보 외에 온라인 교육 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 오케스트라 자립의 구조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거점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노력, 오케스트라 자립 준비과정의 개선,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킹 지원이 현재 시급한 개선 방안으로 분석되었음.
- 종합적으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사이에 유일하게 일치하는 단원의 변화는 자신감 증가(행정담당자 제외), 악기실력의 향상, 사회성 증진, 친화력 및 유대감 증진으로 축약됨. 다만 각 연구참여자 그룹별 도출된 의미단위가 단원들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 그룹은 보호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통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돕는 촉진요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하기, 장애요인으로는 불편한 교통수단이 있었으며, 대안 및 개선 방안은 단원은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에 집중하여 증언하였다면, 보호자는 다양한 체험확대를,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는 오케스트라의 자립과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여 증언한 것으로 분석됨.

[질적 연구 종합 분석결과: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범주	분석된 의미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개인적 성장	자신감 향상			-
	인내심 증진		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적극적 태도 발현	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수업적응과 자율성
	행복감과 즐거움 좋은 습관 밝아진 성격 독립심 증진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 책임감 신장 자발적 학습 태도		
음악적 성장	악기 실력의 향상			-
	음악적 지식 향상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음악에 대한 관심			
	악기에 대한 애착 형성 합주의 즐거움 예술의 내재화	-		
인적 상호작용	사회성 증진 친화력 및 유대감 증진			-
	가족 간 음악적 교감 단원 간 피어티칭	-	-	
공공의 의미	공공의식 함양*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공동체 의식 함양	-	-	공공의식 함양*
사회경제적 혜택	오케스트라의 일상화 편안해지는 쉼터 주변인의 클래식 관심	음악교육 경제부담 감소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문화 자본 형성	지역 공동체로서 모임
촉진요인	친구들과 함께하기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합주의 재미와 즐거움	-
	강사의 관심과 애정 캠프: 특별한 추억	-	-	-
장애요인	불편한 교통수단			악기 흥미 감소*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	
	실수의 두려움 자유시간의 제약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악기 흥미 감소*	-		
대안 및 개선 방안	교통수단 개선 연습악기 지원 연습공간 개선 휴식시간 증대 간식 메뉴의 다양화 악기의 종류 확대 수준별 맞춤형 학습	꿈의 오케스트라 홍보		진흥원의 교류 노력 자립 준비과정의 개선 코디네이터 네트워킹
		소규모 대면교육 현장학습 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 내용 개선	온라인 교육방안 강구 자립의 구조적 개선 행정적 지원	

*: 단원과 행정담당자 간 공통의견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종합결과]



□ 제언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진흥원의 역할

- 거점기관의 전문적 역량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MEL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 거점기관 자립에 대한 전략 방안 마련
- 기관 담당자(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간의 교류 환경 조성
- 취약가정 단원들을 위한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

[단원 지원 측면]

-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발달 수준 차이에 대한 고려와 지속적 참여 유도
- 거점별로 단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
- 내재화 단계의 단원 및 지속 단원, 취약가정 단원들의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교육 운영 측면]

- 단원들의 공연활동 성취감 고취 방안 마련
- 단원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수업 운영 방안 모색
- 단원들의 악기 실력 및 연령대를 고려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단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함께와 같이’에 대한 전략적 확장

[비대면 교육 측면]

- 비대면 방식을 고려한 섬세한 운영 방안 마련
-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시 취약가정 단원 및 학습속도가 늦은 참여단원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

[교육 환경 측면]

- 연습공간의 개선과 교육강사의 확충
- 안전한 음악적 교육 및 치유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꿈의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40년 간 빈곤, 폭력, 마약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지역 거주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빈곤 탈피, 사회 인력 개발의 효과를 입증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의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감동과 영향을 미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상호학습’과 ‘협력’을 중심에 두는 오케스트라 협주 활동으로, 긍정적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0년 8개소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470명의 아동이 참여한 사업에서 2020년 11월 기준, 2,800여명의 아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음. 올해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을 맞이하였음.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음. 2011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사업평가, 2012년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효과성 평가, 2013년 거점기관의 평가 컨설팅, 2014년 사업 효과성 평가와 공연효과성 평가, 2015년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입문단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와 사업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정책적인 지향점이나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임영식, 김인설, 신혜선, 임승희, 정경은, 2018).
- 이들 연구는 대부분이 특정 시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며,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었음. 이러한 횡단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들은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속화될 수 있는 증거기반 연구들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단기간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나 만족도를 중점으로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가 가지는 장기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임영식 외, 2018).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6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시작하였음. 국내에서는 다양한 패널연구들이 존재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연구는 처음 시도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수행된 2016~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일부 측정도구(음악적 성장 등)를 개발하

였으며, 개발한 척도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종단연구를 시도하였음. 그리고 효과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데, 자기보고방식과 함께 타액을 활용한 생리적 측정과 심층 인터뷰 및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음.

- 2016~2018년 문화예술교육 분야 최초의 종단연구 설계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 양적 패널의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동의 변화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2019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2단계 패널 참여의 추가적인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음.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는 2019년부터 시작된 2단계 패널의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 2020년 연구를 통해 1단계 패널들의 변화와 2단계 패널들의 변화들을 확인하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고 사업의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2020년 연구체계도

2. 연구 내용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분석 및 패널 분석방법 리뷰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및 실태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 주요 연구 결과
 - 아동·청소년 패널 연구 분석방법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대상 변화 연구 조사
 - 참여 아동 대상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 등 다각적 변화 연구
 - 참여 아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정, 시설(지역사회), 교육자 요인 등 분석
 - 참여 아동 개인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관계자 등) 등에 미치는 영향성 조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도탈락의 원인 규명
- 조사결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안
 - 2020년 조사결과와 기존 조사결과 비교 분석
 - 조사결과를 토대로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개인, 가정, 학교에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와 의의, 발전방안 등 정책적 제언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 변화 외,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 발전방안 제안

Ⅱ. 문헌고찰

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현황 및 실태
2.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주요 연구 결과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 연구방법
4. 질적 종단연구 연구방법

Ⅱ. 문헌 고찰

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및 실태

1.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즐겁게 악기를 배우고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예술을 통해 행복한 아동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임.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s://www.arte.or.kr/orchestrak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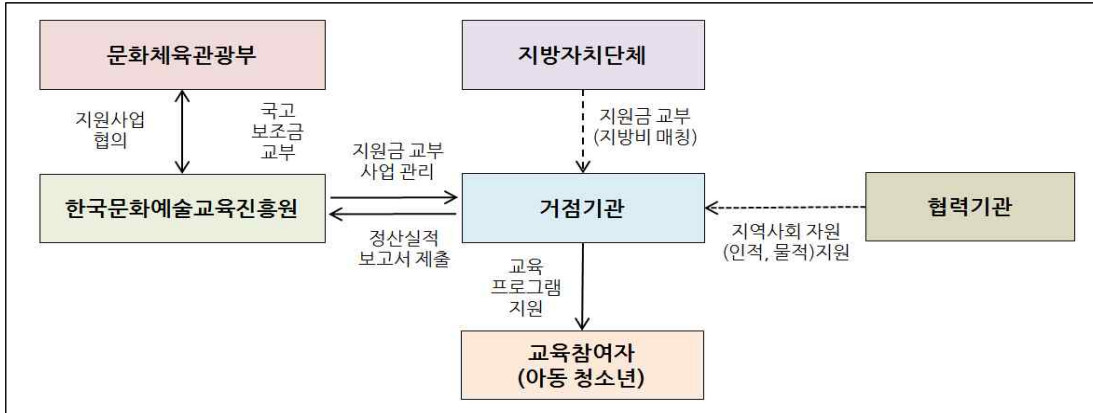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위한’이 아닌 ‘음악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이 공동체로 이루어진 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로 유대감을 느끼고, 예술적 경험을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감수성과 창의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적 기반의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기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음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변화 혁신을 추구함. 김현정(2010)은 음악 교육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창조성과 독창성, 그리고 폭넓은 감성과 상상력 등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왔다고 주장함. 이러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상호작용, 만남의 공동체를 통하여 점진적 사회 변화 혁신을 추구하고자 함. 이에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함.
 -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60% 이상 구성 의무화, 70% 권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관리함. 또한 사회적, 가정적 돌봄이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의 다면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
 - 행정주체와 교육주체의 공동협력을 통해 거점기관의 성장을 도모함. 이를 위해 상호 간

의 역할에 대한 개방적인 이해와 상시적인 역할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추구함. 또한 교육주체의 뚜렷한 교육철학, 목표의식, 열정과 의지를 기반으로 실행주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조율과정을 통해 공동운영체제를 갖추.

- 아동의 음악적 성취 및 아동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함. 이를 위해 엘 시스템아 교육 취지와 방향을 이해하고 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지닌 오케스트라 교육 관련 전문가를 선발, 국내·외 연수를 통해 엘 시스템아 교육을 이끌어 갈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엘 시스템아 교육 철학 및 교수법을 연구·개발하고 보급 활성화에 일조함.
- 지역 특성에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격과 일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생성하고 성장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 지역 내에 대표 문화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안의 예술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여러 지역도시를 거점으로 형성된 단위사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간 교류 및 문화자원의 효율적 공유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함.
-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다면적 성장 역량을 강화시키고, 함께하는 연주와 공연을 통해 음악적 성취, 상호학습과 리더십, 즐거움을 통한 기회가 소외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변화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1.2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체계

-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거점기관의 주관 하에 광역·기초단체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주체와 교육주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거점기관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음.



〈그림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체계

- 꿈의 오케스트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별 거점기관과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거점기관이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능력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적인 엘 시스템아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 공공기관임.
-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의 역할은 교육운영, 행정운영, 지속가능성 확보의 역할을 수행함.
 - 교육운영은 교육인력 확보 및 관리, 아동단원 담당 및 행동관리,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교육활동을 관리하는 것임.
 - 행정운영은 사업운영 조직체계 구성, 교육공간 및 악기 확보, 학부모 지원하는 것임.
 - 지속가능성 확보는 중장기발전계획 도출 및 실행, 미래재원 확보, 사업수행 조직의 지속성 확보, 외부 후원조직의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역할을 의미함.
- 예비 거점기관은 신규·연속지원 거점기관(3년)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행정, 교육, 운영 주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실제 사업실행을 위한 준비단계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내 사업운영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이 되기 위한 운영전략 수립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 예비거점 공모 대상은 지자체 협력을 받은 국·공립문화기반시설(단체) 또는 공공성 활동이 가능한 시설(단체)임.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인지에 대한 여부 및 거점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역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됨.
- 선발된 예비지원 거점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기관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 거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음악대학, 음악교육단체, 아동교육단체,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등의 교육인프라,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등의 아동복지 인프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꿈의 오케스트라 기관으로 성장 하고 있음.

- 거점 지역에서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소외아동·청소년의 복지적 음악교육 지향을 위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수행한 거점기관으로서 선도기관인 지역협력 거점기관, 7년차 이상은 자립 거점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기관 로드맵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기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거점 간 네트워크와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거점기관 간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관과 참여인력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거점기관의 자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돕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구축 및 자립운영 지원을 하고 있음.

〈표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 지원체계

구분	예비 거점기관	신규·연속거점기관	지역협력 거점기관	자립 거점기관
기간	3개월 (인큐베이팅)	1년차(신규), 2~3년차(연속)	4~6년차	7년차 이상
기관수	8	9	13	19
지원 규모	국고	최소 100백만원 ~ 최대 180백만원	최소 6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30백만원~50백만원
지원 형태		자부담 매칭 (1년/10%, 2년/20%, 3년/30%)	자체 예산 매칭(50%)에 따라 지원 규모 상이	자부담(운영비 전액), 국고(기획사업 지원 및 간접지원)
목표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이 되기 위한 운영전략 수립	지역 특성에 적합 한 꿈의 오케스트 라 기관으로 성장	지역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 안정화 및 정착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서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구축 및 자립운 영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1.3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재단과 교향악단 협력모델을 통한 8개 지원 거점주관 단체 선정 및 기본 음악소양교육 등 사업을 운영하고, 공공·민간 영역의 소외아동·청소년 대상 자생적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행으로 시작함.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1년 9개 거점기관에서 80명의 교육 인력과 470명의 아동이 참여하던 사업에서 2020년 예비거점을 제외한 47개의 거점기관에서 500여명의 교육인력과 2,800여명의 아동

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임. 본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1년 약 10억에서 2020년 약 40억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음.

〈표 II-2〉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590	1,014	3,608	4,608	4,958	4,958	4,958	4,958	4,458	4,550	4,000
지원 거점기관	8	9	19	30	35	39	42	43	43	46	47
자립 거점기관	-	-	-	-	-	-	-	3	11	24	28
수혜아동	470	425	979	1,521	1,920	2,111	2,421	2,206	2,439	2,489	2,800
교육인력	80	98	191	325	365	375	427	525	544	587	500

주) 2020년 수혜아동 수 교육인력 수는 2020년 3분기 실적에 해당함.

- 2020년 기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점기관 현황 및 전국 47개 기관은 서울 4개, 경기 11개, 강원 7개, 전북 5개, 경남 4개, 충남과 경북은 각 3개, 충북과 전남, 광주, 대구 각 2개, 세종, 부산 지역은 각 1개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II-3〉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별 거점기관 수 (총 47개소, 2020년 기준)

지역	기관수	지역	기관수
서울	4	광주	2
경기	11	경남	4
세종	1	부산	1
충북	2	대구	2
충남	3	경북	3
전북	5	강원	7
전남	2	총	47

〈표 II-4〉 꿈의 오케스트라 전국 지원규모 거점기관 현황(2020, 2월 기준)

구분	기수	기관명
자립거점	1기	• 부천문화재단 • 익산문화재단
		• 춘천시문화재단
자립거점	2기	• 군포문화재단 • 목표문화재단
		• 무안군청/관광문화과 • 부안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성동문화재단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원주문화재단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자립거점	3기	• 강릉문화원 • 광주남구문예회관
		• 김포시청소년재단 • 성북문화재단
		• 수성문화재단 • 아산문화재단
		• 안산문화재단 • 안양문화예술재단
		• 장수문화원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창원문화재단 • 평택청소년문화센터
		• 포항문화재단
자립거점	4기	• 구로문화재단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오산문화재단 • 통영국제음악재단(마포문화재단 삭제)
지역협력 6년차/2개소	5기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주지회 •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지역협력 5년차/6개소	6기	• 세종문화원 • 용인문화재단
		• 인제군문화재단 • 창녕군청소년수련관
		• 충남문화재단 • 평창문화원
지역협력 4년차/3개소	7기	• 고창문화원 • 부산동구문화원
		• 영월문화재단
연속지원 3년차/3개소	8기	• 남양주시공사 • 하남문화재단
		• 충주중원문화재단
연속지원 2년차/3개소	9기	• 중구문화재단 • 소촌아트팩토리
		• 김해문화재단김해문화의전당
신규지원	10기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무주청소년수련관
예비거점	예비	• 공모예정

*출처: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내 사업소개에서 발췌

1.4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1.4.1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체계

- 2020년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사업을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기간 내 정상적인 교육 일정 운영과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정기교육의 대체 수업(예, 원격수업) 방안으로써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음.
- 특히 비대면 온라인 시대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통해 연결과 유대감,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자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0년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동향 리포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완재로 존재하던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학습자와 매개자 등의 상호 간 연결을 통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자 동기로 기능하는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핵심,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함.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방향 및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 중 신규·연속·지역협력 거점기관에서는 4월 3주부터 5월 2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교육을 시범 운영 지원하였으며, 시범운영 희망 거점에 한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침에 부합하는 ‘온라인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 기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희망 거점별 운영 가능성 검토 후 온라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며, 교육 결손에 대비하여 사전 교육 환경 파악 및 대응방안을 필수로 준비하고 있음.

〈표 II-5〉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시범 운영 체계



1.4.2 비대면 교육 유형 운영 형태

- 2020년 기준 꿈의 오케스트라 비대면 교육(원격수업) 유형으로는 콘텐츠 활용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이 포함되며,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II-6〉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수업도구 및 운영형식

구 분	운영 형태
콘텐츠 활용 교육 (영상 사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형) 참여자는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육강사는 학습 진도 확인 및 피드백 • (강의+활동형)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 수업도구(안): 네이버 밴드, 유튜브 비공개 계정 등
실시간 화상교육 (쌍방향 스트리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기관에 교육강사 출강, 교육활동 추진. 실시간 원격 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육강사 참여자 간 화상 수업을 하고,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실시 ※수업도구(안): 네이버 라인 워크,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1.4.3 비대면 관련 거점기관 운영 현황

- 2020년 기준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중 21개의 기관이 비대면 교육(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오케스트라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한 파트별 수업과 강사들의 실시간 교육을 통하여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표 II-7〉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거점기관 운영 현황

구분	기수	지역 1	지역 2	기관명	운영방식
자립거점 10년차/3개소	1기	경기	부천	부천문화재단	비대면
	1기	전북	익산	(재)익산문화관광재단	
	1기	강원	춘천	춘천시문화재단	비대면
자립거점 9년차/8개소	2기	경기	군포	군포문화재단	비대면
	2기	전남	목포	목포문화재단	
	2기	전남	무안	무안희망의오케스트라단 무안군청/관광문화과	
	2기	전북	부안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 부안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비대면
	2기	서울	성동	성동문화재단	
	2기	경북	안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비대면
	2기	강원	원주	원주문화재단	
	2기	충북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자립거점	3기	강원	강릉	강릉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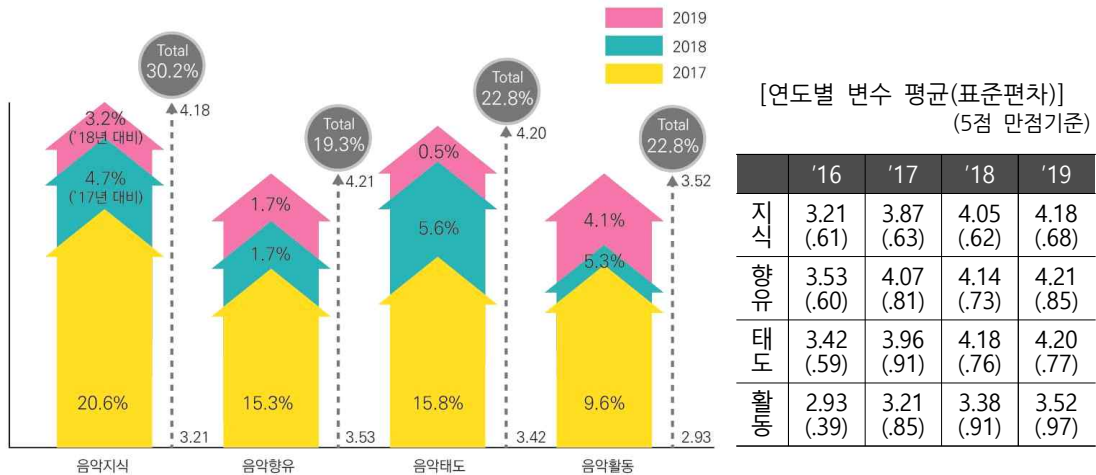
8년차/13개소	3기	광주	남구	광주남구문예회관	
	3기	경기	김포	김포시청소년재단	
	3기	서울	성북	성북문화재단	
	3기	대구	수성	수성문화재단	
	3기	충남	아산	아산문화재단	
	3기	경기	안산	안산문화재단	
	3기	경기	안양	안양문화예술재단	
	3기	전북	장수	장수문화원	
	3기	강원	정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기	경남	창원	창원문화재단	
	3기	경기	평택	평택청소년문화센터	
	3기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	
자립거점 7년차/4개소	4기	서울	구로	구로문화재단	
	4기	경기	연천	연천군시설관리공단	
	4기	경기	오산	오산문화재단	
	4기	경남	통영	통영국제음악재단	
지역협력 6년차/2개소	5기	경북	영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주시회	
	5기	충남	홍성	홍성군청소년수련관	비대면
지역협력 5년차/6개소	6기	세종	조치원	세종문화원	비대면
	6기	경기	용인	용인문화재단	비대면
	6기	강원	인제	인제군문화재단	비대면
	6기	경남	창녕	창녕군청소년수련관	비대면
	6기	충남	공주	충남문화재단	비대면
	6기	강원	평창	평창문화원	비대면
지역협력 4년차/3개소	7기	전북	고창	고창문화원	비대면
	7기	부산	동구	부산동구문화원	비대면
	7기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비대면
연속지원 3년차/3개소	8기	경기	하남	하남문화재단	비대면
	8기	경기	남양주	남양주도시공사	비대면
	8기	충북	충주	충주중원문화재단	비대면
연속지원 2년차/3개소	9기	서울	중구	중구문화재단	비대면
	9기	광주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꿈의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	비대면
	9기	경남	김해	김해문화재단김해문화의전당	비대면
신규지원 1년차/2개소	10기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10기	전북	무주	무주청소년수련관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코로나 19 대비 온라인교육시범 운영안내 내부자료

2.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주요 연구 결과

2.1 아동 효과성 양적 종단 연구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는 2016~2019년 3개년동안 진행된 꿈의 오케스트라 1단계 패널 연구임.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음악적 성장의 모든 구성 차원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에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가 나타났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성장한 수준이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음악적 성장 부분 중 음악지식을 살펴보면, 2016년 3.21점, 2017년 3.87점, 2018년 4.05점, 2019년 4.18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빠르게 용어를 이해하고 악보를 통해 악기 구별, 음의 멜로디를 이해하는 등 음악지식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음악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의 평균 3.53점에서 2017년에는 4.07점, 2018년에는 4.14점, 2019년에는 4.21점의 추세 변화를 보이며 시기에 따른 음악향유의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아동들이 음악적 경험이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일상적 향유로 확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2016~2019년 음악적 성장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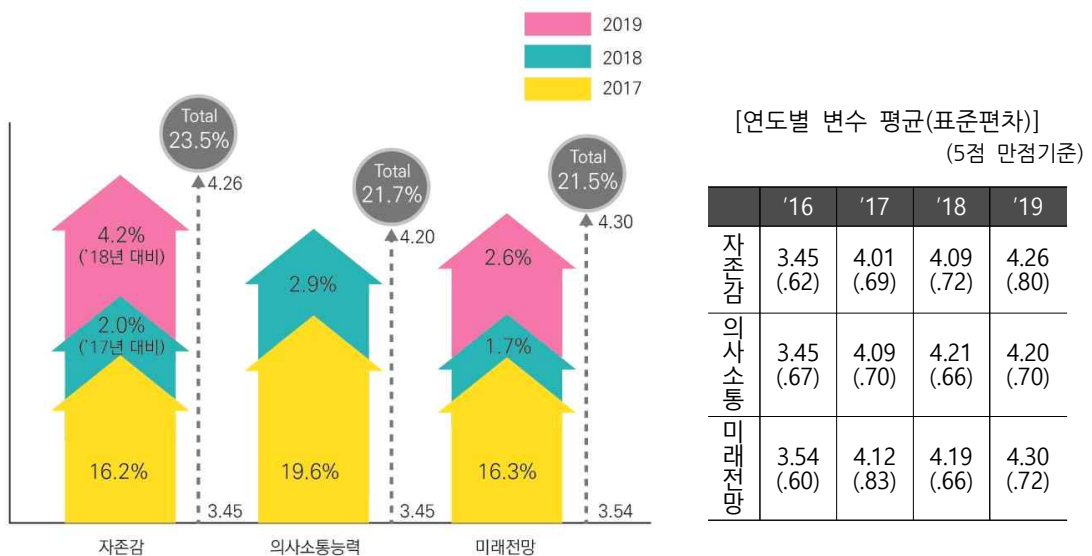
- 음악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조사의 평균 점수는 3.42점에서 2017년 3.96점, 2018년 4.18점, 2019년 4.20점으로 성장세가 나타났음. 참여 아동들이 음악과 오케스트라

라 활동의 즐거움을 배워가며 점차 음악에 대한 자세가 성장하였음을 나타나는 결과임.

- 음악활동 측면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 시기에 따른 평균 점수가 2016년 2.93점, 2017년 3.21점, 2018년 3.38점, 2019년 3.52점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보였음. 이는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음악적 삶의 향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개인적 발달 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개인 수준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에서 2019년의 참여 시기에 따라 아동들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수준이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음.
- 개인적 발달과 관련하여 자존감의 평균 점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6년 3.45점, 2017년 4.01점, 2018년 4.09점, 2019년 4.26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라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 이는 아동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결과임.
-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분석 결과 2016년의 3.45점에서 2017년 4.09점, 2018년 4.21점, 2019년 4.20점으로,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참여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래전망과 관련한 분석 결과, 2016년 평균 3.54점에서 2017년 4.12점, 4.19점, 4.30점으로 년차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과 내적 발달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16~2019년 개인 발달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인적 관계 측면 효과성 지표의 변화를 4년간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적 관계의 주요 평가지표는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협동의 구성차원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력의 차원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의 성장을 확인하였음.
- 인적 관계 부분에서 타인수용도에 대한 분석 결과, 참여 아동의 평균 점수는 2016년 3.36점, 2017년 3.95점, 2018년 4.10점, 2019년 4.30점으로 향상됨.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타인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음.
- 타인배려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점수는 2016년 3.32점, 2017년 3.97점, 2018년 4.05점, 2019년 4.28점으로 향상됨. 이는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변수 평균(표준편차)]

구분	'16	'17	'18	'19	구분	'16	'17	'18	'19
수용도	3.36 (.60)	3.95 (.76)	4.10 (.67)	4.30 (.67)	팔로워십	3.36 (.067)	3.98 (.80)	4.26 (.71)	4.26 (.73)
배려	3.32 (.59)	3.97 (.79)	4.05 (.67)	4.28 (.68)	갈등해결	3.26 (.75)	3.93 (.75)	4.17 (.70)	4.15 (.82)
집단촉진	3.19 (.63)	3.95 (.76)	4.13 (.74)	4.07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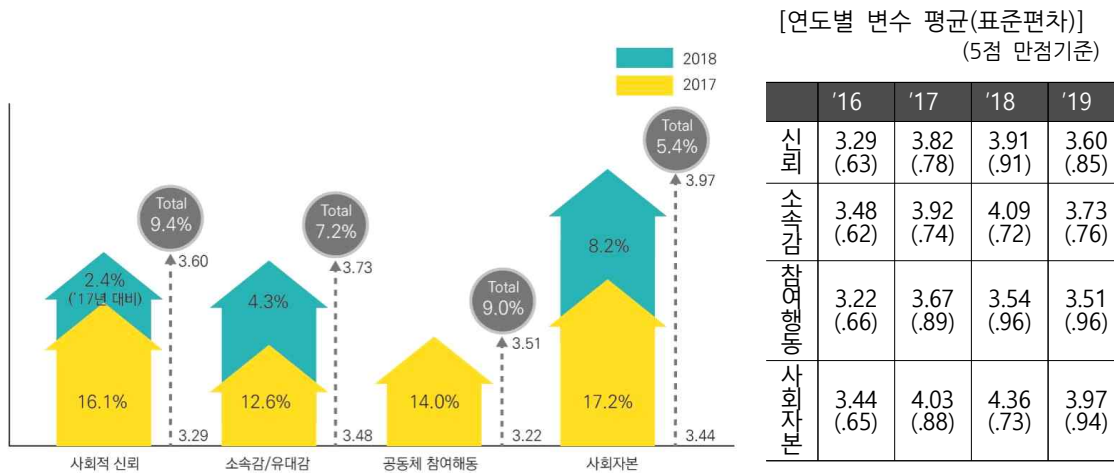
[2016~2019년 인적 관계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한 아동들의 협동심의 구성요인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능력의 향상에 대해 시기별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 축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6년도의 평균 점수는 3.19점에서 2017년 3.95점, 2018년 4.13점, 2019년 4.07점으로 나타나 아동들이 집단의 구성원들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팔로워십에 대한 분석결과, 2016년의 평균 점수는 3.36점, 2017년 3.98점, 2018년 4.26점, 2019년 4.26점으로 향상된 수준을 볼 수 있음.
 - 갈등문제 해결능력에서는 2016년 3.26점, 2017년 3.93점, 2018년 4.17점, 2019년 4.15점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의 효과성 분석에서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 아동에게 유의한 수준의 성장을 확인함.
 - 공공적 함의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분석결과, 2016년 3.29점, 2017년 3.82점, 2018년 3.91점, 2019년 3.60점으로 나타남.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주변사람, 학교,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음.
 - 소속감 및 유대감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19년의 평균 점수는 3.48점, 3.92점, 4.09점, 3.73점으로 향상됨. 이는 지역사회 및 준거집단에서 아동들의 애착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2016~2019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공동체 참여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3.22점, 2017년 3.67점, 2018년 3.5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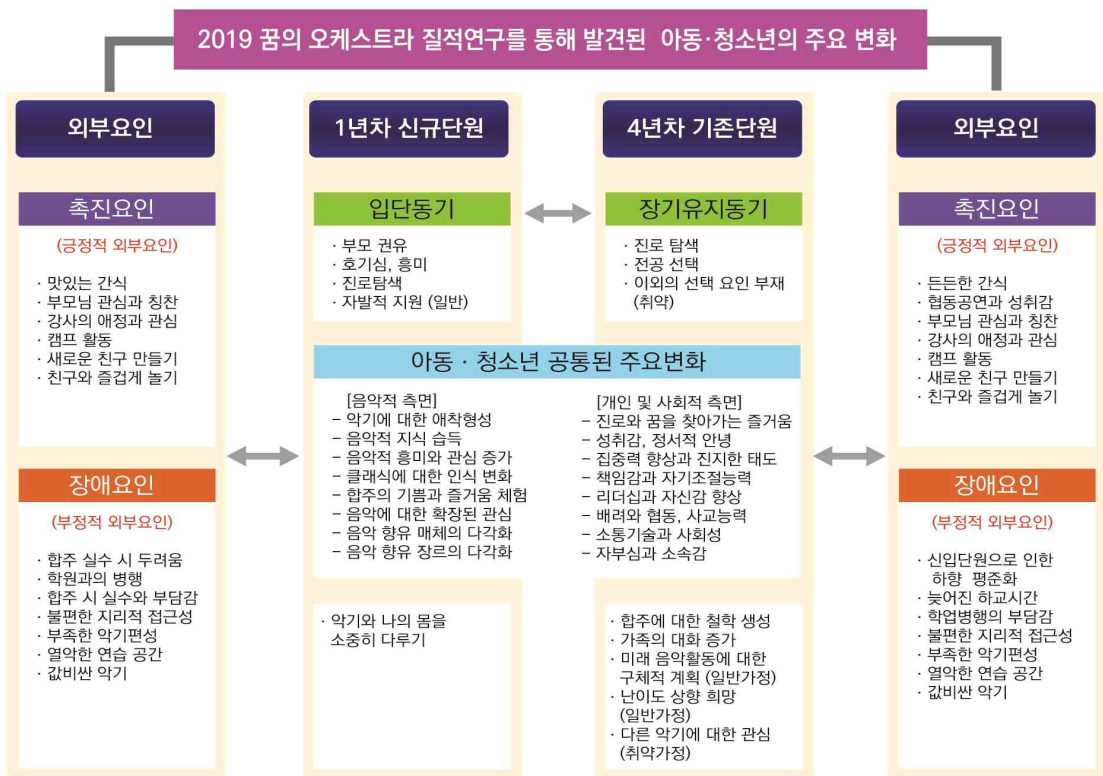
2019년 3.51점으로 변화를 보임.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과 봉사활동, 기부활동, 환경보호활동 등과 같은 공동체 참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냄.

- 사회경제적 혜택의 측면에서 사회자본과 관련한 분석 결과, 2016년 3.44점, 2017년 4.03점, 2018년 4.36점, 2019년 3.97점으로 향상됨.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 고민을 나누는 친구, 가깝게 지내는 친척 등의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냄.
-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기간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참여 아동들의 효과성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참여기간에 따라 음악지식과 음악향유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음악지식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 집단에서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였으며, 음악향유는 참여기간이 1년과 2년보다 3년 집단에서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향유하는 태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개인 발달 영역에서는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 3년, 4년 집단의 자존감 수준이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과 4년 집단이, 미래전망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과 4년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개인 발달 영역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함.
 - 인적 관계 영역에서는 참여기간에 따른 타인 배려, 협동 능력의 차이가 유의하였음. 타인 배려에 있어서는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과 4년 집단이, 협동의 집단축진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 팔로워십은 1년보다 2년, 3년과 4년 집단이, 갈등문제 해결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 집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1년 단기적으로 참여한 아동보다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한 아동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아동의 단원 자부심, 참여 적극성, 음악적 권태, 타 음악교육 및 오케스트라 경험, 부모, 동료와 교육강사의 지지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공연 성취감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보호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가치 지각수준에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각수준은 2016년과 2017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의한 변화 수준은 관찰되지 않음.
- 교육강사의 참여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아동의 음악지식, 연주 역량과 협동심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걸쳐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향상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있었으며, 향상된 수준이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2 아동 효과성 질적 중단 연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참여기간,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으로 판단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즐거움, ②성취감, 정서적 안녕, ③집중력 향상과 진지한 태도, ④책임감과 자기조절능력, ⑤음악적 지식습득, ⑥음악적 흥미와 관심 증가, ⑦클래식에 대한 인식 변화, ⑧합주의 기쁨과 즐거움 체험, ⑨악기에 대한 애착 형성, ⑩리더십과 자신감 향상, ⑪배려와 협동, 사교능력, ⑫소통기술과 사회성, ⑬자부심과 소속감, ⑭음악에 대한 확장된 관심, ⑮음악향유 매체의 다각화, ⑯음악향유 장르의 다각화로 나타남.
- 신규단원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공통된 효과는 개인적 성장(인지 및 정서발달)과 음악적 성장(미적 경험의 체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으로 보고됨.
- 4년차 단원의 경우, 음악적 성장이 단순한 미적 경험의 체험이 아닌 미적경험의 내재화로 발전되어 체화됨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신규단원의 지속적 영입으로 인한 하향평준화로 지루함, 악기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음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함.
- 4년차 단원의 지속 이유에 대해 일반과 취약가정의 아동의 차이점은 일반가정 아동은 전공 선택과 개인적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이유로 답한 반면, 취약가정 아동은 딱히 다른 대안적 선택이 없는 점과 전공 선택을 이유로 들었으나, 전공 유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드러냈음.
- 아동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악기체험 증가, 악기구성의 확충, 맛있고 든든한 간식, 연습시간 확보를 위한 개인악기 지원, 연습공간의 개선으로 분석되었음.
-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언급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인적 성장의 경우 바르게 행동하기,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언급하였음. 음악적 성장으로는 악기실력의 향상을 가장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진흥원의 적극적 교류노력, 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단원의 실력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개인악기 지원책 마련, 지원 가능한 취약가정의 기준 확대로 수렴됨.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교육강사들이 지각하는 아동들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요인은 다음과 같음.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신감 신장, 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행동과 태도의 성숙, 집중력과 성실함, 책임감의 주요 요인이 도출됨.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 방안은 진로를 결정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진흥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 예산 책정, 강사의 충원, 참여 아동의 연령 제고, 양질의 악보 공급과 아카이빙 등으로 제시됨. 4년차에 접어든 경우, 악기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아동들이 늘어감에 따라 꿈의 오케스트라 이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강사들의 고민이 늘어가는 것으로 확인됨.
- 보호자 FGI를 통해 나타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 요인에서 인지와 정서 발달 측면에서 규명됨. 세부적으로 꿈을 발견 또는 찾아가는 과정 경험, 자신감 및 자부심 신장, 책임감 신장, 자발적 노력의 태도, 적극성, 독립성 체득, 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마음의 안정과 여유 요인들이 아동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의 발달 요인으로 요약됨.
- 보호자가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음악적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 자녀의 음악적 성장 관련내용 안내, 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지원, 차량운행,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원 선발,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에 대한 교육강사의 태도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교육강사와 마찬가지로 4년차 프로그램에 참여 단원들의 보호자들은 음악가의 꿈을 갖게 된 자녀를 위한 후속 지원책 필요를 공통적으로 피력하였음.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 연구방법

- 패널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반복 측정을 실시하는 연구 방법으로,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외생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현상의 변화 또는 어떠한 자극의 장기적 효과나 누적 효과를 검증하기에 효과적인 연구 방법임.
- 패널 연구의 특성상, 패널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연구방법으로 우수성이 높아, 아동 및 청소년을 패널로 구성하고 이들의 변화와 관련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음.
-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축된 대표적인 패널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로,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널을 구축함.
- 패널은 2018년 기준 초4, 중1 각 2,500여명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자료는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을 이용한 개별면접 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됨.
- 조사는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표본 대체가 없는 동일 표본설계 방식으로 표본 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는 데이터 가중치를 통해 보정함.
- 다문화 청소년 패널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다문화 청소년 패널은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로 조사 대상을 선정함.
- 자료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이용한 개별 면접으로 이용해 수집되며, 청소년은 한국어, 어머니는 총 9개 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조사 문항 중 선택 가능함.
- 2011년 구축된 패널 대상을 후기 청소년이 되는 2025년까지 추적조사 설계.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은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가치관과 의식 변화, 학업중단 후 이행 경로 파악을 위한 종단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구축됨.
- 패널은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으로 구축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방식을 통한 개별면접과 기관 접촉을 통한 집단면접 조사 방식을 병행함.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은 조사 대상 패널 구축과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집단 패널을 설계함.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에 대한 연구 보고서(윤철경 외, 2015)에서 자료는 기술적 통계분석

- 을 통한 측정 시기별 변화와 비교 패널과 비교를 통해 분석됨. 또한 리커트 척도형의 측정 문항은 t검증 또는 분산분석을 이용한 측정 시기 간 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함.
-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청소년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분석과 제공을 통해 교육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패널은 2005년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로 6,908명을 대상으로 구축됨.
 - 자료는 패널 대상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에 기반한 우편 및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고, 경우에 따라 개인 접촉을 통한 우편 및 전화 조사가 병행됨. 그러나 패널이 대학 진학 이후 시기에는 학교 기반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면접조사(CAPI, TAPE), 전화, 인터넷, 모바일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패널 모형은 2005년 구축된 데이터를 2020년까지 추적조사 하는 것으로 설계됨.
 -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 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구축됨.
 - 패널은 2008년 4~7월 출생 신생아 2,150명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을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됨.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이 적용되었음
 -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연구보고서(김은설 외, 2019)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 변인을 집단 간 요인으로 하는 평균차이 분석, 변수 간 관계성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검증의 분석방법이 적용됨.
 - 국내에서 구축된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다수의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주목한 다양한 관점의 패널 연구가 진행됨.
 - 임혜성(2016)은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학술등재지에 게재된 17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연구들의 분석방법 관점에서, 분석 대상 논문의 대다수인 약 90%의 연구들이 기술통계와 척도에 대한 신뢰도(α)검증을 하고 있었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64.1%,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나 교차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21.2%와 12.4%로 나타남.
 -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38.8%), 변량분석(21.8%), 중다회귀분석(23.5%), 로지스틱분석(10.0%), 경로분석(6.5%),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4.7%), 잠재성장모델(13.5%)의 분석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자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층모형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함.
 -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의 가중치 적용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의 1.8%만이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 -8〉 아동 및 청소년 패널 구축 국내 양적 연구방법

패널연구	연구목적	연구 대상	조사 방식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018년 기준 초4, 중1 각 2,500여명과 보호자	TAPI 방식을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	-동일 표본을 세 번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 -표본 대체가 없는 동일 표본설계 방식. 표본 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는 데이터 가중치를 통해 보정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 파악	패널 구축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이용한 개별 면접. 청소년은 한국어, 어머니는 총 9개 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CAPI 선택 사용	-2011년 구축된 패널 대상을 후기청소년이 되는 2025년까지 추적조사 설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윤철경 외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가치관과 의식 변화, 학업 중단 후 이행 경로 파악을 위한 종단 자료 수집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으로 구축된 패널	개별 조사는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방식 기관 접촉을 통한 조사는 집단면접 조사 방식 병행	- 패널과 비교를 위한 비교패널 설계 포함 -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한 측정 시기별 변화 분석 - 리커트 척도형의 측정 문항은 t검증 또는 분산분석을 이용한 측정 시기간 평균 차이의 유의성 검증
한국교육 중단연구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 자료 수집, 분석, 제공을 통해 교육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005년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로 6,908명의 패널 구축	1단계: 중·고등학교 시기 - 학교 기반 우편 및 전화조사, 또는 개인 접촉을 통한 우편 및 전화 조사 2단계: 대학 진학 이후 - 개인 면접 조사 (CAPI, TAPE), 전화, 인터넷, 모바일 조사	- 2005년 구축된 패널 대상을 2020년까지 추적 조사 설계
한국아동 패널 (김은설 외, 2019)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 수집	2008년 4월~7월 출생 신생아 2,150명 가구 대상 패널 구축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을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	-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이 적용되었음 -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변인을 집단 간 요인으로 하는 평균 차이 분석, 변수간 관계성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검증

- 홍태화, 황순택(2015)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축적된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함. 자료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의 방법으로 분석되었음.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이란 $[t-1]$ 시점의 값이 $[t]$ 시점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함으로써 두 변인간 상호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임.
- 전수아, 한윤선(2016)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 3차,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팬덤 활동 빈도가 청소년 학습시간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청소년의 팬덤 활동의 특성 관련 자료는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해석되었음. 또한 활용한 패널 데이터가 시차를 둔 동일 대상에 대한 반복 데이터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 및 집단 변화의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적용함. 다층성장모형은 개인의 처음값의 변화율을 고정하지 않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성장을 검증하는데 유리한 분석방법임.
- 은선민 외(2019)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고 이를 예측하는 스트레스 조절 자원으로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자존감의 역할을 탐색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라 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의 2, 3, 4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음. 데이터의 분석은 패널의 전반적 양상을 위해서는 기술통계 분석방법이 적용됨.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고 연구대상을 이질적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시행함. 잠재계층성장분석은 개인별 응답 패턴을 바탕으로 응답자를 유형화하는 대상 중심적 분석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어진 변수에서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개인들을 서로 구분되는 하위집단으로 구성해주는 분석방법임.
- 최인희(2020)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에 참여한 패널 중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년도부터 11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원 생의 특징과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 대학원 진학의 영향 요인 규명을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배경, 가족배경, 고교 특성 및 경험, 대학 특성 및 경험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분석방법을 적용함.
- 해외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변화 과정에 따른 종단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청년종단 조사(NLSY 79: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부터 성인 이후의 삶을 종단적 관점에서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1979년 14~22세였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음.

- 미국 아동·청소년종단 조사(NLSY 79 Child/Y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는 미국 청년종단조사(NLSY 79)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 조사임. 패널 데이터는 1986년 구축되어 있으며 가정환경, 인지, 감정, 사회적 역량 발달단계(자아 인식, 문제행동 평가, 언어발달 능력), 학업성취 수준(수학, 독해), 학교 동료 관계, 종교 및 학교생활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됨.
- 미국의 영유아 발달 패널(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은 아동의 돌봄경험, 돌봄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 간 관계 규명을 위해 구축됨. 패널 데이터는 영유아 그들의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되어 1,364명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함. 패널 데이터는 관찰, 면담, 설문지, 발달검사 등의 다면적 방법을 통해 수집됨.
- 일본 아동패널 조사(JCPS: Japan Child Panel Survey)는 아동의 가정 양육과 학습 환경과 사회 변화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2010년 초등과 중학교 재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음.
- 영국의 EPPSE(Effective Pre-school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는 취학 전 아동의 학업과 사회행동 발달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3,000명의 아동 패널을 구축함. 패널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 관찰평가, 면담조사, 학업 성과 등의 방식을 통해 분석함.
- 뉴질랜드 아동패널 조사(Growing Up in New Zealand)는 아동의 출생 이전부터 청년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되었음. 패널은 2010년 조사 시작 시점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축되었고, 이후 아동의 출생과 성장 단계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아동이 프리스쿨에 다니는 54개월 시점부터 아동에 대한 관찰 데이터가 구축됨.
- 프랑스 ELFE(Etude Longitudinale Francaise denuis l'Enfance)의 패널 데이터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과학, 건강, 환경건강요인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임산부 344명을 대상으로 생체검사, 전화 인터뷰,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또한 18,000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전화인터뷰 및 방문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함.

4. 질적 종단연구 연구방법

4.1 질적 종단연구 연구방법¹⁾

- 기존 패널조사 자료들은 장기 추적조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적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시각으로 사건, 행위, 규범, 가치 등을 관찰하고, 개별 대상자 변화의 다양한 원인과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는 양적 패널자료의 특성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인식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경험을 통계적 수치로 축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대상자의 변화 과정과 관련한 역동적인 경험과 태도, 행동기와 맥락 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의 경험, 인식, 특성을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묘사함으로써 연구대상 및 대상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을 생성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방법과 틀에 해당함. 이에 더하여 질적 종단 연구는 연구대상의 ‘변화’를 연구의 중심에 두고 생애주기의 연속성 안에서 변화의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요인들을 기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김은석 외, 2014). 이에 양적 패널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질적 종단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질적 종단 연구는 양적연구의 결과를 보완하며 대상자들의 변화 역동과 다양성을 상세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음(김은석 외, 2014).
- Farrall(2006)은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시하였음. 사회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되는 과정의 탐색, 거시적 절차나 사건을 개인의 삶과 환경으로 접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뿐만 아니라 개입의 작동 메커니즘과 맥락적 이해, 개입 결과를 개인적 차원에서 고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변화들과 다양한 감정의 흐름 고찰, 소수의 다양한 사례로부터 이론적 성찰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임.
- 최근 들어 종단연구 분야에서도 질적종단연구(QLLR,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된 연구의 수는 양적패널조사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빈약한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질적 종단연구는 최근에 들어 시작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질적 종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빈곤(조준용, 2013),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서덕희, 2014; 이현주, 손승남, 2014),

1)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콜로키움 자료집 중 정경은(2018)의 발표의 일부임.

미혼모(이현주, 엄명용, 2013),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서덕희, 테레사, 2017) 연구를 개인 연구자들이 진행하였음.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진행된 한국복지패널, 2012년부터 진행된 다문화청소년패널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질적 종단연구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연구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질적 종단 패널 연구가 있음.

〈표 II-9〉 국내 질적 종단연구 현황

연구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기간	조사내용	분석방법
조준용 (2013)	자활참여자의 삶의 경험과 자활 경로	자활참여자 12명	2006~2012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조화된 질문서를 사용하여, 심층면접 실시함 - 심층면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최소 2회 면접실시함. -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분석작업을 실시함.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의 삶의 과정과 경험 탐색	미혼 양육모 7명	2009~2013 (3년)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 실시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년 1회 이상 면접실시함. -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함.
서덕희 (2014)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녀교육 경험	결혼이주여성 9명	2009~2014 (6년)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 실시함.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초기 1년에는 3~5차례, 2년차부터는 1년에 1~2회 심층면접을 실시함. - 자료분석은 Strauss가 제안한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 순서대로 이루어짐.
이현주, 손승남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 이미자의 삶과 자녀 교육	결혼이주여성 5명	2008, 2013	참여관찰,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 실시함. - 2008년, 2013년 5년이란 기간을 두고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삶과 자녀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이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함.
서덕희, 테레사 (2017)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형성과정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2명	2012~2016	대화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년 1~2회 보호자 혹은 면접대상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Glaser & Strauss의 분석 방법에 따라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이 이루어짐.
한국 복지패널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빈곤의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구축	제1차년도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6차 년도까지 패널을 유지해온 100가구 / 2011년 100가구 중 추가적인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한 가구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가구대상 추가적 연구진행	2011~2012년 (24개월)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가구별 1~3회 방문 실시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Nvivo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뷰 내용에 대해 코딩을 진행함. - 개방형코딩방식을 활용하여 조사영역별 연구주제 관련 주요 의미 단어, 어구 등 파악 및 의미단위로 전환함.
다문화 청소년 패널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2012년 청소년과 어머니 각각 20가구 총 40명 2014년 양적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35가구, 총 70명 대상	2012년 (12개월) 2014년 (12개월)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종단 연구 (김은석 외, 2014)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 경로와 퇴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 파악	베이비부머 66명	2014년~진행중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방문을 통한 심층면접 실시함. -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초분석, 심층분석을 실시함. - 심층분석 시 사례 간 혹은 시점 간 지적인 비교방법을 이용하여 상위범주로 통합하고자 함.
학교밖 청소년 질적패널 연구	학교밖 청소년들이 향후 5년간의 성장, 변화 과정 파악	학교밖 청소년 60명	2018~진행중 (5년)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odified(CQR-M)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4.2 해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 종단연구 연구방법

- 아동·청소년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효과를 종단적으로 다룬 연구는 해외의 경우에도 그 수가 미비한 편이나, 2000년대 이후로 음악교육의 효과에 준해서는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질적 연구로 선행연구의 범위를 좁힌 경우에는 더욱 그 수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검토된 각각의 연구는 ‘아동의 변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종단연구(정량 또는 혼합), 또는 질적 연구 사례임.
- 음악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음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예: 음악적 흥미, 연습동기, 연습방법) 외에 다양한 효과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연구의 대상을, 전문 연주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주요목적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활동을 포함한 음악교육이 아동청소년 성장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탐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꿈의 오케스트라의 모태인 엘 시스템의 고유목적인 사회성과 공감 능력 등 아동청소년의 ‘태도와 가치(Attitude & Value)’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연구 외에도, 인지능력과 지능, 학업성취도와 같은 ‘지식과 이해(Knowledge & Understanding)’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경향 또한 다수 조사되었음.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회자본과 공동체의 변화 등을 다루어 음악교육의 영향력을 좀 더 큰 범주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특징임.
- Elpus(2013)의 연구는 청소년의 예술참여가 인지, 행동,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종단연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첫 번째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로 ‘청소년건강 국가종단연구(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이며, 1994~1995년, 1996년, 2001~2002년, 2007~2008년 동안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함. 각 기간별 자료에서 약 9만 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학교)과 면접조사(가정)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에 활용함. 두 번째 자료는 청소년 건강과 학습 성취도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약 12,250명의 코드화된 고등학교 성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 해당 연구는 예술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진입 시기에 대한 비교를 위한 통계분석도 시행하였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적 차이를 통제함으로써 편향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음.
- 저자는 해당 연구를 통해 예술참여가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발견은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것으로, 예술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

과 4년제 학사학위 취득률을 나타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Elpus(2013)의 연구는 언어(vocabulary)영역 표준평가와 같이 학생들의 국가교육 표준평가 역량에 미친 긍정적 영향 외에도, 학습태도와 연관성이 있는 유급 가능성, 대학 진학에 대한 (낙관적)기대, 적극적인 학교생활 등에도 긍정적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가짐. 더불어 개인적 영향과 태도 관련 결과로, 음주, 불법약물 복용(시각예술 참여 학생 제외), 비행활동 참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됨.

〈표 II-10〉 해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 연구의 주요 내용

연번	연구자 (발표년도) 국가	연구 기간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주목 효과
1	Elpus (2013) 미국	1994~1996 2001~2002 2007~2008	패널조사 1차 원시자료 재구성 (정량)	고등학생 12,250명	음악활동과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언어능력 미래조망능력 비행활동
2	Burns et al. (2019) 영국	120개월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조사 (혼합)	5~19세 1,444명 학부모 120명 음악강사 57명	아동의 변화 가족의 변화 학교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3	Moore & Harkins (2017) 영국	12개월	관찰 인터뷰 (정성)	3~9세 522명	학습능력 삶의 기술 정서적 안정감 사회자본 음악적 성장 건강한 생활습관
4	Frega & Limongi (2019) 남미전역	120개월	문헌고찰 인터뷰 (정성)	-	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Hennessy et al. (2019) 미국	60개월	행동평가 신경학적 평가(fMRI)	6세 88명 - 연구대상 28명 - 비교군 29명 - 통제군 31명	엘 시스템 기반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타 프로그램 참여 아동과 비교하여 빠른시간 내 억제능력 발달

- Moore와 Hakins(2017)에 의해 완성된 보고서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엘 시스템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술한 연구보고서임.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개인적 안녕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발현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임.
- 이 보고서는 애버딘 지역의 빅 노이즈 토리(Big Noise Torry)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활

동참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빅 노이즈 토리 참여로 나타나는 초기 영향에 관한 기술과 설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행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성과 발전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보고서에서 이용한 주요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관찰, 그림 분석, 인터뷰와 설문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조화된 관찰(structured observation): 관찰은 빅 노이즈 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자에게 나타난 영향,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지속함에 따라 나타난 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총 170시간의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는 이후 사례연구의 참여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용됨.
- 예술기반 연구의 일환인 그림 분석(Creative drawing exercise): 연구 참여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45분 동안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이에 적합한 것(age-appropriate)이라 판단하고 시행함. 주제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들의 직관적인 그림이 프로그램의 평가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총 130명의 아동이 그린 390점의 그림이 분석에 이용되었음. 또한 분석 과정에서 교육강사, 음악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아동들의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달기 활동을 하였으며, 각 그룹에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아동이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도록 설계하였음.
-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인터뷰는 음악가(n=8)와 자원봉사자(n=3)를 대상으로 각 약 20분 정도로 진행되었음. 공통적으로 도전과제와 성공요인,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공동체 차원의 영향, 음악가와 자원봉사자들의 배경과 경험이 주요 질문이었음. 해당 연구에서는 집단 간 질문에 차이를 두었는데, 먼저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영향에 대한 관점을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교육강사들이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저해 요인에 관한 토론 또한 포함되었음. 자원봉사자에게는 현재의 오케스트라 활동 접근법의 강점과 향상을 위한 기회 등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Grounded Survey):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총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교사, 교장, 부장교사, 지역 파트너,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시됨. 각 집단의 설문지는 각 지역의 맥락을 반영하여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좋은 점과 커뮤니티 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들과 구체적인 피드백과 관점을 수용하기 위한 프리텍스트(free text)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각각의 연구방법별로 자료를 수집한 이후 1차 코딩을 진행하였고, 유사한 범주로 묶는 주

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시행함. 분석결과 빅 노이즈 토리를 통해 참여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개입이 넓은 범위에서 양질(high quality)로 발견되고 있음이 확인됨. 주제별로 묶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습능력의 향상(Boosting engagement with learning and education): 학업과 관련된 스킬과 행동은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언급됨. 특히 학교생활에서 듣기, 집중력, 창의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음악과 창의성은 학습의 즐거움에 기인하는 요소로 확인되었음. ‘지속적인 도전과 목표의 설정’ 또한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케스트라 참여로 인해 탄력성, 책임성이 길러지며 장기간의 배움(long-term learning)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짐이 발견됨. 그리고 영어가 제2언어인 가정의 아동들에게서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이 관찰됨.
- 다양한 삶의 기술 형성(Developing and building life skills): 자신감과 조별활동, 의사소통, 책임감과 리더십이 오케스트라 참여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되었음. 행동의 도덕적 경계와 규범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르는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자기규제력(self-discipline)과 자아인식(self-awareness)의 향상 또한 언급되었음. 또한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빅 노이즈 참여 아동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증가된 탄력성과 적응능력을 보였다고 표현됨. 즉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어려운 기술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인내심 또한 관찰됨.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활동해 나아감으로써 정서적 지능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이 향상됨.
- 정서적 안녕감(Securing emotional wellbeing): 130명의 아동의 그림에서 행복감, 즐거움, 음악적 스킬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만족과 자부심,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발견됨. 다른 연구방법에서도 참여자들은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때 지속적인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 증명됨. 특히 강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경험했으며, 지역과 오케스트라 내에서 역할 모델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반복적인 칭찬을 경험함. 한편 오케스트라 활동의 특징인 지속성과 반복된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취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feeling of being valued)과 자부심(self-esteem), 자기확신(self-belief)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사회성과 네트워크 형성(Building social skills and networks): 빅 노이즈는 참여 아동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화될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긍정적인 동료집단과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학교 스텝, 부모, 후견인, 지역민 등을 초대하는 콘서트 등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촉진함. 나아가 커뮤니티가 아동들의 성취에 개입하고 축하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정신(community spirit)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
- 유예와 보호(Respite and protection): 빅 노이즈는 취약가정의 아동들에게 학교와 가정에

서 분리된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함. 또한 오케스트라는 학교와 다른 서비스로, 가정의 간극을 메우는데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해결을 위한 주요 지원시스템으로 기능함.

- 음악인으로서의 성장(Developing as a musician): 빅 노이즈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과 음악적 지식을 전수하며 악보를 읽고 음악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침. 특히 나이별로 단계적 프로그램(Baby Noise, Nursery provision, in-school and after-school delivery)을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참여자의 음악적 인지능력의 강화에 기여함. 참여 아동들은 오케스트라 내에서 자신들의 기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값비싼 악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데, 이로부터 책임감이 길러지며 성숙도가 향상됨.
-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Encouraging healthy behaviors): 방과 후와 학교 휴일에는 아동들에게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건강한 간식이 제공되는데, 이는 일일 섭취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걷기, 신체 활동과 여행들을 통해 건강한 활동 규칙을 발전시킴. 더불어 사회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TV와 게임 등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Burns 등(2019)의 보고서는 중단연구를 염두에 두고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는 아니지만, 영국 리버풀의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실행된 다양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1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10년간의 변화를 압축하여 기술하고 있음.
- 다양한 자료와 연구 참여자(정보원)로 참여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교사 등의 인터뷰와 관찰기록 등을 통해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이 리버풀의 아동, 가족, 학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추출해 기술한 부분은 본 연구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편으로,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리버풀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영국 교육부에 제출한 연차 보고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5~19세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19명 아동과의 인터뷰와 사례, 2012년과 2016년 시행됐던 프로그램의 참여 아동과 청소년 1444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던 두 차례의 설문조사임. 그리고 2015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던 설문조사, 10년간 45명의 교사 인터뷰와 30명의 부모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음.
- 해당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장기적 영향으로 드러난 주요 테마는 대상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어있으며, 각 대상은 아동, 학교(교사), 가족, 그리고 공동체임.
- 이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룬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는 총 13가지로 향상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Increased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회복탄력성

강화에서 기인한 향상된 안녕감(Intrinsic and extrinsic resilience as well as enhanced wellbeing), 긍정적 미래조망능력(Increased aspiration and positive views of future prospects), 향상된 협동심과 협업능력(Improved ability to collaborate, cooperate and work in teams), 리더십(Leadership skills), 듣고 소통하는 능력(Liste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향상된 집중력(Better attention, focus and concentration), 배움에 대한 동기 강화(Increased motivation to learn), 인내와 결단력(Perseverance and determination), 독립성(Independence), 사회소통능력 (Peer to peer support, friendship, networks and social skills), 기쁨(Enjoyment)과 창의력(Creativity)으로 보고되었음.

-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가족 내 대화 증가, 감정적 교류, 지역 애착, 학교에 관한 관심 증가 등이었으며, 학교와 교사의 경우는 학교가 가진 신뢰감과 교육적 전문성 향상, 교원 내 자부심, 학교의 기여도 향상 등으로 드러남. 공동체에 미치는 주요 선순환 구조는 자기 지역에 대한 주권의식(ownership)이 상승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trust)가 강화되고, 이러한 신뢰가 결국 지역의 정체성(identity)에 기여하면서 지역 내 성원으로서의 자부심(pride)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음.
- Frega와 Limongi(2019)는 ‘엘 시스템아’가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 벤치마크와 확산되는 현 상황에 따라, ‘엘 시스템아’가 단지 브랜드로서의 상징성을 넘어 음악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어떠한 특성과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시도한 논의임.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엘 시스템아가 처음 시작된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넓게는 남미 지역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연구방법은 음악교육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온 비교연구 방법론으로 Frega가 1995, 1996년도와 1997년도 연구를 통해 고안한 파라미터 모델(Parametric Model)을 적용하였음. 이 방법론은 교육학적 제안(pedagogical proposal)에 대한 평가와 특성화에 유용한 것으로서 해당 연구에서는 현대 음악교육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해당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음악교육 측면에서 세계음악교육 조류에 따른 다양성 고취 문제와 엘 시스템아의 비전과 실제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음악중심 교육의 간극 문제임. 우선 음악교육의 국제적 트렌드는 유럽중심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세계음악(world music) 방향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함께 음악적 언어, 스타일, 미학과 장르 등 교육학적 가치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유럽중심 음악교육이 보편적인 남미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관습적 교육이 답습된다고 지적함. 다음은 엘 시스템아의 중심 가치가 음악활동을 통한 사회적 혜택을 실현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장에서는 음악적 교육이 중점적으로 행해지며

사회적 혜택은 어떤 전략적 실천 없이 음악교육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며 프로그램이 운영됨을 지적함.

- 엘 시스템마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음악교육 측면에서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함. 저자들은 2014년도에 발표된 Baker의 연구를 인용하며,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2014년 기준) 동안 엘 시스템마에서 음악적 훈련과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음악 학사학위를 수료한 학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엘 시스템마의 음악 교육이 체계적 교육방법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음악전공교육과의 격차를 드러낸다는 현·전 엘 시스템마 교육강사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제시함.
- Hennessy 등(2019)은 소외지역 아동들이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억제력 상승 및 뇌 신경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이를 위해 ‘엘 시스템마’ 기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 아동, 대조군(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통제군(두 프로그램 다 참여 경험없음)으로 나누어 5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함.
- 연구방법은 아동들의 행동평가와 더불어 fMRI 촬영을 통하여 아동의 뇌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연구결과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대조군보다 3~4년차에 지연된 만측 과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얻었음. 또한 fMRI 촬영결과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2년차에 타 집단과 비교하여 더 많은 뇌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육의 고유 훈련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연구집단과 대조군 사이에서 4년차부터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행동억제 능력 및 뇌신경 활성화에 있어 음악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이 더 이른 시간 내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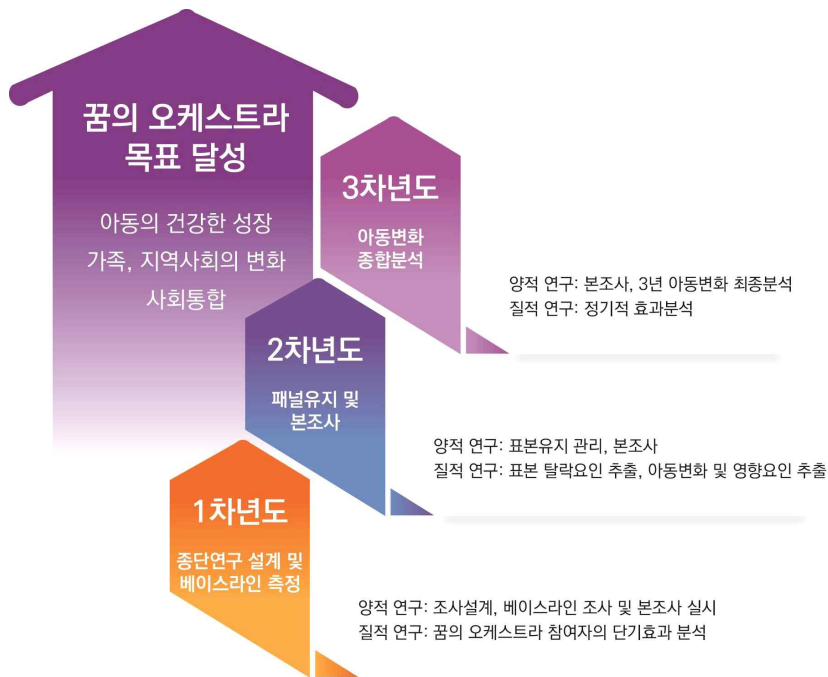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 연구 계획
2. 2020년 양적 연구 주요 연구방법
3. 2020년 질적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Ⅲ. 연구방법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 연구 계획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종단 연구로 시작되었음.
- 2019년부터는 2단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가 시작되었음. 1단계 기존 패넬에 대한 종단 추적을 지속하고, 새로운 패넬을 구축하여 두 개의 코호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코호트란 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 동일적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1단계 코호트는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단위, 2단계 코호트는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단위 집단으로 구성됨. 이를 위해 1단계 코호트 패넬은 종단 연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019년부터 2단계 코호트인 신규패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 2단계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그림 Ⅲ-1>과 같이 3년에 걸쳐 년차별 연구를 진행하며, 2019년은 2단계 패넬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그림 Ⅲ-1> 3개년 연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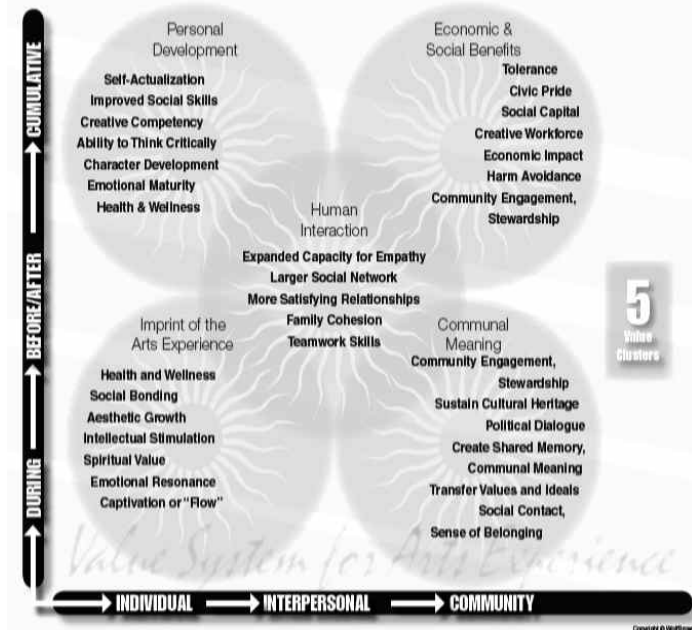


1.1 연구설계

1.1.1 효과성 요인 구성의 이론적 모형

-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에서는 문화 참여경험의 영향이 지니는 패턴을 개념화했는데, 동시적 영향, 체험된 영향, 확장된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영향으로 나타나 패턴화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러한 패턴은 크게 다섯 가지, 즉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으로 구분됨(그림 III-2).

〈그림 III-2〉 연구모형



출처: Carnwath & Brown(2014). p 48. 재인용

1.1.2 연구설계

- 본 연구는 양적 종단연구와 질적 종단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득함(No: 1041078-201904-HR-141-01).
- 양적 종단연구는 2016년 1단계 패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고, 2단계의 신규패널을 구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 질적 종단연구도 양적 종단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1단계 패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질적 종단연구에 참여한 3개 기관의 패널을 2개 기관의 패널로 축소하고 2019년 신규패널 참여기관을 2019년 신규 오케스트라 참여기관인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신규패널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함.
- 2단계 조사의 표본은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에 신규참여 단원과 보호자이며, 신규 단원이 속해 있는 기관의 교육강사와 코디네이터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됨.
- 조사는 양적 종단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이며, 질적 종단 연구는 개인 및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단원의 보호자 외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Ⅲ-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발달 연구 조사 설계

구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
모집단	2019년 패널 참여자와 2020년 2년차, 6년차 거점기관의 신규 단원과 보호자		기관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표본 추출	양적 패널	전수조사	전수조사 (신규단원이 있는 기관)
	질적 패널	할당표집	할당표집
조사대상	양적 패널	단원, 보호자 각 1명씩 조사	교육강사 및 코디네이터 전체
	질적 패널	단원 25명, 보호자 13명	강사 16명, 코디네이터 5명
조사방법	양적 패널	연구자 기관방문 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질적 패널	집단 및 개인 인터뷰, 참여관찰, 일지	
조사기간	매년 9~10월		
자료수집방법	양적 패널	설문지 조사	
	질적 패널	인터뷰, 참여관찰, 일지 내용분석	

〈표 Ⅲ-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단계별 참여현황

단계	연도	조사차수(Wave)	참여기간	참여기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1단계 패널	2016년	Wave 1	1년	6	3
	2017년	Wave 2	2년	6	3
	2018년	Wave 3	3년	6	3
1단계 & 2단계 패널	2019년	Wave 4	4년	6	2
		Wave 1(신규)	1년	15	4
	2020년	Wave 5	5년	6	2
		Wave 2	2년	15	4
	2021년	Wave 6	6년	6	2
		Wave 3	3년	15	4

■ 음영 부분은 2단계 패널의 wave를 의미함

2. 2020년 양적 연구 주요 연구방법

2.1 패널 설계 및 조사 대상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2019~2021년) 연구는 2016~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참여 기관의 단원 전원과 그들의 보호자, 2019년 신규 참여 기관의 신규 단원과 그들의 보호자, 조사 해당 년도 중도탈락 단원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을 조사 대상으로 함. 모든 조사 참여 기관의 음악감독과 교육강사는 패널 데이터 구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을 대상으로도 아동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동일한 시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각 조사 연차에 따른 횡적 데이터를 수집함.

〈그림 III-4〉 2019~2021년 연도별 패널조사 설계

1차년도 (2019년)	조사설계 예비조사 1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설계 확정(패널 설계, 조사 방법, 분석방법 등) · 측정항목 경제 및 추가 문항 개발 · 예비조사 · 생명윤리위원회(IRB) 조사 승인 · 1년차 본조사 실시
	1년차 패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간(1년, 2년, 3년, 4년)에 따른 패널 데이터 종단 분석 · 1단계 패널과 2단계 패널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차년도 (2020년)	표본관리 2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유지관리 · 2020년 중도탈락 단원 조사 · 2년차 유지패널 본 조사 실시
	2년차 패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5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2단계 패널의 참여시기(1~2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5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3차년도 (2021년)	표본관리 3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유지관리 · 2021년 중도탈락 단원 조사 · 3년차 유지패널 본조사 실시
	3년차 패널 분석 결과 계속패널 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6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2단계 패널의 참여시기(1~3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6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 중도탈락과 유지단원간 차이 분석 · 계속패널 유지 조사설계(안) 마련

- 본 연구 패널은 2016년부터 조사에 참여한 1단계 패널과, 2019년부터 조사에 참여한 2단계 패널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① (기존) 1단계 패널 구성

- 1단계 패널의 대상은 2016~2018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에 참여하였던 6개 기관(6기)의 단원 109명과 그들의 보호자로 구성함.
- 2019년 조사는 1단계 패널 중 총 6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2020년도 조사는 2019년 조사에 참여한 1단계 유지 패널 단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② (신규) 2단계 패널

- 2단계 패널은 2016~2019년 신규 참여 기관의 2019년 신규 단원과 그들의 보호자 전체로 구성함.
- 2단계 패널에 대해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 조사(사전조사)가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되었고 참여 1년 후의 조사는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되어 총 302명이 조사에 참여함
- 2020년도 조사는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조사에 참여한 2단계 유지 패널 단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상기의 패널 구성 방안에 따른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의 3년차 패널 구성안은 <표 Ⅲ-2>의 꿈의 오케스트라 종단조사 모형에 따름.

<표 Ⅲ-2> 꿈의 오케스트라 종단조사 설계 모형

제1차 (2016)	제2차 (2017)	제3차 (2018)	제4차 (2019)	제5차 (2020)	제6차 (2021)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 2020~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패널 데이터는 2016~2019년에 연차별 구축된 기존 패널 데이터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2020년에는 5년간, 2021년에는 6년간 유지 패널 데이터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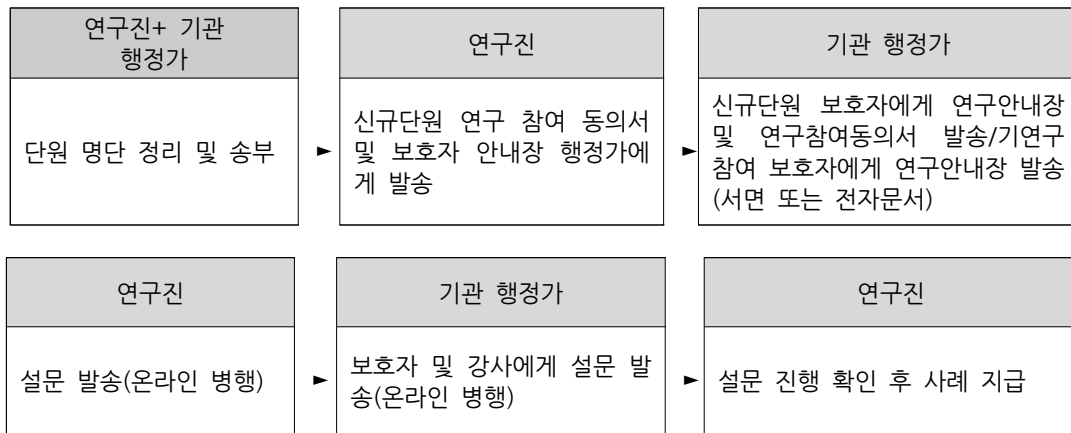
2.2 조사 절차

- 2020년도 양적 조사 연구는 10~11월에 진행되었음.
- 2020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관이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는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의 자료수집 방식을 병행함.

- 조사 진행은 조사 전 각 기관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본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대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진행 여부를 협의함.
- 설문조사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사 참여 전 아동의 보호자에게 조사 참여 동의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확인한 후 진행되었음.
- 온라인조사 기관의 경우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각 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각 기관 사업 담당자가 응답 대상인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들에게 온라인 설문 URL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
- 대면조사 기관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아동과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를 진행함.
- 설문 조사 참여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기관 담당자에게는 조사 참여에 대해 소정의 조사사례비를 지급함.

〈그림 III-5〉 꿈의 오케스트라 설문조사 과정



2.3 효과성 측정도구 구성개념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아동변화연구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성개념은 Carnwath와 Brown(2014)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술경험의 내재화 부분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 및 차별성을 참고하여 2016년 각종 문헌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구성개념과 동일하게 구성함. 이는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효과성을 이전 2016~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의 패널 데이터와 연계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임.

〈표 III-3〉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양적 연구 측정도구

구분			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효과성	음악적 성장	음악지식	●	-	●
		음악향유	●	-	-
		음악태도	●	-	-
		음악활동/연주 역량	●	-	●
		음악적 경험 범주 확장*	●	-	-
	개인 발달	자존감	●	-	-
		성실	●	-	-
		의사소통능력	●	-	-
		미래전망	●	-	-
		건강-스트레스	●	-	-
		공격성*	●	-	-
		행복*	●	-	-
	인적 관계	타인수용도	●	-	●
		타인 배려	●	●	-
		가족응집력	●	-	-
		협동	●	-	●
	공공적 함의	사회적 신뢰	●	-	-
		소속감 및 유대감	●	-	-
		공동체 참여행동	●	-	-
	사회 경제적 혜택	사회자본	●	-	●
		경제적효과/돌봄비용	●	●	-
		양육스트레스	-	●	-
		지역사회변화	-	●	●
만족도	요인만족	내용/강사/환경/행정/간식/비대면 수업진행방식**	●	-	-
	만족 충성도	전반적 만족	●	-	-
		재참여 의도	●	-	-
		타인 추천 의도	●	-	-
영향 요인	촉진 및 장애 요인	단원 자부심	●	-	-
		타 음악교육 경험	●	-	-
		타 오케스트라 경험	●	-	-
		참여 적극성	●	-	-
		부모 지지	●	-	-
		동료 지지	●	-	-
		교육강사 지지	●	-	-
		공연활동 성취감	●	-	-
		음악적 권태	●	-	-

*2019년 보완된 항목으로 2단계 패널 효과성 분석 지표로 적용됨

** 2020년 비대면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 2020년 프로그램 만족 요인으로 추가됨

- 추가적으로 2019년도 연구의 측정도구 구성 과정에서 2018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효과성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된 효과성 요인을 중심으로 음악적 성장 영역의 음악적 경험 범주의 확장 요인과 개인발달 범주의 공격성과 행복 요인을 측정도구에 반영하였음.
- 이에 2020년 연구의 측정도구는 2019년 측정도구에 기반함. 단 2020년 다수의 기관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추가 고려함.
- 세부적으로, 2020년 아동변화 효과성 측정의 구성요인은 음악적 성장(음악지식, 음악태도, 음악향유, 음악활동, 음악적 경험 범주의 확장), 개인발달(자존감, 성실, 의사사통능력, 미래전망, 건강, 행복, 공격성), 인적 관계(타인 수용도, 가족 응집력, 타인 배려, 협동), 공공적 함의(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경제 혜택(사회자본, 경제적 효과)으로 구성함.
- 측정도구의 각 평가 대상은 측정 개념의 특성에 따라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중 평가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표 Ⅲ-3>과 같이 평가 대상별 측정도구를 구성함.

2.4 조사 문항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정 문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의 문화 참여경험의 영향이 지니는 패턴을 기초로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으로 구분됨.
-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각각의 평가 대상에 따라 최종 사용한 설문 문항은 <표 Ⅲ-4> ~<표 Ⅲ-6>와 같음.

<표 Ⅲ-4> 아동 대상 효과성 측정 항목

대영역	소영역	측정항목*	근거
음악적 성장	음악지식[A]	A1-A7	임영식 외(2016)
	음악향유[B]	B1-B6	
	음악태도[B]	B7-B10	
	음악활동[B]	B11-B14	
	음악적 경험의 확장[F]	F4-F6	임영식 외(2018)
개인 발달	건강-스트레스[E]	E6-E11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미현, 유안진(1995)
	자존감[C]	C1-C5	Rosenberg(1965) 자아존중감 척도, 전병제(1974)
	성실[C]	C6-C13	KEDI 인성검사
	의사소통 능력[C]	C14-C17	김기현 외(2009), 김창환 외(2013)
	미래전망[E]	E1-C5	김진경, 김혜연(2013)
	행동적 공격성[F]	F7-F9	이주현(2011)
	언어적 공격성[F]	F10-F12	
	행복[F]	F1-F3	

인적 관계	협동 협력[I]	집단촉진	I1-I6	성은모, 백혜정(2014)
		팔로워십	I7-I9	
		갈등문제해결	I10-I13	
	가족 응집력[H]		H1-H4	임영식 외(2013)
	타인 수용도[D]		D1-D3	
공공적 함의	타인배려[D]		D4-D7	성은모, 백혜정(2014), 대인관계 역량지수
	소속감/유대감[G]		G6-G9	김철호(2013), 지역사회 소속감 개발 척도
	공동체 참여행동[G]		G6-G13	통계청, 사회적 관계망 조사, 임영식 외(2013)
	사회적 신뢰[G]		G1-G5	성은모, 백혜정(2014), 안상훈, 정해식(2010)
사회경제적 혜택	사회 자본		G14-G18	정익중 외(2011) 통계청, 사회적 관계망 조사 응용
영향 요인	타음악 활동 경험[J]		J1-J2	임영식 외(2016, 2017, 2018)
	단원 자부심[K]		K1-K3	
	참여 적극성[K]		K4-K6	
	음악적 권태[K]		K7-K9	
	공연활동 성취감[M]		M1-M3	
	부모 지지[N]		N1-N3	
	또래 지지[N]		N4-N6	
	교육강사 지지[N]		N7-N9	
만족도	프로그램 요인 만족[L]		L1-L6	
	전반적만족·충성도[L]		L6-L8	

*측정항목의 알파벳은 부록의 아동용 설문지의 설문 번호를 의미함

〈표 III-5〉 보호자 대상 측정 항목

구분		측정항목*	근거
가족 응집력[B]		B1-B4	임영식 외(2013), 정익중 외(2011), 성은모 외(2011)
돌봄서비스 확대효과	돌봄비용[A]	A5-A7	
	양육스트레스[C]	C1-C8	
지역사회 변화[A]		A1-A4	

*측정항목의 알파벳은 부록의 보호자용 설문지의 설문 번호를 의미함

〈표 III-6〉 교육강사 대상 측정 항목

구분		측정항목*	근거
음악적 활동/연주역량[B]		A1-A7	서지혜, 이진숙(2013)
협동심[C]		C1-C3	성은모, 백혜정(2014)
사회적 효과	지역사회 참여	a8-a9	임영식 외(2013)
	사회적 포용	a11-a12	
	사회예술자본 확충[a]	a1-a3	

*측정항목의 대문자 알파벳은 부록의 교육강사 아동평가용 설문지의 설문 번호를, 소문자 알파벳은 교육강사 설문지의 설문번호를 의미함

2.5 패널 유지율

- 1단계 패널 중 2016년 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244명임. 이들 중 2017년 175명,

2018년 109명, 2019년 64명, 2020년 44명이 조사에 응답하여, 패널유지율은 2017년 71.7%, 2018년 62.3%, 2019년 58.7%, 2020년 68.8%로 나타남.

- 2단계 패널 중 2019년 조사 참여 아동은 302명, 2020년 조사 참여 아동은 195명으로 패널유지율은 64.6%로 나타남(<표 III-7>).
- 본 연구에서는 일반 패널조사와 달리 매주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패널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개인 및 가족 환경에 따라 오케스트라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패널 유지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표 III-7> 패널 유지율

구분	1단계 패널		2단계 패널	
	조사 참여 인원(명)	전년대비 패널 유지율(%)	조사 참여 인원(명)	전년대비 패널 유지율(%)
2016년	244	-	-	-
2017년	175	71.7	-	-
2018년	109	62.3	-	-
2019년	64	58.7	302	-
2020년	44	68.8	195	64.6

2.6 분석방법

2.6.1 데이터 클리닝

-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은 불성실한 응답 검토, 설문 의도와 다른 응답 검토, 논리적 오류가 있는 응답 검토, 구조적 질문 패턴의 문항 응답 검토, 조사년도(wave) 차수의 증가에 따른 변수명 표기방법의 결정, 변수별 값의 리코딩 조정, 이전 년도 조사 자료와의 종단면 비교 검토, 개인정보 보호관련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함.
- 특히 초등학생 아동 조사의 경우 설문지에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오자가 많은 관계로, 분석 전에 코딩된 자료와 각 기관의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함.

2.6.2 분석 대상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1단계 패널 분석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 44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2단계 패널 분석은 2019년 상반기 사전 조사 2019년 하반기 사후 조사, 202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2.6.3 분석 절차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 검증은 SPSS 25.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구 통계적 특성과 참여자의 분포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함.
- 1단계 패널의 경우 아동의 효과성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섯 번의 측정시기에 따른 평균의 변화를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검증함.
- 반복측정분산분석은 일반적으로 직전의 시험 결과(사전)와 이후의 시험 결과(사후), 그리고 지속성을 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의 시험 결과(유지)를 비교할 수 있음. 반복측정분산분석이 다른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 비해 다른 점은 다변량 분석법은 개체-간 요인(between-subject effects)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은 개체-간 요인뿐만 아니라 개체-내 요인(within-subject effects)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음. 반면 반복측정분산분석은 측정시기에 따라 응답자가 소멸할 수 있으며, 측정이 반복됨에 따라 응답자가 평가 도구에 친숙해짐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의 제한점도 존재함. 이에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종단 비교와 횡단 비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각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점을 취하였음.
- 1단계 패널의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성별과 취약계층여부는 집단 간 요인으로 분석에 반영함.
-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내 효과가 유의한 경우 2016~2020년의 측정시기별 평균의 유의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대응비교를 실시함.
- 2단계 패널도 1단계 패널과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 사전조사, 이후 2019년 하반기, 2020년 세 평가시점의 평균 차이를 반복측정분석을 통해 분석함. 이후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검증된 경우, 평가 시기별 대응비교분석을 적용함.
-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
- 2020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평균적인 만족 수준을 평가함.

3. 2020년 질적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3.1 2020년 질적 연구 목표와 특징

- 2020년 연구는 2019년 새롭게 투입된 신규기관과 이를 통해 모집된 신규단원들, 그리고 연속운영기관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각각 2년차와 5년차로 접어드는 해임.
- 2020년 질적 연구는 이러한 연구 환경의 특징을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반구조적 질문을 통한 인터뷰, 관찰, 단원들의 마음기록지 분석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다양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음.
-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단원들의 활동이 비대면을 통해 진행된 것에 착안하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환경이 단원, 보호자, 강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정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추가로 분석되었음.
-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 개인면접(Personal Interview, PI)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마음기록지를 활용한 텍스트분석(text analysis)을 질적 연구 수행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되, 아동분석의 경우 연구참여자 그룹을 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 그리고 일반가정 아동과 취약가정 아동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아동의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변화의 주체인 아동 이외에도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보호자의 증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주요 변화와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성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다루었음.
- 추가적으로 이탈 단원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활동을 통해 얻은 점과 아쉬운 점, 이탈이유 등을 인터뷰하여 다각화된 시각을 연구에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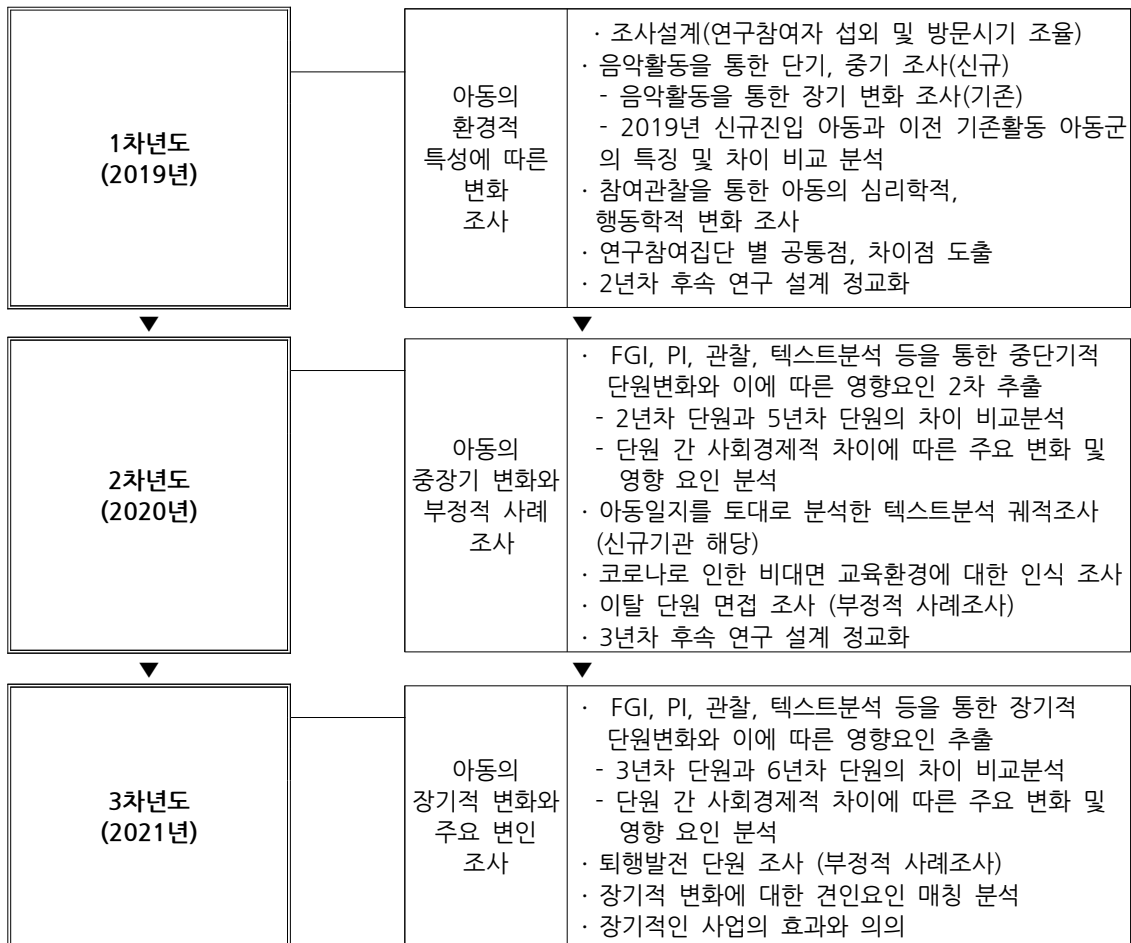
3.2 중단연구를 위한 연도별 연구 계획

- 2020년 질적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거점기관 별 주요한 특징인 2년차 기관과 5년차 지원기관을 구분하여, 이들의 중단기적 차이를 도출하고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변화의 유사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장요인과 음악활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질적 연구의 3년 계획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1차년도에서는 아동의 중단기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면, 2차년도인 올해 2020년 연구에서는 아동의 중단기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전년도 연구와의 비교분석, 3차년도에는 아동의 중장기적 변화와 이

에 기여하는 주요 변인 및 3년 연구의 종합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2020년 조사는 2019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중단기적 변화의 견인요인별 세부적 맥락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한 변화와 주요요인을 추적 조사하여 아동의 변화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기간차를 두고 어떤 양상과 특징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오케스트라 활동이 잠정적으로 상당 기간 연기되고 수업의 2/3이상 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수성이 연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조사는 1차 년도(2019년), 2차 년도(2020년) 조사를 종합하여 아동변화에 있어 중단기적, 장기적 변화를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견인한 내부적, 외부적 환경요인을 매칭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속적 발전에 필수인 정책사안과 전략, 해결방안 등을 장기적 관점에 제시할 계획임.

〈그림 Ⅲ-6〉 연도별 질적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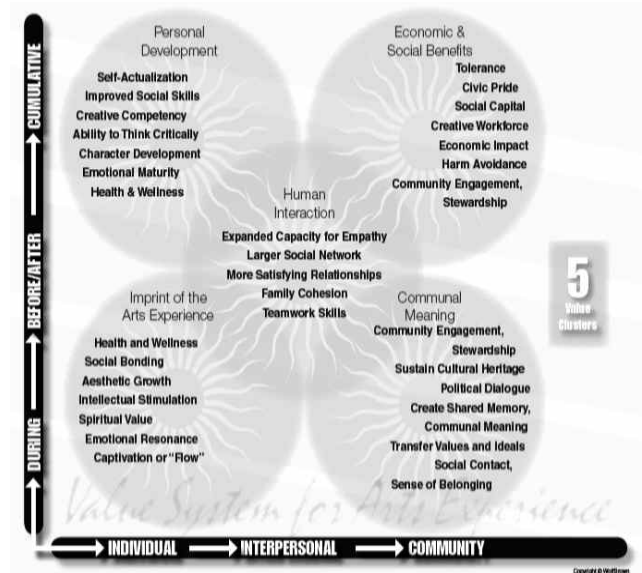


3.3 질적 연구의 분석틀

- 2020년 질적 연구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은 중단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단기, 중기, 장기적 노출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이 전년도 연구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음. 문화경험 효과모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개인의 성장(personal development),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 인적 상호작용(human interaction), 공공의 의미(communal meaning), 사회경제적 혜택(economic & social benefit)으로 구분됨.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만 다섯 가지 범주 내 세부요소들은 때로는 겹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 범주들이 서로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개인의 성장(personal development)의 경우 개인의 내재적 성장과 발달로 주요한 요소로는 총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사회기술향상(improved social skills), 창의력(creative competency), 비판적 사고능력(ability to think critically), 인성함양(character development), 정서적 성숙(emotional maturity), 건강과 웰니스(health & wellness)임.
-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는 자신의 삶과 예술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된 경험들의 축적들로 총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과 웰니스(health & wellness),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 미적성장(aesthetic growth),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영적가치(spiritual values), 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매료 혹은 몰입(captivation or 'flow')임. 다만 본 연구에서는 예술경험의 내재화를 음악적 성장으로 명명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이들 단원에게 미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교하게 다루고자 노력하였음.
- 인적 상호작용(human interaction)의 경우, 단순한 개인단계의 정서 및 내적 발달에서 나아가 관계형성과 관련된 요소들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확장된 공감능력(expanded capacity for empathy), 확대된 사회연결망(larger social network), 더욱 만족스런 관계형성(more satisfying relationships), 가족유대감(family cohesion), 팀워크 기술(teamwork skills)임.
- 공공의 의미(communal meaning)는 인적상호작용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지역사회 또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들로 총 9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참여(community engagement), 청지기 정신(stewardship), 문화유산계승(sustain cultural heritage),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 공동의 기억 창출(create shared memory), 공동의 의미(communal meaning), 가치와 이상의 전달(transfer values and ideals),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소속감(sense of belonging)임.

- 사회경제적 혜택(economic & social benefit)은 이러한 총체적 가치들이 사회와 경제에 실제로 기여 가능한 가치들로 총 8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관용(tolerance), 시민 의식(civic pride), 사회자본(social capital), 창의인력(creative workforce),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위험회피(harm avoidance), 지역사회참여(community engagement), 청지기 정신(stewardship)임.

〈그림 III-7〉 질적 연구의 분석틀



출처: Carnwath & Brown(2014). p 48. 재인용

- 위에 기술된 문화경험 효과모형을 바탕으로 2020년 연구는 아동의 성장 패턴과 변화,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중단기적 변화로 발현하는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아동의 변화에 있어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각 변화에 있어 주요한 의미를 도출하고, 이들의 내부적 성장, 예술경험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 (꿈의 오케스트라의)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을 구조화하여 이를 돕는 촉진 및 장애요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하였음.

3.4 질적 연구의 참여기관과 연구 참여자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 참여한 거점기관은 2019년 연구와

동일한 총 4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4개의 질적 연구 거점기관은 본 연구의 시작년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속지원기관인 A와 B, 신규기관인 C와 D기관으로 코드화하였음.

- 추가적으로 D기관의 경우, 관찰조사(초기-중기-말기)와 아동의 일지를 토대로 텍스트분석(text analysis)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대부분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기에 단원의 오케스트라 참여일지인 마음기록지 분석은 2019년에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점을 미리 밝히는 바임.
- 코로나 상황으로 단원들의 실제 활동이 10월초부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진행됨에 따라, 관찰과 인터뷰 모두 10월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진행되었음.

〈표 Ⅲ-8〉 질적 연구 참여기관

지역	기관 특징	FGI	PI	참여관찰	일지분석
A	5년차 거점기관	○	○	-	-
B	5년차 거점기관	○	-	-	-
C	2년차 거점기관	○	-	-	-
D	2년차 거점기관	○	-	○	○

-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주요 연구 참여집단은 총 5개 그룹으로 ①참여아동(n=26), ②음악감독과 강사(n=16), ③참여기관의 코디네이터 및 행정담당자(n=5), ④참여아동의 보호자(n=13), ⑤이탈 단원(n=6)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면접조사 참여 인원은 66명으로 집계됨.
-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증언이 주요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면접에서 밝히기 어려운 현장성과 아동의 심리학적, 행동학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관찰, 텍스트 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단원의 다양한 변화와 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설계하였음.
- 또한 아동의 생태학적 발전모형에 따라 이들이 속한 사회(예: 학교, 가족, 공동체)와 어떤 방식으로 교감하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가를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에 적용하여, 이들이 느끼는 주요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개선사항 등을 구조적이고 정성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음.

〈표 III-9〉 질적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

지역	기관 특징	단원	코디네이터 및 행정담당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보호자
A	5년차 거점기관	4	1	4	4
B	5년차 거점기관	8	2	4	2
C	2년차 거점기관	8	1	4	3
D	2년차 거점기관	6	1	4	4
-	이탈 단원	8	-	-	-
계		32	5	16	13
총합		총 면접참여자 : 66명			

3.5 질적 연구 방법

- 자료수집을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①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②개인면접(Personal Interview), ③관찰(Observation), ④텍스트분석(Tex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실행되었음.

① 질적 패널조사: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면접(PI)

- 면접조사는 관찰이 불가능한 행동, 호손효과, 선택적 관찰, 관찰자의 시·공간적 한계 등 관찰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층적 조사를 위해 유용하며, 초점집단면접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홍용희, 1998; Lincoln & Guba, 1994).
- 면접조사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음악강사, 행정코디네이터 각 집단 간 관점의 차이와 꿈의 오케스트라의 의미, 각 주체별(단원, 가족, 교원, 기관, 지역공동체 내) 변화와 단원의 주요 변화를 질문하였음.
- 면접조사 시 FGI는 동일한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구성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되, 추가적인 질문 또는 연구참여자의 이질적 특성 또는 편의 때문에 개인면접(PI)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되었음.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가 어려웠던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우선상 개인면접이 다수 진행되었음.
- FGI의 장점으로서는 특정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개인면접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의 획득이 동일 시간 내 가능하다는 점임. 이는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에 있어 연구참여자를 배려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부분임. 즉, 단원, 보호자,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코디 및 행정담당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만나는 시간과 공

간접 제약은 이들의 활동 요일과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였음. 따라서 참여기관과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연구를 위한 착취(exploitation for research)과정을 최소화 한다는데 있어 FGI는 본 연구의 주요한 면접조사방법으로 사용되었음. 또한 표적 집단의 동질성으로 인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타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도 주요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적용되었음(Lincoln & Guba, 1994; Merriam, 1988).

- 면접질문의 설계는 아동의 변화를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을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고안되었으며, 각 주요한 범주는 개인의 성장(personal development),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 인적 상호작용(human interaction), 공공의 의미(communal meaning), 사회경제적 혜택(economic & social benefit)임.
- 추가적으로, 아동의 변화에 대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배경질문(오케스트라 참여 동기와 기대요인), 외부요인(참여 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제언(개선 방안 및 대안)을 유목화 하여 구성하였음.
- 이에 더하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추가 조사하였음.
- 참여단원을 위한 면접조사의 질문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다만 아래 제시된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당일 아동의 기분, 그룹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인터뷰가 진행되었음.
- 이탈 단원과의 면접 시, 기존 단원의 면접질문을 유사하게 적용하였으나 면접질문 중 환경적 요소와 제언, 그리고 이탈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음.

〈표 III-10〉 참여단원을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질문 I	아동의 변화	개인적 성장	- 참여 이후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며 나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예술경험의 내재화	-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합주를 하면서 드는 느낌, 생각은 무엇인가?
		인적 상호작용	-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	- 내 주변의 사람들(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참여 이후, 관계의 변화가 있는가?
		사회경제적 혜택	-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행동 또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면접질문 Ⅱ	환경적 요소	촉진요인	- 지속적인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장애요인	- 지속적인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Ⅲ	비대면 교육	비대면 장점	-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비대면 단점	- 비대면 교육의 단점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Ⅳ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참여단원의 보호자를 위한 면접조사의 질문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다만 아래 제시된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코호트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질문되었음.

〈표 Ⅲ-11〉 보호자(학부모)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질문 Ⅰ	배경	기대효과	- 아동이 꿈의 오케스트라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계속되는 활동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Ⅱ	아동의 변화	개인적 성장	- 참여 이후 자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 오케스트라 활동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예술경험의 내재화	- 자녀의 음악 및 예술에 대한 흥미도와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는가?
		인적 상호작용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공공의 의미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였는가?
		사회경제적 혜택	- 꿈의 오케스트라 존재는 우리지역에 어떤 의미인가? - 가족의 문화예술참여활동 및 향유패턴에 변화는 있는가?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Ⅲ	외부요인	촉진요인	- 자녀의 지속적인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장애요인	- 자녀의 지속적인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Ⅳ	비대면 교육	비대면 장점	-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비대면 단점	- 비대면 교육의 단점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Ⅴ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강사 및 행정코디네이터를 위한 면접조사의 질문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다만 아래 제시

된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대상과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질문되었음.

〈표 III-12〉 강사 및 행정코디네이터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질문 I	배경	동기	- 프로그램 지원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면접질문 II	아동의 변화	개인의 성장	- 참여아동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예술경험의 내재화	- 참여아동의 단기적(즉각적) 변화는 무엇인가?
		인적 상호작용	- 참여아동의 중장기적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일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공공의 의미	- 참여아동을 지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사회경제적 혜택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이 얻는 가장 중요한 혜택/성취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면접질문 III	외부요인	촉진요인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였는가?
		장애요인	- 이 지역에 꿈의 오케스트라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면접질문 IV	비대면 교육	촉진요인	- 아동의 지속적인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장애요인	- 아동의 지속적인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V	비대면 교육	비대면 장점	- 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비대면 단점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V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안 및 개선 방안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설계되었음.
- 자료수집 과정과 면접일시 조율을 위해 해당기관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취할 시, 담당자 및 해당 연구 참여 그룹을 위해 연구목적과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서를 사전에 득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조사 시 멤버체크(member check)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dependability)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 사용하였음. 연구

자는 참여자의 증언을 인터뷰 주요 시점마다 재정리하여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② 관찰 (observation)

- 관찰은 면접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태도와 행위의 미묘한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며, 심층인터뷰만으로 해명할 수 없는 맥락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유용함이 큰 특징임(Morse & Field, 1995).
- 관찰은 연구대상자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 연구대상자가 논의할 수 없거나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 화제들, 연구대상자의 처한 상황이나 전체 맥락, 실제 생활에서 확인해야 할 면접내용, 실제 상황을 직접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면접내용, 연구대상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상적 삶의 과정이나 의미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Merriam, 1988).
- 특히, 관찰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분위기,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 발전의 변화 등을 이해하는데 용이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연구에 관찰을 진행한 동일한 기관을 2020년에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음.
- 다만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인하여 관찰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1차 관찰은 비대면 수업을 2차와 3차 관찰은 대면수업을 통해 관찰되었음.

③ 단원의 참여일지 텍스트분석 (text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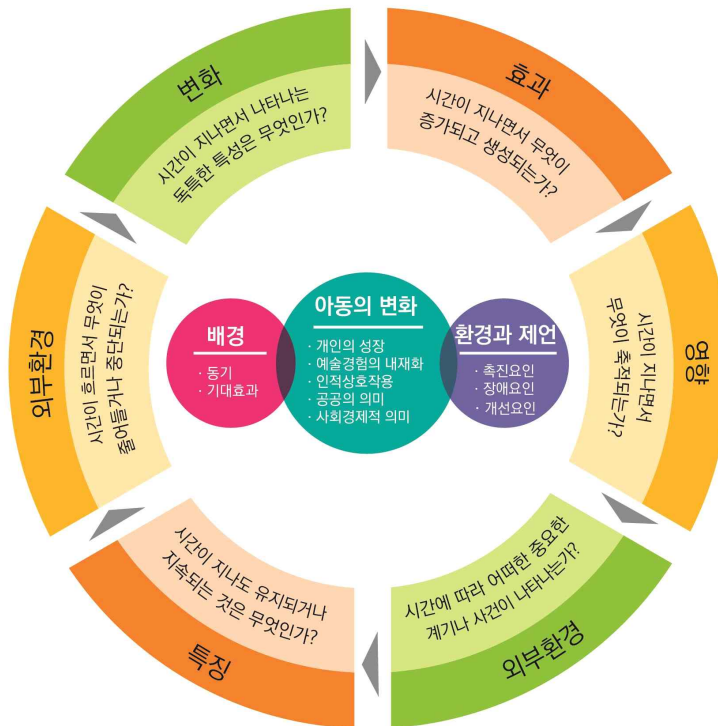
- 질적 텍스트분석(qualitative text analysis)은 연구 참여자의 글이나 그림 등 작성된 기록물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적자료 분석방법 중 하나로,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Weber, 1985).
- 텍스트분석에서 텍스트란 의사소통의 기록물, 즉 책, 잡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문서, 편지, 일기, 음악, 미술 등 상징을 통해 나타내는 기록물 모두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매주 해당 기관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참여일지를 지칭함.
- Holsti(1969)는 텍스트분석이란 구체적으로 기술된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론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tempel(2003)은 우리 모두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꽤 자주 하는 일, 즉 내용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정형화된 체계로 설명한 바 있음.
- 단원의 참여일지는 관찰기법보다 적극적이며, 면접기법보다 비침투적인 방법으로 이들 본연의 목소리를 추출하여 이들의 변화과정을 궤적화하여 좀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단원의 참여일지인 마음기록지 작성을 운영하는 거점기관이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는 마음기록지 작성이 불가하여, 2019년 자료로 대체하여 분석되었음. 자료로 사용된 단원의 마음기록지는 총 8인의 작성 분이었으며, 일반가정 단원 4인과 취약가정 단원 4인으로 구성되었음.

3.6 자료의 분석방법

- 자료의 분석모형은 크게 5개의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배경(동기와 기대효과), 아동의 변화, 비대면 교육, 외부요인, 제언으로 구분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음.
- 자료 분석은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의 과학적 4단계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의 본질적 구조를 기본으로 5개 구성요소와 이에 따르는 하위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Giorgi & Giorgi, 2008).
- 이러한 하위요소들은 현상학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s coding) 기법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의 의미와 효과내용을 구조화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되었음.
- 2020~2021년 질적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룰 지점들은 Saldana(2003)가 제시한 아래의 질문들을 참고하여 분석될 예정임.
 - 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증가하거나 생성되는가?
 - ②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축적되는가?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중요한 계기나 사건이 나타나는가? (촉진 및 장애요인)
 - ④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 ⑤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가?
 - ⑥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 요약하자면 2020년 조사는 2019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중단기적 변화의 견인요인 별 세부적 맥락을 구조화하고, 아래의 그림을 기준으로 아동에 대한 변화와 주요 요인을 조사하여, 이들의 변화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기간차를 두고 어떤 양상과 특징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되었음.

〈그림 III-8〉 질적 연구 분석구조



IV. 연구결과

1. 꿈의 오케스트라 패널 연구
2.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

IV. 연구결과

1. 꿈의 오케스트라 패널 연구

1.1 응답자 특성

- 아동 조사에는 2016년 244명, 2017년 252명, 2018년 266명, 2019년 상반기 사전조사는 320명, 하반기 사후조사는 512명, 2020년은 450명의 응답이 분석에 이용됨.
- 2019년도 상반기 조사는 2단계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의 사전 조사 성격으로, 이후 2단계 패널의 변화 검증을 위한 기준값(baseline)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됨.
- 성별 분포에서 남학생은 2016년 40.6%, 2017년 42.5%, 2018년 40.2%, 2019년 상반기 조사는 35.0%, 하반기 조사에서는 37.5%, 2020년 37.1%로 나타남.
- 출생년도는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중학생인 2004~2007년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2020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의 비율이 22.0%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20.7%, 3학년이 14.7%로 다음의 순서를 차지함.
-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 비율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63.1%, 2017년 64.7%, 2018년 63.5%, 2019년도 상반기는 66.6%, 하반기는 64.8%, 2020년 64.9%로 나타남.

〈표 IV-1〉 조사 시기별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전체	244	252	266	320	512	450
성별	남	99(40.6)	107(42.5)	107(40.2)	112(35.0)	167(37.1)
	여	145(59.4)	145(57.5)	159(59.8)	208(65.0)	283(62.9)
출생 년도	2004	3(1.2)	0(0.0)	0(0.0)	2(0.6)	1(0.2)
	2005	71(29.1)	54(21.4)	32(12.0)	0(0.0)	18(3.5)
	2006	64(26.2)	61(24.2)	57(21.4)	5(1.6)	43(8.4)
	2007	100(41.0)	94(37.3)	78(29.3)	38(11.9)	97(18.9)
	2008	3(1.2)	34(13.5)	49(18.4)	52(16.3)	77(15.0)
	2009	3(1.2)	9(3.6)	48(18.0)	65(20.3)	110(21.5)
	2010	0(0.0)	0(0.0)	2(0.8)	86(26.9)	90(17.6)
	2011	0(0.0)	0(0.0)	0(0.0)	47(14.7)	52(10.2)
	2012	0(0.0)	0(0.0)	0(0.0)	25(7.8)	24(4.7)
	2013	0(0.0)	0(0.0)	0(0.0)	0(0.0)	0(0.0)
취약 여부	취약계층	111(63.1)	163(64.7)	169(63.5)	211(66.6)	326(64.8)
	일반	65(36.9)	89(35.3)	97(36.5)	106(33.4)	177(35.2)

- 2016년부터 202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단계 패널 수는 44명임.
 - 1단계 패널의 성별 구성비는 남학생이 22.7%, 여학생이 77.3%, 출생년도는 2005~2009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의 비율은 77.3%로 나타남. 또한 지역별로는 평창(25.0%), 세종(22.7%), 인제(13.6%)와 창녕(13.6%)에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음.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의 신규 단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 202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2단계 패널의 수는 195명임.
 - 2단계 패널의 성별 구성비는 남학생이 33.8%, 여학생이 65.6%, 출생년도는 2004~2012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의 비율은 62.6%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광주(19.5%), 서울(15.9%)과 김해(15.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 2020년도 효과성 분석 패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1단계 패널	2단계 패널
전체		44(100.0)	195(100.0)
성별	남	10(22.7)	66(33.8)
	여	34(77.3)	128(65.6)
출생년도	2004	0(0.0)	1(0.5)
	2005	5(11.4)	0(0.0)
	2006	11(25.0)	2(1.0)
	2007	26(59.1)	18(9.2)
	2008	0(0.0)	32(16.4)
	2009	2(4.5)	41(21.0)
	2010	0(0.0)	56(28.7)
	2011	0(0.0)	30(15.4)
	2012	0(0.0)	15(7.7)
취약 여부	취약계층	34(77.3)	122(62.6)
	일반	10(22.7)	72(36.9)
지역	공주	8(18.2)	4(2.1)
	세종	10(22.7)	11(5.6)
	용인	3(6.8)	7(3.6)
	인제	6(13.6)	10(5.1)
	창녕	6(13.6)	6(3.1)
	평창	11(25.0)	10(5.1)
	고창	0(0.0)	7(3.6)
	부산	0(0.0)	10(5.1)
	영월	0(0.0)	10(5.1)
	남양주	0(0.0)	6(3.1)
	하남	0(0.0)	12(6.2)
	충주	0(0.0)	2(1.0)
	김해	0(0.0)	31(15.9)
	광주 광산	0(0.0)	38(19.5)
	서울 중구	0(0.0)	31(15.9)

1.2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패널 효과성 분석

1.2.1 분석 개요

- 1단계 패널의 아동 효과성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가 시기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함. 또한 측정 시기별 효과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대응별 비교를 통해 측정 시기간 평균값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함.
- 2단계 패널의 아동 효과성은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 2020년도 평가 시기별 측정값을 이용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평가 시기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함. 1단계 패널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측정 시기별 효과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대응별 비교를 통해 측정 시기간 평균값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함.
- 1단계와 2단계 패널 모두 반복측정분산분석 시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내 요인과 성별(남, 여)과 취약계층 여부(취약, 일반)의 집단 간 요인이 적용됨.

1.2.2 1단계 패널 효과성 분석 결과

1.2.2.1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효과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적 성장 효과를 분석함. 음악적 성장은 구성 요인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의 차원에서 분석됨.
- 먼저 음악적 성장 부분 중 음악지식을 살펴보면, 2016년 3.21점, 2017년 3.86점, 2018년 4.11점, 2019년 4.28점, 2020년 4.18점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17.61$, $p=.00$). 이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빠르기말을 이해하고 악보를 잘 볼 수 있으며, 악기 구별과 음의 멜로디를 이해하는 등의 음악지식이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29점에서 4.09점, 4.21점, 4.18점, 4.52점으로, 여학생은 3.19점에서 3.80점, 4.08점, 4.30점, 4.10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은 3.20점에서 3.79점, 4.14점, 4.29점, 4.16점으로, 일반계층은 3.25점에서 4.13점, 3.96점, 4.23점, 4.2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음악적 성장과 관련하여 음악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3.47점에서 2017년에는 3.98점, 2018년에는 4.13점, 2019년에는 4.30점, 2020년에는 4.02점의 추세 변화를 보이

며 시기에 따른 음악향유의 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F=2.76, p=.03$). 이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 및 악기연주 경험을 통한 음악적 경험이 오케스트라 연습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일상적 향유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른 음악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3.44점에서 3.93점, 4.07점, 3.87점, 3.72점으로 변화를 보였고, 여학생은 3.48점에서 3.99점, 4.14점, 4.42점, 4.11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음악향유의 차이 분석결과 취약계층은 3.40점에서 3.90점, 4.15점, 4.35점, 4.07점, 일반계층은 3.77점에서 4.27점, 4.04점, 4.08점, 3.83점의 변화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6년 3.35점에서 2017년 3.87점, 2018년 4.16점, 2019년 4.27점, 2020년 4.0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악태도의 변화를 보임($F=4.26, p=.00$).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음악과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을 배워가며 점차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3.44점에서 3.91점, 4.31점, 4.09점, 3.97점으로,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3.33점에서 3.86점, 4.12점, 4.32점, 4.12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성별 집단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취약계층의 평균 점수는 2016년 3.27점에서 2017년 3.81점, 2018년 4.17점, 2019년 4.28점, 2020년 4.13점으로, 일반계층은 2016년 3.66점에서 2017년 4.09점, 2018년 4.09점, 2019년 4.25점, 2020년 3.94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활동 측면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측정 시기에 따른 평균 점수가 2016년은 2.91점, 2017년은 3.17점, 2018년은 3.41점, 2019년은 3.55점, 2020년은 3.27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6년 3.19점에서 2017년 3.28점, 2018년 3.33점, 2019년 3.22점, 2020년 3.06점으로, 여학생은 2016년 2.83점에서 2017년 3.14점, 2018년 3.43점, 2019년 3.63점, 2020년 3.32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의 음악활동 평균 점수는 2016년 2.88점에서 2017년 3.06점, 2018년 3.46점, 2019년의 3.61점, 2020년의 3.31점으로, 일반계층은 2016년 3.03점에서 2017년 3.66점, 2018년 3.19점, 2019년 3.28점, 2020년 3.06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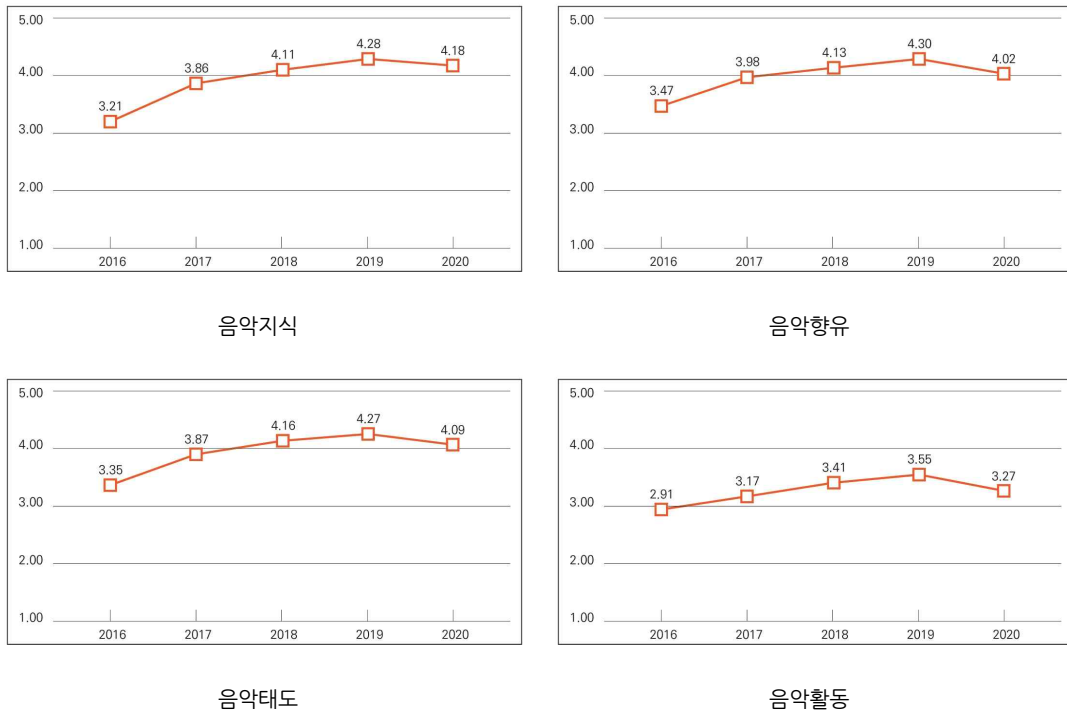
- 평가 시기에 따른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응별 비교분석을 통해 2016~2020년의 측정시기 간 음악적 성장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의 구성요인이 음악지식, 음악향유에서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성장세를 보였음. 또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는 2016년 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나, 2017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음악지식은 2020년은 2017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들의 참여 초기인 2016년과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악적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 수준은 아동들에게 내재화되어 2018년, 2019년, 2020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표 IV-3〉 1단계 패널의 음악적 성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 음악 지식	전체 (n=42)	3.21(0.56)	3.86(0.66)	4.11(0.62)	4.28(0.57)	4.18(0.63)	17.61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2017 <2020	
	성별	남(n=8)	3.29(0.57)	4.09(0.54)	4.21(0.49)	4.18(0.39)	4.52(0.56)	1.49		.21
		여(n=34)	3.19(0.57)	3.80(0.68)	4.08(0.65)	4.30(0.61)	4.10(0.62)			
	취약 여부	취약(n=34)	3.20(0.60)	3.79(0.69)	4.14(0.63)	4.29(0.60)	4.16(0.62)	0.85		.50
		일반(n=8)	3.25(0.41)	4.13(0.43)	3.96(0.61)	4.23(0.50)	4.27(0.69)			
B1 음악 향유	전체 (n=40)	3.47(0.60)	3.98(0.85)	4.13(0.75)	4.30(0.86)	4.02(0.90)	2.76	0.03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9)	3.44(0.61)	3.93(0.41)	4.07(0.70)	3.87(0.95)	3.72(0.53)	0.74		.57
		여(n=31)	3.48(0.61)	3.99(0.95)	4.14(0.77)	4.42(0.80)	4.11(0.97)			
	취약 여부	취약(n=32)	3.40(0.54)	3.90(0.91)	4.15(0.78)	4.35(0.90)	4.07(0.90)	0.95		.44
		일반(n=8)	3.77(0.77)	4.27(0.53)	4.04(0.64)	4.08(0.66)	3.83(0.90)			
B2 음악 태도	전체 (n=41)	3.35(0.56)	3.87(0.96)	4.16(0.81)	4.27(0.70)	4.09(0.87)	4.26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8)	3.44(0.65)	3.91(0.67)	4.31(0.73)	4.09(0.61)	3.97(0.73)	0.63		.64
		여(n=33)	3.33(0.55)	3.86(1.03)	4.12(0.83)	4.32(0.73)	4.12(0.91)			
	취약 여부	취약(n=33)	3.27(0.51)	3.81(1.03)	4.17(0.84)	4.28(0.70)	4.13(0.87)	0.89		.47
		일반(n=8)	3.66(0.69)	4.09(0.61)	4.09(0.71)	4.25(0.76)	3.94(0.94)			
B3 음악 활동	전체 (n=41)	2.91(0.36)	3.17(0.87)	3.41(0.88)	3.55(0.97)	3.27(0.90)	1.02	.40	-	
	성별	남(n=9)	3.19(0.48)	3.28(0.91)	3.33(0.99)	3.22(0.70)	3.06(0.61)	0.89		.47
		여(n=32)	2.83(0.29)	3.14(0.88)	3.43(0.86)	3.63(1.02)	3.32(0.96)			
	취약 여부	취약(n=33)	2.88(0.36)	3.06(0.87)	3.46(0.86)	3.61(1.02)	3.31(0.92)	2.24		.07
		일반(n=8)	3.03(0.36)	3.66(0.77)	3.19(0.98)	3.28(0.71)	3.06(0.84)			

〈그림 IV-1〉 조사 시기별 음악적 성장 변화 (5점 만점 기준)



1.2.2.2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개인적 발달 효과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개인 수준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2020년의 참여 시기에 따라 아동들의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건강(스트레스)의 평균 변화를 비교 분석함.
- 개인적 발달과 관련하여 자존감의 평균 점수 추세를 살펴보면, 2016년 3.44점, 2017년 4.02점, 2018년 4.08점, 2019년 4.29점, 2020년 4.01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를 나타냄($F=3.37$, $p=.01$).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47점, 2017년 3.89점, 2018년 3.98점, 2019년 3.91점, 2020년 4.13점으로, 여학생은 2016년 3.44점에서 4.05점, 4.11점, 4.39점, 3.98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취약계층은 2016년 3.43점에서

- 4.01점, 4.14점, 4.42점, 4.05점, 일반계층은 2016년 3.50점에서 4.08점, 3.83점, 3.75점, 3.83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아동의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성실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3.65점, 2017년은 3.78점, 2018년은 3.61점, 2019년은 3.70점, 2020년 3.29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러한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못함.
 - 성별에 따른 성실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2016년 3.66점, 2017년 3.89점, 2018년 3.43점, 2019년 3.77점, 2020년 3.36점, 여학생은 2016년 3.65점, 2017년 3.75점, 2018년 3.65점, 2019년 3.69점, 2020년 3.2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성실의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은 2016년 3.63점, 2017년 3.75점, 2018년 3.67점, 2019년 3.79점, 2020년 3.22점, 일반계층은 2016년 3.72점에서 2017년 3.88점, 2018년 3.38점, 2019년 3.38점, 2020년 3.56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의사소통능력은 2016년의 3.45점에서 2017년 4.11점, 2018년은 4.21점, 2019년 4.28점, 2020년 4.0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F=6.64$, $p=.00$).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참여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임.
 - 의사소통능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34점, 2017년 4.03점, 2018년 4.09점, 2019년 4.06점, 2020년 3.97점, 여학생은 2016년 3.48점, 2017년 4.13점, 2018년 4.24점, 2019년 4.33점, 2020년 4.05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성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2016년 3.46점, 2017년 4.14점, 2018년 4.23점, 2019년 4.27점, 2020년 4.06점, 일반계층은 2016년 3.39점, 2017년 3.96점, 2018년 4.14점, 2019년 4.32점, 2020년 3.93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개인발달 중 미래전망과 관련한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평균 3.44점에서 2017년 4.11점, 2018년 4.14점, 2019년 4.27점, 2020년 4.0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냄($F=5.42$, $p=.0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긍정적 경험과 내적 발달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24점, 2017년 4.18점, 2018년 4.04점, 2019년 4.09점, 2020년 4.27점, 여학생은 2016년 3.50점, 2017년 4.09점, 2018년 4.17점, 2019년 4.32점, 2020년 3.94점의 변화 추세를 보였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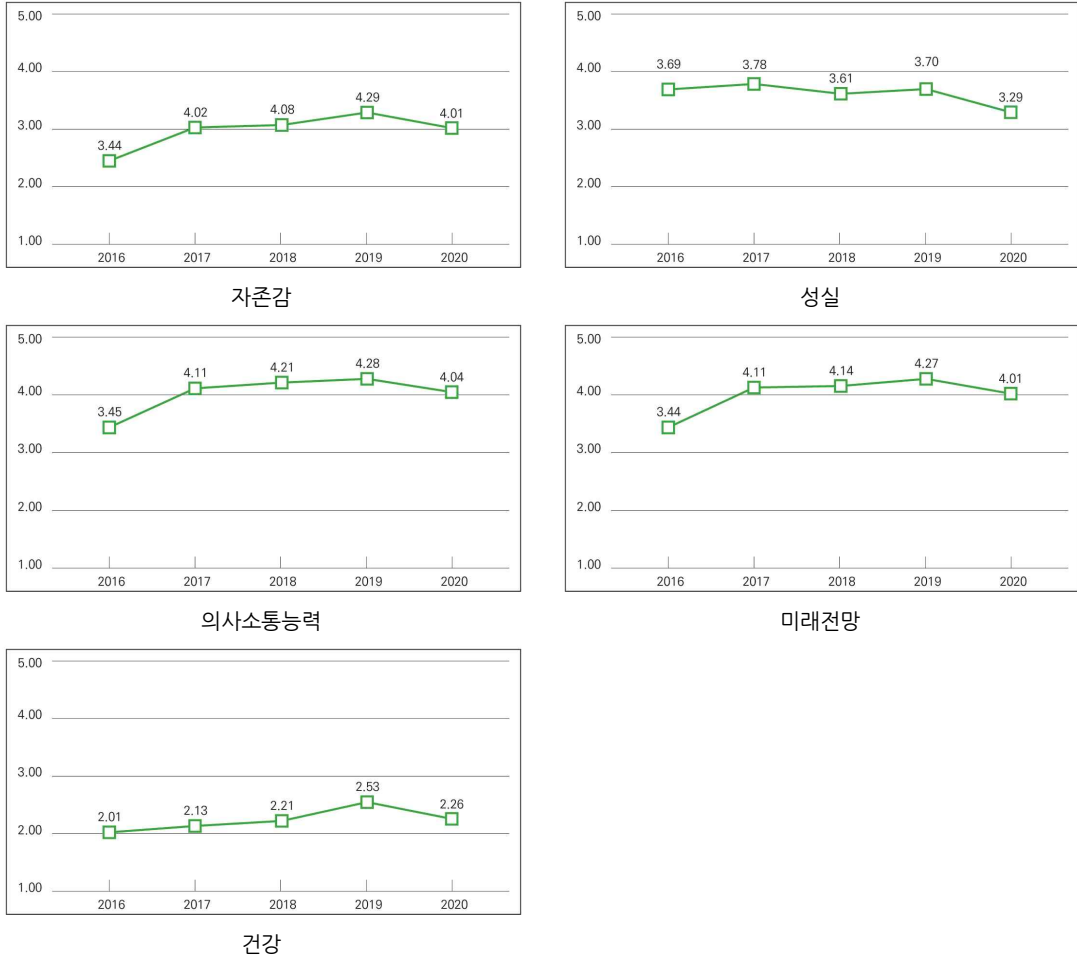
-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20년의 측정 시기에 취약계층은 3.43점, 4.10점, 4.15점, 4.31점, 4.07점의 변화를, 일반 계층은 3.48점, 4.15점, 4.10점, 4.10점, 3.78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참여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과 관련한 건강에 대한 평가 결과, 2016년 2.01점, 2017년 2.13점, 2018년 2.21점, 2019년 2.53점, 2020년 2.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F=2.78$, $p=.03$).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남학생의 변화는 2.50점, 2.12점, 1.86점, 2.86점, 2.40점, 여학생의 변화는 1.90점, 2.13점, 2.28점, 2.45점, 2.23점으로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2.53$, $p=.04$).
-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19년의 측정 시기에 취약계층은 1.84점, 1.96점, 2.17점, 2.36점, 2.09점의 변화를, 일반 계층은 2.69점, 2.81점, 2.38점, 3.19점, 2.94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대응별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 시기에 따른 아동들의 개인적 발달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함. 분석 결과, 아동의 자존감과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수준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의 평가 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이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성장한 아동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수준이 아동들에게 내재화되어 2018년, 2019년, 2020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 수준은 2019년에 2016~2018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아동의 2020년도 개인 발달 수준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2019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1단계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중학생의 발달 단계 특성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됨.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개인 발달과 관련한 수준이 감소함을 제시하였던 선행연구 결과는 이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줌. 예를 들면 최정현(2019)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매년 점차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음. 서정아, 엄지민(2015)은 동일시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수준이 감소함을 규명하였음. 또한 임성택, 주동범, 이금주(2010)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 개인 발달과 관련한 정서조절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스트레스 수준도 중학교 2학년까지 높아지고, 이 수준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지됨을 제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 2019년과 2020년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수준 증가의 요인과 함께 음악적 수준 향상에 따른 부담과 음악적 권태와 관련한 오케스트라 활동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됨.

〈표 IV-4〉 1단계 패널의 개인적 발달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1 자존감	전체 (n=42)	3.44(0.64)	4.02(0.62)	4.08(0.77)	4.29(0.82)	4.01(0.81)	3.37	.01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9)	3.47(0.50)	3.89(0.57)	3.98(0.74)	3.91(0.90)	4.13(0.62)	0.28		.89
		여(n=32)	3.44(0.68)	4.05(0.64)	4.11(0.78)	4.39(0.77)	3.98(0.86)			
	취약 여부	취약(n=34)	3.43(0.61)	4.01(0.63)	4.14(0.74)	4.42(0.80)	4.05(0.85)	1.06		.38
		일반(n=8)	3.50(0.81)	4.08(0.62)	3.83(0.89)	3.75(0.67)	3.83(0.65)			
C2 성실	전체 (n=39)	3.65(0.71)	3.78(0.61)	3.61(0.82)	3.70(0.82)	3.29(0.85)	1.45	.22	-	
	성별	남(n=8)	3.66(0.74)	3.89(0.46)	3.43(1.02)	3.77(0.61)	3.36(0.74)	0.44		.78
		여(n=31)	3.65(0.72)	3.75(0.64)	3.65(0.78)	3.69(0.87)	3.27(0.88)			
	취약 여부	취약(n=31)	3.63(0.70)	3.75(0.61)	3.67(0.83)	3.79(0.79)	3.22(0.88)	0.75		.56
		일반(n=8)	3.72(0.81)	3.88(0.61)	3.38(0.83)	3.38(0.90)	3.56(0.70)			
C3 의사 소통 능력	전체 (n=41)	3.45(0.67)	4.11(0.64)	4.21(0.69)	4.28(0.71)	4.04(0.69)	6.64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8)	3.34(0.64)	4.03(0.66)	4.09(1.00)	4.06(0.44)	3.97(0.75)	0.78		.54
		여(n=33)	3.48(0.69)	4.13(0.64)	4.24(0.62)	4.33(0.76)	4.05(0.69)			
	취약 여부	취약(n=34)	3.46(0.66)	4.14(0.65)	4.23(0.71)	4.27(0.75)	4.06(0.71)	0.32		.87
		일반(n=7)	3.39(0.79)	3.96(0.64)	4.14(0.69)	4.32(0.51)	3.93(0.64)			
E1 미래 전망	전체 (n=40)	3.44(0.55)	4.11(0.87)	4.14(0.69)	4.27(0.72)	4.01(0.88)	5.42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9)	3.24(0.41)	4.18(0.87)	4.04(0.71)	4.09(0.66)	4.27(0.69)	1.29		.28
		여(n=31)	3.50(0.58)	4.09(0.88)	4.17(0.70)	4.32(0.74)	3.94(0.92)			
	취약 여부	취약(n=32)	3.43(0.48)	4.10(0.91)	4.15(0.70)	4.31(0.71)	4.07(0.87)	0.44		.78
		일반(n=8)	3.48(0.82)	4.15(0.72)	4.10(0.73)	4.10(0.79)	3.78(0.92)			
E2 건강	전체 (n=40)	2.01(0.91)	2.13(0.97)	2.21(0.97)	2.53(1.06)	2.26(0.89)	2.78	.03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7)	2.50(1.16)	2.12(1.22)	1.86(0.81)	2.86(0.98)	2.40(1.05)	2.53		.04
		여(n=33)	1.90(0.83)	2.13(0.93)	2.28(0.99)	2.45(1.08)	2.23(0.86)			
	취약 여부	취약(n=32)	1.84(0.75)	1.96(0.86)	2.17(0.98)	2.36(1.02)	2.09(0.81)	1.54		.19
		일반(n=8)	2.69(1.19)	2.81(1.14)	2.38(0.97)	3.19(1.01)	2.94(0.90)			

〈그림 IV-2〉 측정 시기에 따른 개인발달의 변화 (5점 만점 기준)



1.2.2.3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인적 관계 효과분석

- 1단계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와 아동의 인적 관계의 효과성 지표의 변화를 5년간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인적 관계의 주요 평가지표는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가족응집력,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으로 구성하였음.
- 인적 관계 부분에서 타인수용도에 대한 분석 결과 참여 아동의 평균 점수는 2016년 3.40점, 2017년 3.92점, 2018년 4.21점, 2019년 4.34점, 2020년 3.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음($F=6.71$,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타인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음을 나타냄.
-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남학생은 평가 시기별 3.50점, 4.08점, 3.95점, 4.27

- 점, 3.63점의 변화를, 여학생은 3.37점, 3.88점, 4.29점, 4.36점, 4.02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취약계층은 3.40점, 3.94점, 4.24점, 4.40점, 4.01점, 일반계층은 3.38점, 3.84점, 4.06점, 4.08점, 3.58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1단계 패널의 타인배려는 2016년 3.28점, 2017년 3.89점, 2018년 4.12점, 2019년 4.29점, 2020년 3.9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F=8.60$, $p=.00$). 이는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함.
 - 성별에 따른 타인배려의 차이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30점, 2017년 4.07점, 2018년 3.93점, 2019년 4.10점, 3.90점, 여학생은 2016년 3.27점, 2017년 3.84점, 2018년 4.18점, 2019년 4.35점, 2020년 4.00점의 점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취약계층은 3.30점, 3.91점, 4.18점, 4.34점, 4.00점, 일반계층은 3.21점, 3.79점, 3.88점, 4.06점, 3.88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가족응집력의 분석 결과 2016년에는 4.20점, 2017년 4.35점, 2018년 4.36점, 2019년 4.23점, 2020년 4.0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성별 차이 분석 결과에서도 남학생은 3.88점, 4.35점, 4.38점, 4.38점, 4.08점, 여학생은 4.30점, 4.34점, 4.35점, 4.18점, 4.06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도 취약계층의 변화는 4.22점, 4.29점, 4.39점, 4.18점, 4.03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07점, 4.61점, 4.21점, 4.46점, 4.25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협동 능력의 구성요인으로 집단축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도의 평균 점수는 3.19점에서 2017년 3.95점, 2018년 4.10점, 2019년 4.10점, 2020년 3.9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수준을 보임($F=7.44$, $p=.0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를 통한 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집단의 구성원들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집단축진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40점, 4.23점, 4.08점, 4.02점, 3.77점으로, 여학생은 3.13점, 3.86점, 4.10점, 4.12점, 3.9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집단축진의 차이에서도 취약계층은 3.20점, 3.95점, 4.14점, 4.12점, 3.98점, 일반계층은 3.15점, 3.92점, 3.92점, 4.00점, 3.6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협동심 중 팔로워십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의 평균 점수는 3.40점, 2017년은 4.00점, 2018년은 4.27점, 2019년은 4.26점, 2020년은 4.1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F=4.68$, $p=.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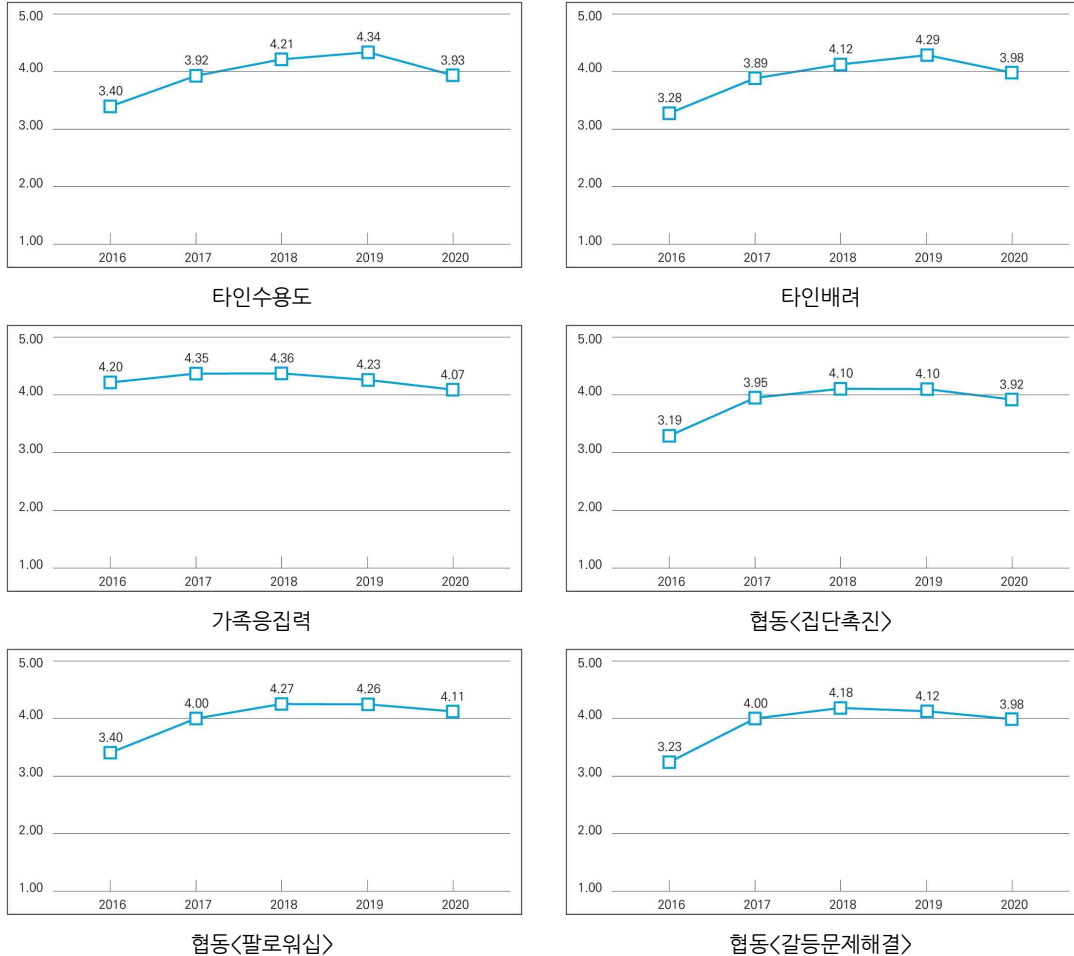
- 남학생의 팔로워십은 3.60점, 3.80점, 4.03점, 3.90점, 3.87점으로, 여학생은 3.34점, 4.06점, 4.34점, 4.37점, 4.18점으로 변화하였고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3.39점, 4.06점, 4.30점, 4.32점, 4.18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3.46점, 3.75점, 4.13점, 4.00점, 3.79점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협동심 중 갈등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2016년 3.23점, 2017년 4.00점, 2018년 4.18점, 2019년 4.12점, 2020년 3.9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냄($F=7.46$, $p=.00$).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 분석 결과, 남학생은 3.33점, 3.88점, 4.08점, 3.95점, 3.78점, 여학생은 3.19점, 4.04점, 4.22점, 4.18점, 4.05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은 3.24점, 4.02점, 4.24점, 4.18점, 4.05점, 일반계층은 3.17점, 3.94점, 3.94점, 3.88점, 3.72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평가 시기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적 관계 발달 수준에 대해 대응별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 시기별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함.
- 분석 결과, 아동의 타인배려, 협동의 구성차원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모두에서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의 평가 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이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성장한 아동의 타인배려, 협동 수준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 지속적으로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타인수용도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2020년의 타인수용도는 2016년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며, 2017년과 2018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2020년의 타인수용도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1년차인 2016년보다는 향상되었고, 2017년과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됨.
- 1단계 패널의 2020년 인적 관계의 평균 수준이 2019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 이는 2020년이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그룹 활동과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과 역량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됨.

〈표 IV-5〉 1단계 패널의 인적 관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1 타인 수용도	전체(n=44)		3.40(0.64)	3.92(0.82)	4.21(0.73)	4.34(0.68)	3.93(0.91)	6.71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2016 < 2020
	성별	남(n=10)	3.50(0.60)	4.08(0.74)	3.95(0.69)	4.27(0.64)	3.63(0.82)	0.62	.65	
		여(n=34)	3.37(0.65)	3.88(0.85)	4.29(0.73)	4.36(0.70)	4.02(0.92)			
	취약 여부	취약(n=36)	3.40(0.64)	3.94(0.85)	4.24(0.74)	4.40(0.68)	4.01(0.93)	0.32	.87	
		일반(n=8)	3.38(0.69)	3.84(0.72)	4.06(0.70)	4.08(0.68)	3.58(0.73)			
D2 타인 배려	전체(n=43)		3.28(0.54)	3.89(0.80)	4.12(0.64)	4.29(0.64)	3.98(0.75)	8.60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10)	3.30(0.66)	4.07(0.81)	3.93(0.73)	4.10(0.43)	3.90(0.82)	1.55	.19	
		여(n=33)	3.27(0.51)	3.84(0.80)	4.18(0.61)	4.35(0.69)	4.00(0.74)			
	취약 여부	취약(n=35)	3.30(0.56)	3.91(0.83)	4.18(0.64)	4.34(0.65)	4.00(0.77)	0.18	.95	
		일반(n=8)	3.21(0.47)	3.79(0.71)	3.88(0.62)	4.06(0.61)	3.88(0.67)			
H 가족 응집력	전체(n=42)		4.20(0.80)	4.35(0.77)	4.36(0.73)	4.23(0.84)	4.07(0.94)	1.33	.26	-
	성별	남(n=10)	3.88(0.97)	4.35(0.78)	4.38(0.73)	4.38(0.49)	4.08(0.91)	1.57	.18	
		여(n=32)	4.30(0.73)	4.34(0.78)	4.35(0.75)	4.18(0.92)	4.06(0.96)			
	취약 여부	취약(n=35)	4.22(0.75)	4.29(0.76)	4.39(0.66)	4.18(0.86)	4.03(0.94)	0.70	.59	
		일반(n=7)	4.07(1.09)	4.61(0.83)	4.21(1.07)	4.46(0.74)	4.25(0.97)			
I1 협동 - 집단 촉진	전체(n=44)		3.19(0.58)	3.95(0.76)	4.10(0.76)	4.10(0.78)	3.92(0.86)	7.44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10)	3.40(0.65)	4.23(0.70)	4.08(0.73)	4.02(0.60)	3.77(0.87)	1.52	.20	
		여(n=34)	3.13(0.55)	3.86(0.76)	4.10(0.78)	4.12(0.83)	3.97(0.86)			
	취약 여부	취약(n=36)	3.20(0.57)	3.95(0.78)	4.14(0.80)	4.12(0.83)	3.98(0.86)	0.27	.89	
		일반(n=8)	3.15(0.68)	3.92(0.70)	3.92(0.50)	4.00(0.51)	3.67(0.85)			
I2 협동 - 팔로 위십	전체(n=43)		3.40(0.66)	4.00(0.78)	4.27(0.72)	4.26(0.74)	4.11(0.73)	4.68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10)	3.60(0.66)	3.80(0.77)	4.03(0.73)	3.90(0.61)	3.87(0.80)	0.58	.68	
		여(n=33)	3.34(0.65)	4.06(0.78)	4.34(0.71)	4.37(0.74)	4.18(0.70)			
	취약 여부	취약(n=35)	3.39(0.61)	4.06(0.82)	4.30(0.72)	4.32(0.77)	4.18(0.71)	0.30	.88	
		일반(n=8)	3.46(0.89)	3.75(0.50)	4.13(0.75)	4.00(0.53)	3.79(0.78)			
I3 협동 - 갈등 문제 해결	전체(n=41)		3.23(0.70)	4.00(0.77)	4.18(0.70)	4.12(0.86)	3.98(0.77)	7.46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성별	남(n=10)	3.33(0.70)	3.88(0.83)	4.08(0.74)	3.95(0.64)	3.78(0.84)	0.33	.86	
		여(n=31)	3.19(0.71)	4.04(0.76)	4.22(0.70)	4.18(0.92)	4.05(0.75)			
	취약 여부	취약(n=33)	3.24(0.68)	4.02(0.81)	4.24(0.72)	4.18(0.91)	4.05(0.74)	0.49	.74	
		일반(n=8)	3.17(0.84)	3.94(0.65)	3.94(0.61)	3.88(0.58)	3.72(0.86)			

〈그림 IV-3〉 인적 관계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2.2.4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효과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의 효과성을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함.
- 공공적 함의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3.29점, 2017년 3.74점, 2018년 3.86점, 2019년 3.50점, 2020년 3.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 ($F=4.73$,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주변사람, 학교,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36점, 4.00점, 3.94점, 3.58점, 3.26점, 여학생은 3.26점, 3.66점, 3.84점, 3.48점, 3.18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28점, 3.72점, 3.94점, 3.49점, 3.16점, 일반계층은 3.30점, 3.80점, 3.60점, 3.54점, 3.30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속감/유대감의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19년의 평균 점수는 3.50점, 3.93점, 4.08점, 3.72점, 3.57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F=3.34$, $p=.01$).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의 지역사회 및 준거집단에서의 애착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40점, 4.00점, 3.92점, 3.74점, 3.46점, 여학생은 3.53점, 3.92점, 4.13점, 3.71점, 3.60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42점, 3.95점, 4.08점, 3.67점, 3.58점, 일반계층은 3.74점, 3.90점, 4.10점, 3.88점, 3.54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참여행동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는 2016년 3.24점, 2017년 3.63점, 2018년 3.53점, 2019년 3.53점, 2020년 3.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음($F=2.94$, $p=.02$).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공동체 참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남학생의 공동체 참여행동은 3.30점, 3.50점, 3.57점, 3.60점, 3.43점, 여학생은 3.22점, 3.67점, 3.52점, 3.51점, 3.37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은 3.19점, 3.52점, 3.49점, 3.46점, 3.41점, 일반계층은 3.40점, 4.00점, 3.63점, 3.73점, 3.30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변화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3.47점, 2017년 4.05점, 2018년 4.31점, 2019년 3.93점, 2020년 3.7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F=4.00$,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 고민을 나누는 친구, 가깝게 지내는 친척 등의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냄.
- 남학생의 사회자본 수준은 3.60점, 3.77점, 4.30점, 3.87점, 3.63점으로 변화하였고 여학생은 3.43점, 4.14점, 4.31점, 3.95점, 3.79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성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사회자본 수준은 3.40점, 4.00점, 4.29점, 3.87점, 3.76점, 일반계층은 3.70점, 4.23점, 4.37점, 4.13점, 3.73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평가 시기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수준에 대해서는 대응별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 시기별 변화를 면밀하게 검증함. 분석 결과, 소속감/유대감과

사회자본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에 지속적으로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었음. 그러나 소속감/유대감의 경우 2020년은 2019년과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없으나, 2017년과 2018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사회자본은 2020년은 2019년과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2018년보다는 유의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이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러나 2020년의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여 1년차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 및 사회자본의 수준이 2020년에 감소한 것은 1단계 패널의 발달 단계적 특성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초등학교 6학년(1차), 중학교 1학년(2차), 중학교 2학년(3차)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신뢰와 관련한 사회적 영역의 수준은 차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음(서정아, 엄지민, 2015). 따라서 본 연구 패널의 사회자본 수준의 감소폭이 일반적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감소폭보다 적다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의 긍정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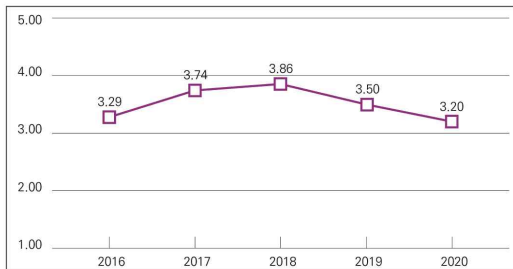
〈표 IV-6〉 1단계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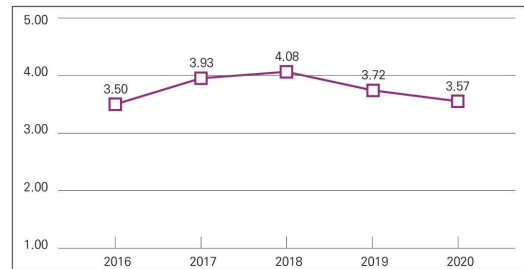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1 사회적 신뢰	전체(n=44)		3.29(0.61)	3.74(0.77)	3.86(0.90)	3.50(0.83)	3.20(0.70)	4.73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2016 = 2020
	성별	남(n=10)	3.36(0.56)	4.00(0.71)	3.94(1.01)	3.58(0.58)	3.26(0.38)	0.44	.78	
		여(n=34)	3.26(0.63)	3.66(0.79)	3.84(0.89)	3.48(0.90)	3.18(0.78)			
	취약 여부	취약(n=34)	3.28(0.53)	3.72(0.82)	3.94(0.91)	3.49(0.90)	3.16(0.67)	0.15	.96	
		일반(n=10)	3.30(0.87)	3.80(0.63)	3.60(0.86)	3.54(0.58)	3.30(0.85)			
G2 소속감 유대감	전체(n=43)		3.50(0.64)	3.93(0.77)	4.08(0.77)	3.72(0.74)	3.57(0.74)	3.34	.01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2017 = 2018 < 2020
	성별	남(n=10)	3.40(0.57)	4.00(0.76)	3.92(0.91)	3.74(0.60)	3.46(0.57)	0.61	.65	
		여(n=33)	3.53(0.67)	3.92(0.78)	4.13(0.73)	3.71(0.79)	3.60(0.79)			
	취약 여부	취약(n=33)	3.42(0.55)	3.95(0.77)	4.08(0.81)	3.67(0.74)	3.58(0.58)	0.09	.99	
		일반(n=10)	3.74(0.87)	3.90(0.81)	4.10(0.64)	3.88(0.77)	3.54(1.15)			
G3 공동체 참여	전체(n=43)		3.24(0.66)	3.63(0.94)	3.53(0.97)	3.53(0.94)	3.39(0.79)	2.94	.02	2016 < 2017 = 2018
	성별	남(n=10)	3.30(0.58)	3.50(1.19)	3.57(1.09)	3.60(0.60)	3.43(0.67)	0.24	.91	

행동		여(n=33)	3.22(0.69)	3.67(0.87)	3.52(0.95)	3.51(1.03)	3.37(0.84)	2.36	.06	= 2019 > 2020 2016 = 2020
	취약 여부	취약(n=33)	3.19(0.60)	3.52(0.95)	3.49(0.96)	3.46(0.91)	3.41(0.68)			
		일반(n=10)	3.40(0.83)	4.00(0.86)	3.63(1.06)	3.73(1.06)	3.30(1.13)			
G4 사회 자본		전체(n=44)	3.47(0.67)	4.05(0.87)	4.31(0.75)	3.93(0.97)	3.76(1.03)	4.00	.00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2018 >2020
	성별	남(n=10)	3.60(0.62)	3.77(1.10)	4.30(0.76)	3.87(1.15)	3.63(0.84)	0.32	.86	
		여(n=34)	3.43(0.69)	4.14(0.80)	4.31(0.76)	3.95(0.93)	3.79(1.08)			
	취약 여부	취약(n=34)	3.40(0.67)	4.00(0.93)	4.29(0.78)	3.87(1.01)	3.76(0.98)	0.81	.52	
		일반(n=10)	3.70(0.67)	4.23(0.67)	4.37(0.66)	4.13(0.83)	3.7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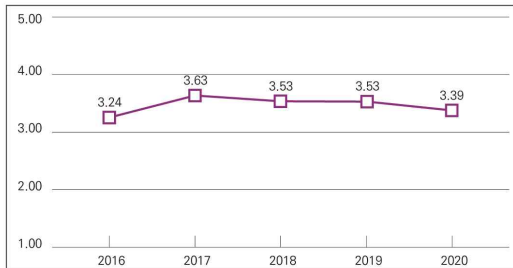
〈그림 IV-4〉 공공적 합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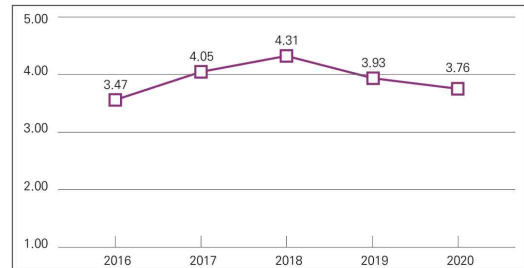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 자본

1.2.3 2단계 패널 효과성 분석 결과

1.2.3.1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효과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2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적 성장을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 음악적 경험 범주확장의 차원에서 분석함
- 2단계 패널의 음악지식은 2019년 상반기 3.17점, 2019년 하반기 3.52점, 2020년 3.6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임($F=34.32$, $p=.00$). 이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빠르기말을 이해하고 악보를 잘 볼 수 있으며, 악기 구별과 음의 멜로디를 이해하는 등의 음악지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은 2.98점에서 3.42점, 3.53점으로, 여학생은 3.27점에서 3.58점, 3.76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은 2.99점에서 3.39점, 3.48점으로, 일반계층은 3.47점에서 3.75점, 4.01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2단계 패널의 음악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의 3.93점에서 2019년 하반기 4.19점, 2020년 4.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 추세를 보임($F=7.90$, $p=.00$). 이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 및 악기 연주 경험을 통한 음악적 경험이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일상적 향유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른 음악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3.87점에서 3.94점, 4.07점으로 변화하였고, 여학생은 3.94점에서 4.33점, 4.2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음악향유의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89점에서 4.14점, 4.11점, 일반계층은 4.01점에서 4.27점, 4.36점의 변화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태도는 2019년 상반기 3.95점에서 2019년 하반기 4.04점, 2020년 4.1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임($F=5.19$, $p=.01$).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음악과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을 배워가며 점차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3.82점에서 3.85점, 4.11점으로,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4.00점에서 4.14점, 4.16점으로 성장하였으나, 성별 집단에 따른 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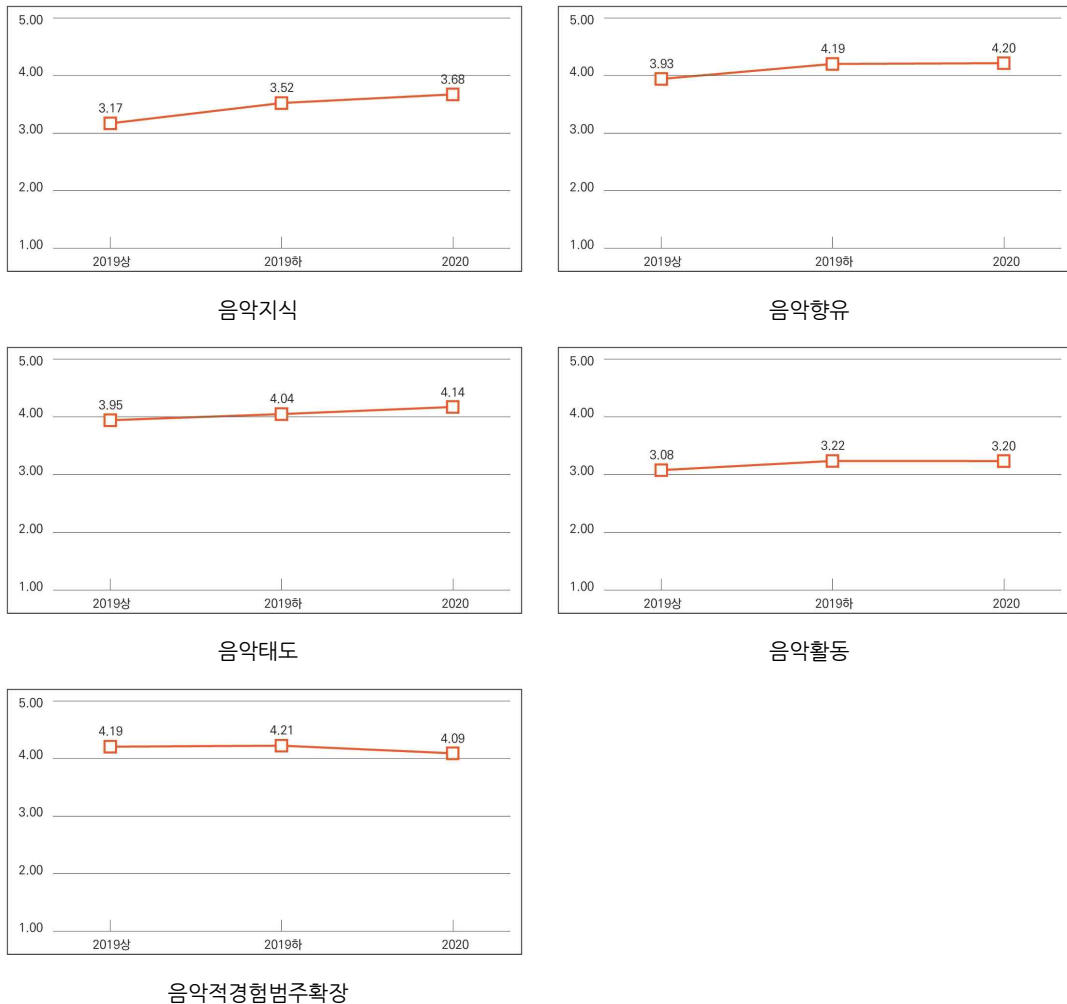
- 취약계층의 평균 점수는 2019년 상반기 3.86점에서 2019년 하반기 3.97점, 2020년 4.03점으로,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4.07점에서 2019년 하반기 4.16점, 2020년 4.33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활동 측면의 효과성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08점에서 2019년 하반기 3.22점, 2020년 3.20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F=1.74$, $p=.18$)
 - 성별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3.01점에서 2019년 하반기 3.07점, 2020년 3.14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3.12점에서 2019년 하반기 3.30점, 2020년 3.23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의 음악활동 평균 점수는 2019년 상반기 2.96점에서 2019년 하반기 3.16점, 2020년 3.03점으로,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3.29점에서 2019년 하반기 3.32점, 2020년 3.50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적경험 범주확장 측면의 효과성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4.19점에서 2019년 하반기 4.21점, 2020년 4.09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F=0.36$, $p=.70$)
 - 성별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4.03점에서 2019년 하반기 4.13점, 2020년 3.98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4.27점에서 2019년 하반기 4.25점, 2020년 4.15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의 음악적경험 범주확장 평균 점수는 2019년 상반기 4.14점에서 2019년 하반기 4.26점, 2020년 3.97점으로,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4.27점에서 2019년 하반기 4.12점, 2020년 4.30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4.50$, $p=.01$).
- 평가 시기에 따른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응별 비교분석을 통해 측정 시기 간 음악적 성장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의 구성요인이 음악지식, 음악향유와 음악태도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참여 1년차인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보다 참여 2년차인 2020년 유의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단계 패널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보다 참여 1년 후, 참여 2년 후 음악적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됨.

〈표 IV-7〉 2단계 패널의 음악적 성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사전)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A 음악지식	전체(n=187)		3.17(0.99)	3.52(0.90)	3.68(0.86)	34.32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6)	2.98(1.00)	3.42(0.94)	3.53(0.95)	0.49	.61	
		여(n=121)	3.27(0.97)	3.58(0.87)	3.76(0.80)			
	취약 여부	취약(n=118)	2.99(0.95)	3.39(0.92)	3.48(0.87)	1.70	.18	
		일반(n=69)	3.47(0.98)	3.75(0.83)	4.01(0.75)			
B1 음악향유	전체(n=190)		3.93(0.78)	4.19(0.80)	4.20(0.80)	7.90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7)	3.87(0.83)	3.94(0.89)	4.07(0.86)	1.97	.14	
		여(n=123)	3.97(0.75)	4.33(0.72)	4.27(0.75)			
	취약 여부	취약(n=121)	3.89(0.84)	4.14(0.86)	4.11(0.83)	0.80	.45	
		일반(n=69)	4.01(0.66)	4.27(0.68)	4.36(0.70)			
B2 음악태도	전체(n=184)		3.95(0.84)	4.04(0.81)	4.14(0.75)	5.19	.01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4)	3.82(0.94)	3.85(0.88)	4.11(0.88)	1.64	.20	
		여(n=120)	4.00(0.78)	4.14(0.75)	4.16(0.67)			
	취약 여부	취약(n=115)	3.86(0.88)	3.97(0.84)	4.03(0.78)	0.69	.50	
		일반(n=69)	4.07(0.75)	4.16(0.75)	4.33(0.67)			
B3 음악활동	전체(n=188)		3.08(0.88)	3.22(0.91)	3.20(0.86)	1.74	.18	-
	성별	남(n=65)	3.01(0.87)	3.07(1.00)	3.14(0.99)	0.35	.70	
		여(n=123)	3.12(0.88)	3.30(0.85)	3.23(0.79)			
	취약 여부	취약(n=118)	2.96(0.88)	3.16(0.94)	3.03(0.86)	2.03	.13	
		일반(n=70)	3.29(0.84)	3.32(0.85)	3.50(0.78)			
B4 음악적 경험 범주 확장	전체(n=192)		4.19(0.86)	4.21(0.90)	4.09(0.85)	0.36	.70	-
	성별	남(n=67)	4.03(0.90)	4.13(1.02)	3.98(0.95)	0.35	.70	
		여(n=125)	4.27(0.83)	4.25(0.84)	4.15(0.79)			
	취약 여부	취약(n=122)	4.14(0.88)	4.26(0.87)	3.97(0.92)	4.50	.01	
		일반(n=70)	4.27(0.82)	4.12(0.95)	4.30(0.66)			

〈그림 IV-5〉 조사 시기별 음악적 성장 변화 (5점 만점 기준)



1.2.3.2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개인적 발달 효과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개인 수준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 단계 패널 아동들의 참여 시기에 따라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건강(스트레스), 행복, 행동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의 평균 변화를 비교 분석함.
- 자존감의 변화는 2019년 상반기 3.83점, 2019년 하반기 3.87점, 2020년 4.21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라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F=17.12$, $p=.00$).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3.79점, 2019년 하반기

- 3.83점, 2020년 4.17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3.84점에서 3.88점, 4.22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3.74점에서 3.82점, 4.12점으로,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3.97점에서 3.94점, 4.36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단계 패널 아동의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성실의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72점, 2019년 하반기 3.68점, 2020년 3.5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검증되지 않음 ($F=2.07$, $p=.13$).
 - 성별에 따른 성실의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3.70점, 2019년 하반기 3.60점, 2020년 3.53점,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3.72점, 2019년 하반기 3.72점, 2020년 3.55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3.66점, 2019년 하반기 3.63점, 2020년 3.38점,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3.82점, 2019년 하반기 3.76점, 2020년 3.81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취약계층여부에 따라 집단 간 효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4.09$, $p=.02$).
 - 의사소통능력은 2019년 상반기 3.82점에서 2019년 하반기 3.79점, 2020년 4.0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F=10.54$, $p=.00$).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참여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임.
 - 의사소통능력의 변화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3.76점, 2019년 하반기 3.69점, 2020년 3.90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3.85점, 2019년 하반기 3.85점, 2020년 4.12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3.75점, 2019년 하반기 3.77점, 2020년 3.92점으로,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3.93점, 2019년 하반기 3.83점, 2020년 4.26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단계 패널의 미래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96점에서 2019년 하반기 3.88점, 2020년 4.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F=22.10$, $p=.0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긍정적 경험과 내적 발달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3.83점, 2019년 하반기 3.66점, 2020년 4.22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4.03점, 2019년 하반기 4.00점, 2020년 4.23점의 변화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집단 간 효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3.59$, $p=.03$).
 -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3.92점에서 3.82점, 4.13점으로, 일반 계층은 2019년 상반기 4.03점에서 3.98점, 4.39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참여 아동의 건강 수준은 2019년 상반기 1.97점, 2019년 하반기 2.13점, 2020년 1.98점으로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임($F=3.79$, $p=.02$).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학생의 변화는 1.92점, 2.11점, 1.79점, 여학생의 변화는 2.00점, 2.14점, 2.09점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2.01점에서 2.17점, 2.09점으로 일반 계층은 2019년 상반기 1.92점에서 2.06점, 1.80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2단계 패널 아동의 행복 수준은 2019년 상반기 4.43점, 2019년 하반기 4.45점, 2020년 4.42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음($F=.38$, $p=.68$).
 - 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4.54점, 4.36점, 4.40점으로 여학생은 4.38점, 4.50점, 4.43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집단 간 효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3.41$, $p=.03$).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4.40점에서 4.44점, 4.40점으로 일반 계층은 2019년 상반기 4.50점에서 4.48점, 4.44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음.
- 행동적 공격성은 2019년 상반기 2.55점에서 2019년 하반기 2.64점, 2020년 2.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임($F=6.54$, $p=.00$).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단원들이 타인을 때리는 것과 같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행동적 공격성에 대한 마음과 행동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냄.
 - 행동적 공격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2.55점, 2019년 하반기 2.92점, 2020년 2.42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2.55점, 2019년 하반기 2.49점, 2020년 2.32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간 효과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2.52점, 2019년 하반기 2.76점, 2020년 2.40점으로, 일반계층은 2019년 상반기 2.59점, 2019년 하반기 2.42점, 2020년 2.26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집단 간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F=4.54$, $p=.01$).
- 2단계 패널의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1.72점에서 2019년 하반기 1.90점, 2020년 1.6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F=8.17$,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짜증내고, 무시하며 욕설을 하는 언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냄.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1.63점, 2019년 하반기 2.06점, 2020년 1.71점으로,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1.77점, 2019년 하반기 1.81점, 2020년 1.60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효과는 유의하였음($F=3.56$, $p=.03$).

-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2019년 상반기 1.79점에서 1.96점, 1.66점으로, 일반 계층은 2019년 상반기 1.60점에서 1.80점, 1.61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평가 시기에 따른 2단계 패널 아동들의 개인적 발달 수준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평가 시기별 대응별 비교 분석을 함.
 - 분석 결과,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와 참여 1년차인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참여 2년차인 2020년 유의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행동적 공격성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모두 2019년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세를 보임. 또한 2020년의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2020년의 2단계 패널의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행동적 공격성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상반기, 하반기 보다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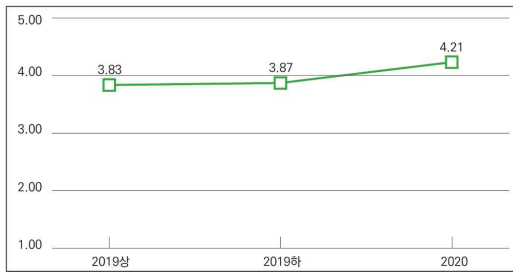
〈표 IV-8〉 2단계 패널의 개인적 발달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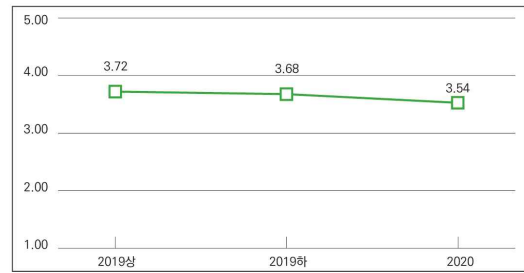
구분			2019년 상반기(사전)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C1 자존감	전체(n=192)		3.83(0.81)	3.87(0.86)	4.21(0.74)	17.12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7)	3.79(0.88)	3.83(0.87)	4.17(0.76)	0.04	.96	
		여(n=125)	3.84(0.77)	3.88(0.86)	4.22(0.73)			
	취약 여부	취약(n=121)	3.74(0.87)	3.82(0.92)	4.12(0.74)	0.83	.44	
		일반(n=71)	3.97(0.67)	3.94(0.75)	4.36(0.71)			
C2 성실	전체(n=187)		3.72(0.76)	3.68(0.83)	3.54(0.74)	2.07	.13	-
	성별	남(n=65)	3.70(0.72)	3.60(0.81)	3.53(0.69)	0.52	.59	
		여(n=122)	3.72(0.78)	3.72(0.84)	3.55(0.77)			
	취약 여부	취약(n=118)	3.66(0.77)	3.63(0.87)	3.38(0.68)	4.09	.02	
		일반(n=69)	3.82(0.75)	3.76(0.75)	3.81(0.77)			
C3	전체(n=192)		3.82(0.78)	3.79(0.73)	4.04(0.70)	10.54	.00	2019상

의사 소통 능력	성별	남(n=66)	3.76(0.81)	3.69(0.81)	3.90(0.73)	0.50	.61	= 2019하 < 2020
		여(n=126)	3.85(0.77)	3.85(0.69)	4.12(0.68)			
	취약 여부	취약(n=122)	3.75(0.77)	3.77(0.75)	3.92(0.72)	3.00	.05	
		일반(n=70)	3.95(0.79)	3.83(0.71)	4.26(0.63)			
E1 미래 전망	전체(n=193)		3.96(0.79)	3.88(0.85)	4.23(0.66)	22.10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8)	3.83(0.83)	3.66(0.90)	4.22(0.64)	3.59	.03	
		여(n=128)	4.03(0.76)	4.00(0.81)	4.23(0.67)			
	취약 여부	취약(n=123)	3.92(0.85)	3.82(0.84)	4.13(0.70)	0.72	.49	
		일반(n=70)	4.03(0.67)	3.98(0.88)	4.39(0.55)			
E2 건강	전체(n=188)		1.97(0.94)	2.13(0.97)	1.98(0.89)	3.79	.02	2019상 < 2019하 > 2020, 2019상 = 2020
	성별	남(n=65)	1.92(0.90)	2.11(0.96)	1.79(0.79)	1.08	.34	
		여(n=123)	2.00(0.95)	2.14(0.98)	2.09(0.92)			
	취약 여부	취약(n=119)	2.01(0.98)	2.17(1.05)	2.09(0.93)	0.52	.59	
		일반(n=69)	1.92(0.85)	2.06(0.82)	1.80(0.77)			
E3 행복	전체(n=193)		4.43(0.80)	4.45(0.79)	4.42(0.72)	0.38	.68	-
	성별	남(n=67)	4.54(0.80)	4.36(0.84)	4.40(0.68)	3.41	.03	
		여(n=126)	4.38(0.79)	4.50(0.76)	4.43(0.74)			
	취약 여부	취약(n=122)	4.40(0.84)	4.44(0.82)	4.40(0.72)	0.40	.67	
		일반(n=71)	4.50(0.72)	4.48(0.74)	4.44(0.72)			
행동적 공격성	전체(n=192)		2.55(1.07)	2.64(1.14)	2.35(1.00)	6.54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7)	2.55(1.00)	2.92(1.09)	2.42(1.00)	2.28	.10	
		여(n=125)	2.55(1.10)	2.49(1.15)	2.32(1.00)			
	취약 여부	취약(n=122)	2.52(0.94)	2.76(1.11)	2.40(0.95)	4.54	.01	
		일반(n=70)	2.59(1.26)	2.42(1.18)	2.26(1.08)			
언어적 공격성	전체(n=194)		1.72(0.79)	1.90(0.95)	1.64(0.70)	8.17	.00	2019상 < 2019하 > 2020, 2019상 = 2020
	성별	남(n=68)	1.63(0.82)	2.06(1.12)	1.71(0.74)	3.56	.03	
		여(n=126)	1.77(0.77)	1.81(0.83)	1.60(0.67)			
	취약 여부	취약(n=123)	1.79(0.76)	1.96(0.96)	1.66(0.65)	0.44	.64	
		일반(n=71)	1.60(0.82)	1.80(0.91)	1.6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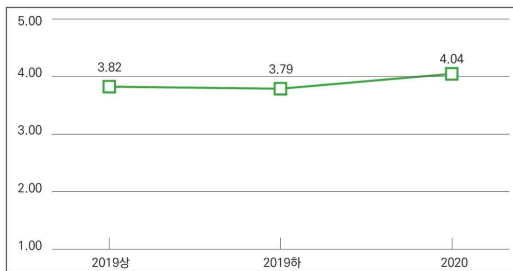
〈그림 IV-6〉 측정 시기에 따른 개인발달의 변화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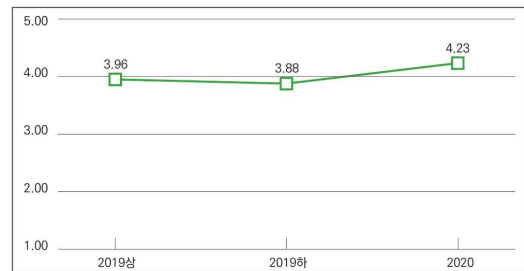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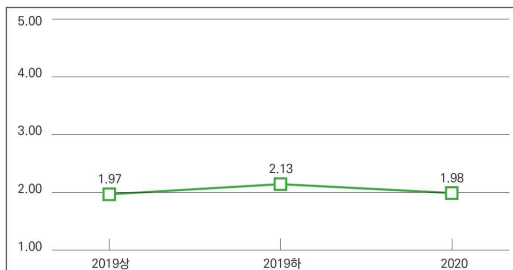
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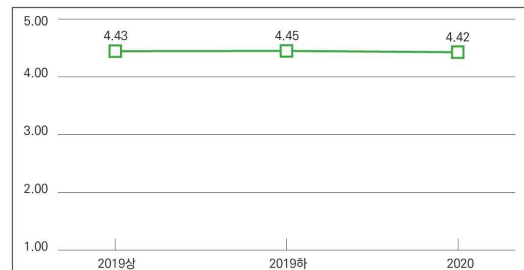
의사소통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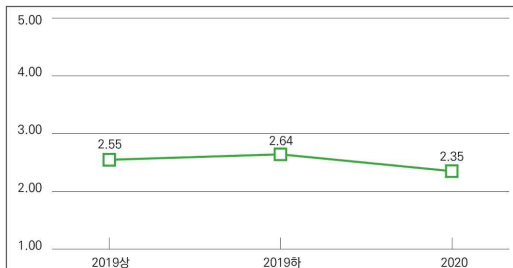
미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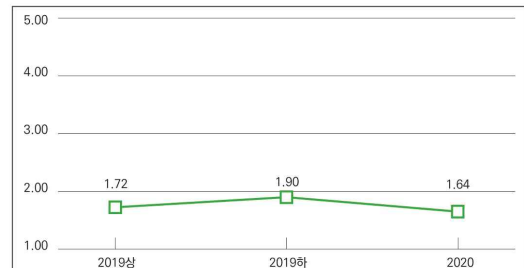
건강



행복



행동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1.2.3.3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인적 관계 효과분석

- 2단계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아동의 인적 관계의 효과성 지표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인적 관계의 주요 평가지표는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가족응집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으로 구성함.
- 타인수용도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아동의 평균 점수는 3.84점, 2019년 하반기는 3.92점, 2020년은 4.02점으로 평가 시기별 통계적 차이는 한계적으로(marginally) 유의하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남학생은 평가 시기별 3.75점, 3.79점, 3.94점의 변화를, 여학생은 3.88점, 4.00점, 4.07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3.78점, 3.92점, 4.02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3.93점, 3.93점, 4.03점이었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2단계 패널의 타인배려는 2019년 상반기 3.82점, 2019년 하반기 3.92점, 2020년 3.9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성별에 따른 타인배려의 차이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9년 상반기 3.74점, 2019년 하반기 3.79점, 2020년 3.79점, 여학생은 2019년 상반기 3.87점, 2019년 하반기 3.99점, 2020년 3.99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취약계층의 타인배려 변화는 3.71점, 3.96점, 3.90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01점, 3.86점, 3.95점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5.02$, $p=.01$).
- 가족응집력의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에는 4.23점, 2019년 하반기에는 4.19점, 2020년 4.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4.17점, 4.11점, 4.28점, 여학생은 4.26점, 4.24점, 4.24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4.17점, 4.19점, 4.12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32점, 4.20점, 4.49점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4.09$, $p=.02$).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2차 패널 아동의 협동 능력의 구성요인으로 집단촉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3.74점에서 2019년 하반기 3.84점, 2020년 3.87점으로 측정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집단촉진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65점, 3.67점, 3.70점으로, 여학생은 3.79점, 3.93점, 3.96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집단촉진의 차이에서도 취약계층은 3.70점, 3.78점, 3.76점, 일반계층은 3.82점, 3.93점, 4.05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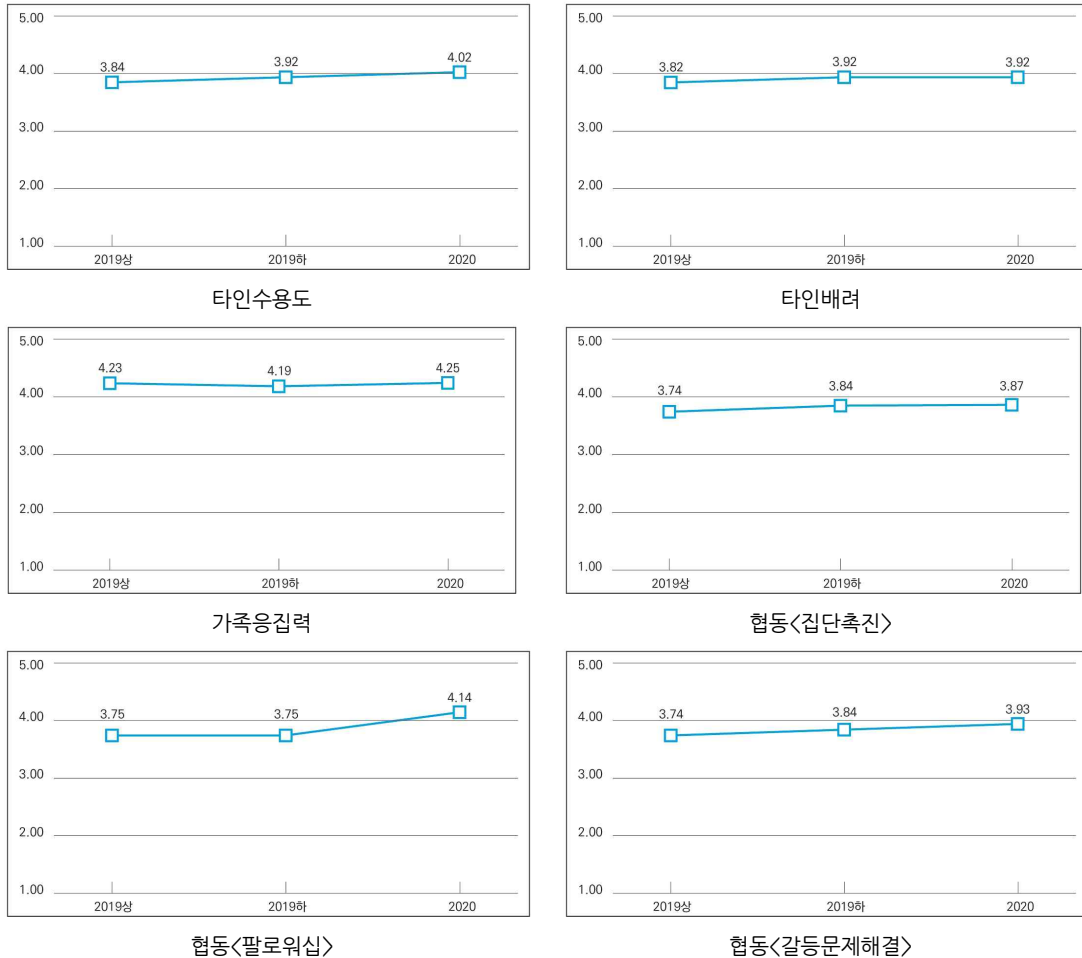
- 팔로워십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75점, 2019년 하반기 3.75점, 2020년 4.14점으로 측정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임($F=21.84$, $p=.00$).
 - 남학생의 팔로워십은 3.69점, 3.44점, 4.03점으로, 여학생은 3.78점, 3.91점, 4.20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3.87$, $p=.02$).
 - 취약계층의 변화는 3.71점, 3.69점, 4.07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3.81점, 3.85점, 4.27점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갈등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2019년 상반기 3.74점, 2019년 하반기 3.84점, 2020년 3.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냄($F=3.48$, $p=.03$).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학생은 3.53점, 3.63점, 3.76점, 여학생은 3.85점, 3.96점, 4.02점으로 변화하였고,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도 취약계층은 3.68점, 3.78점, 3.84점, 일반계층은 3.83점, 3.95점, 4.08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평가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인적 관계 영역의 효과성 지표에 대해 대응별 비교 분석을 함.
 - 타인 수용도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에 비해 2020년에 한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성장세를 보임.
 - 협동의 팔로워십은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와 참여 1년차인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참여 2년차인 2020년 유의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남.
 - 협동의 갈등문제 해결 능력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유의한 향상 수준을 보임.

〈표 IV-9〉 2단계 패널의 인적 관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사전)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D1 타인 수용도	전체(n=191)		3.84(0.84)	3.92(0.93)	4.02(0.79)	2.53	.08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7)	3.75(0.91)	3.79(1.00)	3.94(0.83)	0.11	.90	
		여(n=124)	3.88(0.80)	4.00(0.88)	4.07(0.76)			
	취약 여부	취약(n=121)	3.78(0.86)	3.92(0.95)	4.02(0.73)	0.57	.56	
		일반(n=70)	3.93(0.80)	3.93(0.88)	4.03(0.88)			
D2 타인 배려	전체(n=190)		3.82(0.82)	3.92(0.88)	3.92(0.75)	0.33	.72	-
	성별	남(n=67)	3.74(0.84)	3.79(0.87)	3.79(0.76)	0.31	.73	
		여(n=123)	3.87(0.81)	3.99(0.87)	3.99(0.73)			
	취약 여부	취약(n=120)	3.71(0.85)	3.96(0.85)	3.90(0.70)	5.02	.01	
		일반(n=70)	4.01(0.74)	3.86(0.92)	3.95(0.83)			
H 가족 응집력	전체(n=194)		4.23(0.84)	4.19(0.86)	4.25(0.72)	1.86	.16	-
	성별	남(n=68)	4.17(0.99)	4.11(0.91)	4.28(0.68)	1.25	.29	
		여(n=126)	4.26(0.75)	4.24(0.84)	4.24(0.75)			
	취약 여부	취약(n=123)	4.17(0.87)	4.19(0.87)	4.12(0.76)	4.09	.02	
		일반(n=71)	4.32(0.78)	4.20(0.85)	4.49(0.60)			
I1 협동 - 집단 촉진	전체(n=192)		3.74(0.85)	3.84(0.88)	3.87(0.81)	1.68	.19	-
	성별	남(n=67)	3.65(0.86)	3.67(0.93)	3.70(0.87)	0.34	.71	
		여(n=125)	3.79(0.85)	3.93(0.84)	3.96(0.77)			
	취약 여부	취약(n=122)	3.70(0.85)	3.78(0.93)	3.76(0.86)	0.93	.39	
		일반(n=70)	3.82(0.86)	3.93(0.78)	4.05(0.70)			
I2 협동 - 팔로 워십	전체(n=191)		3.75(0.82)	3.75(0.85)	4.14(0.71)	21.84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7)	3.69(0.87)	3.44(0.97)	4.03(0.74)	3.87	.02	
		여(n=124)	3.78(0.79)	3.91(0.73)	4.20(0.69)			
	취약 여부	취약(n=122)	3.71(0.83)	3.69(0.85)	4.07(0.72)	0.29	.75	
		일반(n=69)	3.81(0.80)	3.85(0.85)	4.27(0.68)			
I3 협동 - 갈등 문제 해결	전체(n=188)		3.74(0.88)	3.84(0.93)	3.93(0.81)	3.48	.03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6)	3.53(0.89)	3.63(1.03)	3.76(0.81)	0.07	.93	
		여(n=122)	3.85(0.86)	3.96(0.86)	4.02(0.79)			
	취약 여부	취약(n=119)	3.68(0.92)	3.78(0.98)	3.84(0.83)	0.17	.84	
		일반(n=69)	3.83(0.82)	3.95(0.85)	4.08(0.75)			

〈그림 IV-7〉 인적 관계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2.3.4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효과분석

- 2차 패널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의 효과성을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함.
- 공공적 함의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79점, 2019년 하반기 4.09점, 2020년 3.9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F=7.40$,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주변사람, 학교,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78점, 4.02점, 3.98점, 여학생은 3.80점, 4.12점, 3.93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82점, 4.10점, 3.99점, 일반계층은

- 3.74점, 4.07점, 3.89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소속감/유대감의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92점, 2019년 하반기 4.00점, 2020년 4.06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음.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84점, 3.93점, 3.96점, 여학생은 3.97점, 4.04점, 4.11점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93점, 4.03점, 4.04점, 일반계층은 3.91점, 3.93점, 4.08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9년 상반기 3.35점, 2019년 하반기 3.59점, 2020년 3.5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변화를 나타냄($F=7.52$, $p=.00$). 이는 아동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과 봉사활동, 기부활동, 환경보호활동 등과 같은 공동체 참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냄.
 - 남학생의 공동체 참여행동은 3.24점, 3.54점, 3.50점, 여학생은 3.42점, 3.61점, 3.60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3.36점, 3.54점, 3.49점, 일반계층은 3.33점, 3.68점, 3.71점으로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사회경제적 혜택의 측면에서 사회자본과 관련한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3.81점, 2019년 하반기 3.99점, 2020년 4.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임($F=19.52$,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아동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 고민을 나누는 친구, 가깝게 지내는 친척 등의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냄.
 - 남학생의 사회자본 수준은 3.67점, 3.96점, 4.18점으로, 여학생은 3.88점, 4.01점, 4.28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성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사회자본 수준은 3.82점, 4.00점, 4.13점, 일반계층은 3.79점, 3.97점, 4.44점 변화하였으나,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평가 시기에 따른 2단계 패널 아동들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에서의 발달 수준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평가 시기별 대응별 비교 분석을 함.
 - 분석 결과, 사회적 신뢰 수준은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상반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유의한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감소한 2020년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됨.
 - 공동체 참여행동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참여 1년차인 2019년 하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하였고, 2020년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자본은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상승이 있었으며, 2019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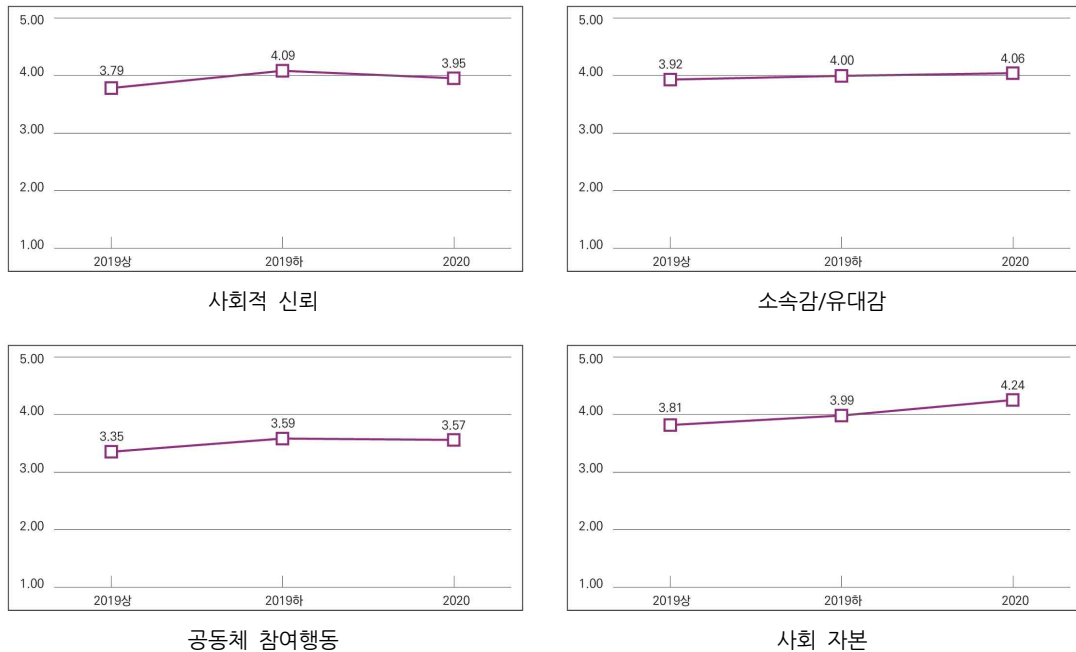
반기에서 2020년에도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2단계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사전)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별 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G1 사회적 신뢰	전체(n=194)		3.79(0.84)	4.09(0.93)	3.95(0.77)	7.40	.00	2019상 < 2019하 > 2020, 2019상 < 2020
	성별	남(n=68)	3.78(0.86)	4.02(0.99)	3.98(0.75)	0.40	.67	
		여(n=126)	3.80(0.83)	4.12(0.90)	3.93(0.78)			
	취약 여부	취약(n=123)	3.82(0.81)	4.10(0.94)	3.99(0.74)	0.30	.74	
		일반(n=71)	3.74(0.89)	4.07(0.91)	3.89(0.81)			
G2 소속감 유대감	전체(n=192)		3.92(0.83)	4.00(0.76)	4.06(0.67)	2.05	.13	-
	성별	남(n=68)	3.84(0.84)	3.93(0.77)	3.96(0.67)	0.08	.92	
		여(n=124)	3.97(0.83)	4.04(0.76)	4.11(0.68)			
	취약 여부	취약(n=122)	3.93(0.85)	4.03(0.77)	4.04(0.67)	0.59	.56	
		일반(n=70)	3.91(0.81)	3.93(0.76)	4.08(0.69)			
G3 공동체 참여 행동	전체(n=192)		3.35(0.85)	3.59(0.86)	3.57(0.77)	7.52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8)	3.24(0.86)	3.54(0.95)	3.50(0.83)	0.19	.82	
		여(n=124)	3.42(0.85)	3.61(0.82)	3.60(0.73)			
	취약 여부	취약(n=123)	3.36(0.87)	3.54(0.89)	3.49(0.74)	1.15	.32	
		일반(n=69)	3.33(0.83)	3.68(0.81)	3.71(0.80)			
G4 사회 자본	전체(n=192)		3.81(1.02)	3.99(0.91)	4.24(0.72)	19.52	.00	2019상 < 2019하 < 2020
	성별	남(n=67)	3.67(1.18)	3.96(0.89)	4.18(0.72)	0.86	.42	
		여(n=125)	3.88(0.92)	4.01(0.92)	4.28(0.72)			
	취약 여부	취약(n=122)	3.82(1.05)	4.00(0.93)	4.13(0.73)	2.96	.05	
		일반(n=70)	3.79(0.97)	3.97(0.87)	4.44(0.65)			

〈그림 IV-8〉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2.4 집단(취약과 일반집단)간 차이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이 함께 음악활동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주요 사업의 목표로 설정함. 이에 따라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과 일반계층의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효과성 평가 영역에서 취약과 일반집단 구분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
- 이에 취약계층과 일반집단의 시기별 효과성의 변화 패턴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1단계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2020년 5년간 독립집단 t검증을 통해 연차별 취약과 일반집단 간 효과성의 지표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2016년~2020년의 모든 연차별 데이터에서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모든 효과성 평가 지표의 평균 수준은 취약과 일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1단계 패널 중 일반 계층 아동의 표본수(n=10)가 적어 일반 계층 아동의 시기별 효과성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적은 표

본수로 통계적 검정력이 약화되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횡단적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실시함.

- 추가 분석은 2020년 조사 참여자들을 참여 기간(1년~5년)에 따라 구분하고, 참여 기간별 일반 계층과 취약 계층의 집단 간 효과성 평균 차이 분석을 독립집단 t검증을 통해 분석함.

1.2.4.1 집단(취약과 일반집단)간 음악적 성장 효과 차이 분석

- 2020년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음악적 성장 수준을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음악지식은 참여 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3.91, p<.001$),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음악향유의 경우 참여기간이 1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2.45, p<.05$), 2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음악태도의 경우 1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2.14, p<.05$), 2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음악활동의 경우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3.73, p<.001$),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참여 1년과 2년차에는 일반계층에 비해 취약계층의 음악적 성장 수준이 낮으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참여 3년차 이후에는 일반계층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음악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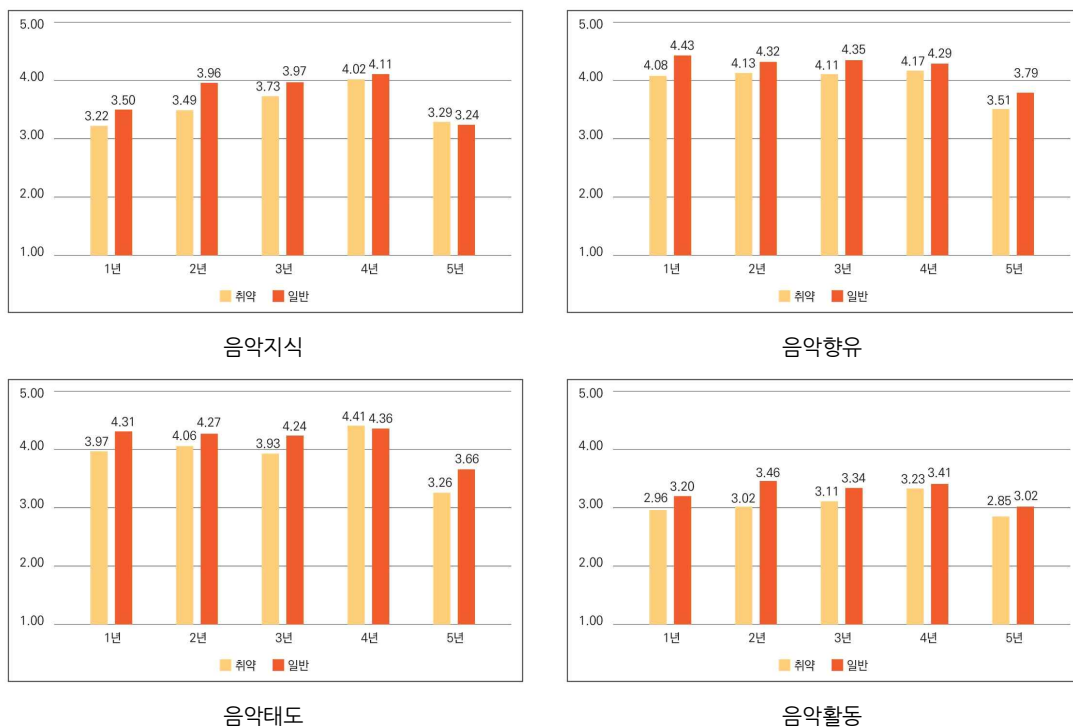
〈표 IV-11〉 집단 간 음악적 성장 차이 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A 음악 지식	1년	취약(n=69)	3.22(.92)	1.62	B2 음악 태도	1년	취약(n=69)	3.97(.87)	2.14*
		일반(n=42)	3.50(.80)				일반(n=42)	4.31(.68)	
	2년	취약(n=131)	3.49(.87)	3.91***		2년	취약(n=130)	4.06(.77)	1.91
		일반(n=78)	3.96(.79)				일반(n=78)	4.27(.69)	
	3년	취약(n=25)	3.73(.77)	1.07		3년	취약(n=25)	3.93(.00)	0.99
		일반(n=17)	3.97(.70)				일반(n=17)	4.24(.96)	
	4년	취약(n=23)	4.02(.60)	0.33		4년	취약(n=23)	4.41(.72)	-0.18
		일반(n=8)	4.11(.79)				일반(n=7)	4.36(.69)	
	5년	취약(n=37)	3.29(.58)	-0.25		5년	취약(n=36)	3.26(.56)	1.95
		일반(n=12)	3.24(.70)				일반(n=11)	3.66(.68)	

B1 음악 향유	1년	취약(n=69)	4.08(.79)	2.45*	B3 음악 활동	1년	취약(n=69)	2.96(.85)	1.47
		일반(n=42)	4.43(.62)				일반(n=42)	3.20(.74)	
	2년	취약(n=132)	4.13(.80)	1.70		2년	취약(n=131)	3.02(.85)	3.73***
		일반(n=78)	4.32(.73)				일반(n=78)	3.46(.81)	
	3년	취약(n=25)	4.11(.91)	0.88		3년	취약(n=25)	3.11(1.06)	0.74
		일반(n=16)	4.35(.83)				일반(n=17)	3.34(.85)	
	4년	취약(n=23)	4.17(.57)	0.51		4년	취약(n=23)	3.23(.76)	0.48
		일반(n=8)	4.29(.67)				일반(n=8)	3.41(1.22)	
	5년	취약(n=36)	3.51(.62)	1.22		5년	취약(n=37)	2.85(.31)	1.36
		일반(n=12)	3.79(.86)				일반(n=12)	3.02(.53)	

〈그림 IV-9〉 음악적 성장의 집단 간 비교 (5점 만점 기준)



1.2.4.2 집단(취약과 일반집단)간 개인 발달 차이 분석

- 2020년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개인발달 수준을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자존감은 참여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2.96$, $p<.01$),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실의 경우 참여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4.04$, $p<.001$),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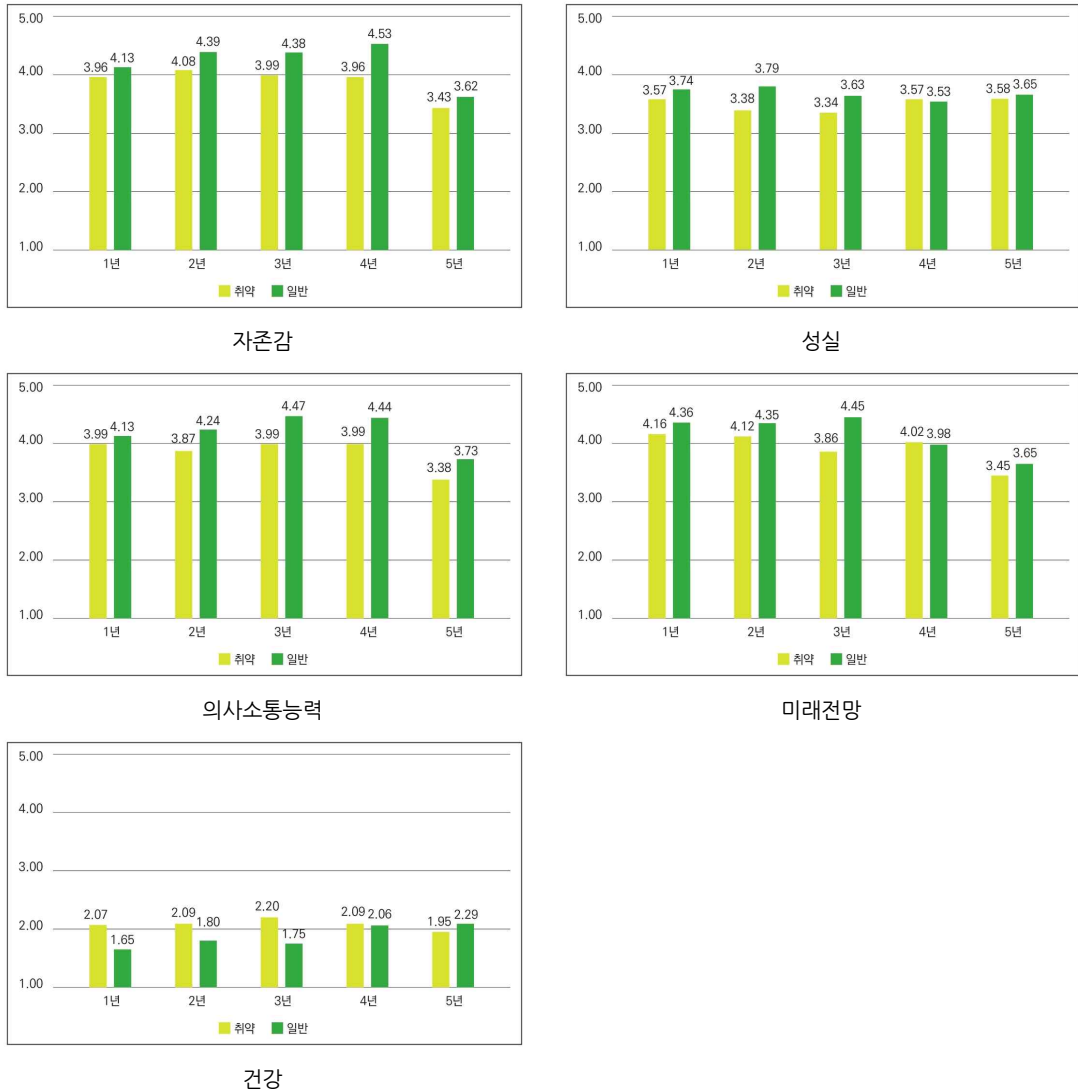
나타남.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참여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3.78$, $p<.001$),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래전망의 경우 참여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며($t=2.38$, $p<.05$), 3년에도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t=2.25$, $p<.05$). 그러나 4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의 경우 참여기간이 1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t=2.65$, $p<.01$), 2년에도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음($t=2.31$, $p<.05$). 그러나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집단 간 개인적 발달 차이 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C1 자존감	1년	취약(n=69)	3.96(.86)	1.04	E1 미래 전망	1년	취약(n=67)	4.16(.70)	1.46
		일반(n=42)	4.13(.82)				일반(n=42)	4.36(.65)	
	2년	취약(n=132)	4.08(.76)	2.96**		2년	취약(n=132)	4.12(.71)	2.38*
		일반(n=78)	4.39(.68)				일반(n=78)	4.35(.59)	
	3년	취약(n=25)	3.99(.89)	1.43		3년	취약(n=24)	3.86(.94)	2.25*
		일반(n=17)	4.38(.78)				일반(n=17)	4.45(.64)	
	4년	취약(n=23)	3.96(.83)	1.81		4년	취약(n=23)	4.02(.77)	-0.13
		일반(n=8)	4.53(.52)				일반(n=8)	3.98(.77)	
	5년	취약(n=37)	3.43(.49)	0.95		5년	취약(n=36)	3.45(.48)	1.04
		일반(n=12)	3.62(.87)				일반(n=11)	3.65(.82)	
C2 성실	1년	취약(n=68)	3.57(.80)	1.06	E2 건강	1년	취약(n=68)	2.07(.89)	-2.65**
		일반(n=40)	3.74(.85)				일반(n=41)	1.65(.65)	
	2년	취약(n=130)	3.38(.68)	4.04***		2년	취약(n=132)	2.09(.94)	-2.31*
		일반(n=78)	3.79(.75)				일반(n=77)	1.80(.78)	
	3년	취약(n=25)	3.34(.91)	0.96		3년	취약(n=25)	2.20(.86)	-1.65
		일반(n=17)	3.63(1.04)				일반(n=17)	1.75(.85)	
	4년	취약(n=23)	3.57(.67)	-0.11		4년	취약(n=23)	2.09(.79)	-0.09
		일반(n=8)	3.53(.95)				일반(n=8)	2.06(.92)	
	5년	취약(n=36)	3.58(.77)	0.28		5년	취약(n=37)	1.95(.82)	1.13
		일반(n=12)	3.65(.65)				일반(n=12)	2.29(1.13)	
C3 의사 소통 능력	1년	취약(n=68)	3.99(.67)	1.04					
		일반(n=41)	4.13(.68)						
	2년	취약(n=132)	3.87(.72)	3.78***					
		일반(n=78)	4.24(.64)						
	3년	취약(n=25)	3.99(.91)	1.94					
		일반(n=17)	4.47(.56)						
	4년	취약(n=23)	3.99(.83)	1.40					
		일반(n=8)	4.44(.58)						
	5년	취약(n=36)	3.38(.59)	1.47					
		일반(n=11)	3.73(.94)						

〈그림 IV-10〉 개인적 발달의 집단 간 비교 (5점 만점 기준)



- 개인적 발달과 관련한 이러한 일련의 분석 결과는 참여 1~3년차에는 일반계층보다 취약 계층의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 미래전망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 수준은 높음을 의미함.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참여가 4년차 이후에는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개인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함.

1.2.4.3 집단(취약과 일반집단)간 인적관계 차이 분석

- 2020년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인적관계 차이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타인수용도의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타인배려는 참여기간이 3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2.51, p<.05$), 4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응집력의 경우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4.05, p<.010$),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집단축진의 경우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2.97, p<.01$),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팔로워십의 경우 참여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며($t=2.20, p<.05$), 3년에도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음($t=2.63, p<.05$). 그러나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갈등문제해결의 경우 참여기간이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며($t=2.66, p<.01$), 3년에도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음($t=2.40, p<.05$). 그러나 4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적관계와 관련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참여 1-3년차에는 일반계층보다 취약계층의 타인배려, 가족응집력, 협동의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참여가 4년차 이후에는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개인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더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참여 4년 이후 취약계층의 집단축진과 갈등문제해결 능력이 일반계층보다 높은 수준까지 성장한 의미 있는 결과가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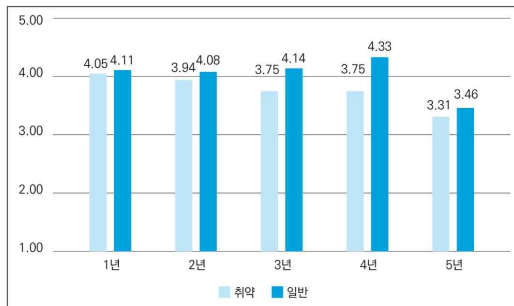
〈표 IV-13〉 인적관계 차이 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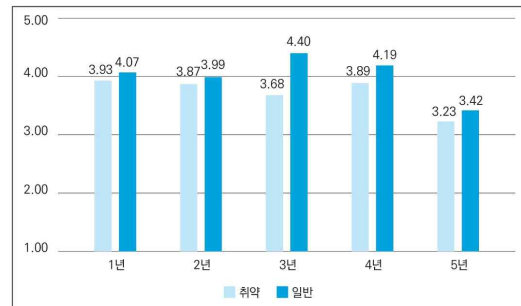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D1 타인 수용도	1년	취약(n=69)	4.05(.85)	0.40	I1 협동 <집단 축진>	1년	취약(n=69)	3.83(.76)	1.10
		일반(n=42)	4.11(.70)				일반(n=42)	4.00(.77)	
	2년	취약(n=132)	3.94(.79)	1.26		2년	취약(n=131)	3.75(.84)	2.97**
		일반(n=78)	4.08(.79)				일반(n=78)	4.08(.67)	
	3년	취약(n=24)	3.75(1.07)	1.24		3년	취약(n=25)	3.57(1.04)	2.26*
		일반(n=17)	4.14(.85)				일반(n=17)	4.25(.79)	
	4년	취약(n=23)	3.75(.79)	1.76		4년	취약(n=23)	3.91(.69)	0.19
		일반(n=8)	4.33(.84)				일반(n=8)	3.85(.86)	
	5년	취약(n=37)	3.31(.59)	0.67		5년	취약(n=37)	3.14(.56)	0.65
		일반(n=12)	3.46(.86)				일반(n=12)	3.28(.84)	
D2	1년	취약(n=69)	3.93(.74)	1.00	I2	1년	취약(n=69)	4.16(.80)	0.44

타인 배려	2년	일반(n=42)	4.07(.73)	1.15	협동 〈팔로 워십〉	2년	일반(n=42)	4.23(.71)	2.20*
		취약(n=132)	3.87(.72)				취약(n=131)	4.06(.72)	
		일반(n=78)	3.99(.78)				일반(n=78)	4.28(.66)	
	3년	취약(n=25)	3.68(1.02)	2.51*		3년	취약(n=25)	3.71(1.02)	2.63*
		일반(n=17)	4.40(.70)				일반(n=17)	4.45(.69)	
	4년	취약(n=23)	3.89(.62)	1.20		4년	취약(n=23)	3.87(.80)	0.62
		일반(n=8)	4.19(.55)				일반(n=8)	4.08(.97)	
	5년	취약(n=36)	3.23(.58)	0.90		5년	취약(n=36)	3.41(.61)	-0.20
		일반(n=12)	3.42(.73)				일반(n=12)	3.36(.92)	
	H 가족 응집력	1년	취약(n=69)	4.25(.83)		0.79	I3 협동 〈갈등 문제 해결〉	1년	취약(n=69)
일반(n=42)			4.37(.73)	일반(n=42)	4.14(.76)				
2년		취약(n=132)	4.09(.76)	4.05***	2년	취약(n=130)		3.83(.82)	2.66**
		일반(n=78)	4.49(.60)			일반(n=78)		4.13(.72)	
3년		취약(n=25)	3.78(1.05)	1.42	3년	취약(n=25)		3.61(1.18)	2.40*
		일반(n=17)	4.21(.78)			일반(n=17)		4.38(.73)	
4년		취약(n=23)	4.00(.71)	0.33	4년	취약(n=23)		3.85(.70)	0.98
		일반(n=8)	4.09(.61)			일반(n=8)		4.16(.94)	
5년		취약(n=36)	4.13(.87)	0.82	5년	취약(n=34)		3.22(.65)	0.25
		일반(n=11)	4.25(.96)			일반(n=12)		3.2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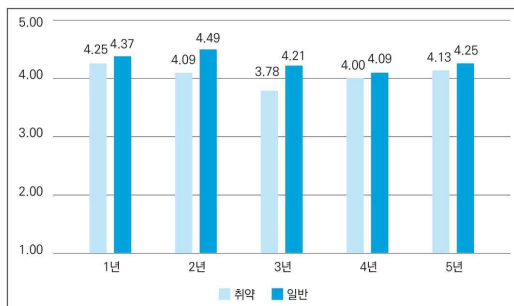
〈그림 IV-11〉 인적관계의 집단 간 비교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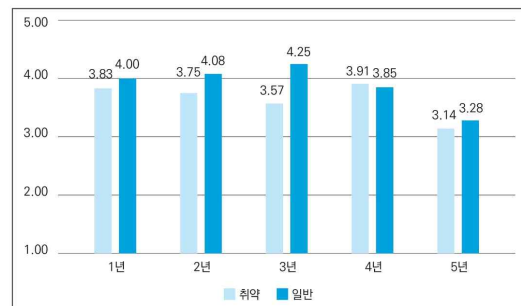
타인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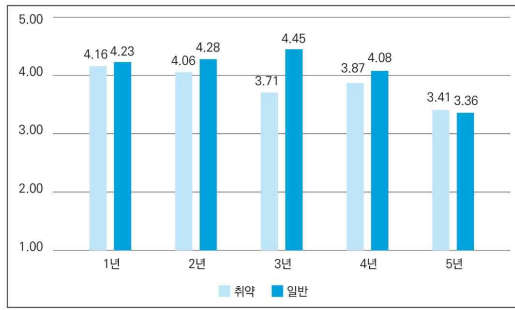
타인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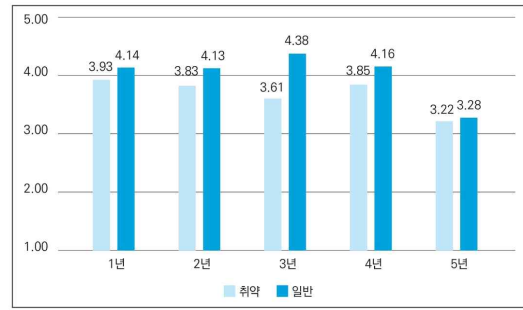
가족응집력



협동〈집단속진〉



협동<팔로워십>



협동<갈등문제해결>

1.2.4.4 집단(취약과 일반집단)간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차이 분석

- 2020년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차이 수준을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사회적 신뢰는 참여기간이 3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2.04$, $p<.05$), 4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속감/유대감의 경우 참여기간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체 참여행동의 경우 2년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t=1.99$, $p<.05$),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사회자본의 경우 참여기간이 1년($t=2.45$, $p<.05$)과 2년($t=4.01$, $p<.001$)에는 취약계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미하게 낮으나, 3년 이후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 간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 수준이 참여 1년, 2년, 3년차에는 일반계층에 비해 취약계층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가 나타났으나, 참여 4년차 이후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음. 이는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영역의 취약계층인 아동 발달에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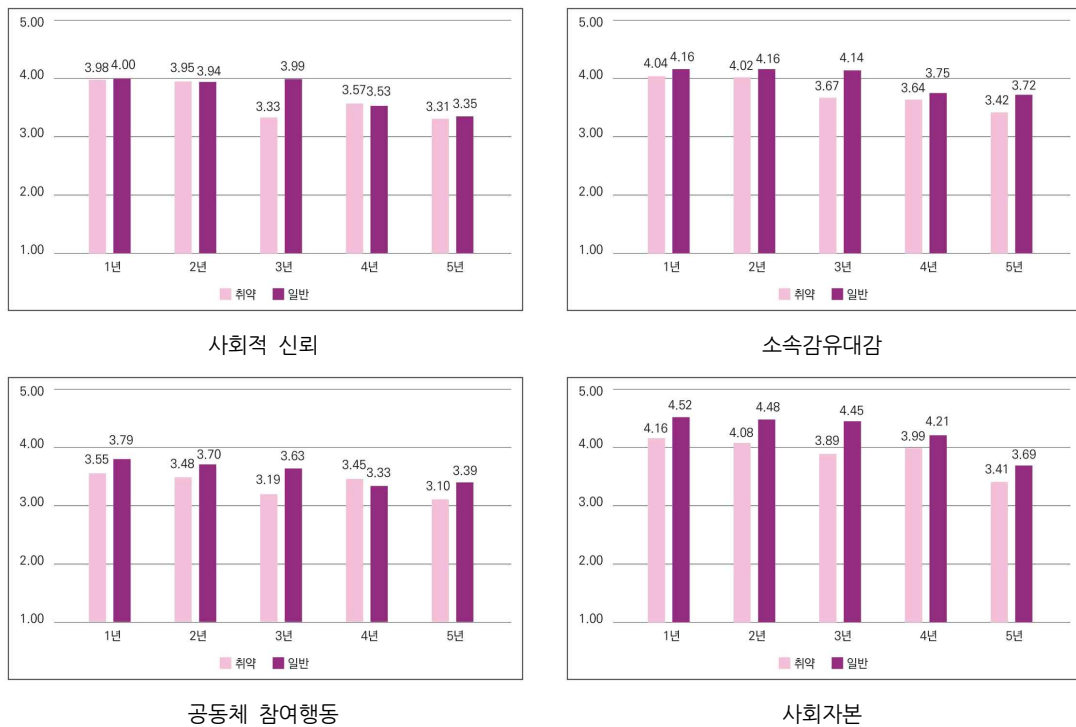
<표 IV-14>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차이 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G1 사회적 신뢰	1년	취약(n=69)	3.98(.84)	0.14	G3 공동체 참여 행동	1년	취약(n=69)	3.55(.86)	1.42
		일반(n=41)	4.00(.69)				일반(n=42)	3.79(.88)	
	2년	취약(n=131)	3.95(.74)	-0.14		2년	취약(n=132)	3.48(.73)	1.99*
		일반(n=78)	3.94(.81)				일반(n=78)	3.70(.80)	
	3년	취약(n=25)	3.33(.97)	2.04*		3년	취약(n=25)	3.19(.75)	1.75
		일반(n=17)	3.99(1.11)				일반(n=17)	3.63(.87)	
	4년	취약(n=23)	3.57(.83)	-0.13		4년	취약(n=23)	3.45(.92)	-0.30

G2 소속감 유대감	5년	일반(n=8)	3.53(1.25)	0.21	G4 사회 자본	5년	일반(n=8)	3.33(.94)	1.32
		취약(n=37)	3.31(.51)				취약(n=37)	3.10(.62)	
		일반(n=12)	3.35(.84)				일반(n=12)	3.39(.76)	
	1년	취약((n=69)	4.04(.83)	0.74		1년	취약(n=68)	4.16(.80)	2.45*
		일반(n=40)	4.16(.73)				일반(n=42)	4.52(.65)	
	2년	취약(n=131)	4.02(.67)	1.49		2년	취약(n=131)	4.08(.75)	4.01***
		일반(n=78)	4.16(.66)				일반(n=78)	4.48(.59)	
	3년	취약(n=25)	3.67(.81)	1.72		3년	취약(n=25)	3.89(1.03)	1.90
		일반(n=17)	4.14(.95)				일반(n=17)	4.45(.77)	
	4년	취약(n=23)	3.64(.61)	0.41		4년	취약(n=23)	3.99(1.01)	0.56
		일반(n=8)	3.75(.81)				일반(n=8)	4.21(.85)	
	5년	취약(n=37)	3.42(.54)	1.51		5년	취약(n=37)	3.41(.64)	1.30
		일반(n=12)	3.72(.76)				일반(n=12)	3.69(.76)	

〈그림 IV-12〉 공공적 함의 및 사회적 혜택 차이의 집단 간 비교 (5점 만점 기준)



1.3.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1.3.1. 분석 개요

- 꿈의 오케스트라 2020년도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와 사회자본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을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하고 영향 요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2단계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
- 효과성의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와 2016~2020년에 진행된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규명된 유의미한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설정됨. 세부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의 자부심, 오케스트라 참여의 적극성,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음악적 권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공연활동의 성취감을 효과성에 미치는 단원의 내적, 심리적 영향 요인으로 고려함.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의 타 음악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을 영향 요인으로 고려함. 한편 효과성의 인적 요인의 영향력은 부모, 동료, 교육강사 지지 요인으로 반영함.

〈표 IV-15〉 꿈의 오케스트라 영향요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63	4.92	1									
2. 연령	.48	1.78	.03	1								
3. 단원자부심	4.27	.75	.05	-.12*	1							
4. 참여적극성	4.12	.81	.12*	-.07	.59**	1						
5. 음악적권태	1.83	.88	-.12*	-.02	-.53**	-.63**	1					
6. 타 음악교육 경험	3.98	1.32	.11*	.06	.28**	.21**	-.13**	1				
7. 타 오케스트라 경험	1.65	1.29	-.01	.06	.09	.09	-.01	.15**	1			
8. 부모지지	4.15	.82	.00	-.06	.44**	.49**	-.40**	.22**	.09*	1		
9. 동료지지	2.94	.97	.13**	.03	.26**	.37**	-.26**	.13**	.11*	.38**	1	
10. 교육강사지지	4.35	.74	.12*	-.01	.50**	.61**	-.49**	.19**	-.02	.46**	.26**	1
11. 공연활동성취감	4.14	.90	.06	-.02	.54**	.71**	-.55**	.14**	.09	.47**	.36**	.57**

*p<.05, **p<.01.

1.3.2.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 정규 교육 이외 타 음악 교육 경험($\beta=.14$, $p<.001$), 부모 지지($\beta=.17$, $p<.01$), 공연활동 성취감($\beta=.21$, $p<.001$)이 음악지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 자부심($\beta=.11$, $p<.01$), 참여 적극성($\beta=.34$, $p<.001$), 공연활동 성취감($\beta=.18$, $p<.001$)은 음악향유에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20$, $p<.001$)는 음악향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 음악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참여적극성($\beta=.21$, $p<.001$), 부모지지($\beta=.09$, $p<.05$), 공연활동 성취감($\beta=.20$, $p<.001$)은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12$, $p<.0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음악교육 경험($\beta=.07$, $p<.01$), 타 오케스트라 경험($\beta=.07$, $p<.01$), 부모지지($\beta=.23$, $p<.001$), 동료지지($\beta=.08$, $p<.05$), 공연활동 성취감($\beta=.29$, $p<.001$)은 음악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 음악적 경험 확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참여 적극성($\beta=.21$, $p<.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9$, $p<.01$), 부모지지($\beta=.11$, $p<.05$), 공연활동 성취감($\beta=.30$, $p<.001$)은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13$, $p<.05$)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16〉 음악적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구분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		음악적 경험 확장	
	B	B	B	B	B	B	B	B	B	B
성별	.14	.07	0.20*	.05	.13	-.02	.19*	.10	.31**	.17*
연령	.18**	.19***	0.00	.01	.04	.05**	.07**	.07***	-.02	.00
단위 자부심		.00		.11**		0.07		.02		.12
참여 적극성		.03		.34***		.21***		.06		.21**
음악적 권태		-.05		-.20***		-.12**		-.06		-.13*
타 음악교육 경험		.14***		.00		.05		.07**		.09**
타 오케스트라 경험		.05		.01		.01		.07**		.01
부모 지지		.17**		-.01		.09*		.23***		.11*
동료 지지		-.01		.04		.06		.08*		.05
교육강사 지지		-.04		.05		.06		-.07		-.07
공연활동 성취감		.21***		.18***		.20***		.29***		.30***
F	38.64***	22.35***	3.39*	71.48***	3.18*	35.10***	4.81**	11.55***	5.84**	33.69***
R ²	.15	.37	.02	.65	.01	.48	.03	.40	.03	.47

* $p<.05$, ** $p<.01$, *** $p<.001$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을 통한 개인 발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 분석 결과 자존감에 단원 자부심($\beta=.48, p<.001$), 공연활동 성취감($\beta=.17, p<.001$)은 정(+)의 영향을 미침.
- 성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단원자부심($\beta=.22, p<.001$), 참여 적극성($\beta=.19, p<.01$), 동료 지지($\beta=.15, p<.001$)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능력에는 단원 자부심($\beta=.21, p<.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6, p<.01$), 교육강사 지지($\beta=.13, p<.05$)는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배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27, p<.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6, p<.05$), 동료지지($\beta=.07, p<.05$), 공연활동성취감($\beta=.11, p<.05$)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미래전망에는 단원 자부심($\beta=.33, p<.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6, p<.01$), 공연활동성취감($\beta=.12, p<.01$)이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09, p<.05$)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7〉 개인 발달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I

구분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 능력		배려		미래전망	
	B	B	B	B	B	B	B	B	B	B
성별	.06***	-.03	.04	-.05	.21**	.11	.24**	.14*	0.06	-.03
연령	-.02	.01	-.02	.00	.03	.05**	.04*	.05**	-0.03	-.01
단원 자부심		.48***		.22***		.21***		.27***		.33***
참여 적극성		.06		.19**		.08		.05		.02
음악적 권태		.03		-.05		-.07		-.02		-.09*
타 음악 교육 경험		.03		.00		.06**		.06*		.06**
타오케스트라 경험		-.01		.03		.01		.02		-.01
부모 지지		.08		.06		.07		-.01		.11
동료 지지		.04		.15***		.03		.07*		.00
교육강사 지지		.03		-.06		.13*		.10		.06
공연활동 성취감		.17***		.04		.01		.11*		.12**
F	.84	37.02***	.51	14.83***	6.01**	18.71***	7.98***	18.39***	1.26	33.15***
R ²	.00	.49	.00	.28	.03	.33	.03	.31	.01	.46

* $p<.05$, ** $p<.01$, *** $p<.001$

-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참여적극성($\beta=.18, p<.05$)과 음악적 권태($\beta=.22, p<.001$)는 정(+)의 영향을, 단원자부심($\beta=-.52, p<.001$), 교육강사의 지지($\beta=-.14, p<.05$)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단원자부심($\beta=1.12, p<.001$), 음악적 권태($\beta=.06, p<.05$)는 행복과 정(+)의 영향을, 참여적극성($\beta=-.11, p<.001$), 공연활동성취감($\beta=-.06,$

$p<.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 적극성과 공연활동성취감이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두 요인이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참여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음. 또한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과 관련한 것으로 음악적 활동 이외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전반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음악적 권태의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음악적 권태 이외 다른 학교, 교우, 가족 활동 등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외생 요인의 개입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됨.

- 단원자부심은 언어적 공격성($\beta=-.16$, $p<.01$)과 행동적 공격성($\beta=-.22$, $p<.05$)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적극성은 언어적 공격성($\beta=-.14$, $p<.05$)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8〉 개인 발달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II

구분	건강		행복		언어적 공격성		행동적 공격성	
	B	B	B	B	B	B	B	B
성별	.15	.20**	.07	.01	-.18**	-.11	-.16	-.12
연령	.08**	.06**	-.08***	-.03***	.09***	.07***	.03	.01
단원 자부심		-.52***		1.12***		-.16**		-.22*
참여 적극성		.18*		-.11***		-.14*		-.06
음악적 권태		.22***		.06**		.12		.18*
타 음악 교육 경험		.00		-.01		-.01		.07
타오케스트라 경험		-.02		-.01		.02		-.05
부모 지지		.02		-.01		.04		-.06
동료 지지		.04		.00		.02		.00
교육강사 지지		-.14*		.01		-.05		-.04
공연활동 성취감		.11		-.06*		.06		.15
F	7.32**	14.19***	8.35***	264.98***	14.09***	9.36***	1.76	3.83***
R ²	.03	.27	.04	.87	.06	.19	.01	.09

* $p<.05$, ** $p<.01$, *** $p<.001$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을 통한 인적 관계 발달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단원 자부심($\beta=.40$, $p<.001$)은 타인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14$, $p<.0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인 배려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단원 자부심($\beta=.27$, $p<.001$)과 타 음악교육 경험($\beta=.05$, $p<.05$)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단원자부심($\beta=.37$, $p<.001$), 부모 지지($\beta=.23$, $p<.001$)와 교육강사 지지($\beta=.14$, $p<.05$)

는 가족 응집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

- 협동의 구성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25$, $p<.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7$, $p<.01$), 부모 지지($\beta=.13$, $p<.01$), 동료 지지($\beta=.08$, $p<.05$)와 공연활동성취감($\beta=.13$, $p<.01$)은 협동의 집단축진에, 단원자부심($\beta=.26$, $p<.001$), 참여 적극성($\beta=.14$, $p<.05$), 타 음악교육 경험($\beta=.09$, $p<.001$), 교육강사 지지($\beta=.11$, $p<.05$)와 공연활동 성취감($\beta=.17$, $p<.001$)은 협동의 팔로워십에, 단원자부심($\beta=.13$, $p<.05$), 참여 적극성($\beta=.16$, $p<.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12$, $p<.001$), 부모 지지($\beta=.09$, $p<.05$), 동료 지지($\beta=.08$, $p<.05$), 공연활동 성취감($\beta=.18$, $p<.001$)은 협동의 갈등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규명됨.

〈표 IV-19〉 인적 관계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타인 수용도		타인배려		가족 응집력		협동 집단축진		협동 팔로워십		협동 갈등문제해결	
	B	B	B	B	B	B	B	B	B	B	B	B
성별	.21*	.11	.25**	.16*	.00	-.05	.28***	.18**	.18*	.05	.22**	.07
연령	-.01	.01	.03	.05*	-.05*	-.02	.01	.03	-.01	.01	.03	.04*
단원 자부심		.40***		.27***		.37***		.25***		.26***		.13*
참여 적극성		.01		.03		-.08		.05		.14*		.16**
음악적 권태		-.14**		-.02		.03		-.07		-.03		-.04
타 음악 교육 경험		.04		.05*		-.02		.07**		.09***		.12***
타오케스트라 경험		.02		.02		.00		.01		.00		.01
부모 지지		.03		.00		.23***		.13**		.04		.09*
동료 지지		.03		.05		.08*		.08*		.03		.08*
교육강사 지지		.00		.10		.14*		.01		.11*		.10
공연활동 성취감		.09		.11		.02		.13**		.17***		.18***
F	3.41*	20.79***	7.28**	16.72***	2.54	18.33***	6.78**	25.07***	3.03	39.58***	4.59*	33.60***
R ²	.02	.35	.03	.30	.01	.32	.03	.39	.01	.51	.02	.47

* $p<.05$, ** $p<.01$, *** $p<.001$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한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효과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 분석 결과 단원자부심($\beta=.42$, $p<.001$), 교육강사 지지($\beta=.14$, $p<.05$)는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
- 소속감 및 유대감에는 단원자부심($\beta=.35$, $p<.001$), 동료 지지($\beta=.07$, $p<.05$)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참여행동에는 단원자부심($\beta=.14$, $p<.05$), 동료 지지($\beta=.11$, $p<.01$)의 정(+)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음.

- 사회자본에는 단원자부심($\beta=.30, p<.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6, p<.05$), 부모 지지($\beta=.16, p<.01$), 교육강사 지지($\beta=.12, p<.05$)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

〈표 IV-20〉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	
	B	B	B	B	B	B	B	B
성별	-.11	-.19**	.06	-.05	.08	-.04	.15	.08
연령	-.15***	-.13***	-.10***	-.08***	-.06*	-.05*	-.08***	-.06**
단원 자부심		.42***		.35***		.14*		.30***
참여 적극성		.01		.10		.12		-.02
음악적 권태		.07		-.02		-.10		.07
타 음악교육 경험		.01		.02		.05		.06*
타 오케스트라 경험		.03		.00		.05		.00
부모 지지		-.05		.03		.02		.16**
동료 지지		.05		.07*		.11**		.07
교육강사 지지		.14*		.08		.07		.12*
공연활동 성취감		.09		.07		.05		.10
F	16.10***	9.28***	13.34***	27.55***	3.63*	13.82***	5.18***	19.36***
R ²	.10	.33	.06	.42	.02	.26	.04	.33

* $p<.05$, ** $p<.01$, *** $p<.001$

1.4 꿈의 오케스트라의 만족도 분석 결과

- 2020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준을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분석함.
- 2020년도 조사 참여 아동들의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36점, 재참여 의도는 4.35점, 타인추천 의도는 4.31점으로 나타나 중립값인 3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냄. 긍정 응답의 비율도 전반적 만족도 82.44%, 재참여 의도 80.67%, 타인추천 의도 79.78%로 8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프로그램 구성 요소별 만족도 수준은 교육강사 만족도가 4.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 기관 및 행정 만족도(4.46점),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4.33점), 환경(4.27점)의 순으로 나타나 각 프로그램 요소별 만족도 수준이 4점을 상회하는 고루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각 요소별 긍정 비율도 강사 만족도 88.00%, 운영기관 및 행정 만족도 86.37%,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80.22%, 환경 만족도 78.44%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평가됨.
- 다만 2020년 처음 적용된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3.60점, 긍정 응답 비율은 54.67%로 다른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 수준과 긍정 응답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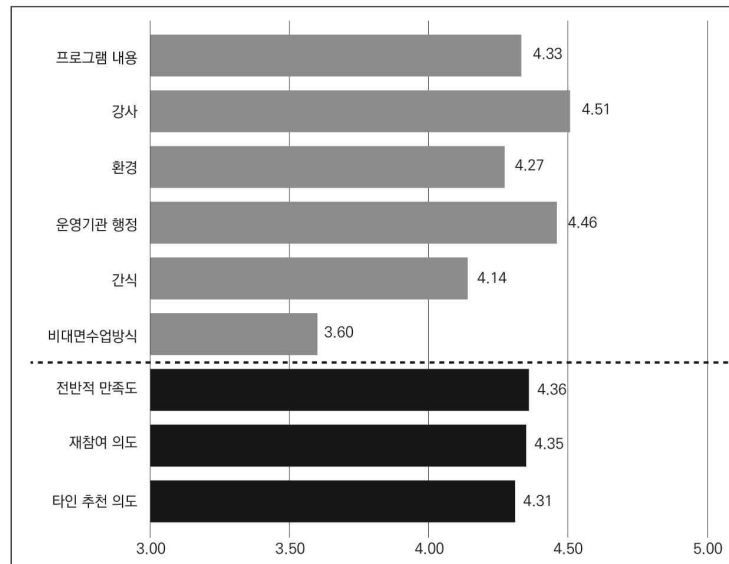
〈표 IV-21〉 꿈의 오케스트라 만족도 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N	%	평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요소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긍정	361	80.22	4.33	0.87
		중립	76	16.89		
		부정	11	2.44		
	강사 만족도	긍정	396	88.00	4.51	0.76
		중립	45	10.00		
		부정	8	1.78		
	환경(수업 및 연습 장소) 만족도	긍정	353	78.44	4.27	0.91
		중립	79	17.56		
		부정	17	3.78		
	운영기관 및 행정 만족도	긍정	390	86.37	4.46	0.74
		중립	56	12.44		
		부정	3	0.67		
	간식 만족도	긍정	331	73.56	4.14	1.02
		중립	83	18.44		
		부정	35	7.78		
	비대면 수업 진행방식	긍정	246	54.67	3.60	1.30
		중립	122	27.11		
		부정	81	18.00		
전반적 만족도 및 충성도	전반적 만족도	긍정	371	82.44	4.36	0.83
		중립	70	15.56		
		부정	8	1.78		
	재참여 의도	긍정	363	80.67	4.35	0.91
		중립	67	14.89		
		부정	19	4.22		
	타인추천 의도	긍정	359	79.78	4.31	0.89
		중립	74	16.44		
		부정	16	3.56		

〈그림 IV-13〉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 만족도

(5점 만점 기준)



1.5 이탈원인 분석

- 2020년 조사 참여 기관의 단위 중, 2020년 이탈 단위들의 이탈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탈 단위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함.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2020년 탈락자 총 75명의 응답자를 통해 이탈원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복잡하거나 긴 질문의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전화 조사의 제한점으로, 조사의 내용은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원인에 대한 질문으로만 한정되었음. 이탈원인은 2016~2019년 진행된 꿈의 오케스트라의 질적 연구의 부정적 사례 분석 결과 도출된 이탈 예측 요인을 중심으로 단원의 스스로의 영향 요인인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 요인인 외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 내 원인들을 목록화하였음.
- 분석 결과 내적 요인에 의한 이탈은 28%, 외적 요인에 의한 이탈은 60%로 외적 요인이 보다 큰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 상급 학년에 진급에 따른 학교 시간 변경의 원인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 이사(13.3%), 기타(12%),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참여(9.3%), 오케스트라 연습 장소의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6.7%)이 다음의 원인으로 분석됨.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유례없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원인도 3.7%로 나타남.

〈표 IV-22〉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원인

구분		빈도(명)	비율(%)
내적 요인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참여	7	9.3
	학업에 대한 부담	4	5.3
	흥미 없음	4	5.3
	악기를 배우는 것이 어려움	4	5.3
	참여 연차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지속적 발전 어려움	2	2.7
내적 요인 총합		21	28
외적 요인	주거지의 이사	10	13.3
	상급 학년 진급에 따른 하교 시간 변경으로 오케스트라 시간이 맞지 않음	25	33.3
	오케스트라 연습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5	6.7
	코로나	5	3.8
외적 요인 총합		45	60
기타	인적 요인, 가정 요인, 무응답 등	9	12
총합			

1.6 보호자 효과성 분석

1.6.1 보호자 응답자 특성

- 2016년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 230명으로,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3%, 여성이 85.7%를 차지하였음. 연령별 분포는 34세 이하 9.1%, 35~39세 31.7%, 40~44세 34.3%, 45~49세 17.0%, 50세 이상 7.8%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32.4%, 전문대졸 20.3%, 대졸 40.1%, 대학원졸 이상 7.2%의 분포를 보였음. 보호자의 직업은 전업주부(29.8%), 기타(12.7%), 자영업(12.3%)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4.1%), 200만원 미만(22.3%), 300~199만원(18.3%), 400~499만원(18.3%)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 211명으로 남성이 11.4%, 여성이 88.6%를 차지하였음. 연령별 분포는 34세 이하 2.8%, 35~39세 32.2%, 40~44세 36.5%, 45~49세 18.5%, 50세 이상 10.0%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9.5%, 전문대졸 25.6%, 대졸 35.7%, 대학원졸 이상이 9.2%의 분포를 보였음. 보호자의 직업은 전업주부(27.1%), 기타(14.5%), 자영업(13.6%)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4.4%), 200만원 미만(17.1%), 500~599만원(16.1%)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 참여자는 총 269명으로 남성 12.3%, 여성은 87.7%의 참여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34세 이하가 2.6%, 35~39세가 23.8%, 40~44세가 45.0%, 45~49세가 22.7%,

50세 이상이 16%를 차지함. 학력은 고졸 이하가 28.7%, 전문대졸이 25.8%, 대졸이 37.0%, 대학원졸 이상이 8.6%로 나타났음. 보호자의 직업은 전업주부(26.8%), 사무직(16.5%), 전문직(13.1%)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6.6%), 300~399만원(19.1%), 200만원 미만(18.0%)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사전 조사 참여자는 총 307명으로,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14.0%, 여성은 86.0%의 참여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34세 이하가 7.2%, 35~39세가 25.0%, 40~44세가 36.6%, 45~49세가 22.9%, 50세 이상이 8.2%를 차지함. 학력은 고졸 이하가 28.5%, 전문대졸이 25.2%, 대졸이 37.7%, 대학원졸 이상이 8.6%로 나타남. 직업은 전업주부(29.3%), 전문직(13.4%), 사무직(13.0%)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25.3%), 200~299만원(24.7%), 400~499만원(15.7%)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하반기 사후 조사 참여자는 총 476명이며, 남성은 16.0%, 여성은 84.0%의 비율을 보였음. 연령은 34세 이하가 4.7%, 35~39세가 24.7%, 40~44세가 35.6%, 45~49세가 23.9%, 50세 이상이 11.1%였음. 학력은 고졸 이하가 31.9%, 전문대졸이 21.5%, 대졸이 38.0%, 대학원졸 이상이 8.6%로 나타났음. 직업은 전업주부(26.2%), 전문직(12.3%), 사무직(11.9%), 기타(11.9%)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6.6%), 200만원 미만(21.9%), 300~399만원(19.1%)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조사 참여자는 총 461명이며, 남성 11.1%, 여성은 88.9%의 비율을 보였음. 연령은 34세 이하가 3.3%, 35~39세가 17.9%, 40~44세가 40.0%, 45~49세가 27.7%, 50세 이상이 11.1%였음. 학력은 고졸 이하가 25.1%, 전문대졸이 23.8%, 대졸이 41.7%, 대학원졸 이상이 9.4%로 나타났음. 직업은 전업주부(26.7%), 전문직(13.9%), 사무직(13.2%), 프리랜서(8.5%)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3.4%), 200만원 미만(21.0%), 300~399만원(19.1%)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3〉 보호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전	2019년 사후	2020년
성별	남	33(14.3)	24(11.4)	33(12.3)	43(14.0)	76(16.0)	51(11.1)
	여	197(85.7)	187(88.6)	236(87.7)	264(86.0)	400(84.0)	410(88.9)
	소계	230(100.0)	211(100.0)	269(100.0)	307(100.0)	476(100.0)	461(100.0)
연령	34세 이하	21(9.1)	6(2.8)	7(2.6)	21(7.2)	22(4.7)	15(3.3)
	35-39세	73(31.7)	68(32.2)	64(23.8)	73(25.0)	116(24.7)	82(17.9)
	40-44세	79(34.3)	77(36.5)	121(45.0)	107(36.6)	167(35.6)	183(40.0)
	45-49세	39(17.0)	39(18.5)	61(22.6)	67(22.9)	112(23.9)	127(27.7)
	50세 이상	18(7.8)	21(10.0)	16(6.0)	24(8.2)	52(11.1)	51(11.1)
	소계	230(100.0)	211(100.0)	269(100.0)	292(100.0)	469(100.0)	458(100.0)

학력	고졸 이하	72(32.4)	61(29.5)	77(28.7)	87(28.5)	151(31.9)	115(25.1)
	전문대졸	45(20.3)	53(25.6)	69(25.8)	77(25.2)	102(21.5)	109(23.8)
	대졸	89(40.1)	74(35.7)	99(36.9)	115(37.7)	180 (38.0)	191(41.7)
	대학원졸 이상	16(7.2)	19(9.2)	23(8.6)	26(8.5)	41(8.6)	43(9.4)
	소계	222(100.0)	207(100.0)	268(100.0)	305(100.0)	481(100.0)	458(100.0)
직업	농/임/어/축산업	7(3.1)	8(3.7)	10(3.8)	9(2.9)	20(4.2)	14(3.0)
	자영업	28(12.3)	29(13.6)	25(9.6)	27(8.8)	51(10.7)	37(8.0)
	전문직	19(8.3)	21(9.8)	34(13.0)	41(13.4)	59(12.3)	64(13.9)
	사무직	27(11.8)	26(12.1)	43(16.5)	40(13.0)	57(11.9)	61(13.2)
	판매/서비스직	15(6.6)	13(6.1)	28(10.7)	15(4.9)	30(6.3)	38(8.2)
	숙련기능직/기술직	5(2.2)	5(2.3)	3(1.15)	7(2.3)	10(2.1)	10(2.2)
	문화예술 종사자	3(1.3)	2(0.9)	2(0.8)	1(0.3)	3(0.6)	-
	공무원	18(7.9)	12(5.6)	20(7.7)	14(4.6)	20(4.2)	28(6.1)
	대학생/대학원생	1(0.4)	1(0.5)	0(0.0)	3(1.0)	3(0.6)	2(0.4)
	전업주부	68(29.8)	58(27.1)	70(26.8)	90(29.3)	125(26.2)	123(26.7)
	프리랜서	6(2.6)	6(2.8)	3(1.15)	19(6.2)	1(0.2)	39(8.5)
	무직	2(0.9)	2(0.9)	3(1.15)	6(2.0)	21(4.4)	9(2.0)
	기타	29(12.7)	31(14.5)	20(7.7)	34(11.0)	57(11.9)	36(7.8)
	소계	228(100.0)	214(100.0)	261(100.0)	307(100.0)	478(100.0)	461(100.0)
가계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50(22.3)	35(17.1)	48(18.0)	76(25.3)	103(21.9)	97(21.0)
	200~299만원	54(24.1)	50(24.4)	71(26.6)	74(24.7)	125(26.6)	108(23.4)
	300~399만원	34(15.2)	41(20.0)	51(19.10)	45(15.0)	90(19.1)	88(19.1)
	400~499만원	41(18.3)	34(16.6)	43(16.10)	47(15.7)	69(14.7)	72(15.6)
	500~599만원	34(15.2)	33(16.1)	34(12.7)	27(9.0)	47(10.0)	53(11.5)
	600만원 이상	11(4.9)	12(5.9)	20(7.5)	31(10.3)	36(7.5)	43(9.3)
	소계	224(100.0)	205(100.0)	267(100.0)	300(100.0)	481(100.0)	461(100.0)

- 2016~2020년에 모두 참여한 1단계 보호자 패널은 총 3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2020년에 모두 참여한 2단계 보호자 패널은 총 191명으로 집계됨.
-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5.9%, 여성은 94.1%, 연령은 34세 이하가 2.9%, 35~39세가 11.8%, 40~44세가 32.4%, 45~49세가 38.2%, 50세 이상이 14.7%였음. 학력은 고졸 이하가 32.4%, 전문대졸이 17.6%, 대졸이 44.1%, 대학원졸 이상이 5.9%로 나타났음. 직업은 사무직(23.5%), 전업주부(14.7%), 자영업(11.8%), 판매/서비스직(11.8%), 기타(11.8%)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26.5%), 200~299만원(26.5%), 300~399만원(20.6%)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4〉 보호자 패널 데이터 분석 대상 특성

단위: 명, %

구분		1단계 패널		2단계 패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34	100	191	100
성별	남	2	5.9	25	13.1
	여	32	94.1	166	86.9
연령	34세 이하	1	2.9	7	3.7
	35~39세	4	11.8	35	18.3
	40~44세	11	32.4	78	40.8
	45~49세	13	38.2	50	26.2
	50세 이상	5	14.7	20	10.5
학력	고졸 이하	11	32.4	50	26.2
	전문대졸	6	17.6	47	24.6
	대졸	15	44.1	73	38.2
	대학원졸 이상	2	5.9	19	9.9
직업	농/임/어/축산업	2	5.9	4	2.1
	자영업	4	11.8	17	8.9
	전문직	3	8.8	32	16.8
	사무직	8	23.5	25	13.1
	판매/서비스직	4	11.8	16	8.4
	숙련/기능직/기술직	1	2.9	6	3.1
	문화예술 종사자	0	0.0	0	0
	공무원	0	0.0	8	4.2
	전업주부	5	14.7	48	25.1
	프리랜서	3	8.8	16	8.4
	무직	0	0	4	2.1
	기타	4	11.8	15	7.9
가계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	26.5	49	25.6
	200~299만원	9	26.5	41	21.5
	300~399만원	7	20.6	34	17.8
	400~499만원	6	17.6	27	14.1
	500~599만원	2	5.9	24	12.6
	600만 원 이상	1	2.9	16	8.4

-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3.1%, 여성은 86.9%, 연령은 34세 이하가 3.7%, 35~39세가 18.3%, 40~44세가 40.8%, 45~49세가 26.2%, 50세 이상이 10.5%였음. 학력은 고졸 이하가 26.2%, 전문대졸이 24.6%, 대졸이 38.2%, 대학원졸 이상이 9.9%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25.1%), 전문직(16.8%), 사무직(13.1%), 자영업(8.9%), 판매/서비스직과 프리랜서(8.4%)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

(25.6%), 200~299만원(21.5%), 300~399만원(17.8%)의 순으로 나타남.

1.6.2 1단계 보호자 패널 효과성 분석 결과

1.6.2.1 가족응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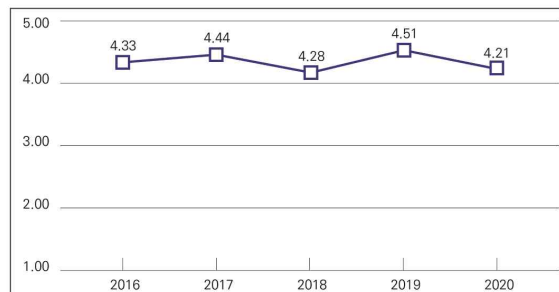
- 1단계 보호자 패널이 인지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2016~2020년 평가 시기에 따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집단 간 요인으로서는 취약계층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성별 집단 구분시 각 집단에 속하는 표본수의 편중으로 의미 있는 표본수를 확보할 수 없어(n=1인 경우) 성별 요인은 집단 간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음.
- 분석 결과 단원의 보호자가 평가한 가족응집력은 2016년 4.33점, 2017년 4.44점, 2018년 4.28점, 2019년 4.51점, 2020년 4.21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은 4.43점에서 4.45점, 4.28점, 4.63점, 4.15점으로 일반 학생은 4.10점에서 4.43점, 4.28점, 4.23점, 4.35점으로 변화하였고, 취약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IV-25〉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가족 응집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연도					F	p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3(0.62)	4.44(0.42)	4.28(0.66)	4.51(0.60)	4.21(0.72)	1.16	.33
취약 여부	취약	4.43(0.61)	4.45(0.37)	4.28(0.56)	4.63(0.53)	2.17	.08
	일반	4.10(0.60)	4.43(0.54)	4.28(0.89)	4.23(0.69)		

〈그림 IV-14〉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가족응집력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가족응집력

1.6.2.2 돌봄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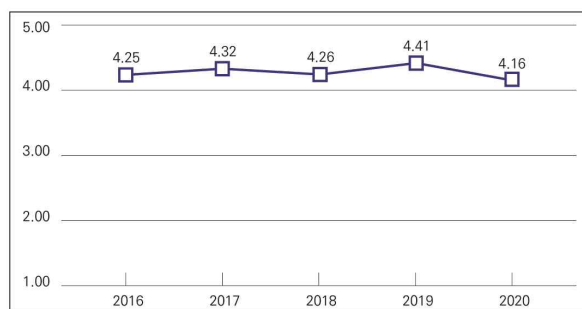
-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방과 후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시간, 경제적 비용, 심리적 부담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돌봄 비용의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 2016년 4.25점, 2017년 4.32점, 2018년 4.26점, 2019년 4.41점, 2020년 4.16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4.29점, 4.32점, 4.38점, 4.32점, 4.10점, 일반계층은 4.13점, 4.33점, 4.00점, 4.63점, 4.30점으로 변화하였고, 취약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IV-26〉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F	p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5(0.90)	4.32(0.89)	4.26(0.78)	4.41(0.84)	4.16(0.75)	.99	.42
취약 여부	취약	4.29(0.87)	4.32(0.98)	4.38(0.77)	4.32(0.90)	1.25	.30
	일반	4.13(1.00)	4.33(0.70)	4.00(0.77)	4.63(0.67)		

〈그림 IV-15〉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돌봄 비용

1.6.2.3 양육 스트레스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단위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가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년은 2.66점, 2017년은 2.58점, 2018년은 2.50점, 2019년은 2.55점, 2020년 2.30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F=2.38$, $p=.03$).

양육 스트레스의 시기별 차이를 대응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의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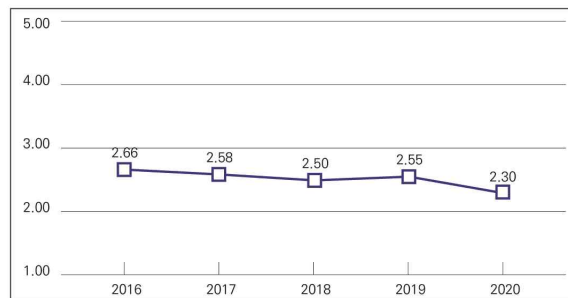
- 취약계층의 변화는 2.58점, 2.53점, 2.45점, 2.62점, 일반계층은 2.88점, 2.69점, 2.63점, 2.36점, 2.22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27〉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연도					F	p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6(0.76)	2.58(0.78)	2.50(0.75)	2.55(0.83)	2.30(0.80)	2.83	.03
취약 여부	취약	2.58(0.71)	2.53(0.81)	2.45(0.79)	2.62(0.79)	1.34	.26
	일반	2.88(0.90)	2.69(0.72)	2.63(0.67)	2.36(0.94)		
		2.22(0.78)					

〈그림 IV-16〉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양육 스트레스

1.6.2.4 지역사회 변화

-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인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은 2016년 4.51점이었으며, 2017년 4.48점, 2018년 4.41점, 2019년 4.47점, 2020년 4.27점이었으나, 시기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취약계층의 변화는 4.57점, 4.49점, 4.37점, 4.40점, 4.22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36점, 4.44점, 4.50점, 4.64점, 4.39점으로 집단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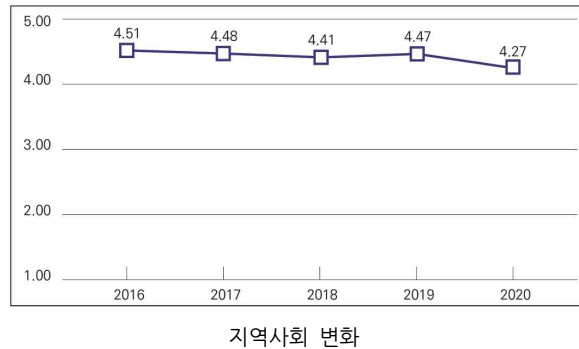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1(0.56)	4.48(0.76)	4.41(0.58)	4.47(0.61)	4.27(0.73)	.78	.54
취약 여부	취약	4.57(0.54)	4.49(0.82)	4.37(0.59)	4.40(0.66)	4.22(0.75)	.95	.44
	일반	4.36(0.63)	4.44(0.62)	4.50(0.59)	4.64(0.44)	4.39(0.71)		

〈그림 IV-17〉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6.3 2단계 보호자 패널 효과성 분석 결과

1.6.3.1 가족응집력

- 2단계 보호자 패널이 인지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평가 시기에 따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 2단계 보호자 패널이 평가한 가족응집력은 2019년 상반기 4.50점, 2019년 하반기 4.51점, 2020년 4.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63, p=.01). 대응 비교를 통해 가족응집력의 시기별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2020년의 수준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4.45점, 4.65점, 4.52점, 여학생은 4.47점, 4.44점, 4.31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은 4.45점, 4.49점, 4.40점으로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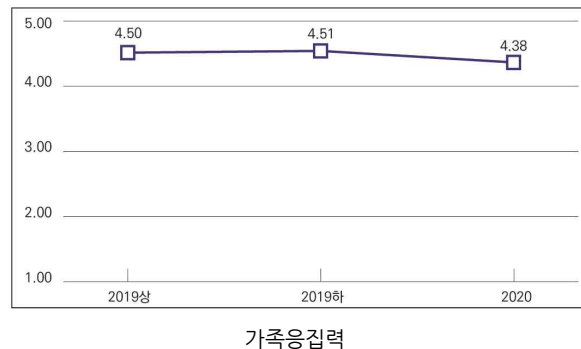
학생은 4.42점, 4.54점, 4.35점으로 변화하였고, 취약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IV-29〉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50(0.52)	4.51(0.59)	4.38(0.61)	4.63	.01	2019상 =2019하 >2020
아동 성별	남	4.45(0.71)	4.65(0.47)	4.52(0.50)	2.02	.13	
	여	4.47(0.55)	4.44(0.63)	4.31(0.66)			
취약 여부	취약	4.45(0.63)	4.49(0.63)	4.40(0.63)	1.69	.19	
	일반	4.42(0.73)	4.54(0.50)	4.35(0.59)			

〈그림 IV-18〉 2단계 보호자 패널의 가족응집력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6.3.2 돌봄비용

- 보호자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방과 후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시간, 경제적 비용, 심리적 부담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돌봄 비용의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4.21점, 2019년 하반기 4.39점, 2020년 4.26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F=3.44$, $p=.03$).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4.22점, 4.39점, 4.31점으로, 여학생은 4.20점에서 4.40점, 4.24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대응비교를 통한 시기별 돌봄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에 대한 인식은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2020년 수준은 2019 상반기 또는 하반기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4.22점, 4.39점, 4.23점, 일반

계층은 4.18점, 4.41점, 4.32점으로 변화하였고,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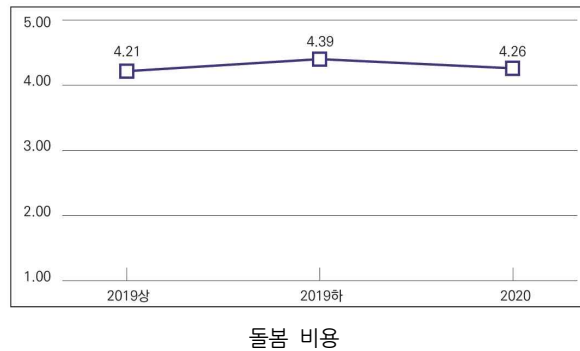
〈표 IV-30〉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21(0.86)	4.39(0.69)	4.26(0.80)	3.44	.03	2019상 <2019하 =2020, 2019상 =2020
아동 성별	남	4.22(0.84)	4.39(0.63)	4.31(0.67)	.14	.87	
	여	4.20(0.87)	4.40(0.73)	4.24(0.86)			
취약 여부	취약	4.22(0.90)	4.39(0.68)	4.23(0.83)	.09	.91	
	일반	4.18(0.77)	4.41(0.72)	4.32(0.74)			

〈그림 IV-19〉 2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6.3.3 양육 스트레스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단위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가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2.73점, 2019년 하반기 2.66점, 2020년 2.48점으로 평가 시기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F=14.39$, $p=.00$). 대응 비교를 통한 시기별 변화를 검증한 결과,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2020년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도 남학생은 2.72점, 2.64점, 2.49점, 여학생은 2.73점, 2.68점, 2.48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2.75점, 2.66점, 2.53점, 일반계층은 2.67점, 2.66점, 2.41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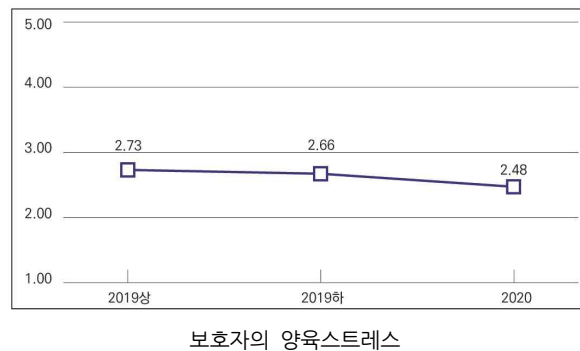
〈표 IV-31〉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2.73(0.83)	2.66(0.89)	2.48(0.93)	14.39	.00	2019상 =2019하 >2020
아동 성별	남	2.72(0.82)	2.64(0.90)	2.49(1.00)	.21	.81	
	여	2.73(0.84)	2.68(0.89)	2.48(0.89)			
취약 여부	취약	2.75(0.84)	2.66(0.94)	2.53(0.95)	.98	.38	
	일반	2.67(0.81)	2.66(0.82)	2.41(0.89)			

〈그림 IV-20〉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6.3.4 지역사회 변화

-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인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은 2019년 상반기 4.59점, 2019년 하반기 4.59점, 2020년 4.49점이었으나, 시기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4.57점, 4.68점, 4.59점, 여학생은 4.60점, 4.55점, 4.43점으로의 변화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취약계층의 변화는 4.57점, 4.58점, 4.48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62점, 4.61점, 4.49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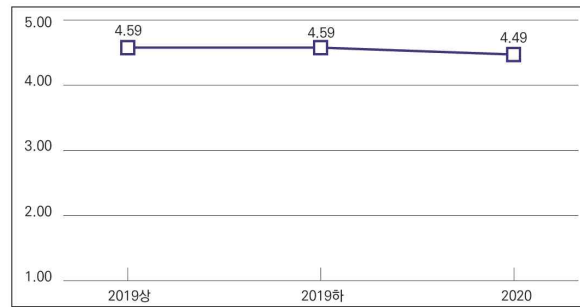
〈표 IV-32〉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59(0.54)	4.59(0.49)	4.49(0.56)	2.28	.10
아동 성별	남	4.57(0.64)	4.68(0.42)	4.59(0.46)	1.31	.27
	여	4.60(0.49)	4.55(0.52)	4.43(0.60)		
취약 여부	취약	4.57(0.59)	4.58(0.51)	4.48(0.59)	.31	.74
	일반	4.62(0.46)	4.61(0.47)	4.49(0.49)		

〈그림 IV-21〉 2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지역사회 변화

1.7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의 아동 1단계 패널 평가

1.7.1 음악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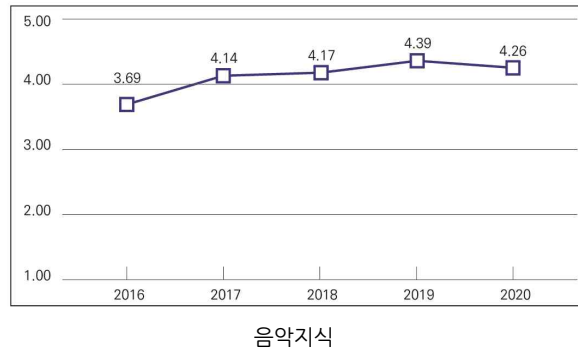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자신이 지도한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적 역량의 성장 평가 결과에 대해 연도별 차이를 비교 분석함. 음악적 역량은 음악적 지식과 연주 능력의 차원으로 분석함.
- 교육강사가 평가한 음악지식은 2016년 3.69점에서 2017년 4.14점, 2018년 4.17점, 2019년 4.39점, 2020년 4.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F=5.50$, $p=.00$).
 - 연차별 음악지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강사들이 평가한 아동들의 음악지식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후 연차별 유의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9년과 2020년의 음악적 지식은 2017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3.70점, 4.20점, 4.19점, 4.38점, 4.24점으로, 일반은 3.63점, 3.91점, 4.13점, 4.38점, 4.31점으로 음악지식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33〉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지식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대응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9(0.86)	4.14(0.65)	4.17(0.72)	4.39(0.73)	4.26(0.65)	5.50	.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7 <2019 =2020
취약 여부	취약	3.70(0.83)	4.20(0.63)	4.19(0.77)	4.38(0.70)	4.24(0.70)	.34	.85	
	일반	3.63(1.03)	3.91(0.72)	4.13(0.46)	4.38(0.87)	4.31(0.46)			

〈그림 IV-22〉 교육강사 평가 음악지식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7.2 연주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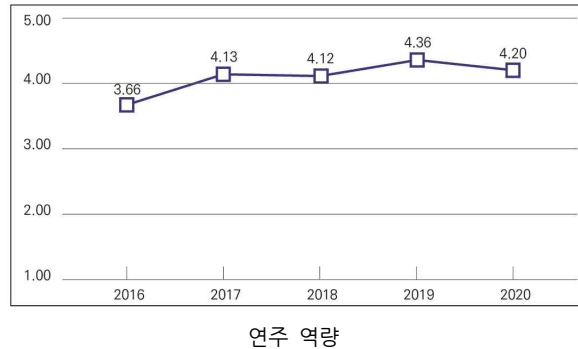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평가한 1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아동의 연주 역량은 2016년 3.66점, 2017년 4.13점, 2018년 4.12점, 2019년 4.36점, 2020년 4.20점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F=4.55$, $p=.00$).
- 연차별 음악지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강사들이 평가한 1단계 패널 아동들의 연주 역량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 수준은 2018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에는 유의한 성장을 보여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3.66점, 4.22점, 4.17점, 4.34점, 4.22점으로, 일반은 3.67점, 3.79점, 3.92점, 4.41점, 4.13점으로 연주 역량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34〉 1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6(0.86)	4.13(0.78)	4.12(0.69)	4.36(0.70)	4.20(0.71)	4.55	.00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약 여부	취약	3.66(0.88)	4.22(0.71)	4.17(0.74)	4.34(0.70)	4.22(0.71)	.67	.61	
	일반	3.67(0.84)	3.79(0.99)	3.92(0.46)	4.41(0.73)	4.13(0.73)			

〈그림 IV-23〉 교육강사 평가 연주 역량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7.3 협동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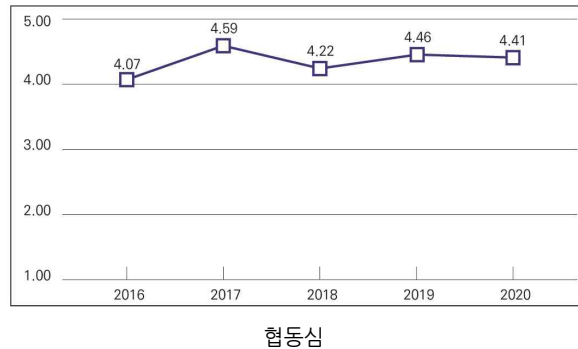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평가한 1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의 시기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07점, 2017년 4.59점, 2018년 4.22점, 2019년 4.46점, 2020년 4.4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4.11$, $p=.00$). 한편, 협동심의 평가 시기별 변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으며, 2018년과 2020년도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됨.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4.13점, 4.68점, 4.20점, 4.43점, 4.33점으로, 일반은 3.33점, 4.25점, 4.29점, 4.58점, 4.70점으로, 한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변화를 보임.

〈표 IV-35〉 1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F	p	대응 비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07(0.77)	4.59(0.57)	4.22(0.75)	4.46(0.66)	4.41(0.63)	4.11	.00	2016 < 2017
취약 여부	취약	4.13(0.81)	4.68(0.50)	4.20(0.78)	4.43(0.68)	2.12	.08	= 2018
	일반	3.83(0.59)	4.25(0.75)	4.29(0.70)	4.58(0.58)			= 2019 = 2020

〈그림 IV-24〉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8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의 아동 2단계 패널 평가

1.8.1 음악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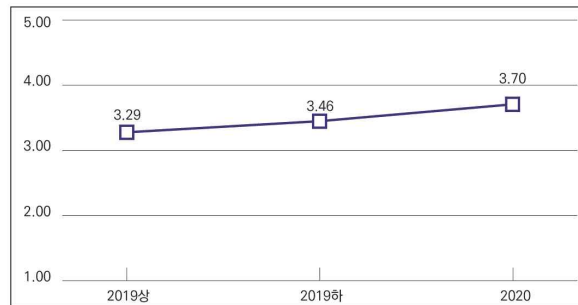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자신이 지도한 아동의 음악적 역량의 성장 평가 결과에 대해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의 평가 시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 음악적 역량은 음악적 지식과 연주 능력의 차원으로 분석함.
- 교육강사가 평가한 음악지식은 2019년 상반기 3.29점, 2019년 하반기 3.46점, 2020년 3.7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F=10.30$, $p=.00$).
 - 연차별 음악지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강사들이 평가한 아동들의 음악지식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수준은 2020년도에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07점, 3.41점, 3.62점으로, 여학생은 3.41점, 3.49점, 3.74점으로 음악지식이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3.10점, 3.37점, 3.66점으로, 일반은 3.66점, 3.65점, 3.77점으로 음악지식이 변화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F=5.05$, $p=.01$).

〈표 IV-36〉 2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지식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29(0.89)	3.46(0.96)	3.70(0.83)	10.30	.00	2019상 = 2019하 < 2020
아동 성별	남	3.07(0.85)	3.41(1.02)	3.62(0.89)	.88	.42	
	여	3.41(0.90)	3.49(0.92)	3.74(0.80)			
취약 여부	취약	3.10(0.85)	3.37(1.00)	3.66(0.91)	5.05	.01	
	일반	3.66(0.85)	3.65(0.84)	3.77(0.66)			

〈그림 IV-25〉 교육강사 평가 음악지식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음악지식

1.8.2 연주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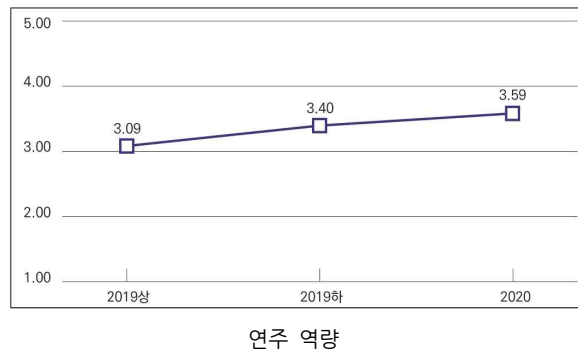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평가한 2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아동의 연주 역량은 2019년 상반기 3.09점, 2019년 하반기 3.40점, 2020년 3.58점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F=14.63$, $p=.00$).
 - 연차별 음악지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강사들이 평가한 2단계 패널 아동들의 연주 역량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하반기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 수준은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2.98점, 3.36점, 3.53점으로, 여학생은 3.15점, 3.42점, 3.60점으로 연주 역량이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2.93점, 3.28점, 3.54점으로, 일반은 3.42점, 3.65점, 3.64점으로 연주 역량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37〉 2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09(0.97)	3.40(0.96)	3.58(0.82)	14.63	.00	2019상 <2019하 =2020
아동 성별	남	2.98(0.99)	3.36(1.03)	3.53(0.83)	.27	.76	
	여	3.15(0.97)	3.42(0.93)	3.60(0.82)			
취약 여부	취약	2.93(0.97)	3.28(0.96)	3.54(0.89)	2.87	.06	
	일반	3.42(0.91)	3.65(0.94)	3.64(0.65)			

〈그림 IV-26〉 교육강사 평가 연주 역량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8.3 협동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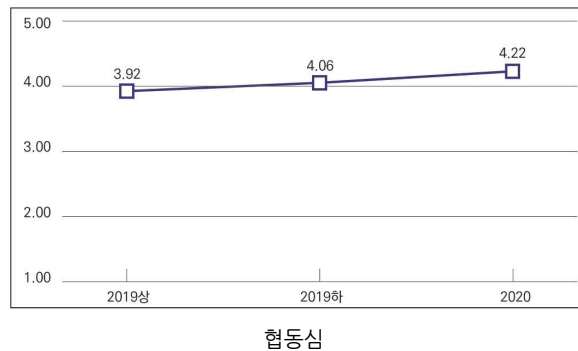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평가한 2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의 시기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3.92점, 2019년 하반기 4.06점, 2020년 4.22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3.76$, $p=.02$). 한편, 협동심의 평가 시기별 변화는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에 비해 2020년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90점, 3.98점, 4.07점으로, 여학생은 3.92점, 4.11점, 4.30점으로 협동심이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3.81점, 4.07점, 4.22점으로, 일반은 4.13점, 4.05점, 4.24점으로 협동심이 변화하였으며,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F=3.43$, $p=.03$).

〈표 IV-38〉 2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F	p	대응비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92(0.91)	4.06(0.94)	4.22(0.81)	3.76	.02	2019상 =2019하 <2020
아동 성별	남	3.90(0.99)	3.98(1.01)	4.07(0.85)	10.05	.35	
	여	3.92((0.87)	4.11(0.90)	4.30(0.79)			
취약 여부	취약	3.81(0.93)	4.07(1.01)	4.22(0.85)	3.43	.03	
	일반	4.13(0.84)	4.05(0.79)	4.24(0.74)			

〈그림 IV-27〉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9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의 자기평가 분석

1.9.1 분석 개요

- 2016년 조사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49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36.7%, 여성이 63.3%를 차지하였음. 연령은 20대 59.2%, 30대 40.8%, 40대 이상은 0.0%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8.6%, 5~10년 57.1%, 11년 이상 14.3%,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93.9%, 1~2년 0%, 2년 이상 6.1%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61명으로, 남성이 41.0%, 여성이 59.0%를 차지하였음. 연령은 20대 47.5%, 30대 42.6%, 40대 이상이 9.8%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7.9%, 5~10년 52.5%, 11년 이상 19.7%,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27.9%, 1~2년 41.0%, 2년 이상이 31.1%로 나타남.
- 2018년 조사 참여자는 총 65명으로, 여성이 63.1%, 남성이 36.9%로 나타남. 연령은 20대 41.5%, 30대 50.8%, 40대 이상이 7.7%로 나타났음.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9.2%,

5~10년 49.2%, 11년 이상 21.5%,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15.4%, 1~2년 26.6%, 2년 이상이 60.0%로 나타남.

- 2019년도 조사 참여자는 총 159명으로, 남성이 39.2%, 여성은 60.8%였음, 연령은 20대 34.4%, 30대 53.5%, 40대 이상 12.1%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8.3%, 5~10년 50.3%, 11년 이상 21.4%,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25.2%, 1~2년 23.9%, 2년 이상이 50.9%로 나타남.
- 2020년도 조사 참여자는 총 157명으로, 남성이 37.6%, 여성은 62.4%였음, 연령은 20대 28.0%, 30대 52.2%, 40대 이상 19.7%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35.6%, 5~10년 40.0%, 11년 이상 24.4%,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2년 39.1%, 2년 이상이 60.9%임.

〈표 IV-39〉 교육강사의 자기 평가 개요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49	100.0	61	100.0	65	100.0	159	100.0	157	100.0
성별	남	18	36.7	25	41.0	24	36.9	62	39.2	59	37.6
	여	31	63.3	36	59.0	41	63.1	96	60.8	98	62.4
연령	20대	29	59.2	29	47.5	27	41.5	54	34.4	44	28.0
	30대	20	40.8	26	42.6	33	50.8	84	53.5	82	52.2
	40대 이상	0	0.0	6	9.8	5	7.7	19	12.1	31	19.7
교육강사 경력	5년 미만	14	28.6	17	27.9	19	29.2	45	28.3	16	35.6
	5~10년	28	57.1	32	52.5	32	49.2	80	50.3	18	40.0
	11년 이상	7	14.3	12	19.7	14	21.5	34	21.4	11	24.4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경력	1년 미만	46	93.9	17	27.9	10	15.4	40	25.2	-	0.0
	1~2년 미만	0	0.0	25	41.0	16	26.6	38	23.9	34	39.1
	2년 이상	3	6.1	19	31.1	39	60.0	81	50.9	53	60.9

1.9.2 교육강사가 평가한 사회적 효과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교육강사가 평가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인식에 대해 평가함. 먼저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 예술자본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에서는,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42점, 2017년은 4.55점, 2018년은 4.63점, 2019년은 4.62점, 2020년 4.61점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꿈의 오케스트라가 교육강사의 지역사회 예술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에서는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10점, 2017년은 4.25점, 2018년은 4.43점, 2019년은

4.45점, 2020년 4.48점으로 연도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3.18$, $p=.01$). 유의한 차이에 대한 사후(Scheffe) 검증을 통한 사후 분석 결과, 2018년에 2016년과 2017년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예술활동 참여 수준을 보이고, 이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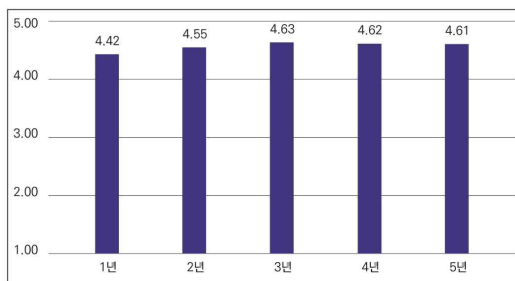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가 사회적 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에서는,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47점, 2017년은 4.64점, 2018년은 4.65점, 2019년은 4.66점, 2020년 4.71점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표 IV-40〉 교육강사가 평가한 사회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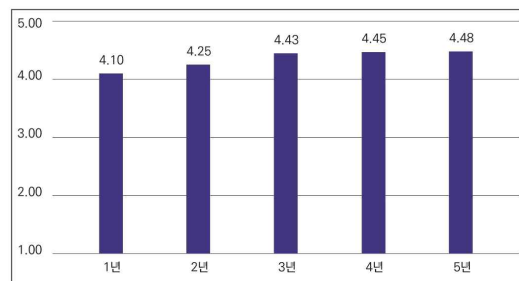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p	사후 비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역사회 예술자본확충	4.42	.69	4.55	.57	4.63	.53	4.62	.46	4.61	.54	1.55	.19	
지역사회 예술활동 참여	4.10	1.00	4.25	.87	4.43	.73	4.45	.66	4.48	.70	3.18	.01	2016=2017 < 2018=2019=2020
사회적포용	4.47	.63	4.64	.65	4.65	.61	4.66	.56	4.71	.50	1.70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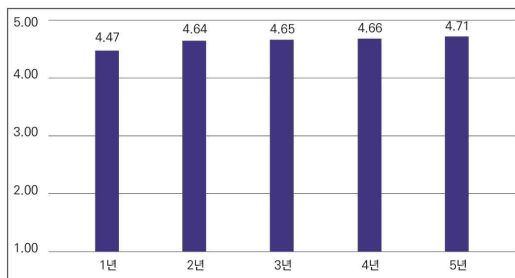
〈그림 IV-28〉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지역사회 예술자본확충



지역사회 예술활동 참여



사회적포용

1.9.3 단원의 유지와 이탈원인

- 꿈의 오케스트라가 교육강사가 인지하는 단원의 유지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즐거움(50.8%),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애정과 애착(20.4%), 단원들의 유대감(9.5%)을 주요 유지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1〉 교육강사가 인지한 단원의 유지 원인

원인	빈도	비율(%)
음악적 성장	25	6.6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 즐거움	192	50.8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애정과 애착	77	20.4
단원들간의 유대감	36	9.5
교육강사의 관심과 격려	26	6.9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	11	2.9
또래집단의 관심과 지지	7	1.9
기타	4	1.1

- 꿈의 오케스트라가 교육강사가 인지하는 단원의 이탈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방과 후 일정 변경(25.4%), 학업 부담(21.7%), 보호자의 관심과 지지 부족(14.8%)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표 IV-42〉 교육강사가 인지한 단원의 이탈원인

원인	빈도	비율(%)
단원들의 음악적 격차에 따른 소외감	23	6.1
연주 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악적 부담감	32	8.5
음악적 권태	19	5.0
단원들과의 갈등	8	2.1
보호자의 관심과 지지 부족	56	14.8
아동들의 성장 요인(예: 사춘기)	36	9.5
학업 부담	82	21.7
거주지 이사	25	6.6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방과 후 일정 변경	96	25.4
기타	1	0.3

2.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

-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는 참여관찰과 개인면접(Personal Interview, PI)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동 사업이 2016년 초부터 시작된 5년차 거점기관 2곳과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2년차 거점기관 2곳을 중심으로 참여 단위 집단(n=26),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집단(n=16), 보호자 집단(n=13), 코디네이터 및 행정담당 집단(n=5), 이탈단원 집단(n=6)으로 연구대상의 삼각화(triangulation)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총 66명으로 집계됨.
- 인터뷰에 참가한 단위 26명 중 2년차 단원은 14명이었으며, 이중 일반가정 아동 7명, 취약가정 아동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5년차 단원은 총 12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일반가정 단위 6명, 취약가정 단위 6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초점집단면접(FGI)이 아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주요 연구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분석모형은 4개의 대영역인 지원동기, 교육효과, 참여환경, 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음. 단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원의 경우 지원동기 질문은 생략되었고, 대신 4년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 참여환경 중 촉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2.1 연구의 개요: 방문기관 및 연구참여자 특징

2.1.1 방문기관의 개요

- 자료 수집을 위해 선정된 4곳의 거점기관 모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침에 따라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위 비율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일반가정 대 취약가정이 30:70의 비율로 나타남. 그러나 5년차 거점기관의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일반가정의 단원들이 학업을 이유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됨.
- 5년차 거점기관인 A기관의 경우, 취약가정의 비율은 75%로 타 거점기관 중 가장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중 2020년 기준으로 기타 취약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순으로 집계됨.
- 5년차 거점기관인 B기관의 경우 취약가정의 비율은 66.67%로 집계되었으며, 취약가정의 분류 형태로는 2020년 기준 다문화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자녀, 학교장 추천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순이었음.
- 2년차 거점기관인 C기관의 취약가정 단위 비율은 64%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취약가정 단원의 특징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매우 높았음. 그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순서를 보임.

- 2년차 거점기관인 D기관의 경우, 취약가정의 비율은 61.7%로, 분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다음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순서를 보임.

〈표 IV-43〉 면접조사 선정 방문기관 및 자료수집 방문 일자

대상시설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담당 연구자		연구자1·2	연구자1·2	연구자1·2	연구자1·2·3
총 인원 수		54명	57명	67명	68명
악기 편성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호른,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호른, 트럼본,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튜바, 트럼펫, 트럼본, 호른, 타악기
취약계층 아동비율		75%	66.67%	64%	61.7%
면접 대상	아동	○	○	○	○
	강사	○	○	○	○
	행정	○	○	○	○
	학부모	○	○	○	○
방문일자		2020. 11. 12.	2020. 11. 09.	2020. 11. 02.	2020. 08. 20. 2020. 11. 05. 2020. 11. 10.

※연구자 총 3명이 자료를 수집했으며, 동일연구자에게 숫자를 부여함

- 악기편성은 각 기관이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중 A기관의 편성이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남. D기관의 경우는 악기의 크기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 중 연주하기에 적절한 신체로 성장할 때까지 콘트라베이스는 합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섭외기간을 포함하여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자료수집 준비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진 3명의 협업으로 1개 기관의 참여관찰과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4개 기관의 개인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이 수행되었음.

2.1.2 면접조사 개요 및 연구참여자 특징

- 면접조사는 총 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 기준 신규기관과 2곳과 연속지원기관 2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면접조사 참여자는 총 5그룹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n=26),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n=16), 보호자(n=13), 코디네이터 및 행정담당(n=5)이 참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탈단원(n=6) 인터뷰가 진행되어 총 66명으로 집계됨.

〈표 IV-44〉 거점기관 별 인터뷰 참여자와 분류 체계

지역	기관 분류	단원	코디네이터 및 행정담당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보호자
A	5년차 거점기관	4	1	4	4
B	5년차 거점기관	8	2	4	2
C	2년차 거점기관	8	1	4	3
D	2년차 거점기관	6	1	4	4
-	이탈 단원	6	0	0	0
계		32	5	16	13
총합		총 면접참여자 : 66명			

- 2020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단원의 평균나이는 2년차 거점기관의 경우 11.35세로, 5년차 거점기관의 경우 평균나이는 14.13세로 집계됨. 남녀의 비율은 각각 남자 8명, 여자가 18명이 참여하였음. 해당악기의 경우, 현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타악기, 플루트, 호른, 클라리넷, 트럼펫 순으로 나타남.
- 참여 단원의 경우, 인터뷰에 참가한 아동 26명의 분포는 5:5로 일반가정 아동 13명, 취약가정 아동 13명으로 집계됨.
- 이탈 단원의 경우, 총 6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모바일 설문조사 시 인터뷰 참여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음.
- 참여 교육강사 집단의 경우, 4명의 음악감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연구참여자가 면접조사를 위해 참여하였음.
- 보호자 집단의 경우, 면접조사 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총 13명이었으며 연령대는 비교적 30~4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코디네이터와 행정담당 집단의 경우, 면접조사 참여자는 5명으로 코디네이터 3명, 행정공무원 2명으로 이루어짐.
- 초점집단면접의 분석은 앞 장에서 세부적으로 소개된 바와 같이 배경 및 동기, 효과(변화), 촉진 및 장애요인, 개선점 총 4개의 차원으로 구조화하여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면접질문의 설계는 Carnwath와 Brown(2014)의 이론적 모형을 차용하였으며,

분석에서도 상위범주로서 주요 축코딩의 일부로 사용되었음.

〈표 IV-45〉 면접조사 대상자 특징 및 부여 코드

구분	시설	성별	코드	비고
참여 인원	A기관	여	A가1	일반
		여	A가2	일반
		여	A나1	취약
		여	A나2	취약
	B기관	여	B가1	일반
		여	B가2	일반
		여	B가3	일반
		여	B가4	일반
		여	B나1	취약
		여	B나2	취약
		여	B나3	취약
		남	B나4	취약
	C기관	여	C가1	일반
		여	C가2	일반
		남	C가3	일반
		남	C가4	일반
		여	C나1	취약
		여	C나2	취약
		남	C나3	취약
		남	C나4	취약
	D기관	여	D가1	일반
		남	D가2	일반
		남	D가3	일반
		여	D나1	취약
		여	D나2	취약
		남	D나3	취약
소계		-	26	
이탈 인원	-	여	다1	-
		여	다2	-
		남	다3	-
		여	다4	-
		남	다5	-
		남	다6	-
소계		-	6	
행정담당자	A기관	여	A	-
	B기관	여	B1	-
		여	B2	-
	C기관	여	C1	-
	D기관	여	D	-
소계		-	5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A기관	남	A다1	-
		남	A다2	-
		남	A다3	-
		여	A다4	-
	B기관	남	B다1	-
		여	B다2	-
		남	B다3	-
		여	B다4	-
	C기관	남	C다1	-
		여	C다2	-
		여	C다3	-
		여	C다4	-
	D기관	여	D다1	-
		남	D다2	-
		남	D다3	-
		여	D다4	-
소계		-	16	
보호자	A기관	여	A라B1	일반
		여	A라A1	취약
		여	A라A2	취약
		여	A라A3	취약
	B기관	여	B라A1	취약
		여	B라B1	일반
	C기관	여	C라A1	취약
		여	C라A2	취약
		여	C라B1	일반
	D기관	여	D라A1	취약
		여	D라B1	일반
		여	D라B2	일반
		여	D라A2	취약
소계		-	13	
총계		-	66	

2.2 단위 면접조사 분석 결과

- 단위와 면접 시, 연구자는 아동이 각자 체험한 꿈의 오케스트라에서의 경험 과정과 변화를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여 설계한 반구조화된 질문 안에서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 아동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내용 그대로 녹취록 작성에 사용되었으며, 현장성을 높이고 진술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각각의 인터뷰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성원체크(member check)를 기본적으로 실시하였음.

- 아동의 면접조사 분석 결과는 우선 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의 차이와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아동의 변화, 그리고 아동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팔목할 만한 추가적 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음.
- 아동 면접대상자의 분류는 ①일반가정 2년차 단원, ②취약가정 2년차 단원, ③일반가정 5년차 단원, ④취약가정 5년차 단원으로 이루어졌음.
- 추가적으로 이탈단원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증언에 대한 분석은 기존 단원의 분석내용과 분리되어 진행되었음.
- 분석 결과는 총 4개의 파트로 ①2년차 단원, ②5년차 단원, ③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④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의 경우, 참여자 증언을 통해 작성된 구두보고(oral-reports) 내용의 의미와 효과를 기반으로 1차 개방코딩과 2차 축코딩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음. 1차 개방코딩 분석내용은 각 패턴 별로 군집화하여 주요 의미를 추출하였으며, 2차 코딩인 축코딩은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범주화하는데 사용되었음.

2.2.1 일반가정 2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음악적 성장으로 가장 다채로운 의미들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①악기실력의 향상, ②음악지식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⑤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증가로 의미가 구성되었음.
- 다음으로 주요한 변화인 개인적 성장은 주로 아동의 정서와 내적인 변화로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자신감 증가, ③좋은 습관이 보고되었음.
-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만큼 강한 의미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친화력 증진이 발견되었으며,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①편안한 쉼터와 ②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주요한 의미가 도출되었음.
- 음악적 성장만이 강조된 증언과 개인적 성장, 인적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경제적 혜택 증언은 대면 수업 환경의 기억에 기반하여 의미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공공의 의미에 해당하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음.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 ②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③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 분석되었음.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으로는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가 보고되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로 압축됨. 이와 유사한 요인으로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캠프, ④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그리고 ⑤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실수에 대한 두려움, ②불편한 교통수단이 도출되었음.

- 2년차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으로는 ①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나가기, ②연습 악기 지원, ③교통수단의 개선, ④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가 환경적 요인을 위한 제언들로 조사됨.

〈표 IV-46〉 일반가정 2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 행복감과 즐거움 - 자신감 증가 - 좋은 습관
	음악적 성장	- 악기실력의 향상 - 음악지식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합주의 즐거움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인적 상호작용	- 친화력 증진
	사회경제적 혜택	- 편안한 쉼터 - 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
비대면 교육	장점	- 효율적인 시간 사용 - 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단점	-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참여환경	촉진요인	- 친구들과 함께 하기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요인	- 실수의 두려움 - 불편한 교통수단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나가기 - 연습 악기 지원 - 교통수단의 개선 -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1) 개인적 성장

- 개인적 성장의 구성된 의미는 크게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자신감 증가, ③좋은 습관이 주 요하게 보고되었음.

- 다만 이러한 증언은 대체로 대면수업의 기억에 회귀하여 증언된 것들로, 2020년 주로 행해졌던 비대면 수업의 결과로서 보기는 어려움. 특히 행복감과 즐거움의 경우는 증언의 맥락을 고려할 경우, 단원들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고 합주를 하며 느낀 감정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주요한 가치가 함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함.

■ 행복감과 즐거움

저는 원래 지금 여기서 단원들이랑 같이 악기 연주하고 노는 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D가3)

기쁨이요.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친구들이랑) 말 하는 게 좋아서요. (D가1)

나에게 꿈의 오케스트라는 친구다. 악기 하면 굉장히 즐겁고요.
여기 와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요. 간식도 맛있었고요. 뭔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C가4)

■ 자신감 증가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애들이 제가 오케스트라를 다닌다는 걸 알았지 어떤 악기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좀 친구들이나 남한테 오케스트라 안에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또 생겼다는 거.
자신감 같은 거요. (C가2)

■ 좋은 습관

저는 약간 습관이 잡힌 것 같아요. 원래 학원 같은 것도 약간씩 늦고 그랬는데
늦으면 차를 못타고 못가니까. 꼭 그 시간까지 가있고 그리고 꼭 항상 숙제를 미뤄서 했는데
이거 갔다 오면 바로 저녁밥 먹고 해야 되니까 약간 힘들어가지고
학교 다녀와서 다 하고 학원 갔다가 여기 바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규칙적이게. (C가3)

(2) 음악적 성장

- 2년차 단원으로 일반가정 아동들은,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로 음악적 성장을 꼽았으며, 구체적으로 ①악기실력의 향상, ②음악지식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⑤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증가로 분석됨.
- 위의 변화들 중에서 참여 단원들은 자신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음악지식의 향상과 악기실력의 향상에 주목하였음.
- 이러한 단원의 증언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함. 첫 번째 해석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2년차 단원의 경우에 단원의 관점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음악적 성장으로 이해하는 것임. 두 번째 해석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 올 해의 경우, 서로 만나고 교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다양한

활동이나 이에 따른 외부자극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른 변화들보다 음악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여 증언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악기 실력의 향상

악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게 잘 풀리는, 약간의 그 뭐지?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되는데 이게 쉬우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D가2)

악기를 새롭게 배우면 작년에는 오래 걸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새롭게 배우면 한 반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D가1)

저는요 오케스트라 다니기 전 에는요, 바이올린 활도 잘못하고... 뭐지 활도 그 구부려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습관이 별로 없고 잘 하게 된 게 바뀌었어요. [...] 그리고 줄도 요즘 안 건드려요. (C가2)

악기 연주가 별로 안 늘은 게 제일 싫어요. 코로나 때문에 별로 만나지도 못 했는데, 거의 1년을 없애버린 것처럼 해서. (D가3)

퍼스트랑 세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컨트 바이올린은 그 화음을 넣어요. 그 저는 그냥 그 화음 말고 진짜 노래, 진짜 노래를 키고 싶어서. (C가3)

■ 음악지식의 향상

학교에서 음악시간 할 때, 그 게이를 연습을 하는데 그걸 좀 더 알게 되어가지고, 더 잘 하게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 그, 이제 다섯 줄 있잖아요. 그게 도는 몇 줄인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여기서 알게 돼서. 그 학교에서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D가2)

대부분 현악기 하면 첼로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저도 몰랐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알았지. 그런데 저번에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C가1)

학교에서도 음악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다 답을 척척 맞히니까. 그 더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높아져서 좋았고. (C가3)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아 그 처음에 바이올린하기 전에는 바이올린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이제 바이올린이 악기가 뭔지 알았어요. (D가3)

제가 원래 잘 때 그냥 자거든요? 이불 꼭 덮고, 근데 이제는 다리 사이에 항상 베개를 끼고 자요.
 그 첼로가 이렇게 다리에 첼로를 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항상 끼고 자요. (C가4)

■ 합주의 즐거움

저는 합주가 제일 좋아요. 다 같이 하는 거.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하고 있어서 속상했어요. (D가1)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로운 악기를 만져봤어요. 원래 악기는 그냥 피아노밖에 안 배우고,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어... 악기에 대한 좀 다른 악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C가4)

바이올린도 해봤고, 그래서 요즘에 악기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C가1)

(3) 인적 상호작용

- 인적 상호작용 영향과 관련된 증언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되었음.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만큼 주요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친화력 증진이 구성된 의미로 도출되었음.
- 이러한 인적상호작용 영향에 대한 제한적인 증언은, 비대면 학습 환경으로 인한 친구들과 교육 강사와의 한정된 교감과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 현상일 것으로 사료됨.

■ 친화력 증진

원래 저희 파트만의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저희 파트 들어오면 되게 환영 해주고
 막 되게 파티 분위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애 오면 일단 이미 다 친해져 있는 상태니까
 다른 파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친해져가지고. (C가1)

(4) 사회경제적 혜택

- 2년차 단원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①편안한 쉼터와 ②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의미가 구성되었음.
- 사회경제적 혜택과 연관된 증언 또한 인적 상호작용과 같이 언급된 비율과 증언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대면 학습 환경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로 판단됨.

- 더불어, 아동의 증언은 대부분 2019년 대면수업의 기억을 기반으로 진술된 것으로, 비대면 환경으로만 교육이 진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변화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사료됨.

■ 편안한 쉼터

꿈의 오케스트라는 나의 스트레스 해소다.
 왜냐면요. 오케스트라를 하면 이렇게 알차긴 한데, 그래도 집에 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막 학원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와서 이제 악기를 만지는 순간 탁 (스트레스가 풀려요). (C가2)

■ 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

일상이요. 매일매일 화목마다 가는 게 일상이 되고, 작년부터 해왔고,
 이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좋은 일상이다. (D가2)

치킨! 그냥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꿈오도) 한 번 오면 계속 와야 하고 또 내가 가고 싶어 하고. (C가1)

(5.1) 비대면 교육의 장점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 ②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③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 분석되었음.
- 2016년 연구에서부터 도출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있어 단원의 관점에서 주요하게 보고되어 왔던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과 영향,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과 연관성은 비대면 교육의 장점에서는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추가적으로 비대면 교육의 장점 중 교육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단원들의 증언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었음.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음악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기도 함.

■ 효율적인 시간 사용

원래 시작하면 막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각 파트별로 하니까,
 네 시 반부터 뭐 다섯 시 이십 분 까지 해가지고 그걸 한 명씩 번갈아 하니까
 진도가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D가2)

■ 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저는 온라인으로 수업한 게 악기실력이 더 늘은 거 같아요.
패드로 해가지고 집에서 리듬 치는 것만 집중해서 하니깐요. (D가3)
작년에는 몰라도 이번 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악기를 가져갈 수 있어서 [...] 다른 곡 찾아가지고 연습도 하고, (C가2)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저도 이제 영상보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그리고 밴드에 저는 스노우로 찍었거든요.
뭐지 바이올린 하는 거? 그거 찍는 게 재밌었어요[...] 저 토끼로 했어요. (C가1)

그것도 재밌어요. 만약에 이렇게 파트가 한 곡에 위에 파트랑 아래 성부가 있으면
제가 위에 성부를 맡을 수도 있고. 제가 혼자서 만약 위에 성부를 혼자서 녹음을 한 다음에
아래 성부를 녹음해서 같이 틀어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C가3)

(5.2) 비대면 교육의 단점

-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으로는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가 보고되었음.
- 단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위의 구성된 의미는, 비대면 교육 환경에 있어 보완 또는 개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의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의 경우에는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충족될 수 없었던 주요한 음악 교육적 요소들이 드러남.

■ 고유한 즐거움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예전에는) 간식도 있고, 수업 쉬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5월인가 6월 즈음에 그거(수업)를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인가? 한 3~4주 전일부터 이제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도 없어져가지고.
간식도 끝나면 집으로 가져가야 해서 작년이 훨씬 더 좋아요 (D가1)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집에 가져가서 온라인으로 연습해도 바이올린 튜닝을 못해서...연습이 안 돼요. (D가2)

불편함 점은 뭐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못해주니까 불편해요. (D가3)

밴드에. 영상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연습하고.
제가 틀리면 선생님이 지적해주시는데, (실시간이 아닌 영상수업은) 제가 약간 못해도
지적을 못 해주셔가지고. [...]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면 되는데.
물어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C가4)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온라인이 그 모지... 줌으로 해가지고, 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컴퓨터 거기를 설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보면서, 각 파트마다 연습 해가지고 했는데...
그 소리하고 영상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따다닥 하면 그게 약간 소리가 늦게 들려가지고요.
연습을 하는데 다른 사람 소리도 같이 들리고, 또 소리를 끄면 이제 끝나가지고
선생님이 부를 때 못 들어가지고 그런 점도 있어서 불편해요. (D가1)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폰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도 별로 안 터지고.
선생님이 그 악기 하는 거 보여주는 데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끊기고
다시 시작되고 끊기고 그래요. (D가1)

(저랑은 영상수업이) 좀 많이 안 맞았어요. (연습한 걸) 좀 올리는 게 좀 그랬어요.
하면서 틀리면 계속 또 다시 찍고 해야 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줌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C가2)

뭐 집에서 그 영상보고 연습하는 게 약간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것도 틀리면 다시 다 찍어야 되잖아요. (C가3)

(6.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가 꼽혔음. 이와 유사한 점으로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캠프를 통한 좋은 추억 쌓기, ④연주회의 즐거움, 그리고 ⑤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2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은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친구들이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증언됨. 이에 더해 간식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다는 행위 이외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웃고, 떠드는 시간으로 이는 캠프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참여 환경의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마스크를 쓰는 거 하고, 그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간식을 같이 먹지 못해 속상해요. (D가2)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 만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좀 더 많이 만나서 친해졌을 텐데,
못 만났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악기하고 간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C가4)

■ 친구들과 함께 하기

저는 쉬는 시간 때 원래 옛날에 작년 같았으면, 애들이랑 이야기 하고 좀 쉬는 시간도 많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도 조금만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못 놀아요. (D가3)

■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저 그때 5학년 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6학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캠프도 재밌었고 하고,
내년에 제가 좀, 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거리도 멀고 바빠지면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해야 되니까.
이번 년도 좀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6학년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C가2)

캠프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캠프랑 여기서 하는 작은 연주회가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부모님들 오셔서 앞에서 연주하고, 치킨도 먹고,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
진짜 재밌었어요.(C가3)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오케스트라는 역시 정기연주회거든요? 처음 해봤지만 친한 친구들 모여서 보게 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 [...] 계속 더 보여주고 싶어요. (C가3)

■ 교육장사의 관심과 애정

저한테는 감정이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기분이 슬프고,
코로나 때문에도 슬프고 어쩔 때는 칭찬받아서 좋고, 그래서. (D가3)

(6.2) 참여 환경: 장애요인

- 2년차 일반가정 단원의 참여환경에 있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실

수에 대한 두려움, ②불편한 교통수단이 도출되었음.

- 비대면 환경의 학습 또는 활동 정지 기간이 대부분이었던 2020년의 경우,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구성된 의미의 다양성은 2019년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줄어들킬 것임.

■ 실수의 두려움

저는 악보가 좀 어려운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틀리는 것도 많고 그 악기에서 만약, 악기 연주에서 만약에 틀리면,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D가2)

혼나는 거요. 뭐를 말하면서 (합주할 때) 해야 했는데, 그거 못 말하고 계속 그럴 때 혼나요.
뭐를 말 하면서 쳐야 하는데, 그걸 말 하면서 안 칠 때 혼나요.
그 이제 리듬 할 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을 말 하면서 쳐야 되거든요. (D가2)

■ 불편한 교통수단

작년에는 봉고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빨리 속속속속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큰 45인승인가 그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너무 멀미가 나고 어지럽고. (C가4)

(7) 제언: 구체적 대안 및 개선 방안

- 2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으로는 ①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나가기, ②연습 악기 지원, ③교통수단의 개선, ④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가 환경적 요인을 위한 제언들로 조사됨.
- 단원들의 증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개선 방안이 모두 대면 수업환경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임. 이 점에서도 단원들은 모두 비대면 교육 환경은 일시적이며, 잠시 멈춤 상태로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2년차 단원의 경우에는 음악적 성장과 함께 이를 좀 더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연주할 때 연습해야 할 곡이 이제 막 늘어났는데 데, 그게 막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한 개씩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다섯 곡을 했으면 이번에는 여섯 곡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쉬운 악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D가1)

■ 연습 악기 지원

악기를 가끔씩 한 번 (집에)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수업 할 때는 가져갈 수 있었는데...
금관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가지고. (C가2)

■ 교통수단의 개선

만약에 A 초등학교랑 B 초등학교랑 C 초등학교가 있으면,
A 초등학교랑 B 초등학교가 더 가까운데
굳이 A 초등학교 갔다가 C 초등학교 빙 돌아서,
맨날 그렇게 빙 돌아서 가가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그 서틀이 좀 다른 옛날 것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C가1)

■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간식시간을 저희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간식 먹는데 20분이고 좀 그 뒤에 약간 이야기도 하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C가4)

2.2.2 취약가정 2년차 단위 면접조사 분석 결과

- 2년차 취약가정 단위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는 개인적 성장을 꼽았으며,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자신감 증가, ③밝아진 성격이 보고되었음. 2년차 일반가정 단위들이 자신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꼽은 음악적 성장에 비해 2년차 취약가정 단위들이 더욱 주요하게 느낀 가치로 개인적 성장에 주목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소한 결과만을 놓고 해석했을 때 2년차 취약가정 단위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목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2년차 취약가정 단위들이 스스로 느낀 주요한 변화는 음악적 성장으로, 세부적으로는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③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증가로 드러났음.
- 인적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이들 단위들은 자신들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회성 증진이 주요한 의미로 도출되었음. 2년차 취약가정 단위의 경우 매우 도드라진 특징으로 해석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으나, 2년차 일반가정 단위에게서 드러나지 않던 공공의 의미로서 단위로서의 소속감도 발견되었음.
- 이에 반해, 2년차 일반가정 단위에게서 도출되었던 사회경제적 혜택은 2년차 취약가정 단위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만이 도출되었음.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으로는 일반가정 아동과 마찬가지로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가 보고되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 또한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가 꼽혔음. 이와 유사한 점으로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캠프, ④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그리고 ⑤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자유시간에 대한 제약, ②불편한 교통수단이 도출되었음.
- 2년차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으로는 ①연습공간의 개선, ②교통수단의 개선, ③간식 메뉴의 다양화, ④수준 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이 환경적 요인을 위한 제안들로 조사됨.

〈표 IV-47〉 취약가정 2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 행복감과 즐거움 - 자신감 증가 - 밝아진 성격
	음악적 성장	- 음악지식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인적 상호작용	- 사회성 증진
	공공의 의미	-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비대면 교육	장점	- 효율적인 시간 사용
	단점	-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참여환경	촉진요인	- 친구들과 함께 하기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요인	- 자유시간의 제약 - 불편한 교통수단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연습 공간의 개선 - 교통수단의 개선 - 간식 메뉴의 다양화 - 수준 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1) 개인적 성장

- 개인적 성장은 이들 단원이 꿈은 자신들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자신감 증가, ③밝아진 성격이 보고되었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2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의 면접조사 결과 가장 뚜렷이 발견되는 차이점으로,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에 좀 더 밀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 일반가정 단원과 마찬가지로 취약가정 단원들의 증언 또한 대체로 2019년 대면수업의 기억에 기반하여 증언된 것들로, 단원들의 이러한 변화가 2020년의 비대면 수업의 고유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은 특히 행복감과 즐거움, 단원들이 함께 만나 합주를 하며 느낀 긍정적 감정으로 대면수업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증언하였음.

■ 행복감과 즐거움

즐거워요. 악기를 접하고 합주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새로운 곡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그걸 하는데 그니까 뭔가 좀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즐겁고 되게 행복한 일거든요. (C나1)

저한테 행복을 준 곳이에요. 왜냐면 악기 할 때가 또 재밌기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근데 또! 오려고 하면 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오면 재미있단 말이에요. (C나3)

■ 자신감 증가

일단 악기 하는 게 더 늘었어요. 오케스트라를 하고 나서 오케스트라에서 했던 비올라만이 아니라,
다른 거 했던 애들도 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C나3)

다른 악기를 봤을 때, 좀 다른 악기를 접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게(자신감이) 더 늘었어요. (C나1)

애들이 제일 처음부터 막 반겨주고. 제일 처음에는 제가 학교에서도 생활 굉장히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좋아져가지고.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도 변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C나3)

■ 밝아진 성격

저는 인생 가치관을 바꿔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드시피 저는 3학년 때 까지만 해도 엄청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성격도 바뀌고
제가 잘하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잘하는 게 또 생기고. (C나2)

변화예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많은 변화를 주잖아요?
 약간 내성적이었는데 많이 밝아진, 그런 느낌. 관중이 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조명도 이제 해가 되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은 변화.
 180도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C나4)

(2) 음악적 성장

- 다음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2년차 취약가정 단원이 스스로 선택한 주요한 변화는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③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증가로 드러났음.
- 동일한 음악적 성장이라도 2년차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 일반가정 단원에 비해 악기실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 볼 여지를 남김. 첫 번째는 음악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가정 단원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달과정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른 한 가지는 2020년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인해 단원 스스로 악기실력이 특별히 향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환경의 학습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음악지식의 향상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학교에서 음악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음악 할 때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음표 박자 그런 거. (D나3)

나도 음악 수업 할 때 오케에서 배운 거 첼로나 그런 거 다 말했더니 쌤한테 칭찬 받았어요. (D나1)

저에게 오케스트라는 선생님 같아요 [...]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걸 알려주니까 선생님 같아요. (D나3)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저는 원래 악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가지고 어 악기 그 뭐지 좀 더 크기 전에 먼저 배우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은 첼로 하고 있어요. (C나1)

나는 악기 정해진 날이 제일 좋던데. 왜냐면요 악기 정해졌을 때, 제가 뭐 트럼펫을 지원했었으니까, 원하는 게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트럼펫이다 하면서 난리 났었죠! (C나1)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많은 악기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됐고 [...] 그 전에는 피아노랑 바이올린만 알았었거든요. (C나4)

(3) 인적 상호작용

- 인적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이들 2년차 취약가정 단원은 자신들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과 이를 확장한 환경(예: 학교 등)에서의 사회성 증진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결과 또한 대면수업을 수행한 2019년의 자신의 모습에 근거한 것으로 2020년 비대면 수업의 결과로서 보기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확장된 영역으로의 사회성 증진은 자신의 밝아진 성격을 기반으로 오케스트라와 학교 내 친구관계가 넓어지면서, 자신의 활동 영역과 세계가 넓어짐을 뜻함.

■ 사회성 증진

저는 캐나다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학년 후기 때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굉장히 좀 초조하고, 부끄럽고 제가 좀 학교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3학년 때 까지도 굉장히 조용하고 친한 친구가 없어가지고 [...]
그런데 4학년 때 꿈을 들어오고 나서 훨씬 더 밝아지고 장난기가 많아졌어요 (C나2)

우선은 편파였던 인성이 인싸로 변했어요 [...]
그냥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옛날에 조명이었다면 지금은 태양이 된 것 같은. (C나4)

(4) 공공의 의미

- 공공의 의미는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에게만 발견된 의미단위로, 이들 단원은 자신들의 변화에 있어 소속감과 연대를 강조하였음. 하지만 위의 인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유사하게 대면수업인 2019년의 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진 증언들임을 미리 밝힘.
- 더하여 이들이 말하는 소속감이란 오케스트라 내의 단원으로서의 소속감으로 한정된 것으로서, 이것이 사회경제적 혜택의 요소인 지역 또는 공동체로 확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이들이 지칭하는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이란 상호 인적작용을 토대로 오케스트라 활동 내 강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

■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제일 아쉬운 거는 작년엔 3월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 와서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더 친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자주 보니까 친해질 수가 있었는데
2기는 처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제일 초기 공연 아예 취소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그 하는 애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 자기 파트 애들은 잘 알아도 다른 파트 친구들이랑 동생들은 아무래도 어색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은 친근감이랑 연습이 더 많아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나3)

우리 첼로 단원들이 좀 조금 특별한 게 신규 애들이 오면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좀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신나가지고 병병 뛰죠. (막 환영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 애들이 부적응 할 때가 거의 없어요. (C나2)

(5.1) 비대면 교육의 장점

-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 효율적인 시간 사용만이 유일한 강점인 것으로 증언하였음.
- 일반가정 단원에 비해 취약가정 단원의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매우 한정적으로 드러난 점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 일반가정 단원들은 상당히 다양한 장점들을 언급했는데, 이에 비해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 효율적인 시간 사용에만 한정하여 증언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가정이라는 공간이 교육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일반가정 아동이 음악적 지식습득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따라서 취약가정 단원의 비대면 수업에 있어 가정 내 교육적 환경에 대한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효율적인 시간 사용

원래는 엄청 늦게 끝나면서, 8시쯤 집에 가서 숙제하니까 제대로 못 잤는데,
비대면 수업할 땐 빨리 끝나서 일찍 자고 편했어요. (D나3)

주말에 편한 점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0시 50분 까지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바로 가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숙제하고 어찌고 가면 바로 자야 돼서 좀 그랬는데
좀은 그냥 원터치로 바로 들어가니까. 좀 5분 정도 여유만 두면 되니까 그 전에 맘껏 놀 수 있고 [...] 앞에 시간도 있고 해서 편했어요. (D나2)

(5.2) 비대면 교육의 단점

-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이 주목한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은 2년차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하게 증언되었음. 구체적으로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가 보고되었음.
- 이들 단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된 의미는 비대면 교육 환경에 있어 보완 또는 개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의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의 경우에는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충족될 수 없었던 주요한 교육적 요소들을 드러냄.

■ 고유한 즐거움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오케스트라라는 게 모든 악기가 다 같이 모여서 화음을 내는 그런 모임인데, 자기가 다른 악기의 음을 듣고 자기가 이걸 박자를 맞추고 그러는 것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자기 팀원들까지도 같이 못하니까. (C나1)

저는 정말 여기 오는 게 더 좋아요 [...] 온라인은 막 하면은 약간 집중도 못 하는 것 같고 계속 막 뚫어져라 보니까 되게 지루한데 선생님도 얼굴 보고 악기 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D나1)

오케스트라 올해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할 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대면은 선생님이 그 현실이 아니라 그냥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더 그 친구들이랑 진짜 만나서 놀 수도 없고 그래서. (D나1)

근데 비대면 해봐서 알겠지만 비대면 대면만큼 그렇게 잘 되질 않고 선생님이 옆에 없으시니까. 비대면 노잼이에요. 노잼이에요. 진짜 노잼이에요. 비대면 할 바에는 안 하는게 나아요. (C나2)

아무래도 혼자니깐 친구들이 있으면 또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더 흥미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옆에 없으니깐 계속 미루게 되고 그렇게 돼서 또 실력도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C나2)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찍어서 올리잖아요. 올리기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건데 과정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C나3)

선생님이 영상 올려주시고, 그거 보고 연습하고 (제 영상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C나4)

대면이 더 편하고 재밌어요 [...]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더 편해요. (D나3)

화면만 보고 하니까 좀 눈도 아프고, 그냥 선생님도 없이 그냥 화면만 보고 해야 하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고, 대면수업으로 하는 게 선생님 목소리도 잘 들리고
선생님이 잘 보여주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D나2)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지루한 건 온라인. 그냥 폰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 목소리도 끊기고,
화면도 제대로 안 보여가지구요. (D나1)

(6.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2년차 취약가정 단위들이 뽑은 오케스트라 참여환경의 촉진요인은 일반가정 단위와 동일하였음. 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증언하였음. 또한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캠ป์를 통한 좋은 추억 쌓기, ④연주회의 즐거움, 그리고 ⑤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으로 조사되었음.
- 위의 구성된 의미들은 2년차 취약가정과 일반가정 단위들이 모두 동일하게 주목한 점으로 친구와 교육강사와의 관계성 강화, 맛있는 간식, 연주회와 캠ป์ 등의 다양한 활동 등이 단위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더욱 즐겁게 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해석됨.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간식 먹을 때도 다 같이 오순도순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또 좋아요. (C나2)

그 현장 체험학습 같은 갔을 때. 그때 막 간식도 먹고 막 되게 다양한 거 막 봐가지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D나2)

■ 친구들과 함께 하기

올해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막 (친구들 실제로) 봤을 때 가, 그 (대면) 수업일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그 긴 방학 후에도 또 만날 수가 없고 온라인 수업으로 지속되니깐,
이제 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지니깐 당일 날 가기도 싫었죠.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러고 너무 가기 싫었는데,
딱 막상 가보니깐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C나3)

대면수업하기 그 전전날에 그때 밴드에 올라왔거든요? 대면한다고.

그때 저희 첼로 방에 있는 애들 채팅방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날 거기 엄청 시끄러웠어요. 폭발했었어요. 애들 너무 좋다고... (C나4)

원래는 (친구들) 못 보는 게 아쉬워가지고 오케스트라 가는 날
엄마한테 맨날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화요일, 목요일 되 면은 맨날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면수업 한다는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해가지고 방방 뛰었어요. (D나1)

올해 나에게 오케스트라는 불편한 오케스트라이다 [...]
버스에서 예전에 친한 언니랑 막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벌금
때문에. 막 시끄럽게 아닌데 대화 같은 것도 못해가지고 짜증나고 불편해요. (D나2)

■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작년에 제일 좋았던 거는 캠프! 그때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더 제일 친근감이 올라가고
그때는 아무래도 같이 공동생활을 하니깐 더 많이 웃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C나4)

작년에 캠프가 제일 재미있고 기억에 남아요.
거기에서 막 오이 마사지도 받고 막, 뭐 화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기 발 담궜서 물풍선 몰래 터트리면서 책 읽고 막 그렇게 다 했거든요. (D나3)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좀 더 제가 비올라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
엄마 아빠가 연주하는 거 보고 잘 한다고 칭찬해주니까 괜히 기분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 공연을 한다면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D나2)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제가 음표 같은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가르쳐 줄때도 진짜 잘 도와주고요.
(누가?) 친구들과하고 쌤이! 근데 쌤이 되게 온화한 그런 성격이세요.
저희 아빠랑 똑같아요. (C나1)

(6.2) 참여 환경: 장애요인

-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이 생각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환경 중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자유시간의 제약, ②불편한 교통수단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2년차 취약가정과 일반가정 단원들의 공통된 장애요인으로는 불편한 교통수단이 꼽
혔음. 이는 각 기관별 차이가 있겠으나, 단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임을 방
증하기에 교통수단에 대한 편익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됨.

■ 자유시간의 제약

(오케스트라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갇아 먹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 요즘 숙제도 너무 많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 그 다음에 학교까지 늦게 끝나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거의 놀 시간도 없고 숙제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오케스트라는 저에게 쥐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갇아먹어요. (D나1)

■ 불편한 교통수단

제가 1기 때는 봉고차 6대가 있어서 빨리 다녀가지고 여기서 말하듯이 그냥 바로 앞에 있으면 그냥 쪽 바로 가거든요? 아니면 그 중앙에 서가지고 애들이 그냥 모이도록 하거나. 그런데 지금은 오는데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C나4)

(7) 제언: 구체적 대안 및 개선 방안

-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으로는 ①연습 공간의 개선, ②교통수단의 개선, ③간식 메뉴의 다양화, ④수준 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이 환경적 요인을 위한 제언들로 조사됨.
- 2년차 취약가정 단원과 일반가정 단원의 공통된 제언으로 위의 장애요인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교통수단의 개선이 도출되었음. 그 외 연습공간과 간식, 그리고 맞춤형 학습은 등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해석된 제언들이 다수 보고되었음.

■ 연습 공간의 개선

오케스트라 연습할 때 파트별로 방(연습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 준비하기 전에. (D나3)

너무 공간을 좁게 하는 것 같아요 [...] 첼로 같은 거는 원래는 지하실, 여기 지하 연습방에서 해서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여기 다 붙어야 돼요 [...] 활을 놓고 첼로를 놓힐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C나1)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띄고 앉아야 하는데 그래서 앉으면 요정도면 다 차요. (C나1)

트럼본이 (연습실) 방을 따로 갔어요. 그래서 좋은데 어제 또 왔어요 같은 방으로. 트럼본이 소리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 귀가 안 들려요. (C나3)

■ 교통수단의 개선

차량을 타는데 [...] (기사) 선생님이 조금 조금만 시끄러워도 소리를 지르시고 [...] 거의 앞인데 이걸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C나1)

■ 간식 메뉴의 다양화

토요일이나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식이 진짜 맛있게 나와요. (아이들: 소떡소떡!) 아 그것도 나와요! 치킨마요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어요. 똑같이 나오는 거. 어제 토스트 먹었다. 오늘 토스트 먹었다. (메뉴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C나2)

■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이론 수업을 제일 기초부터 하는 거는 좋지만 [...] 도레미 그런 거는 진짜 아예 모르는 애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나눠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C나3)

첼로반이 진도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진도가 다 제각각이니깐 합주할 때 저희는 이거 다 배워가지고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또 계속 안 하다보면 우리 실력 계속 늙을 수 있고 하니깐 이거를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진도가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올라왔으니까. (C나4)

1기는 모르겠지만 2기는 악기를 아예 접해보지 못한 애들도 있고 조금 접해보자, 접하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악기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깐 계속 사고 일어나죠. 심지어 우리 반에는 0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개는 시시때때로 악기에 기스 내고, 그래가지고 별금도 났었죠. 9만원이나 났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악기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깐, 초기 때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악기를 좀 대하는 방법을 좀 많이 가르쳐 주고, 교육 방법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C나4)

2.2.3 일반가정 5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주요한 변화들은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증언이 수집되었으나, 이중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이 가장 주요한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음.
-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이들 단원은 자신들의 변화를 ①자신감 증가, ②밝아진 성격, 그리고 ③책임감과 독립심으로 보고하였음.
- 음악적 성장으로는 도출된 분석 의미는 ①악기 실력의 향상과 ②합주의 즐거움으로 나타났음. 이는 그 외에 다양한 음악적 성장 즉, 악기에 대한 애착이나 음악지식의 향상 등이

소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맥락 안에서 분석 시, 이들은 음악적 성장의 범주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인적 상호작용의 의미로 ①후배 단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의 피어티칭과, ②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이 도출되었음. 공공의 의미로는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자신들의 주요한 변화로 느끼고 있었음.
- 사회경제적 혜택으로는 ①편안해지는 쉼터, ②음악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이 유의미한 분석단위로 도출되었음.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는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과, ②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 2년차 일반 아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석되었음.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으로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 ④방음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이 보고되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 또한 2년차 단원 일반 및 취약가정 단원과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와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가 꼽혔음.
- 반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단원 간 연령대 격차, ②악기에 대한 흥미 저하, ③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도출되었음. 특히 장애요인 중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요인으로 드러남. 이는 5년차 단원 대부분이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5년차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으로는 ①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②간식 메뉴의 다양화, ③다양한 악기와 합주가 환경적 요인을 위한 제언들로 조사됨.

〈표 IV-48〉 일반가정 5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 밝아진 성격 - 자신감 증가 -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음악적 성장	- 악기 실력의 향상 - 합주의 즐거움
	인적 상호작용	-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 피어티칭: 후배단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공의 의미	- 공공의식: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경제적 혜택	- 편안해지는 쉼터 -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비대면 교육	장점	- 효율적인 시간 사용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 방음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
참여환경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함께 하기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간 연령대 격차 - 악기에 대한 흥미 저하 -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 간식 메뉴의 다양화 - 다양한 악기와의 합주

(1) 개인적 성장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은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자신들의 변화를 ①자신감 증가, ②밝아진 성격, 그리고 ③책임감과 독립심으로 보고하였음.
- 5년간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밝아진 성격과 함께 점차 자신감과 책임감 및 독립심 증진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이러한 증언은 대체로 2019년 대면수업의 기억에 회귀하여 증언된 것들로, 2020년 비대면 수업의 고유한 결과로서 보기는 한계가 있음.

■ 밝아진 성격

저는 약간 좀 난폭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자기감정을 제어 못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곡을 연주하면 감정 그 곡이 곡에 나타나 있는 감정을 표현을 해야 하니까. 이제 그 감정. 여러 감정들을 표현 하면서 감정 제어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좀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A가2)

■ 자신감 증가

솔직히 저희 반에 악기를 할 줄 아는 애가 피아노? 그 정도였거든요 서양 악기. 오케스트라 악기. 뭐 이런 거는 다루는 애가 저 밖에 없었는데, 그런 팝송들을 하면서 피아노도 같이 맞춰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애들이 ‘저거 멋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다고 해야 하나. (A가1)

■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저는 아 아까도 말 했지만 제가 수석인데요, 제가 애들을 많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B가3)

뭔가 챙겨주는 곳? 제가 올해 들어서 진짜 제일 많이 느낀 게 챙겨주는 거를 진짜 제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 3학년 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친구들보다 진짜 언니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감을 받았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이제 제가 챙겨주는
또 그렇게 하면서 뭔가 더 많이 그런 책임감도 느끼는 곳. (B가2)

저는 독립심이 되게 약해가지고. 처음에는 맨날 쩡쨍대고. 다른 사람 도움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랬었는데, 점점 연차도 좀 느니깐 [...] 엄마 많이 찾지도 않고 악보도 혼자 읽어야 되니까.
그냥 계속 혼자서 연습 하고, 다쳐도 별로 안 울고 그래서 독립심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A가1)

(2) 음악적 성장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성장으로 ①악기 실력의 향상, ②합주의 즐거움을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이들에게서 2년차 아동과 달리 음악적 성장에 있어 다양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은 이유는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음악적 지식의 향상이나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은 이미 악기 실력의 향상에 함축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들의 음악적 성장이 퇴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중요한 점은 언급의 빈도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임.
- 다만 여전히 악기실력의 향상과 합주의 즐거움은 이들 단원의 변화와 성장 중 음악적 성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되고 있었음.

■ 악기 실력의 향상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나가지는 못 해도 그래도 악기 배우거나,
뭐 그런 동아리 비슷한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두 시간씩 주는데 [...]
저는 개인 악기가 있다 보니까 한 곡을 완성 시키면 뿌듯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집에서 연습 하고. (A가2)

저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나서 개인 레슨도 받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오케스트라도 하고,
아까 그 예술활동시간 그것도 하다 보니까 [...] 실력이 좀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비브라토란 기술도 더 잘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가1)

1년 차 때 처음 초기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빨리 마치고 싶다 [...]
제가 1년 차 때는 5시 반에 마쳤는데. 지금은 7시에 마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더해져서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3~4년 차 되니까. 어 이걸 진짜 쉽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악기를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더 오케스트라가 빨리 오고 싶다. 뭐 더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연차가 늘어가면서 드는 것 같아요. (A가2)

■ 합주의 즐거움

다른 악기를 소리도 같이 들어야지 나중에 공연도 할 때 실수도 많이 없고 합주 경험이 늘어야지 다른 악기랑, 다른 사람들이랑 맞춰 가는 능력이 늘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요. (A가1)

꿈의 오케스트라는 합주 그러니까,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고 아 여기서 내가 나와야 하는 구나. 이런 개념들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A가2)

(3) 인적 상호작용

- 5년차 일반가정 단원의 경우, 인적 상호작용 영향과 관련된 주요 증언은, 후배 단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작된 자발적인 피어티칭과 가족 구성원 간의 음악적 교감 증가가 주요한 의미단위로 도출되었음.
- 특히 이들의 내적 성장이 돋보이는 부분은, 피어티칭이 교육강사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자발적 선택과 책임감, 또는 후배단원들에 대한 배려와 애정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임.
- 더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교감과 상호작용이 음악이 매개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점도 꿈의 오케스트라에 장기적으로 활동한 결과가 불러온 독특한 변화로 사료됨.

■ 피어티칭: 후배단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저는 저희 2바이올린이 1바이올린보다 악보가 더 쉽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 신입 애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 그거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다 맡기고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활 체크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 어쨌든 제가 그만큼 바이올린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실력도 느는 것 같고. 덕분에 그 활도 많이 안 틀리게 되는 것 같고. (B가2)

(처음에는) 좀 빨리 하고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데. 옆에 애들이 너무 느리니까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조금 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약간 도와주고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하고 끝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제가 좀 더 잘 하는 걸 아니까. 애들한테 좀 더 활 쓰는 것도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지판 짚는 것도 알려주고 악보 읽는 것도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B가4)

꿈의 오케스트라는 1년 차 매년 새로운 신규 단원이 들어오니깐. 개네가 이제 처음 만지고 연주해 보는 악기다 보니까.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선생님이 바쁘실 때 제가 5년 차고 저희 파트 중에서 가장 오래 한 단원이다 보니까 가끔씩 1년 차 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도 더 얻듯이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해서 제 실력도 오르는 것 같고. (A가1)

■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제가 동생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내 동생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그 동생이 이제 한참 노래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막 징글벨이랑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동요.
[...]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연주법을 아니까 들려줬죠.
그러면서 동생도 되게 좋아 했고 엄마도 가끔씩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제가 그거 연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런 간이 공연?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A가2)

저는 플룻 말고도 악기나 음악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연주곡 그런 게 많고.
앱으로 전자 피아노랑 드럼가지고 동생이랑 가끔씩 그거 가지고 치기도 하고 해요. (A가1)

(4) 공공의 의미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에게서 발견된 공공의 의미 차원에서 도출된 증언은,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요약됨.
-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의 경우 본질적인 의미는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서의 서로 돕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마음으로 해석됨.
- 2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에게서는 보고되었던 공공의 의미였던 ‘단원으로서의 소속감’이 5년차 단원에게서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상위가치로 발전한 이유는, 이들의 활동 기간이 훨씬 장기적이었으며 성장발달 단계에서도 2년차 단원에 비해 성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협동심이요. 저희 감독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연주 잘 하는 게 아니고,
뭐 진짜 다 같이 좀 친하게 지내고 약간 예의바르고 약간 이런 인성 먼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 막 듣고 이러다 보니까
더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B가1)

저도 협동심이요. 악기를 이렇게 하면요,
오케스트라니까. 혼자서 잘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해야 하니까. (B가2)

저는 약간 단어를 약간 바꿔서. 공동체 의식. 제가 바이올린을 8년 했어요. 지금까지.
아 8년, 9년인가? 9년을 했는데. 바이올린은 솔로, 전 솔로로 했거든요?
막, 저 그 콩쿠르도 한 번 나갔는데 그때 보면 그냥. 거의 저한테 맞춰주는 그거였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솔로니까. 근데 오케스트라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B가3)

도와주는 거. 다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요.
함주하기 전에 의자 고를 때도 같이 하고, 그 연주 할 때도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B가1)

(5) 사회경제적 혜택

- 5년차 일반가정 단원의 사회경제적 혜택에 있어 도출된 부분은 두 가지로 ①편안해지는 컴퓨터와, ②음악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이 유의미한 의미단위로 분석되었음.
- 2년차 단원의 경우 사회경제적 혜택과 연관된 증언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점에 반해, 5년차 단원의 경우에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고유하게 존재하는 정신적 휴식 공간으로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또한 이들의 꾸준한 오케스트라 활동은 이들의 친구 및 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이들이 학교 친구들을 연주회에 초대하는 과정 안에서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클래식이나 자신이 다루는 악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 친구들의 욕구가 관찰된 점을 주요하게 증언하였음.

■ 편안해지는 컴퓨터

저는요 컴퓨터요. 근데 확실히 악기를 하면서 좀 정신이 노곤해지는 듯한 느낌?
정신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 막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
그러다가 음악 하러 오면 약간 정신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편해지는 느낌? (B가3)

■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학교에서 3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바이올린 하는걸 아시니까
저한테 가끔 바이올린을 가져와서 그 연주도 시켜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 재 바이올린 하는 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끔씩 개네가 연주회도 보러 오고. (A가2)

제 친구가 처음에는 제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게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저 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되게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 제한에 걸려서...(A가1)

(6.1) 비대면 교육의 장점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과, ②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 2년차 일반 아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석되었음.
- 효율적인 시간 사용의 경우에는 2년차 단원의 증언과 5년차 단원의 의미가 완벽하게 일치하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의 경우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경험을 통해 체험한 증언이 주를 이루었음.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음악교육에 있어 일부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됨.

■ 효율적인 시간 사용

집에서 하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좋긴 한데...시간도 좀 짧게 하잖아요. 짧게. 근데 안 좋은 점이 간식이 없었어요. (B가1)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저희 아리랑 이라는 곡을 하는데 그게 합동 캠프 온라인 할 때 같이 이렇게 싱크 맞춰서 하는 건데, 선생님들 끼리 합주를 이렇게 미리 맞춰 봐요. 근데 그때 저는 피콜로를 하니깐, 피콜로 하는 사람이 선생님들 중에 플룻 선생님이 한 분 밖에 없으시니깐, 저도 같이 가서 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놀랐어요. (A가1)

꿈의 오케스트라가 OO 뿐만이 아니라 아 뭐, 김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합주를 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서 오후 두시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본대요 [...] 그래도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어떨지 궁금하고 그리고 좀 신기할 것 같아요. (A가2)

(6.2) 비대면 교육의 단점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은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으로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그리고 ④방음 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이 보고되었음.
- 이들의 증언은 2년차 단원의 증언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일치하나, 방음 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은 5년차 단원에게만 드러난 단점이었음. 이를 통해 유추 가능한 부분은 5년차 단원들의 경우 오케스트라 활동 시간 외에도 자신이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며 악기에 대한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관찰되었다는 점임.

■ 고유한 즐거움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여기는 직접 와서 막 쌤들이 직접 알려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 좁은. 한 명씩 다 시켜보고.

약간 뭐라 해야하지?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약간 조마조마 하면서 [...] 연습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B가2)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전에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해서 선생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성장을 빨리 했는데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하니깐, 성장을 막 느리게 하는 것 같아요. (B가3)

온라인으로 하는 게 확실히 집중력 같은 게 더 떨어지죠.
애들이 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상급반이었던 애들이.
뭐 놀면서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다른 거에 눈 돌리잖아요.
그러는 게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고. (B가3)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쭈미 그 확실히 음질도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요. 저희는 베이스여가지고, 음이 낮잖아요.
그래서 낮은 음은 상대적으로 잡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이 계속 끊겨요 저희는.
계속 끊겨가지고 안 들려요. 페이스 톱 같은 거를 해도 썸이 소리를 아예 못 들으세요. (B가4)

■ 방음문제로 인한 연습의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을 때는 솔직히 연습해도 시끄러우니까...
방음이 잘 안 돼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 못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A가1)

(7.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5년차 일반가정 단원의 경우,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2년차 단원들과 동일하였음. 유의미한 분석단위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와,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가 도출되었음.
- 다만 2년차 단원과 달리 캠핑이나 연주회 경험들이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올해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환경에 입각하여 답변이 이루어진 것 때문으로 사료됨.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간식. 맛있긴 한데, 배가 안 차잖아요 [...] 우리는 컵밥을 엄청 원해 바이올린은. (B가2)

■ 친구들과 함께 하기

온라인 수업 하다가 그 처음으로 오프라인 됐을 때.
오랜만에 같은 단원들이랑 선생님도 오랜만에 보니까, 모두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B가4)

(7.2) 참여 환경: 장애요인

- 5년차 단원의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①단원 간 연령대 격차, ②악기에 대한 흥미 저하, ③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도출되었음.
- 특히 장애요인 중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요인으로 드러남. 이는 5년차 단원 대부분이 중학교 진학을 하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풀이됨.
- 악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비대면 수업환경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연습 공백기, 그리고 단원 간의 연령대 격차로 인한 진도의 부진함으로 인한 지루함이 결과적으로 악기실력과 흥미에 대한 저하로 이어진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됨.

■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애기들 많은 거. 진짜 어린이집 온 기분이에요. 여기 연령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 그니까 너무 말도 안 통하고. 애들이 그냥 다 어린이 집이 돼가지고. (B가2)

■ 악기에 대한 흥미 저하

제가 줌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막 안 들어가진다고 구라 친 적도 있고. 아 썸 이거 렉이 좀 걸려서 안 들어가져요~! 막 이런 식으로 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악장이었거든요. 근데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자리가 뒤로 가는 거예요 [...] 잔인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의 맨 뒤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로 가진 이후로 더 더... 좀 끊고 싶다? 그 마음이 막 커졌어요. (B가1)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저의 연습량으로 박서는 절대로 여긴(전공) 안 된다. 아니 그래도 흥미가 있긴 있는데 막 너무 좋아 미쳐가지고 하진 못하거든요. 보통 전공하려고 하는 애들은 기본 4시간 5시간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저는 그렇게 안 돼요. (B가4)

올해 나에게 꿈의 오케스트라는 공백기였어요. 이제 막 시작한 기분이에요. 너무 오래 쉬었더니 처음으로 이번 주 합주를 하는데 음정도 안 맞고, 조표 실수하는 애들도 많고. 도돌이표도 애들 잘 안 보고. 다카포인데 도돌이표 하고. 마디도 잘 못 세고. (A가1)

■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저는 예전에 진짜 조금은 바이올린 그 전공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래도 저는 이제 경찰이라는 꿈을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A가1)

저는 저희가 이제 곧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 많이 해요.
 미래, 그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가 약간 그런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요즘 들어. 원래 중2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난 이때 이 고등학교 가야지.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고등학교를 준비를 하니까.
 그냥 막상 그냥 막 고를 게 아니더라고요. (B가1)

올해 나에게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냥 잠시 들리는 장소랄까? 약간 좀 재미도 없고.
 그리고, 학원, 학원. 저희가 7교시까지 하니까. 근데 방과 후까지 생기니까 8교시까지 하게 되는데.
 8교시를 하고 나서 학원에 가요. 그럼 학원 끝나자마자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더 줄리잖아요. 그래서 흥미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B가4)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있으니까 뭐 공부도 더 해야 하고. 제가 스스로.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닐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합기도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말 했듯이 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하면은 학교 끝나고
 바로 오케스트라 와서 오케스트라가 한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마치니까.
 바로 합기도를 가서 집으로 가면은 8시 반 정도 되는데 밥 먹고 하면은 9시 정도 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A가2)

(8) 제언: 구체적 대안 및 개선 방안

-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으로는 ①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②간식 메뉴의 다양화, ③다양한 악기와의 합주가 환경적 요인을 위한 제언들로 조사됨.
-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쉬는 시간과 간식메뉴의 다양화는 2년차 단원의 제언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된 의미였으나, 다양한 악기와의 합주의 경우에는 5년차 단원에게서만 언급된 점임. 이는 장기적인 오케스트라 활동과 다수의 연주회 경험, 그리고 지역 간 협동 공연 등을 거치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경험한 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함.

■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저는 쉬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규 단원이 들어오고 개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두 번으로 나누는데 한 쉬는 시간 당 20분씩. 쉬는 시간도 막상 놀다 보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
 특히 1년 차 애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다음 년도 되면 신청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A가2)

■ 간식 메뉴의 다양화

원래는 5시 반 쯤에 간식 먹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7시에 마치고 줘요

그러면 (저녁시간이니까) 밥 같은 걸 줘야 하는데, 요즘에 빵이나 떡 같은 게 많이 나와서. (A가1)

■ 다양한 악기와 합주

저는 목관악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

더 많은 목관악기랑 현악기랑 같이 합주 했으면 좋겠어요. (B가3)

2.2.4 취약가정 5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5년차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 일반가정 단원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주요한 변화와 관련하여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언급하였음. 또한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하게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이 가장 주요한 의미단위로 분석되었음.
- 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한 자신들의 유의미한 변화에 있어 개인적 성장에서는 ①밝아진 성격, ②자신감 증가, 그리고 ③책임감과 독립심 증진이 주요한 의미로 도출되었음.
- 개인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주요하게 언급되었던 음악적 성장 경우, 이들은 ①악기실력의 향상, ②음악지식의 향상, ③합주의 즐거움, ④예술의 내재화가 주요한 의미로 분석되었음.
-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이 주요하게 보고되었으며, 공공의 의미는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주요하게 언급되었음. 이는 5년차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한 결과임.
- 사회경제적 혜택으로는 ①편안해지는 심터, ②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이 유의미한 의미단위로 분석되었음. 이 또한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한 결과임.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는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과 ②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 주요한 의미로 분석되었음. 이 두 가지 장점은 2년차와 5년차 단원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진술로 분석됨.
-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 또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가 보고되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 또한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와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이 꼽혔음.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 또한 5년차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한 ①단원 간 연령대 격차와, ②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증압감이 도출되었음. 흥미로운 지점은 5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에게서 보고된 흥미 소진이나 악기실력의 퇴보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임.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은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으로 조사되었음. 이 개선 방안은 그러나 연령별 격차 또는 매 해 신규단원 모집으로 인한 제자리 진도에 의한 것으로, 5년차 취약가정 단원들 또한 일반가정 단원과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 유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IV-49〉 취약가정 5년차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 밝아진 성격 - 자신감 증가 -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음악적 성장	- 악기 실력의 향상 - 음악지식의 향상 - 합주의 즐거움 - 예술의 내재화
	인적 상호작용	-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공공의 의미	- 공공의식: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경제적 혜택	- 편안해지는 심터 -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비대면 교육	장점	- 효율적인 시간 사용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단점	-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참여환경	촉진요인	- 친구들과 함께 하기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요인	- 단원 간 연령대 격차 -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1) 개인적 성장

- 5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한 자신들의 유의미한 변화 중 개인적 성장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단위로 ①밝아진 성격, ②자신감 증가, 그리고 ③책임감과 독립심 증진이 도출됨.
- 5년간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구분 없이 모두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밝아진 성격과 함께 점차 자신감과 책임감 및 독립심 증진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밝아진 성격

파트 선생님 성격을 닮아가는 것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되게 좀 처음엔 제 성격이 원래 조금 잘 안 웃는 경향이 좀 있고, 낮을 되게 심하게 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 선생님 닮아가면서 이제 되게 잘 웃고, 말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뭐 약간 좋게 말 하면 감정 표현이 활발해졌다는 거. (A가2)

저도 언니랑 똑같이 감정 표현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 해야 할 말을 전에는 못 말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말 할 수 있고요. (A가1)

■ 자신감 증가

옛날에는 그 자신감이 없어서, 합주할 때도 이렇게, 살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자신감이 생겨서 잘 하고 있어요.
연습이 되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B가2)

저는 지금은 악보 보는 것도 늘고 [...] 악기를 잘 하기 시작 했는데. 뭐라 해야하지? 악기를 잘했다.
악기를 시작하기 잘했다 이런 느낌 [...] 옛날에는 (잘하는 게) 종이접기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저의 장점이 추가 되니까 자랑거리가 생기고 그런다고 해야 하나. (B가4)

저에게 꿈의 오케스트라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서 자랑거리도
생겼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서 이해라는 것도 좀 배웠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서 색다른 경험도 많이 해보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래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A가2)

■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저는 한 3년 전에 오케스트라 끊고 싶은 맘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놀고 싶는데 여기 나와서 못 노니까.
끊고 싶는데 엄마가 잡았어요. 엄마 아빠가.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떤, 이걸 만약에
내가 꾸준히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꾸준히 하길 잘 했다고 생각해요. (B가1)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봤었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예전에는 공동체라는 거 자체도 몰랐고 그냥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도 별로 안 보게 된 거 같아요. (A가2)

(2) 음악적 성장

- 5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성장으로 ①악기실력의 향상, ②음악지식의 향상, ③합주의 즐거움, ④예술의 내재화가 주요한 의미로 분석되었음.

- 일반가정 단원과 비교하여, 취약가정의 단원들은 특히 음악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임. 특히 예술의 내재화의 경우 자신의 일상과 결부하여 악기를 한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악기실력의 향상과 합주의 즐거움, 악기를 연주한다는 행위가 자기 삶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이 단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음악적 성장의 단계별 발전과정이 일반가정 단원들보다는 느리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해석 가능함.

■ 악기 실력의 향상

저는 처음에 악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기초를 해서 합주에 못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늘날에는 바뀌니까. 이제 1바이올린도 되고,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B가2)

저는 악기 실력이 늘어서 좀 더 난이도 올라간 곡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B가3)

올해 나에게 꿈의 오케스트라는 고마움이에요.
원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막 오케스트라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실력을 더 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B가1)

콘트라 베이스로 넘어오니까 저 밖에 없는 거예요. 저랑 선생님이랑 딱 둘이 있는 거예요.
첫 회에, 그래서 와 이게 되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오는 게, 진짜 제 파트 자체가 그냥 저 기준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여기서 계속 개인 레슨을 받다 보니까. 아 이게 연습이구나. (A가2)

저는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연습하면서 잘 할 수 있게 된 거요.
좀 손을 빠르게 움직여야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됐어가지고. (A가2)

■ 음악지식의 향상

저는 예전만 해도 악보에 대해서 보통 배운 데로만 그것만 딱 하고 더 이상 뭐 발전도 못 했는데,
보통 악보에 있는 그거 박자나 뭐 엑센트나 뭐 그런. 그런 거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돼서,
그래서 음이 더 풍성해진 것 같긴 해요. (B가3)

생기는 습관 같은 거는 지나가면서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 어? 이 파트에 첼로 나온다.
이 파트에 베이스 나온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 (A가1)

■ 합주의 즐거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연주 하는 거.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A가1)

■ 예술의 내재화

그냥 되게 (오케스트라는) 모랄까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안 오면 되게 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습관처럼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A가1)

을 해 나의 최고의 기억은 그냥 딱 파트실에서 연습 처음으로 평소처럼 한 기억.
아 되게 인상적인 게 평소처럼 그냥 나와서 평소처럼 악기 깔고,
선생님이랑 지혜랑 저랑 셋이 그렇게 연습한 기억이 제일 최고예요. (A가2)

저는 (유튜브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더 찾아 듣거나. 그 우리 저희가 합주하는 곡을 들어요. (B가4)

(3) 인적 상호작용

- 5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은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에 있어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을 중요하게 언급되었음.
- 5년차 취약가정 단원과 일반가정 단원의 차이점은 동일한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이라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에는 함께 합주를 하는 음악활동이 주된 것이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음악적 지식을 전달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임.

■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저는 집에서 계속 뭔가 악기나 아니면 뭐 음악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 대체적으로는 시선이 다 저한테 쏠려요. 뭐야 이러면 대개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게 생긴 거 같아요. 가족들도 음악에 대해서 좀 궁금해진 게 많아진 거.
그니까 뭐. 이 악기의 이름이 뭐냐. 이 악기 뭐 어느 거에 들어 가냐. 이런 식 인거죠 계속. (A가2)

(4) 공공의 의미

- 5년차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 공공의 의미는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주요하게 언급되었음. 이는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한 결과로 본질적인 의미는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서로 돕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마음임.
- 2년차 단원들에게서는 비대면 수업의 결과로 인식되지 못했던 공공의 의미가 5년차 단원에게서 주요한 자신들의 변화로 보고된 이유는, 이들의 활동 기간이 훨씬 오래되었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변화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고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향상

전 협동심이요. 보통 옛날에 처음에는 보통 그 음. 혼자 하는 거 그거를 좀 좋아 했었는데, 합주 때 보면 여러 악기들이 그 음을 모아서 음악을 이루어내는 게 뭔가 신기 했어요. (B가1)

저는 여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는 법을 좀 더 배운 것 같아요.
그니까 합주 때도 감독님이 이렇게 잠깐 끊어서 설명 하실 때 기분 나빴거든요.
왜냐면은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끊는지 잘 모르겠어!’ 이래 가지고.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했다는 게 보여 지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멈췄는지. (B가3)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해진 거. 원래 제가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알게 모르게 (학교 애들이) 저를 좀 무섭게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 제가 만약 또 작았으면 모르겠는데, 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좀 더 웃고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해지고 여기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부 이런 것도 해보고, 저 개인 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편이죠. (A가2)

(5) 사회경제적 혜택

- 5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은 사회경제적 혜택으로는 ①편안해지는 쉼터, ②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이 유의미한 의미단위로 분석되었음. 이는 5년차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한 결과임. 5년차 단원들은 공통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를 자신이 속한 세계 내 고유한 정신적 휴식 공간으로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또한 이들의 꾸준하고 장기적인 활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외에 자신의 주변인들에게도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음. 다만 5년차 일반가정의 단원과 차이가 존재한다면, 전자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풀이되는 반면 후자인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끼친 영향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었음.

■ 편안해지는 쉼터

잠깐 쉴 수 있는 곳. 여기가 아니면 진짜 딱히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학교 가도 냉전이고, 학원가면 더 냉전이고, 집에 가도 딱히 그럴 일이 없으니까. (A가1)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내가 연주를 하면서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B가2)

■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집에서 이제 악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동생들도 따라서 악기 하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다 이제 악기 하는 거 좋아하게 됐어요. (A가1)

(6.1) 비대면 교육의 장점

- 5년차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장점으로 ①효율적인 시간 사용과 ②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이 주요한 의미로 도출되었음. 이 두 가지 장점은 2년차와 5년차 단원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진술로 분석되었음.
-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시간 사용의 경우에는 2년차 단원의 증언과 5년차 단원의 의미가 동일하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경험을 통해 체험한 증언이 주를 이루었음.
- 이러한 5년차 단원들이 증언한 비대면 교육의 장점 중 교육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경험들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있어 음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판단됨.

■ 효율적인 시간 사용

보통 오케스트라를 오프라인 하면은 집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음.. 시간 단축도 되고. 그래서 뭐 크게 늦을 일도 없고. 그게 장점인거 같아요. (B가3)

늦으면 버스가 먼저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 좀 더 있어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늦어도 쉽게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B가4)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신박했어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연주를 여럿이 해야 하는 건데, 녹음을 해서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것만의 그 매력이 있었어요. (B가1)

서울에 가서 원래 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촬영장에 가서 이렇게, 그 초록색 이거 있잖아요. 뒤에. 그거를 이렇게 그 위에서 칸막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게 즐거웠어요. (B가4)

1:1 온라인 그거 할 때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때 그 녹음해서 보내는 거요. 처음에는 보통 그냥 수업만 하고 그냥 바로 마쳤는데. 녹음해서 보내게 되니까 막 거기서 실력이 그래도 좀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색다르기도 해서. 제가 제 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도 신기하고. (B가1)

올해는 도전이었던 거 같아요. 보통 온라인 같은 것도 새로운 것도 도전도 해보고, 그리고 그 올해는 그래도 뭔가 예전보다는 좀 곡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뭐 새로운 곡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 여러 활동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B가2)

(6.2) 비대면 교육의 단점

- 5년차 취약가정 단위들 역시 비대면 교육환경의 단점으로 ①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②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③기술적인 문제와 장애를 꼽았음.
- 이들의 증언은 2년차 단원의 증언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일치하나, 합주를 할 수 없다는 점과 교육을 받는데 있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과 학습법을 집중하여 언급하였음.

■ 고유한 즐거움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온라인으로 하면 합주... 합주를 못하는 게 아쉬워요. (B가3)

보통 온라인 때는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 연주할 때 마다 뭔가 좀 오프라인 때 보다 뭔가 더 안 된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 뭔가 오프라인 할 때 보다, 손도 뭔가 많이 뻑뻑해진 것 같고. (B가3)

■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불편하죠.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은 실력이 더 안 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더 실력이 느니까. (B가2)

오프라인 때 그 실력이 그래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온라인으로 하면 오프라인보다는 좀 시간도 좀 짧고 그 다음에 뭔가 현실적인 기분과 조화가 안 돼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B가1)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춤을 하면서 이렇게 끊기고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막 튕기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B가2)

(7.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5년차 취약가정 단위 역시 오케스트라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동일하였음. 이중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친구들과 함께하기와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이 꼽혔음.
- 5년차 일반가정 단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연주회의 경험이 강조되어 언급된 이유는 그만큼 강렬했던 기억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친구들과 함께 하기

음악을 원래 하다가 온 거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전 음악을 안 하다가 여기를 왔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악기를 연습한다는 개념 보다는 그니까 같은 파트 애들이랑 놀러온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을 첼로로 했고, 이제 언니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되게 선생님이랑 이제 언니들이랑 놀러온다는 개념이 강했는데. (A가1)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작년의 베스트는 정기 연주회.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보러 오셨어요. 그 제가 4년차에 하는 걸 보러 오셨었는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잘 안 그러시는 성격인데. 어우 그때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할머니한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 표현이 서투세요. 잘 했다고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냥. 그런데 그날 엄청 좋아하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A가1)

저도 이제까지 가장 좋은 기억이 정기 연주회로 남아있는데, 1년 동안 노력해서 해왔던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A가2)

(7.2) 참여 환경: 장애요인

- 5년차 취약가정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 또한, 5년차 일반가정 단원과 동일한 ①단원 간 연령대 격차와 ②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도출되었음.
- 특히 장애요인 중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요인으로 드러남. 이는 5년차 단원 대부분이 중학교 진학을 하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풀이됨. 다만 학업에 대한 중압감은 일반가정 단원들이 취약가정 단원들 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증언함으로써 두 집단 간 온도 차이가 발견되었음.
- 단원 간 연령대 격차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동년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아닌 새로운 곡에 도전할 기회 없이 동일한 곡을 매년 되풀이 한다던가, 악기실력 증진을 위한 진도가 더 이상 상향되지 못하고 하향평준화되는 지속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인 주요원인인 것으로 드러남.

■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력이 그대로예요. 개네 봐주느라. (B가4)

저도 새로운 곡 그거 그게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린 신입 단원들 때문에) 같은 곡을 하다 보니까.

음 뭔가 흥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B가1)

신입 단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수준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곡만 하는 거. 애들 이렇게 맞춰 주는 거. 자꾸 똑같은 곡인데
그것도 쉬운 거를 좀 위주로 계속하는 거. 좀 어려운 곡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고 그런데 자꾸 똑같은 곡만 하니까. (B가4)

■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악기)전공 고민을 했는데, 아 가족의 벽을 넘기는 힘들었습니다 [...] 보진대를 일단 제가
희망해서,
가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 음악을 하겠다 이랬더니, 음. 정말 맞아 죽을 뻔 했어요.
(A가2)

(8) 제언: 구체적 대안 및 개선 방안

- 5년차 취약가정 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 방안은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앞서 장애요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매해 새롭게 유입된 어린 단원들로 인해 연주수준에 있어 지속적인 하향평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임.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원들을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사료됨.

■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바라는 점이 있다면,,,전에 해왔던 곡 보다는 새로운 곡으로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4중주만이라도 상급반끼리 무언가 새로운 곡을 해보면 좋겠어요. (A가1)

한 2~3년 내내 똑같은 곡을 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저희 파트 선생님도 계속 그 이야기하시거든요?
거의 악보 외웠지? 그 얘기 하시고. 그 연습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정작 연습 시간이 빈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A가2)

2.3 일반가정 단원과 취약가정 단원 차이 분석 결과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단원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 일반가정 단원은 17개의 유의미한 의미가 분석되었으며,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에는 16개의 의미가 도출되었음.
- 두 집단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과 변화를 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각 집

단별 패턴의 특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찰됨.

- 특히 음악적 성장의 경우,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악기 실력의 향상과 합주의 즐거움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동일하였음. 다만 패턴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가정 단원에 비해 취약가정 단원은 단계적으로 음악적 성장을 해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예시로 2년차의 일반가정 단원의 경우 악기실력의 향상과 합주의 즐거움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변화를 이야기 했다면, 2년차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에는 악기에 대한 친밀감,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음악지식의 향상을 자신의 주요 변화로 이야기 하였음.
- 더하여 일반가정 단원의 경우, 음악적 성장의 발전 속도가 취약가정 단원들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빠른 시기에 나타나지만,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나 연주 실력의 퇴행도 일반가정 단원들이 더욱 빠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약가정의 단원들은 특히 장기적으로 활동이 지속되면서 음악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을 제시하였는데, 예술의 내재화를 통한 자신의 일상과 결부하여 악기를 한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음악적 성장의 단계별 발전 과정이 일반가정 단원들보다는 취약가정 단원들이 조금 느리게 반응하지만, 이를 통한 발전은 훨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인적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친화력과 사회성 증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을 공통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자신의 주요한 변화로 자발적인 피어티칭을 언급한 집단은 일반가정 단원들이었음.
- 공공의 의미에서는 취약가정 단원만이 단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언급했으나, 공공의식 함양으로서의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함양은 두 집단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분석단위로 도출되었음.
- 사회경제적 혜택은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범주로, 일반가정의 단원들이 좀 더 일찍 음악을 즐기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음.

〈표 IV-50〉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 분석: 변화와 성장 (교육효과)

범주	구분	일반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취약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개인적 성장	2년차 특징	좋은 습관	-
	2.5년차 공통	행복감과 즐거움 자신감 증가 밝아진 성격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음악적 성장	2년차 특징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2.5년차 공통	음악지식의 향상 악기실력의 향상	음악지식의 향상

범주	구분	일반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취약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5년차 특징	합주의 즐거움	악기 실력의 향상 합주의 즐거움
		-	예술의 내재화
인적 상호 작용	2년차 특징	친화력 증진	사회성 증진
	5년차 특징	피어티칭: 후배에 대한 관심과 배려	-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공공의 의미	2년차 특징	-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5년차 특징	공공의식: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 경제적 혜택	2·5년차 공통	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	-
	5년차 특징	편안해지는 심터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총 계		총 17개 의미	총 16개 의미

- 비대면 교육에 대한 단원들의 생각은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 모두 매우 압도적으로 대면교육을 선호했으며, 단점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음.
- 다만 비대면 교육에 대한 장점으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에 더욱 응집력 있는 답을 보인 집단은 일반가정 단원들이었음.
- 이들 모두 비대면 교육의 장점으로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꼽았음.

〈표 IV-51〉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 분석: 비대면 교육

범주	구분	일반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취약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비대면 교육 장점	2년차 특징	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
	2·5년차 공통	효율적인 시간 사용	
	5년차 특징	-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비대면 교육 단점	2·5년차 공통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5년차 특징	방음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	-
총 계		총 7개 의미	총 5개 의미

- 두 집단 간 차이가 전혀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 부분은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들로 친구, 간식, 교육강사, 캠프, 연주회였음.

-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2년차 단원은 공통적으로 불편한 교통수단을 꼽았으나, 이들 중 일반가정 단원은 실수의 두려움, 취약가정 단원의 경우는 자유시간의 제약에 주목하였음.
-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5년차 단원의 경우 취약과 일반 모두 단원 간 연령대 격차와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토로했음.
- 개선 방안으로는 각기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나, 특별한 패턴 별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음.

〈표 IV-52〉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 분석: 참여환경과 제언

범주	구분	일반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취약가정 단원의 분석된 의미
촉진 요인	2·5년차 공통	친구들과 함께 하기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 요인	2년차 특징	실수의 두려움	자유시간의 제약
		불편한 교통수단	
	5년차 특징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악기에 대한 흥미 저하	-
개선 방안	2년차 특징	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나가기 연습 악기 지원 교통수단의 개선	연습 공간의 개선 교통수단의 개선 간식 메뉴의 다양화
	2·5년차 공통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수준 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5년차 특징	간식 메뉴의 다양화 다양한 악기와와의 합주	-
총 계		총 16개 의미	총 13개 의미

2.4 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 차이 분석 결과

- 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의 차이는,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있어 축적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단원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2년차 단원과 5년차 단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자신감의 증가였음.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패턴은 행복감과 즐거움에서 자신감을 기반으로,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으로 내면적 성숙의 과정이 관찰되었음.

- 음악적 성장에서도 다양한 분석단위의 의미들이 발견되었지만, 합주의 즐거움과 악기실력과 음악지식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변화로 단원들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5년차에는 예술의 내재화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
- 인적상호작용,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도 자기 내부에서 점점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로는 장점과 단점 모두 2년차와 5년차 단원이 상당히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개인연습과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온 점은 2년차와 5년차 단원의 차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표 IV-53〉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주요 변화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공통의 분석된 의미	
		2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5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자신감 증가	
		행복감과 즐거움 좋은 습관	밝아진 성격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음악적 성장	합주의 즐거움 악기 실력의 향상 음악지식의 향상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예술의 내재화
	인적상호 작용	사회성 증진 친화력 증진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피어티칭: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공의 의미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공공의식: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경제적 혜택	편안해지는 쉼터	
		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비대면 교육	장점	효율적인 시간 사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
	단점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	방음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

- 앞서 분석한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 촉진요인은 서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를 2년차와 5년차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주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연주회, 간식, 친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5년차 단원에 비해 2년차 어린 단원들에게는 교육강사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캠프가 무척 중요한 촉진 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음.

- 장애요인으로서는 2년차와 5년차 단원들 사이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이는 장기참여 단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불만인 어린 신입단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제자리걸음 진도와 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 그리고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특히 부각되어 나타났음.
- 개선 방안으로는 공통적으로 교통수단의 개선,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간식메뉴의 다양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

〈표 IV-54〉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참여환경 변수와 개선 방안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공통의 분석된 의미	
		2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5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참여 환경	촉진 요인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친구들과 함께 하기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
	장애 요인	불편한 교통수단 자유시간의 제약 실수의 두려움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
제언	개선 방안	교통수단의 개선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간식 메뉴의 다양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연습 악기 지원 연습 공간의 개선 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나가기	다양한 악기와와의 합주

2.5 2020 행정담당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행정담당자 면접에는 기관에 따라 거점 운영기관의 행정담당자가 면접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특히 코디네이터의 임용 기간이 1년 안팎인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과 관찰 기간이 보다 긴 기관 소속 행정담당자와 함께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자료 수집의 효율성과 내용의 충실도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 연구자는 행정담당자가 아동의 변화를 지각한 부분과 함께 사업운영 연차별로 상이하게 당면하게 되는 기관별 고민 지점과 주요 이슈,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에 대해 질문하였음.
- 분석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1차 개방코딩과 2차 축코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개방코딩 분석내용은 각 패턴 별로 군집화하여 주요 의미를 추출한 후,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통해 구조화하였음.
- 진술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각각의 인터뷰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성원체크(member check)를 실시하였음.

〈표 IV-55〉 행정담당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배경	사업 참여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들과의 유대감 형성 - 동료들의 인정과 격려, 협력관계 - 단원의 성장에 대한 보람
비대면 교육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에 따른 편차 - 학생들이 느끼는 지루함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 수업 적응과 진중해진 참여 태도 - 자율적 참여 태도
	음악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실력의 향상
	인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선생님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
	공공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식 향상
	사회경제적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로서 모임
참여환경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있는 간식 -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 - 아동의 흥미 저하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의 적극적 교류 노력 - 자립 준비과정의 개선 -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필요성

2.5.1 2020년 행정담당자 면접조사 분석 내용

(1) 배경: 사업 참여 이유

-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행정인력과의 인터뷰 결과,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행정담당자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 ①단원들과의 유대감 형성, ②동료(음악감독, 교육강사, 행정담당

자)의 인정과 격려, 협력관계, 그리고 ③단원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이라고 응답함.

- 신규 참여 인력의 경우, 자신의 전공이 음악이었거나 아이를 좋아해서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에 행정인력으로서 참여하며 동력 요인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주로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드러남. 특히 시간이 지나며 형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갖게 되는 보람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교육강사 혹은 음악감독의 격려와 업무에 대한 감사 표현을 통한 지지, 그리고 행정담당자 간 협력적 태도도 사업 운영에 긍정적 동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남.

■ 단원들과의 유대감 형성

...친구들이 저만 보면 선생님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흔들어주고, 아이들 보면 그냥 즐거워요. <...> 안 빠지고 오는 애들이... 즐거움을 줘요. (B1)

애들이 저보고 오랜만이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사소한 거... (C)

■ 동료들의 인정과 격려, 협력관계

아는 선생님들은 항상 고맙다고 하거나, 먼저 챙겨주시거나 이런 거... (C)

선생님들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해주실 때 그냥 그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B2)

■ 단원들의 성장에 대한 만족감

산만하고 힘들었던 친구가 악기를 통해서, “정말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해서 왔는데... 그런 보람이 좀 있더라고요 (B1)

...맨날 수업도 하나 못 듣고 로비에 와 가지고 악보 계이름 적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지금 앉아 가지고 연주를 해요, 연주를... 그게 제일 행복하죠. (C)

(2) 비대면 교육: 부정적 측면

- 2020년 사업 운영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환경이었음. 행정담당자들은 비대면 교육에 대하여 증언할 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 어려운 점, 한계 등 부정적인 측면을 진술했다는 것임. 소수 진술로서 특정 (장애) 아동의 연주 실력이 비대면 교육을 통해 급격히 신장했다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범주화하기에는 보편성이 낮게 분석됨.

- 이처럼 부정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원인으로 행정담당자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비대면 교육을 위한 행정적 준비과정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에 다양한 어려움을 양산하였는데, 특히 가정환경이 상이함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증언되었음.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전자기기 보유 편차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악기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감을 표시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비대면 수업의 경우, 영상기기(예: 스마트폰, 컴퓨터) 설치와 같은 보호자의 도움, 시간 관리와 같은 감시자 역할도 종종 필요한데, 취약계층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수업 때에 맞춰 받기 어려운 것도 제약으로 드러남.
- 또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지루함을 느껴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있었는데, 행정담당자들이 제시한 추정 이유로는 대면 활동에서 즐겼던 간식, 친구들과의 시간이 비대면 교육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힘.

■ 가정환경에 따른 편차

...취약이 아니라도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게 몸에 배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침 9시부터 출결이 딱 되면 모르겠는데,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월, 수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 수업 들어갈 무렵에 솔직히 만화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B1)

...비대면으로 했을 시 부모님들 심정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여쭙보니까 다들 한두 폰 하는 악기가 아니라서 가정에 들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저희가 또 규칙이 무상 악기 대여긴 하지만 자기에 실수로 인한 훼손이나 이제 어 파손이나 분실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매년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었고 이제 또 큰 거는 콘트라베이스 친구 중에서는 악기를 놔둘 공간조차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A)

■ 학생들이 느끼는 지루함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계속 몇 개월 동안 해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 하고 기존에 작년, 재작년 같이 했던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간식 먹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탈퇴하는 경우가 있었죠. (B2)

(3.1) 개인적 성장

- 2년차를 맞은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 협력적인 태도 향상을 언급하였음.

- 우선 개인적 성장의 경우에는 ①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②수업 적응과 진중해진 참여 태도, ③자율적 참여 태도가 가장 주요한 변화로 도출됨.
- 특히 아이들을 수업 밖에서 관찰하는 행정담당자들의 경우, 아이들이 드러내는 태도의 변화에 대해 오케스트라 참여 초기의 행동과 비교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증언하였음. 다만 예년에 비하여 아동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진술과 분석 내용이 간결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성장이나 변화가 적었다라기보다는, 실제 올해에는 아이들과 대면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추 가능함.

■ 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아이들의 전체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음... 거의 아이들이 산만했어요. 나이 어린친구들도 많았지만 상당히 산만했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몇몇 친구 때문에 수업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알다시피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저학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들을 선출을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해서 연령이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금은 아이들이 산만한 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B1)

이제 초등학교 때 말괄량이였다가, 지금 좀 잠잠해 지면서 동생들도 이끄는 모습? 그런 것도 보이고... (A)

■ 수업 적응과 진중해진 참여 태도

예전에는 뭐 마냥 즐거웠던 애였다면은 지금은 좀 생각 있으면서도 여기가 왜 하고 뭘 진행하는지 이제 자기들도 아니까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는? 그런 것도 아이들의 성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 말하는 대로 그냥 후후후 쫓아 오는 급급하게 그런 말괄량이 애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 그대로지만 생각을 다 하면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A)

■ 자율적 참여 태도

작년 프로그램, 1년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D)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악기도 정리하고 모든 거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B1)

(3.2) 음악적 성장

- 음악적 성장의 경우, 행정담당자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

으로 전환되었던 짧은 기간 동안의 합주를 관찰하거나, 선생님들의 반응을 통해 판단하고 있었음. 음악적 성장에서 관찰된 것은 ①악기실력의 향상인 것으로 분석됨.

■ 악기실력의 향상

일단은 애들이 합주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악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그전에 보다 훨씬 높아 졌어요. 비대면이 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높아졌고 그 다음은 합주를 대하는 태도나... (C)

뭐 음악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음악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적인 정보 같은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 친구는 점점 치고 올라온다. 이런 코멘트만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로만 피드백 듣고... (A)

(3.3) 인적상호작용

- 행정담당자가 관찰한 주요한 아동변화 중 관계적 역량차원에서는 친구를 만들고 또한 그 우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행정담당자에게도 유대감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등 친구 외 어른들과도 긍정적 관계 맺기가 진술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분석내용은 ①친구, 선생님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요약됨.

■ 친구, 선생님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

확실히 이제 좀 애들은 몇 번 봤다고 자기네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나, 아니면 단순히 모든 게 다 아이들에게 변화적으로 다가와서... (C)

(3.4) 공공의 의미

- 공공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담당자가 관찰한 부분은 단원들 간 관계형성 과정에 대하여서는 협력적인 태도의 신장이 언급되었음. 다만 올해 많은 경우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져 공공적 혜택에 대한 관찰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 예상되는 바임.
- 이에 따라 도출된 내용은 단원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공공의식 함양으로 요약됨.

■ 공공의식 함양

갈등도 가장 많고 쓰레기를 전부 이제 스스로 치우게끔 지도를 해줬어요. <...> 이제 그 간부회의 같은 거를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청소팀들도, 청소팀을 짜고. 이런 과정이 저는 되게 어,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 근데 하반기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팀을 짜서 치우더라구요. (D)

(3.5) 사회경제적 혜택

- 연속기관의 행정담당자가 관찰한 사회경제적 혜택으로는, 해당 지역 내 다양한 기초단위 지역구에서 아동들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음악 단체라는 지역대표성을 지목함. 다만 이것은 해당 지역의 부족한 음악교육 인프라로 인해 도출된 분석적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선부른 일반화는 우려되는 바임.
- 주요한 사회경제적 역량에서는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함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①지역 공동체로서 모인 것이 언급됨.

■ 지역 공동체로서 모임

저희는 어찌 보면은 ○○군을 대표할 수도 있는 각 지역의 아이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지 않을까... (A)

(4.1) 참여환경: 촉진요인

- 행정담당자들이 관찰한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참여 촉진요인으로는 ①맛있는 간식과 ②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음.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학업에서 잠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진술이 소수 의견으로 진술됨.
- 이러한 주요 촉진요인은 대면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보다 대면수업을 선호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함.

■ 맛있는 간식

...선생님 오늘 간식 뭐예요. 하면서... 하하 <...> 보호자님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장난 아니예요. 이번에 간식이 뭐냐구요. (C)

■ 친구들과의 함께 놀기

화요일 목요일 매주 이틀 동안 3시간을 꾸준히 듣는다라는 게, 솔직히 저희도 직장이 이긴 하지만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아이들은 재미를 위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따분한 교육수업일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여기만의 재미랑 간식 먹는 재미,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노는 재미, 그런 재미를 찾는 친구들은 계속 꾸준히 붙어 있어서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A)

(4.2) 참여환경: 장애요인

- 장애요인으로는 학업과 ①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관련하여 ②이동 거리와 차편 문제, 그리고 ③아동의 흥미 저하가 함께 도출됨. 또한 일반가정의

경우 자녀가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보호자의 의사와, 취약계층가정의 경우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단원의 안전문제로 인해 참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언급됨.

- 특히 단원이 전공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학업을 중심으로 방과 후 스케줄이 조정되므로 학원 시간이나 먼 이동 거리로 인해 이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진술됨. 또 다른 경우로 취약계층의 경우, 편부모 가정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업무 일정으로 인해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했으나 결국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차편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보호자의 거부로 인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웠던 사례도 드러남.
- 아동의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는 입단할 때부터 보호자의 설득으로 인해 마지못해 오케스트라를 시작한 경우나, 연습 시간이 길거나 악기 연주가 어려워 중단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내용은 탈퇴 의사를 밝히는 단원에 대하여 행정담당자, 특히 코디네이터가 면담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으로 알려짐.
-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의 의사’가 주요 요인으로 주장되거나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

거의 대부분이 학업 때문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학교도 못가고 이렇게 하면서 학업이 조금... 이제 많이 뒤쳐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보호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B2)

대부분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간다든지 중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A)

■ 아동의 흥미 저하

학업 외에는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B2)

엄마손<으로> 끌려온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힘들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A)

(5)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행정담당자들이 제시한 대안 및 개선 방안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과 개입에 대한 수요 및 기대가 드러남. 무엇보다 지자체와 거점기관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과 같은 ①진흥원의 적극적 교류 노력과 ②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을 제기하였음. 또한 ③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분석결과 도출되었음.

- 살펴보면 실상 ①진흥원의 적극적 교류 노력은 ②자립 준비과정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진흥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깔려 있음.
- 지역 거점별로 운영 연차가 다르기는 하지만, 자립을 준비하는 연속기관의 경우 매년 바뀌는 지자체 행정 담당자와 지자체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립 등으로 인해 자립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 공통적인 증언으로는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지자체의 담당자 변동, 이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무엇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 소수 세부 의견으로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한 거점기관의 역할과 참여가능 범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함. 이는 지역별 인력 자원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상이한 배경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동시에 행정지원 인력 또는 기관을 사업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적 측면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부분으로도 해석 가능함.
- ③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코디네이터들이 마주한, 또는 잠재적으로 마주할 수도 있는 업무상 어려움과 연관성이 있음. 특히 거점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코디네이터 담당 업무 범위는 기관 행정담당자의 참여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사업 운영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코디네이터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지식 공유를 대안으로 제안한 진술과 연계, 대안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진흥원의 적극적 교류 노력

이게... 지방 자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극 도와준다 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 문제부와 지방자체와도 면접을 볼 때 시공무원도 받거든요. 계속 그 쪽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주기적으로 시공무원과 같이 참여하고 요청해서 중요성을 같이 알리고 계속 논의하는 자리에 계속 불러야지 사실 그게 그분들도 이해하고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B1)

어찌 되었든 행정기관이 주관처와 운영기관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잘 짜야죠. 근데 그냥 실무자들에게 전화 해가지고 네가 짜라 이렇게 하는 구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운영기관들에서 어쨌든 운영기관에 행정급 이상의 책임자들이 모인 적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반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참여자들의 리더는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데, 운영기관, 제일 중요한 운영기관... <...> 운영기관에서 어찌 됐든 업무를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은 지속되기가 어려운데, 운영기관의 책임자급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 이게 교류의 문제죠. 사실은... (D)

■ 자립 준비과정의 개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꿈오 행정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단추에는 할애하고 나중에는

〈도움이냐 관여가 적은〉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주지 말고라도 6년차 되면 다져지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줄이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B1)

지방보조금을 해주시는 이제 주무관님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순환이 다 되다 보니 매년 1년 1년이 솔직히 고비고비로 넘어가는 게 제일 한계적인 그런 부분이 크게 느껴지구요 솔직히 그래서 뭐 과장님과 이게 합이 잘 맞아서 올해 한 해 잘 넘어갔지만 다음 해 또 누가 오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를 좀 느끼는 건 있는 거 같아요. (A)

■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필요성

...진흥원측에서 사전에 조금 사전자료나 공통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점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이런 걸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느 거점을 찾아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연락을 드렸을 때 잘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일하는... 오래 일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원래 초반에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도 없고... 〈...〉 서로 커뮤니티 하는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 연락처 공유라든지 필요할 때나 아님 도움을 청할 때... 〈...〉 행정 감독은 감독,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 안에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좀... 각 지역 역할에서 커뮤니티 자리가 있고 통합된 자리가 있어야 통합되게 들을 수 있으니까... (B2)

2.6 2020 보호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보호자 FGI는 배경, 아동의 변화와 성장, 참여환경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 배경에서는 본 사업에 자녀가 참여하게 된 동기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또한 2020년 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개별적으로 범주화하였고,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아동의 변화와 성장의 상위구분은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재구성하여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영향,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부호화하였으며, 이를 하위구분에서 그 개념을 주요 분석내용 기반을 토대로 명료화하였음.
- 참여환경에서는 비대면 상황과는 달리 보다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참여의 촉진과 장애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이와 같은 분석 틀에 준거한 보호자 FGI의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음.

〈표 IV-56〉 2020년 보호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배경	지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 자녀의 정서적 안정 - 자녀의 악기에 대한 관심
비대면 교육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지도 효과 - 자녀의 학습태도 및 성장 관찰 기회 - 자녀 픽업으로부터의 자유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 학습효과 - 주거 공간이라는 환경 요인 -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및 자존감 신장 - 책임감 신장 - 자발적 학습 태도 - 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 정서적 안정
	음악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 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 음악 및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 증가
	인적 상호작용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어울림을 통한 사회화
	사회경제적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 가족 간 유대감 강화
참여환경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의 교제 - 간식 - 연주 기회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년/중학교 진급 - 통학 교통 문제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대신 소그룹 대면 강의로 대체/병행 - 현장 학습과 사회 참여 기회 - 사업에 대한 지역 홍보 - 연주 및 교육 내용 개선

2.6.1 2020년 보호자 면접조사 분석 내용

(1) 배경: 지원 동기

- 보호자의 면접조사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한 동기로는 ①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②자녀의 정서적 안정, ③자녀의 악기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됨.
- 면접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평소 음악에 대한 관심이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 또는 본인의 학창 시절 음악교육 기회 결핍 등 보호자의 관심과 욕구가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 그러나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전문적인 음악가로 육성하거나 음악적 기량 신장에 대한 기대를 갖는 보호자보다는, 아동의 정서 함양과 안정,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지원 동기로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음.
- 이 밖에 미디어나 평소 사교육을 통해 악기 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도 나타남.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진술로서, 지역에 따라 음악교육, 특히 클래식 악기를 접하거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 흔치 않은 기회로 여겨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를 결정했다는 응답도 있었음. 일면 공공사업이라는 요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신뢰를 주어 참여를 결심한 보호자도 관찰됨.

■ 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악기를 배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D라B2)

저도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가정형편이나 아니면 여건 상 그게 안됐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꼭 음악을 가르쳐야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D라B1)

■ 자녀의 정서적 안정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했는데 좋은 거 같아요. (C라A1)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에 위로를 말로 해 줄 수 없고 누군가 해 줄 수 없는 이렇게 뭐 관계 속에서 할 수 없는 위로를 관계 속에서 할 수 없는 위로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제안에 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그런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A라A2)

■ 자녀의 악기에 대한 관심

방송에 헨리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굉장히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졌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런 뭐 현악 관악 할 것 없이 타악 할 것 없이 관심을 갑자기 가지게 된 거예요. (C라A2)

(2.1) 비대면 교육: 긍정적 측면

-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오케스트라 교육은 보호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과 참여 아동들의 학습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이 구분되어 진술됨.

-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는 ①개별 지도 효과, ②자녀의 학습태도 및 성장 관찰 기회, ③자녀 픽업으로부터의 자유로 함축될 수 있음.
- 예상 밖의 효과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교육강사가 그룹을 한 번에 교육하기 어렵게 되다 보니, 단원들을 시간을 나누어 개별 교육을 시행하게 된 점,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교육 강사의 협력을 통해 단원들의 수요를 세밀하게 해결했던 사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동들의 학습 역량에 대하여 보호자로서 저평가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성찰의 기회를 경험한 경우, 그리고 아이들을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현장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시간이 없어 좋았다는 증언들도 도출됨. 이는 대면 기간 동안에도 보호자들이 겪는 통학 문제 또는 스트레스가 반증되어 드러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개별 지도 효과

선생님과 이렇게 1:1이 오히려 개인레슨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뭐 5~6명 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여기는 시간타임 별로 40분 타임별로 해서 거의 1:1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수업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손동작, 정말 코칭 하면서 정말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보이는 각도에서는 ‘이거 보여줘 손 좀 보여줘’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D라B2)

■ 자녀의 학습태도 및 성장 관찰 기회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또 나름 장점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재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교감을 나누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계이름을 외우고’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D라B1)

■ 자녀 픽업으로부터의 자유

저는 오프라인 할 때는 픽업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도 어떻게 하다가 비대면 하니까 일단 픽업 문제가 없어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편했고 그리고 저는 아이가 어리잖아요. (D라B2)

(2.2) 비대면 교육: 부정적 측면

- 보호자의 관점에서 보는 비대면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①비효율적 학습효과, ②주거 공간이라는 환경 요인, ③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축약되어 나타났음.

- 무엇보다 단원들이 악기를 배울 때 손 모양 교정과 같이 대면이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설명 전달 등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점을 지적한 보호자들이 많았음. 동시에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의 주거 환경에서 층간 소음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남.
- 비대면 교육에서는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에 따라 참여 가부가 나뉘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의견이 도출됨. 구체적으로 와이파이 시설 가정 내 설치, 핸드폰 등 영상 교육에 필요한 기기 보유, 또한 교육 시간에 기기 설치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의 역량과 상주 여부 등, 취약계층에게는 특히 갖추기 어려운 요건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취약계층 중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제기됨.
- 그러나 비대면 교육이 부정적이라고 하여, 대면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밀린 수업을 몰아서 시행하는 것 또한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가정별 환경요건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거점에서 대면으로 화~토요일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피로감과 흥미를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면접조사 결과 드러남.

■ 비효율적 학습효과

비대면의 효과는 한 시간이 아니라 십분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을 해보니까는 애가 십분 집중을 한다는 것 만해도 대단한 느낌.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저기 있는데 그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이 손가락부터 시작해 이게 와 닿지를 않잖아요. (C라A1)

솔직히 왜냐 아홉 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안 되서 선생님한테 여쭙봤죠. 전화도 해서 코디닝하고 연결해가지고 여쭙도 보고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코멘트 달아 주시는 걸로 이제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C라A2)

그런데 첫째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줌으로 해도 그걸 따라가지는데 둘째는 기초가 안 되니까 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립싱크로 연주해서 파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지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대면 수업을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둘째는... (B라B1)

■ 주거 공간이라는 환경 요인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일을 하니까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본인이 연습을 한 10분정도 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옆에 아파트 집이 붙어있다는 보니까 애 방이... 제가 나가서 들어봐도 너무 시끄러워서 연습 오래는 못하고... (C라B1)

솔직히 저는 오보에가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때 하루 쉬는 날이여서 비대면 하고 있는데 오보예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 한 거예요. 이중 창문 다 닫고 ‘OO아 조용히 붙어봐’ 하면서 ‘조용히 볼 수 없니?’ 그랬더니 ‘어 이거나중에 가르쳐준다고 했다고’ 사실 저도 민원이 들어 올까봐 조금 불안불안 했었고... (D라B1)

■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

부모님이 찍어주거나 신경써주지 않으면... 사실 꿈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이 있는 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벌이 집도 있고 그리고 되게 신경써주지 못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악기들이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음악적으로 접하라고 꿈오가 생긴 거잖아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비대면 활동을 하니까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걸 올려줄 사람도 없고, 집에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고... (C라A2)

(3.1) 개인적 성장

- 보호자 FGI를 통해 나타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은 인지와 정서 발달 측면에서 규명됨. 세부적으로 ①자신감 및 자존감 신장, ②책임감 신장, ③자발적 학습 태도, ④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⑤정서적 안정으로 요약되어 나타남.
- 사업의 운영 연차에 관계 없이 보호자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지목한 부분이 아이들의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의 신장이었음. 아동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향상 연주회, 캠프 등 연주의 기회는 단원들이 자신감이 신장하게 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자신감이 생긴 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과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완성과 성취로 귀결되었을 때에는 아동들이 인내심이 향상되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태도가 발현되는 것 같다는 보호자의 응답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아동들이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보다 감성적으로 풍부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보호자들의 관찰 내용도 드러남. 더불어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화를 음악 연주를 통해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진술도 있었음.

■ 자신감 및 자존감 신장

‘작은별’은 또 연주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굉장한 박수를 받으니까 자기가 완전 무슨 연주회 온 마냥 자기가 무슨 연주가가 된 마냥 너무 그 뿌듯해 하고 어머 나 이거 좀

할 줄 알아 이런 자신감을 갖게 했고 <...>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 그런 밝은 모습은 처음 봤죠.
(C라A2)

이걸 참여하게 되면서 훨씬 아이들이 마음에 자긍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 되어있던 자기 자신들의 능력들이 약간 나타나기도 하면서 아이들 생활이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면서 학교생활도 더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모습을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D라A2)

악기에 소질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같은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 악기 너무 잘한다고 칭찬했다.’고... <...> 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친구들이 ‘되게 잘한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A라B1)

■ 책임감 신장

아이들이 그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시간 타임을 뭐 1부 2부 이렇게 나뉘는데 처음에는
두서없이 막 ‘이제 들어가야지 인사 나누는 시간이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이런 시간이
조정되고 그걸 기억하고 뭐 1부에 들어가서 하고, 나중에 인사할 때도 ‘우리 이제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그런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D라A1)

■ 자발적 학습 태도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개선되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조심하고 내성적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엄마 이거 내가 한 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해보고 ‘내가 용기를 내볼게’ 이러기도 하고... (D라A1)

같이 단원생활 했던 자기 동료들이 중학교로 입학하면서 다 그만뒀거든요. 많이 그만두고 해서
본인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나 혼자 가나 나도 그만 뒀야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다닐 건지 말건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정도 뒤에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가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전에는 제가 ‘너 오케스트라 가야돼, 가야돼. 오늘 오케스트라 가는 날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오케스트라 가는 날을 챙겨요. (A라A3)

■ 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또 마지막으로 하면서 끈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아닌데 하다보니까 약간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는데 ‘중단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 ‘애들이 그냥 대충하면 어떡하지?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비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D라B2)

■ 정서적 안정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됐다고 해야되나 그리고 또 감정의 폭이 넓고 깊어진 것 같은, 그런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라A1)

항상 밖으로 나돌았었는데 그 생활을 갖다가 아예 다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게 엄청 크잖아요. 저희도 이제 교육 스트레스도 있지만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스트레스죠. 이런 뭐 자기들도 해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솔직히 여기서 많이 해준 거죠. 저희가 이제 덜 할 수 있게 애가 음악에 관심과 트럼펫 갖고 붙고 놀고 이런 것도 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놀이부터 덕분에 좀 화도 좀 덜 내게 되고 애들 짜증도 많이 줄었고 그런 부분은 좀 많았어요. (C라A1)

(3.2) 음악적 성장

- 보호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본 사업 참여 이후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 변화는 ①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②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③음악 및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 증가가 세부요인으로 도출됨.
- 비록 보호자들이 음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많은 성장 변화를 섬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의 칭찬을 통해,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는 상황에서 성장 변화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원들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놀이의 방식으로, 또는 가족들과 TV를 시청하는 등의 일상에서 습득한 음악적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단원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또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적 기회가 있는 경우, 아동들이 폭넓은 악기에 관심을 드러내고 연주까지 해내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이것이 개인의 역량에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일지라도,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악기를 배우고 또 다양한 악기에 노출되는 기회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보호자들의 진술이 있었음.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한 번씩 캉캉캉 놀래요. ‘와 저 정도까지 해지나?’ 저는 되게 어쨌든 실력이 하여튼 줌으로만 했는데도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었어요. (B라A1)

타악기가 예전에는 정말 심플한 박자였는데 굉장히 고난이도로 갔더라고요. 엇박자로 하면서... 그래서 2주 전에 선생님한테 한 번 연락이 왔어요. ‘혹시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냐’고 ‘지금 조금

어려운 단계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지 아이들 반응을 보고싶다.’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 어렵기는 한데 그냥 할 만해.’ 그래서 그 때 박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성장한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는 편이고 타악기의 장점이 다른 악기들은 한 악기만 꾸준히 하는데 타악기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접하더라고요. (D라B2)

■ 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저희 ○○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들었어요. 바이올린을 하면서 플룻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플룻도 조금 배워보기도 하고, 피아노 치는 게 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지고 재미있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B라B1)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악기를 즐길 줄 알게 되었고, 그 악기(콘트라베이스)를 하다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거든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쿠스틱을 배우다 보니까 키판이 자판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냥 전자 베이스랑 그래서 혼자 덩가덩가 하더니 자기가 금방 베이스를 치더라고요. <...>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뻘어 나가시더라고요. 재능의 개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한두 가지 자신감이 붙다보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좀 즐기게 되고 그 악기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에도 되게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B라A1)

■ 음악 및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 증가

이제 처음 접하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관심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트럼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막 이제 농촌의 아침 해가지고 말소리를 냈대요. 막 말소리를 냈다는 자체가 그 악기로 말소리를 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C라A2)

아마 어려서 그렇게 더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되게 용기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대면 수업하는 <결> 기다리고 월요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B라A1)

(3.3) 인적 상호작용

- 보호자 면접조사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아동의 인적 상호작용에서 관계적 역량, 즉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2년차와 5년차 사업 참여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 예년에 비해 인적 상호작용 영향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이 적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운영된 기간이 길었던 환경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관점에서,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 어울림을 배워서 사회성을 신장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은 유의미한 분석 결과로 사료됨.

■ 함께 어울림을 통한 사회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 이게 오케스트라,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 없었던 관계적인 일 이야기나 사회성에 관한 얘기 뭐 그런 것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아이에 대해서... <...> 오케스트라에서 자주 해주시던 얘기가 악기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성실하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관계가 <...> 배려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 진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기뻐쥬. 첫째거든요. 첫째라서 저는 항상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케스트라에서 좀 많이 들었쥬. (A라A2)

엇그저께도 ○○이형아인가? 초콜릿을 줘야 된다고 가져가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 친구 사회성이 제일 좀 딸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보완을 가르쳐서 너무 좋고... (C라A1)

(3.4) 사회경제적 혜택

-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경제적 효과 관점에서, 본 사업 참여는 가족들에게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고 가계 경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FGI 분석결과 나타남. 클래식 음악과 같이 악기나 교육비용이 부담되는 음악장르의 교육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보호자들은 아동들의 ①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② 가족 간 유대감이 강화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보호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평소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과, 흔치 않은 오케스트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있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음. 이러한 의견에 있어 일반가정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고, 일반가정 역시 자녀 수가 많은 경우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진술하기도 하였음. 다만 일반가정의 보호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간혹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일반 음악교육의 대체재로 인식하는 듯 응답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
- 오케스트라 활동은 자녀와 부모, 자녀 간, 그리고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들 간에 대화거리와 즐거움을 주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남.

■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솔직히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사비로 다 학원을 보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던 상황에서 이런 교육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D라A1)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하니까 얼마나 비싸요. 사교육이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 하나 둘 셋을 하려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약이 많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D라B2)

■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동생이랑 남동생도 있는데 현악기에 관심을 점점 가지... 둘이 막 유튜브 찾아보더라고 콘트라베이스 남매가 연주하는 영상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에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오케스트라에 관심을 갖게 되기 쉽지가 않은데 ‘엄마 콘트라베이스 자리 여기 첼로 자리 여기 금관악기 현악기 악장은 여기 앉고’ 이런 걸 동생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저희 큰 아이가... (C라B1)

아이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그 축하 공연을 각각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게 오케스트라를 보기 때문에 뭔가의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안 했다면 같이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같이 서서 춤을 췄을 텐데 그 역할을 누구는 무슨 악기를 하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D라B2)

저희는 애가 다섯 명이거든요. <...> 싸우고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딱 3살 터울이라서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도 지금 오케스트라를 다니거든요 둘째가 같이 오케스트라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하고 둘째도 오케스트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집에 와서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되고 셋째도 일곱 살 때부터 언니들 연주나 이런걸 보고 너무도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일곱 살 때 맨날 그거 등 굽는 거 가지고 플룻 연주하고 다녔거든요. <...> 그 셋째는 플룻을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막 그러면서 정말 공감대가 없는 아이들이 공감대가 생기니까... (A라A2)

(5.1) 참여환경: 촉진요인

- 보호자는 면접조사에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려는 주요 촉진요인으로 ①친구들과의 교제, ②간식, ③연주 기회를 지목하였음.
- 아이들이 악기와 오케스트라 음악을 배우기는 하지만, 전공을 목적으로 세운 교육 과정이 아니라 놀이와 같은 배움, 어울림의 시간이자 공간으로 인식할 때, 즐겁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호자들은 응답함.
- 더불어 연말이나 캠프에서 참여하게 되는 연주 기회를 통해, 아동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 연주 기회를 선호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보호자들은 보고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연주의 기회가 아동들로 하여금 오케스트라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함.

■ 친구들과의 교제

이제 만나서 아이들이 악기 다루는 것도 악기를 배우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 명이 같이 한다는 거 자체가 왜냐면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저희도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저희는 따로 학원도 그닥 안 보내는 실정이라 집 밖에 없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C라A2)

우선 애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기를 와서 학원을 화, 목을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간식에 관심이 많습시다. <...> 우선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음악 공부도 포함되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놀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것 같고... (D라B1)

■ 간식

여기 간식 때문에 살이... 너무 맛있게 먹고 오니깐 집에서 저녁을 안 먹으려고 하고... (C라A1)

개인적으로 따로 어 그렇게 하고 간식 먹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지역에 없는 간식을 그 지역에서 뭐 밥버거나 뭐 이렇게 닭강정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시골이라서... (A라A2)

■ 연주 기회

성취감 같은 부분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면, 그런 거는 많이 느껴서 좋아하더라구요. (A라B1)

원래는 할 때는 목요일에 받아오면 주말에 연습하다가 다시 활동할 때 가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고로 악기를 샀고, 연주를 하고 싶어서 중고로 악기를 샀고... (A라A2)

(5.2) 참여환경: 장애요인

- 보호자들이 인지하는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가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서는 ①고학년/중학교 진급, ②통학 교통 문제로 나타났음.
- 해당 요인들은 지역적 환경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거점기관의 위치나 지역의 교통 인프라,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그 예임. 학생들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여 학원 등 사교육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지만, 지역별 교육 인프라의 격차로 인해 학생이 진학할 때 지역을 떠나는 기숙학교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학 교통 문제는 기관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학생들의 고학년/중학교 진급과 같이 복합적 요인과 결부된 경우도 드러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보호자들은 참여 중단을 결심하게 된다는 진술이 수집됨.

■ 고학년/중학교 진급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

보통은 고학년은 학원 시간이... 지금 연습시간이 4시부터 7시면 사실 학원 그날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는 작년에 같이하는 6학년 누나가 이제 올해 그만두면서 자기도 6학년 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음악감독님이 저한테 ○○ 중학교 가도 연습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주말에라도 오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C라B1)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군인데 ○○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쪽으로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 생각은 기숙형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A라A1)

■ 통학 교통 문제

좀 가까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지역에 있으니까 저는 ○○동 살고 30분 이상 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버스 시간 맞출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픽업을 해서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조금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 더 학교 마치고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죠. (B라A1)

(6)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보호자들은 아동들의 학습 환경과 내용과 관련한 제언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꿈의 오케스트라의 주요 개선 방안으로 도출된 내용은 ①비대면 대신 소그룹 대면 강의로 대체 또는 병행, ②현장 학습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③사업에 대한 지역 홍보를 통한 지원의 기회 모색, 그리고 ④연주 및 교육 내용 개선으로 요약됨.
- 비대면 상황에서 운영된 온라인 교육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제기한 보호자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대면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고,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대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단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교육뿐만 아니라,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 활동이나 문화체험 활동도 현장 학습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는 특정 거점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집된 응답으로 거점의 교육 철학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5년차에 접어든 사업 기관에서는 신규 단원이 들어올 때마다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하향 평준화되는 학습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보호자들의 응답도 수집됨. 또한, 연주, 특히 지역 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주 레퍼토리, 그리고 매해 반복되는 연주 레퍼토리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함.
- 연차가 거듭될수록 향상되는 기존 단원들의 연주 실력과 새롭게 입단하는 신규 단원들의 실력 격차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임.

■ 비대면 대신 소그룹 대면 강의로 대체

사실 비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말로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 같거든요. 선생님 따라하고 애는 이게 잘못하는지 어찌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전에는 제가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소규모로 넓은 데서 푹 푹 푹 푹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내년에도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C라B1)

만약에 다시 이렇게 대면 수업에 중지가 되면 좀 나가서 기초 반 애들만 따로 대면으로 띄워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B라A1)

■ 현장 학습과 사회 참여 기회

이 오케스트라가 처음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음악을 배우러 오는 곳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성장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험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연주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많이 못하다가 아마 올해 ○○○전당에서 투어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 선정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D라B2)

지금 코로나 조금 끝나고 나면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출중하다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약간 우리 아이들의 귀여움이나 부족한 면을 예쁘게 봐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약간 봉사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번씩 봉사개념으로 해도 아이들이 그만큼 자기가 자부심이 생기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라B1)

■ 사업에 대한 지역 홍보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잘 눈에 안 띄니까...〈...〉 활동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노출이 되고 이랬으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저기 뭐하는 곳일까’ ‘저기 하는 곳이다’ ‘우리 애기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별로 노출이 안 되다보니까 1년에 2번 연주회하는 거 현수막 붙이는 게 다 같아요. 〈...〉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B라A1)

■ 연주 및 교육 내용 개선

행사용 곡이라는 필요성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꼭 이걸 연주해야 할까 한 번 그런 생각을... 나는... 너무 재밌다고 연주하는 아이도 재밌어해요. 연주하는 아이도 재밌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너무 클래식한 거를 연주한다거나 이런 걸 원하진 않지만 어 너무 무대용 곡이나 행사용 곡을 위주로 연습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작년 가을에 조금 들었습니다. (A라A2)

아무래도 연차가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 오케스트라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애기들만 들어오면 기초부터 다시 하다보니까 향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고학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매주 못 오더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만 해도 어차피 계속 배웠던 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고 어차피 새로운 애들이 오면 너무 어려운 거 못 하니까 항상 비슷한 곡 수준의 위주로 오케스트라 곡이 되니까... (B라A1)

2.7 2020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면접조사 분석 결과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대상 면접조사는 배경, 아동의 변화와 성장, 참여환경과 제언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코로나19라는 환경적 변수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방법 시도에 대한 응답도 분석함.
- 배경에서는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와,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으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새로운 범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행된 비대면 학습에 대한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의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조사하여 분석함.
- 아동의 변화와 성장의 상위구분은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재구성하여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영향,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부호화하였으며, 이를 하위구분에서 그 개념을 주요 분석내용 기반을 토대로 명료화하였음.
- 참여환경에서는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에 대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함.
- 제언 부분에서는 향후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의 관점에서 인지하는 개선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음. 2년차와 5년차 기관 소속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모두 6년 지원 이후 자립과 관련한 응답이 나타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에 반영함.
- 이와 같은 분석 틀에 준거한 보호자 FGI의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음.

〈표 IV-57〉 2020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면접조사 분석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배경	사업 참여 이유	- 단원들의 추억과 취미 형성 - 단원들의 성장을 보며 느끼는 보람
비대면 학습	긍정적 측면	- 개별 학습 가능 -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경험 - 교육강사의 온라인 강의 역량 증진
	부정적 측면	- 직접 소통의 제한에서 오는 어려움 - 기술적 한계 - 아동들이 느끼는 지루함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 자신감 신장 - 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 적극적 태도 발현
	음악적 성장	- 음악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인적 상호작용영향	- 사회성 향상 - 교육강사와 유대감 형성
	공공의 의미	- 공공의식 함양
	사회경제적 혜택	- 문화 자본 형성
참여환경	촉진요인	- 친구들과 교제 - 맛있는 간식 - 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장애요인	- 고학년/중학교 진학 - 통학거리와 차편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온라인 교육을 위한 방안 - 자립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신장을 위한 활동 필요

2.7.1 2020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면접조사 분석 내용

(1) 배경: 사업 참여 이유

-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의 면접조사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 ①단원들의 추억과 취미 형성과 ②단원들의 성장을 보며 느끼는 보람 때문인 것으로 요약됨.
- 면접조사를 통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추억을 쌓고 이후 성장하면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보람을 표현함. 특히 아이들과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전인적, 음악적 성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가 전문적 연주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과정 에 임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 단원들의 추억과 취미 형성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애들이 악기를 부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막 하기 싫은 억지로 한다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나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즐거워하더라구요 그런걸 보니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또 더 하려고 하고 막 불다가 ‘선생님 이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막 하면서... (C다3)

제 목표는 이거예요 애들이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저는 타악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타악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은거죠. 그래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이해하게끔 음악을 폭넓게 해서 여기서 타악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 나도 선생님처럼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꿈과 희망을 주고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생 취미로 남게끔... (D다3)

꿈의 오케스트라에 와서 아이들이 기능적인 면도 배우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따뜻한 곳 내가 가면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하는 마음으로 (D다4)

■ 단원들의 성장을 보며 느끼는 보람

...하다보니깐 그런 거에 대한 보람도 있더라구요. 애들이 <...> 사회적인 뭐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또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처음에 소극적인 애들이 점점 말을 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웃기 시작하니까 그게 기분이 그냥 좋더라구요. 그래서... (C다2)

(2.1) 비대면 교육: 긍정적 측면

-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오케스트라 교육은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에게도 새로운 시도와 경험의 기회였던 것으로 드러남. 공연장 현장의 음향이 중요한 음악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으나, 비대면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보다 가까워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공통된 증언이 분석결과 나타남.
- 다만 지역 환경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곳도 있어, 그러한 경우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가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체험한 경우라도, 온라인 오케스트라 교육이 효율적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과, 향후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면 방역 수칙을 지키되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소수 의견이 수집되었음.
- 대면 교육 병행의 필요성은 입문과정에 있는 단원들의 음악교육과 연주 기초역량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병행 시행은 보호자 면접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도출된 만큼, 주목할 만한 것으로 사료됨.
- 분석결과 도출된 비대면 교육의 주요 긍정적 측면은 단원 대상 ①개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 ②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고민하면서 ③교육강사의 온라인 강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함축됨.

■ 개별 학습 가능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선생님들이 펄스널 케어가 가능해요. 아무리 그룹으로 있더라도 어찌됐든 일대일로 레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재능)에 따라서 성장이 확 되는 애들도 있구요. 온라인 수업이라도... (B다1)

원래 세컨이 파트 인원이 늘 많아요. 신규가 늘 있고, 입문하는 단계의 아이들이 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력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기서 늘 대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단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 줌을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누구 해보자 하면서 그 아이와 눈맞춤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진 케이스거든요. <...> 줌으로 그 아이에게 맞춰서 각자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다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구요. (D가1)

■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경험

앞으로 음악교육에 있어서 이런 비대면 교육이 가능할지 모르겠다하는 의문점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성과가 있다. 대면보다는 아직 못하지만, 하지만 보완해 간다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또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까지 와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다1)

아이들이 <...> 갑자기 또 폭풍성장을 하는 거예요. 팔뚝에다 하다가 실제 악기를 잡으니까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을 많이 본 거 같아요. 음악가들의 마음속에는 온라인은 무조건 'no'였어요. 온라인은 impossible. 이건 가능한 게 아니야. 저도 그랬고 그런데 바뀌는걸 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걸 보고 '아, 이게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B다1)

수업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정하고 숙제를 내주게 되면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다시 저한테 보내줬을 때, '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구나.' 온라인이니까 요정도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들은 더 크고 더더 넓게 생각해서 건네줬던 것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선생님이지만 그 마음을 배우게 됐고 아이들을 대면수업보다 더 집중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많습니다. (D다2)

■ 교육강사의 온라인 강의 역량 증진

제가 강의를 저기로 했어요, 파워포인트 동영상 강의로 했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도 할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열흘 동안 파워포인트를 배웠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 보면서 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거를... 이게 진짜 30분을 올릴려고 2주를 준비를 했네요? 그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이 되니까 끝나고 나선 그랬는데 준비할 때는 참 안 해본 거, 실제로 아이들하고 대면수업하면은 큰 아무문제 없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다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그걸 전달 한다는 게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 어려움 더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 강의 준비를 할 때 과연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제일 컸던 거 같아요.

이제 비대면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그 덕에 제가 다른 악보 컴퓨터 만지는 거 동영상 편집에서부터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그런 거는 색다른 걸 많이 배웠고... (C다1)

아이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 완벽한 선생님들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시고 시도해보시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D다3)

일대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보니, 그리고 사춘기가 온 아이들을 일대일로 대하다보니 진도 말고 감정적으로도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서 그냥 악기만 배운다기보다 <...> 악기를 즐겁게... (B다3)

(2.2) 비대면 교육: 부정적 측면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면접조사를 통해 진술한 비대면 오케스트라 교육의 주요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무엇보다 교육 과정에서 ①직접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성과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②기술적 한계로 인해 음질이 좋지 않아 적합한 코칭이나 티칭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박자를 맞추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였음.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의 교육강사를 비롯하여 오케스트라 교육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대면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교육강사들의 시각이 ③아동들이 느끼는 지루함으로 도출되었음.
- 특히 악기 조율, 조립, 연주 자세, 손가락 포지션 등 실제 영상과 설명만으로 교육이 어렵거나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 가장 답답함과 불편함을 표출하였음.

■ 직접 소통의 제한에서 오는 어려움

제일 힘든 건 이제 아이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니까 제가 과제를 영상으로 '이런 이런 과제를 해.' 해놓고 그 과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애가 완전 엉뚱한 걸 하고 있고, 그걸 제가 다시 글로 적어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해주면 다시 다른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C다3)

근데 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티치를 안하니깐, 잘하던 애가 마냥 산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하던 애인데 더 수업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B다1)

■ 기술적 한계

...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컴퓨터상에서 에러라든지 렉이 걸려서 특히 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바이올린 퍼스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같이 합주를 하는 게 물론 합주는 하는데 저는 귀를

청소하고 싶을 정도로 듣기 싫었었어요. 컴퓨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예쁘게 들리진 않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의 연주도 그렇게 깨끗하게 들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솔솔라라’하면 ‘솔라라’하고 이렇게 하나씩 빼고 들리니까,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거죠. (D다2)

온라인 수업은 그룹레슨은 힘들어요. 저도 (다른 곳에서) 온라인을 해봤는데 이게 인터넷 싱크가 다 달라서 동시에 하면 반응이 다 제각각이어서 수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일대일로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다4)

저는 장비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아이들이 계층이 폭이 넓잖아요. 정말 없는 아이들은 (연주) 하는 게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개가 핸드폰이 너무 오래된 버전이거나 마이크 이런 게 없으면 안 들리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라든지 장비적인 부분들을 대여라든지 조금만 보충이 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D다4)

■ 아동들이 느끼는 지루함

기존 아이들 4명 중에 한명은 탈퇴를 했어요. 애도 사춘기가 오기도 했고 온라인이 너무 힘들었었나봐요. 그래서 탈퇴를 했고 다른 아이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지루한 게 보이는 거예요. (B다4)

신규 아이들 같은 경우는 <...>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대면을 통해서든지 아이들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 단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고... (B다2)

(3.1) 개인적 성장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발견한 주요 변화는 악기실력 향상과 성취감을 통한 ①자신감 신장, 단체 생활과 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연습의 효과로 추정되는 ②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학습과 연주에 있어 ③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비록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학생들과 현장에서 대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온라인 수업에서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 대면 수업에서 확인된 음악적 성취감을 통해 신장된 자신감 등 학생들의 성숙한 면모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자신감 신장

쉬는 시간에 그래서 ‘ 쌤 저희가 친구한테 자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니까 자신 이제 자랑거리가 생긴거죠. 자기한테 자기는 이런 거 한다. 이런 게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합주할 때 이제 항상 애들이 틀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 쌤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 어떡해요.’ 그면 ‘틀리면서 니가 성장하는 거다.’ 하고 설명해주면 애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 같아요. 처음보다는 합주 하니까 이제 파트연습 할 때는 저희 소리만 듣다가 다른 소리들에 의해서 예쁜 화음이 들리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되게 좋아진 거 같아요. (C다3)

너무 재밌으니까 안 되든 되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던 거 자신감이 그니까 선생님이 ‘살살 불어 크게 불지 말고’ 했는데도 너무 자신감이 넘쳐 (웃음) 뽕뽕 다 틀리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 보는 데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아,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C다2)

■ 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아이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유대관계도 많이 늘어났고, 또 혼자서 연습하는 습관이 배어서 이 애들이 3학년 4학년 맞아 한창 뛰놀고 까불고 할 애들인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숙해졌어요. (D다2)

...저희는 다 참여잖아요. 하다못해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진도 끼우고 이거 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해줬는데 이제 자기들이 안하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악기도 열고 송진도 바르고 조율하고 줄도 끊어먹고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숙해진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D다4)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합주를 많이 못하는데, 합주 계속하고 그럴 때는 각자 분담된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는 악기 세팅을 하고 누구는 의자 세팅을 하고 누구는 보면대를 가져오고 이렇게 분담하고 각자 책임감을 지고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A다2)

■ 적극적 태도 발현

조금만 늦거나 안 되면 항상 문자하고 전화해서 ‘선생님 저 7분 늦어요.’ ‘선생님 저 10분 늦어요.’ ‘저 1교시에 10분 늦었으니까 3교시에 들어가서 보충하면 안되요?’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린거죠. (D다2)

아이들이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이것을 하면서 합주를 아이들도 항상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요.’ 합주곡을 몇 개를 해놓으면은 ‘왜 선생님 이거는 오늘 안 해요?’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자기들이 자신 있는 거야...(C다1)

(3.2) 음악적 성장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면접조사에서 진술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음악적 성장 변화는 ①음악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으로 분석됨.
- 예년에 비해 직접 대면할 시간이 적었던 만큼,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응답한 음악 관련 아동들의 성장 변화는 계이름과 악보를 읽을 줄 알게 되는 부분과, 연주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함축되어 나타남.

- 그러나 단순히 아이들이 음악적 성장을 통해 기술적 기량 향상만을 성취했다고 해석되기 보다는 다른 범주, 예를 들어 개인적 성장이나 인적 상호작용 영향 등의 성장 변화와 동반하여 달라진 모습이 관찰된 경우가 다수 눈에 띈.
- 더불어 올해 관찰된 음악적 성장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 교육 이후에 관찰된 경우도 많아, 온라인 교육이 일면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처음에 신규가 너무 많다고, 감독님도 어찌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애네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끌고 가지...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옆에 줄 (소리) 나고 (악기를) 줌 했다고 하는데도 거의 초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줄만 (소리가) 난다는 게 놀라워요. 그리고 계이름을 얘기해주면 그 계이름을 찾는다. 그쵸, 선생님? 계이름을 찾아서 누른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 다행이다 시간이 그냥 가지는 않았구나... (B다4)

일단 악기를 처음 접하는 애들이 아 이게 무슨 악기구나 이건 또 무슨 악기구나 배울 수 있어서... <...> 애들이 플루트를 되게 좋아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악기를 되게 좋아하게 됐다고 원래 몰랐던 악기인데 여기 와서 배우면서 그 악기를 좋아하게 됐고... (A다4)

전 정말 놀랐던 게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저희가 악기를 이제 개개인으로 다 가지고 가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대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는 거 같아요. 쯤 그때 대면 수업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C다2)

(3.3) 인적 상호작용 영향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대상 면접조사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인적 상호관계와 관련한 관계적 역량이 향상된 것이 나타남. 아동들이 성장 변화한 관계적 역량의 주요 분석결과는 ①사회성 향상, ②교육강사와 유대감 형성으로 도출됨.
- 교육강사와 학습과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으로 그 의미가 관찰됨.

■ 사회성 향상

선생님이 계속 눈 마주치고 (그 애)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끝나고도 기분이 항상 좋은 거예요 자기 이제 위치가 자존감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친구들과하고 사회생활도 더 좋아진 게 눈에 띄게 보여요. (C다4)

뭐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음 그냥 자꾸만 옆에 전혀 말도 안하던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와서도 물어보고 <...> 이런 거를 보면은 사회성이 좀 더 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C다1)

■ 교육강사와 유대감 형성

나름 코로나가 악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더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온라인 수업이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D다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유대관계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거죠. (D다1)

관계 형성면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저랑 친밀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저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톡을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 생일, 그런 걸 안하던 애들이었는데 저한테 친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의 폭이나 아이들 대하는 것들이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B다4)

(3.4) 공공의 의미

- 면접조사에 참여한 교육강사와 음악감독들은 아동들이 공공의식이 향상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단체생활을 통해 협력과 협동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약기에 대해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진술되었음.

■ 공공의식 향상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왔냐면, 요즘 세대가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빠지는 게 보이는데 처음 왔을 때는 애들도 약간 이기적이고 그랬었지만, 오케스트라가 혼자 하는 연주가 아니고 같이 합주를 하고 있고 파트가 퍼스트 세컨 나뉘지만 거기서 또 여러 명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협동심도 많이 좋아지고 개인주의였던 애들도 약간 베풀고 친화력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밝아지고... (A라3)

저희 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주고, 새로 들어온 친구를 가르쳐주면서 유대감 이런 것도 길러진 것 같아요. (A라4)

(3.5) 사회경제적 혜택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면접조사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아동들이 보다 문화자본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련 역량으로 볼 수 있는 성장 변화에 대하여 응답하였음.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아동들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반적 역량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다보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에게서 음악이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미칠 긍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연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감, 성취감은 향후 성인이 된 후에 음악에 대한 좋은 감정과 기억으로 연계되어 삶의 유의미한 자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함.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문화 자본 형성으로 도출됨.

■ 문화 자본 형성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결코 오케스트라나 악기를 보면 그냥 절대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아이들이 연주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즐거움으로 되게 정서적으로 즐거운 행위라는 거... 아이들의 성장에 마중물이라고 해야될까요? 거름이라고 해야될까요? 이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B다4)

오프라인으로 할 때 (비브라토를) 조금 시키다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음악감독님이) 시키셔서 또 했더니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애한테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을 하면서 또 오프라인을 병행하니깐 살아 숨 쉬는 것 같다고 신규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탁월 상황도 어떡하든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잘 할 거라고 믿는 게 제 마음이고... (B다3)

오케스트라가 시간이 지나서 삶이 즐겁고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어쩌면 루틴처럼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괜찮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다... (A다1)

(4.1) 참여환경: 촉진요인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의 시각에서 아동들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①친구들과 교제, ②맛있는 간식, ③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도출됨.
- 설문조사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의 교육 인력이 갖고 있는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신념과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단원들이 기관에 올 때, 연주 외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성과 위주의 학습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교제, 그리고 지역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간식 메뉴 등, 아동들이 연주와 악기 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됨.

■ 친구들과 교제

일단 서로 대하는 것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자체가 자기 포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외동인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오면 재밌어해요 재밌어하고... (A다2)

아무래도 여기 오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교육이 맞다니까요. (A다1)

■ 맛있는 간식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간식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안 할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지난번에 토요일 날 지난 첫 수업 할 때 뭐였지? 그 아 치킨마운가? 뭔가 이거를 하나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학부형까지 난리가 난거야, 학부형 전화가 와서 이거 어디서 신청 어디서 주문했냐고 코디 선생님한테 근데 뭐 아이들한테 우선 또 제일 즐겁잖아요. 먹고 같이 하는게...(C다1)

꿈의 오케스트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 여기 와서 간식도 먹고, 악기도 하고, 딱지고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는... (A다2)

■ 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꿈오 10주년 연주회 <...> 참여하면서 조금 동력을 얻었고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첼로도 중학생 아이가 10주년에 참여를 했었고, <...> 준비도 문제없이 잘하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 상황이라 애들한테 목표를 줄 수가 없어요. 연주를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다보니 향상(음악회)도 잡게 됐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큰 동력이 되고... (B다1)

꿈의 오케스트라 2년차쯤에 감독님께서 좋은 계기로 저희 파트 애들이 라디오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라디오에 출연하게 된 게 정말 기억이 많이 남고... 연주를 통해서 (아이들이) 클라리넷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안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타고타고 내려오니까... (A다3)

(4.2) 참여환경: 장애요인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의 면접조사 결과, 본 사업의 지속적 참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으로 ①고학년/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과 ②통학거리와 차편이 지속적 참여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 기관의 운영 연차에 관계없이 아동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학업에 집중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치게 되면,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라 진급 시 타 도시로 진학하거나 기숙학교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기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모든 참여자의 접근성이나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통편이나 통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여 중단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토요일에 연습을 하는 경우나 실력이 좋은 장기출석 단원의 경우 주말 합주연습에만 참여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 다른 일

레로 취약계층의 보호자가 생업으로 인해 아동의 통학을 도와주지 못해 활동 중단을 결정 하면, 대안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던 경우도 자료 수집을 통해 나타남.

- 통학거리와 차편관련 문제는 한 번 거점기관이 정해지면 조정이 어려운 요인으로 드러남.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거점기관 선정 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학년/중학교 진학

...이사를 간 거죠. <...> 다른 구로 가서 참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작년에는 6학년까지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있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개가 기숙학교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신기한 것은 2,3주간을 노력을 했어요. 기숙학교에 있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가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에는 불가능한 거죠. (D다1)

시간적인 이런 게 제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고... (C다1)

■ 통학거리와 차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차량을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해요. 차량운행을 하는데 이제 차량의 운행 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 끝나고 바로 오면은 또 중학생들 태우려 못가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진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빠지고... (C다1)

(5)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 방안은 ①온라인 교육을 위한 방안, ②자립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 ③꿈의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신장을 위한 활동 필요로 도출됨.
-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한 이후, 미흡했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필요자원 지원에 대한 내용과 온라인 교수법 공유 등, 더 나은 비대면 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음.
- 자립의 과정에 대한 제언은 소속된 거점기관의 연차와 관계없이 제시되었는데, 지자체 담당자의 순환과 이로써 불안정한 자립 전략과 과정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구조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모아졌음. 자립과정을 보다 원활히 하고, 재원조성과 지역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얻기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지도를 신장시키고, 인식 개선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개별 사례로 일찍이 지역 주요인사 및 잠재적 후원자를 대상으로 재원조성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인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원조성 역량이 오케스트라 교육인력에게 필수 역량 요건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 온라인 교육을 위한 방안

아직은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버가 작아가지고 동영상상을 유튜브 링크로 걸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버가 좀 더 크고 아무래도 이제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서버도 좀 큰 걸 하겠죠? <...>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 강의를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음 지금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악보 편집이라든지 <...> 편곡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그런 거는 아예 이제 한꺼번에 각 거점별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나를 딱 정품을 (지원해주어야)... (C다1)

합주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대체영상들이 올라오더라구요. 그거는 사실은 영상콘텐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합주를 통한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와 꿈의 오케스트라와 연관된 사람들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D다1)

■ 자립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

2000년부터 자립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홀드만 해놓고 아무런 제안이 없는 상태라... <...> 근데 자립으로 가는 과정이 되게 막막해서 <...> 계속 그게 마음속으로는 있을거예요. ○○ 지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막연함, 진흥원에도 말을 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도 말해주는 게 없고 그러니까... (B다1)

처음에는 아무 부담이 없던 참여 군에서 쿨하게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 우리가 당장 안 내도 되네, 한 7년 있다가 내도 되네. 근데 이게 자립거점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우리 군처럼 아예 군에서 (전체)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이 오니... (군수가 바뀐다는거죠.) <...> 우리처럼 군 재정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잖아요. <...> 그런데 자립거점으로 갔다 이제 모든 걸 군에서 책임져야한다 그러면 군에서도 힘들다 그렇다보면 어디로 타격을 만나하면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니면 강사가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파트가 10개 파트 했다가 5개가 된단든지 그러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저희는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A다1)

■ 꿈의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신장을 위한 활동 필요

(꿈의 오케스트라에) 잘하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뭉쳐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연주를 하고 그 아이들 플러스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 잘하는 애들 살을 붙여서, 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일들을 팡팡팡 터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것을 계속 만들고, 미디어에 우리를 오픈하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직도 숨겨져 있거든요. 몰라요 사람들이 잘... <...> 이슈화가 안돼서 그래요 이슈화가 안돼서 나라에서도 관심이 없고 기업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 우리 홍보영상 보면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늘 허접한 사운드가 매번 들어가요. <...>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는 애들용 같은 이미지를 계속 덮어씌우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레인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잖아요. 그걸 염두에 뒀서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B다1)

2.8 참여관찰 분석 결과

- 2020년 참여관찰 자료 수집은 D기관(2년차)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총 3회의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음. D기관은 2019년 연구에서 격주로 방문하며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변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곳으로, 2020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현된 아동의 변화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기술하고자, 설계 단계에서 관찰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연구 과정에서 이를 실행함.
-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강좌가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대면 관찰을 진행하였음. 이후 상황이 완화되면서 대면 오케스트라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2회는 대면 관찰을 수행함.
- 바이올린 파트 연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차 관찰을 제외하고, 대면 관찰 수행 시 한 악기 파트당 20분 이상 머물며 연습 상황과 분위기를 최대한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했음. 관찰 일시와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V-58〉 참여 관찰 개요

시설	관찰일	주요 관찰 상황	관찰 시간
D기관	09.01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을 통해 시행된 바이올린 강습	17:50-19:00
	11.05	세컨 바이올린 파트연습	17:00-18:30
		첼로 파트연습	
		오보에 파트연습	
		퍼스트 바이올린 파트연습	
	11.10	클라리넷 파트연습	17:00-19:00
		플룻 파트연습	
		트럼펫 및 금관악기 파트연습	
		타악기 파트연습	

2.8.1 2019년(1차년도)과 2020년(2차년도) 참여관찰 결과 비교

- 종합적으로 2019년도 유사시기와 비교했을 때 2020년 참여 단원들은 인지 및 정서 발달, 음악적 성장과 상호작용의 영향 측면에서 모두 변화와 성장이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관찰 빈도 때문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COVID-19의 여파로 원격 강습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비대면 연습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020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2019년 ‘인지 및 정서 발달’,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에서 관찰되어왔던 특성에 기반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함.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인지 및 정서 발달 측면에서 2019년 관찰되었던 변화는 ①자발성과 적극성, ②향상된 집중력, ③자부심과 자신감, ④책임감과 협동심, ⑤인내심이었으나, 2020년 관찰 결과 자신감 증가가 도출됨.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2019년 관찰되었던 변화는 ①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 ②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 의지 ③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이었음. 2020년 관찰 결과 기존 단원들을 중심으로 악기 실력의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신입 단원들의 연주 실력은 지속되지 못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해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임.
-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 측면에서는 2019년 ①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②배려와 협동, ③유대감과 친밀감이 보고되었음. 2020년 관찰 결과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던 피어티칭이 미흡하다는 점이었으나 사회성이 증진된 모습이 드러남.
 - 단원 간 이루어지는 피어티칭의 경우 악기 연주의 수준과 관계없이 발현되지만, 개인별로 게이름을 익히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는 기초 교습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강사 의존도가 높아 다소 활발하지 못한 경향이 있음. 더불어 비대면 연습상황에서는 피어티칭이 구조적으로 발현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2019년과 2020년도 공통으로 발견된 촉진요인은 ①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②실수에 너그러운 편안한 분위기이며, ③친구들과 함께하기가 발견되었음.
- 2019년과 2020년도 공통으로 발견된 장애요인으로 ①협소한 연습공간, ②부족한 강사 인원이었음. 2020년 추가로 도출된 저해요인은 ③단원 간 연령대 격차, ④온라인 수업 콘텐츠 미흡 및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⑤긴 연습시간임.

〈표 IV-59〉 참여관찰 비교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
변화와 성장	개인적 성장	- 자신감 증가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
(교육 효과)	음악적 성장	- 악기 실력의 향상
	인적 상호작용	- 사회성 증진
참여환경	촉진요인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 실수에 너그러운 편안한 분위기 - 친구들과 함께하기
	장애요인	- 협소한 연습공간 - 부족한 강사 인원 - 단원 간 연령대 격차 - 온라인 수업 콘텐츠 미흡 및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 긴 연습시간

2.8.2 2020년 참여관찰 분석결과

(1) 개인적 성장

- 2019년 인지 및 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①자발성과 적극성, ②향상된 집중력, ③자부심과 자신감, ④책임감과 협동심 ⑤인내심이 관찰되었으나, 2020년 관찰에서는 이들의 향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특히 인내심과 자발성과 적극성 그리고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였음. 하지만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자신감이 2년차 아동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었음.

■ 자신감 증가

2년 차 아동으로 보이는 한 바이올린 단원이 연구자에게 “선생님 저 아리랑 할 수 있어요”하고 말을 건넨. 자신이 아리랑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연주 실력을 보여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으로 곡에 대한 선호와 자부심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20.11.05).

(2) 음악적 성장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숙련된 악기 연주 실력을 보유한 단원 몇몇은 쉬는 시간에 강사가 시키지 않아도 연주를 지속하는 모습이 발견됨. 다만 신입 단원들의 연주 실력의 향상은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상반기 관찰에서 연습하고 있던 바이올린 곡을 하반기 관찰에서도 연습하고 있었으며, 2019년 관찰 일지에서는 7월 초 오보에 파트 관찰에서 신규단원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된 바 있으나, 2020년엔 11월 오보에 파트 관찰에서 이제 막 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고됨.

■ 악기 실력의 향상

첼로 파트 연습 중에 가장 숙련된 연주 실력을 보유한 아동은 쉬는 시간에도 연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아무래도 연차가 흐르면서 실력이 늘고 연주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으로 생각됨(20.11.05).

이 주 전 관찰과 달리 아동들이 오보에 악기 소리를 내기 시작함(19.07.02).

(새로운 오보에 단원 강습 중) 11월 현재 소리를 간신히 내는 수준인데, 이전의 꿈오의 진행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의 속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보임(20.11.10).

‘자동차가 뽕뽕~’, 지난번 줌으로 관찰했을 때와 같은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두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실력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음(20.11.05).

(3) 인적상호작용

- 2019년 인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①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②배려와 협동, ③ 유대감과 친밀감이 관찰되었음. 2020년 관찰 결과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던 피어티칭이 미흡하다는 점이었으며, 배려와 협동은 관찰되지 않음. 이는 아동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보다는, 대부분 배려와 협동은 합주활동에서 드러나는데 올해 관찰엔 합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회성이 증진된 모습이 관찰됨.

■ 사회성 증진

“양상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옆 사람과 자기 소리를 같이 듣고 맞추는 거야”
“퍼스트는 항상 소리로 다른 악기를 이끌어줘야 하는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소리를 작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귀가 두 개야~ 그래 네 소리가 큰지 내 소리가 큰지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20.11.05).

자 여기서 오보에는 3박을 쉬어야해. 우리는 노래 끝나고 3박 동안 뭐하고 있을 거야?
라고 강사가 물음.
그러자 아동들은 “밖에 나가서 가위바위보 하고 놀 거예요”라며 강사와 친밀하게 농담을 주고받음(20.11.05).

(4.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2019년과 2020년도 공통으로 발견된 촉진요인은 다채로운 지도 방법의 하위 요소로 구분된 ①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②실수에 너그러운 편안한 분위기이며, 추가로 ③친구들과

함께하기가 관찰됨.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바이올린 파트연습: 아동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연령이 낮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단원을 강사 옆에 앉으며 “선생님이 ○○는 도와줄거야”라고 말하며, 아동의 활을 잡고 연습을 진행함. 강사가 아동들을 돌아가면서 지도하는데 정확한 현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바이올린 현에 손을 강사가 올리고 함께 연주하는 방법인 것 같음(20.11.05).

오보에 파트연습: 신규단원을 가르치며 “처음 호흡하고 후~~배에 힘줘(배 만짐) 여기 술~해주는 손가락이 잘 막아 줄 수 있도록”(아동의 손가락 위에 강사의 손가락을 포개서 자리와 느낌을 알려줌) 이후 아동이 강사가 알려준 대로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20.11.10).

타악기 파트연습: 즉흥 연주가 끝난 후 강사는 “○○이가 선생님이 봤을 땐 박자를 제일 잘 맞춘 거 같아~그래서 이 곡은 ○○이가 드럼을 연주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때? ○○이가 되게 많이 좋아진 거야~ 이 곡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해냈잖아~ 나는 너를 항상 관찰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모두 한 곡씩 드럼을 연주하는 거니까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라고 말함. 교육강사는 아동당 한 곡씩은 연주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하면서도 가장 어린 단원이 실력이 향상되어 해당 곡을 연주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이야기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1.10).

■ 실수에 너그러운 편안한 분위기

클라리넷 파트연습: 다 함께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시간
신임단원과 기존단원들 혹은 퍼스트와 세컨을 분리해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음.
”너네(세컨)은 아직 이 부분 못해도 돼~ 아직 이 부분까지만 연주해도 돼~“

함께 연주를 하는데 한 아동이 “빠-”소리르 내면서 연주가 튀자 강사가 “○○이만 한 번 해 볼게~”라고 말하며 왜 소리가 그렇게 나는지를 확인한 후 호흡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알려줌. 이후 “자~ 반복해서 세 번만 해보자” 힘들다고 계속 말하는 아동에게 “자~~두 번만 더하고 쉬자”라고 하며 격려함.

플룻 파트연습: ”○○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천천히 하자~“
트럼펫 파트연습: “○○아 걱정마~ 넌 어차피 천천히 할 거야”

■ 친구들과 함께하기

전반적으로 연주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강사가 한 단원을 지도할 때

다른 아동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대기하고 있는 단원들은 자발적으로 연습하기보다는 함께 노는 경우가 많음(20.11.10).

트럼펫 파트에서 두 곡 연주 후 바로 휴식을 취하는데 강사가 “아동들이 어려서 단기로 하고 계속 쉬워줘야 해요~”라고 말함. 이후 강사가 가장 어린 단원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아동들에겐 휴식시간이 주어짐. 이 시간 동안 아동들은 뛰놀거나, 다른 파트 연습을 구경하고 핸드폰을 게임을 함께하는 등 전반적으로 함께 활동을 함(20.11.10).

(4.2) 참여 환경: 장애요인

- 2019년과 2020년도 공통으로 발견된 장애요인으로는 ①협소한 공간과, ②수적으로 부족한 강사 인원이었음. 2020년 비대면 수업 진행 환경에서 관찰을 통해 추가로 도출된 저해요인은 ③온라인 수업 콘텐츠의 미흡 및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④긴 파트연습 시간임.
- 강사 인원의 경우, 첼로파트 관찰에서 두 명의 강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신규/기존 단원 아동을 연습시키고 있었는데, 다른 파트 연습보다 분위기가 차분하고 아동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한 파트에 강사가 한 명일 경우, 연습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저해요인으로 분류함.
- 비대면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던 1차 관찰에서 계속되는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과 소리의 끊김 현상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음.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교수법과 아동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미리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 다소 미흡했음.
- 1차 비대면 관찰 시 게이름을 익히고 있는 신규단원에게 PPT화면으로 현의 명칭과 게이름을 알려준 후, 한 명씩 돌아가며 소리를 내보는 형식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아직 연주가 미숙한 단계에서 정확한 음계를 가르쳐 줄 땐 선생님들이 현에 손을 같이 올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 이러한 지도방식을 실현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협소한 연습공간

오보에는 2층에서 따로 연습하기 때문에 소리가 겹치지 않아 아동들이 집중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분리된 공간이 아동들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20.11.05).

트럼펫 연습공간이 다른 파트연습 장소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함. 물리적으로 아동들이 강사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원들이 더욱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있음(20.11.05).

타악기 연습공간이 마음기록장 및 다른 아동들의 짐을 놓는 곳에서 위치함. 그로 인해 연습이 먼저 끝난 타 파트 아동들이 타악기 수업이 끝나기 전에 들어와서 수업의 맥을 끊고 방해가 되며 공간을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0.11.10).

■ 부족한 강사 인원

오보에 파트의 경우 확실히 강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이 적기 때문에 두 아동의 연주에서 누구의 박자가 안 맞고 어디가 문제인지, 누가 빨리 들어오는지 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아동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음(20.11.05).

클라리넷 세컨과 퍼스트가 같이 연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강사에게 지도를 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아동들이 다소 지루함을 느끼며 산만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20.11.10).

■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첼로 파트 연습 중 저학년 학생들이 다소 집중하기 힘들어 보임. 첼로에 계속 몸을 기대거나 발을 동동둥 구르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됨(20.11.05).

■ 온라인 수업 콘텐츠의 미흡 및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유튜브 영상 시청 <오늘의 작곡가 “베토벤”>
비대면 수업의 많은 시간을 유튜브 영상을 보는 데 할애하고 있음.
아동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존 제작된 콘텐츠를 이용해 강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줌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서 시청하다 보니 화질이 낮고 소리가 끊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때문에 아동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다소 산만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됨(20.09.01).

어느 정도 기초 수준을 벗어난 단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음계를 배우고 현의 정확한 자리를 잡는 연습을 할 때 온라인 운영은 힘들어 보임(20.09.01).

활동 초반에 아동이 정확한 운지법을 잘 알지 못하면 강사가 손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의 지도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줌의 경우 이를 할 수 없으므로 신규단원에게 강습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20.11.05).

클라리넷 파트연습: “소리가 이렇게 (강사가 직접 연주) 뽕~ 나와야 해~그러려면 혀를 여기에 대야지~” 아니면 소리가 (혀를 안내고 연주) 이런 식으로 나와~ 대면 수업의 이점은 이처럼 아동이 내는 음을 명확하게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후 올바른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임(20.11.10).

■ 긴 연습시간

트럼펫 연습 중 핸드폰을 하고 있는 단원을 본 강사가 “야~ 너 핸드폰 안꺼~? 핸드폰 하지마~”라고 말함. 아무래도 다른 활동과 합주 없이 파트 연습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들의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듦(20.11.10).

플룻 연습을 하던 한 아동이 눈을 비비며 피곤한 듯한 기색이 역력함.
강사에게 지속적으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연주를 지속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반복하고 있음(20.11.10).

2.9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결과

- 꿈의 오케스트라를 참여하며 단원들이 직접 참여일지를 쓰는 마음기록지 프로그램은 2년 차 거점기관 중 한 곳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활동으로, 관찰을 위해 기관을 방문한 첫 해인 2019년에 마음기록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
- 마음기록지는 단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들로 질적 연구에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연구를 설계하며 새로운 자료원 중 하나로 수집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단원의 마음기록지 작성활동은 2020년에 잠정 중단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작성된 단원의 마음기록지 8부를 해당 기관에서 전달받아 궤적조사(trajecory study)를 위한 기초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여 분석이 진행되었음.
- 마음기록지의 텍스트분석 과정은, 우선 기록지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추출하여 시계열적으로 나열한 후 시간 추이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 본 궤적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단원의 성장과 변화의 방향성을 주요하게 살펴보았음.
- 즉, 본 2020년 연구에서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text analysis)의 내용은 2020년이 아닌 2019년이 자료로서, 단원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되었음.

2.9.1 2019년 마음기록지의 특징

- 마음기록지는 해당기관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첫해부터 시작해서 결과 공유회로서의 연주회가 끝난 2019년 11월까지의 단원이 직접 작성한 짧은 문장, 낙서,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마음기록지 작성에 있어 각 회기마다 주어진 주제가 있었으나, 그림은 개인 아

동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순수하게 자발적 행동의 결과물이며, 수집한 일지 중 일부 아동만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관찰됨.

- 마음기록지 작성자의 성비는 남자 단원 4명, 여자 단원 4명이었으며, 평균나이는 11.7세로 집계됨. 해당 기관의 꿈의 오케스트라 1기로서 이들이 다루는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트럼본, 타악기로 파악되었음.
- 본 연구에 사용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8명의 마음기록지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첫째 4명의 일반가정 단원과 4명의 취약가정 단원이 직접 기술한 글을 통해 이들의 변화과정에 시작점을 간접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표 IV-60〉 마음기록지 작성자 부여 코드

지역	기관 분류	성별	코드	비고
D	2년차 거점기관	남	D라1	일반
		여	D라2	일반
		남	D라3	일반
		여	D라4	일반
		남	D라5	취약
		남	D라6	취약
		여	D라7	취약
		여	D라8	취약
계		8		

-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음기록지의 구성에 있어 각 기록은 해당 거점기관이 제시한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총 8명 단원의 기록지만이 분석에 반영되었다는 점, 분석된 마음기록지의 열람은 해당기관이 선별하여 보내준 단원의 노트 8권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과학적 엄중함이 타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밖에 없었음.
- 따라서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단원의 변화과정에 있어 이들의 초기 심리단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서만 사용되었음.

2.9.2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의 범주와 분석 의미

- 마음기록지 분석결과, 오케스트라 활동 첫째 경험을 통해 단원 스스로 발견한 자신들의 유의미한 변화는 음악적 성장과 공공의 의미, 그리고 사회경제적 혜택 3분야에서 드러났으며, 참여환경의 촉진요인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의미단위로 발견되었음.
- 음악적 성장에 대한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결과 ①악기 실력의 향상, ②악기에 대한 친밀

- 감과 애착 형성, ③음악지식의 향상, ④합주의 즐거움이 주요한 의미로 도출되었음.
- 공공의 의미와 사회경제적 혜택의 경우, 각각 한 개의 유의미한 분석단위가 도출되었음. 공공의 의미는 단원으로서의 소속감이, 사회경제적 혜택으로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향유가 발견되었음.
 - 첫째 참여한 단원들이 마음기록지에 기재한 내용 중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①친구들과 함께 하기,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④연주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출되었음. 대부분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관련된 문장은 회기 당 주어진 주제와 상관없는 아동 개인들의 낙서들로 매우 주요하고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함.
 - 단원들의 마음기록지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초기부터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나갔다는 점에 있어 자료로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발표 연주회 이전의 기록에는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몰입과 참여도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독특한 점은 면접조사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던 개인적 성장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음. 다만 이는 1년차 단원의 특징이 아닌, 마음기록지 활동 시 제시된 주제에 따라 드러난 결과로 파악됨.

〈표 IV-61〉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음악적 성장	- 악기실력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음악지식의 향상 - 합주의 즐거움
	공공의 의미	-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사회경제적 혜택	- 음악에 대한 애정과 향유
참여환경	촉진요인	- 친구들과 함께 하기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 발표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

(1) 음악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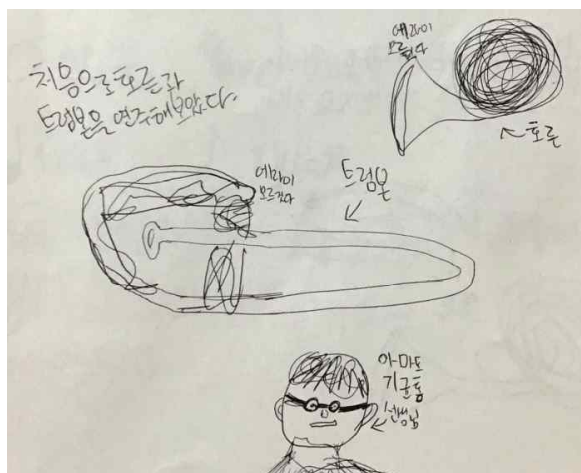
- 마음기록지에 텍스트분석에 따르면 1년차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은 ①악기 실력의 향상, ②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③음악지식의 향상, ④합주의 즐거움이 주요한 의미단위로 나타났음.
- 악기실력의 향상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신이 맡게 된 악기에 대한 신기함과 호기심이 중

심적으로 기술되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이 잘 안 되는 지점 또는 특정 음에 대한 고민 등이 관찰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단계는 악기를 처음 접하고 배워나가는데 있어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으로 보이며, 여전히 즐거워하거나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이 표현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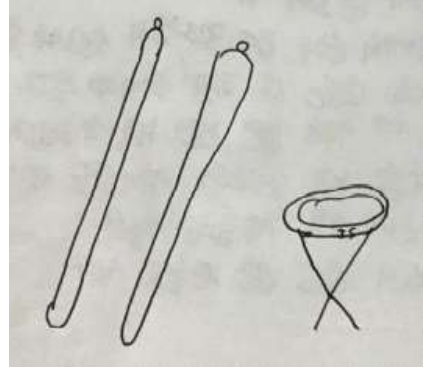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형성은 크게 초기에는 악기를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과 소리에 대한 반응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악기를 소중히 해야겠다는 다짐과 자신이 맡은 악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변화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음악지식의 향상은 초기에는 소리, 박자, 음 등에 대한 나름의 자신들의 해석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점차 표현하고 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 관찰되었음.
- 합주의 즐거움은 단원들이 처음 합주를 시작한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음. 이들은 첫 합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매우 소중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같이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등을 강조하여 기술한 것으로 관찰됨.

■ 악기실력의 향상

호른과 트럼본 같은 금관악기는 불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잘 불어져서 신기했다.
시도레미파를 연습해 보았다. 그런데 솔과 라는 잘 못하겠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D라6, 2019년 5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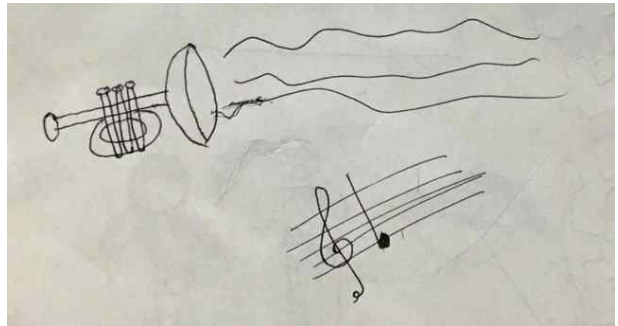
4박, 2박, 1박을 했다. 재미있었다.
지루하지도 않아서 재미있었다. 명탐전 코난 노래에 맞춰 쳐봤다.
재밌어서 시간이 참 빨리 갔다. (D라4, 2019년 6월 11일)



입이 마비된 것 같았다. 입 쪽이 너무 아팠다.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해야 해서 불편했다.
발로 박수를 치라고 해서 신기했다. (D라1, 2019년 6월 27일)

선생님이 악기를 조금 낮게 하고 불으라고 하셨다. 그러니 소리가 더 커졌다.
그리고 조율을 할 때에는 높은 시로 맞춘다고 했다.
여전히 입이 아팠다. 찌릿찌릿 (D라3, 2019년 9월 5일 목요일)

고음을 낼 때 입을 대각선으로 올려야한다. 원래 악보에 이음선이 있지 않는데,
이음선을 그려서 이어 붙렸다. 뭔가 익숙했다. (D라1,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뽕소리가 많이 났다. 시가 너무 어렵다.
높은 레, 도, 시가 잘 안 된다. 너무 어렵다. (D라2, 2019년 9월 24일)

꽤 어려웠다. 박자가 이상했다. 그래도 재밌었다.
나는 에텔바이스를 가장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리를 잘 내기 때문이다. (D라3, 2019년 10월 15일)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악기야 소중하게 다뤄줄게

악기는 참 고맙다. 박자는 고맙다. 내가 생각하는 박자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노래는 박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D라7, 2019년 4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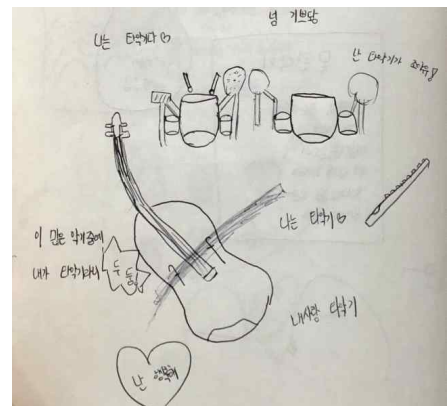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다. 노력해야겠다.
언젠가 바이올린으로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고 싶다. (D라2, 2019년 4월 30일)

소리는 아름답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
오늘 소리 탐정을 하면서 재미있었고 공연도 재미있었다.
트럼본 소리가 아름다웠고 뉴스에서 봤는데 트럼본 소리가 이상했고 그랬다.
(D라8, 2019년 5월 2일)

악기 만지는 날이었다. 그래서 악기 소리도 내봤는데 느낌이 진짜 난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정말 재미있었다. 정말 기분이 좋다.
악기를 소중히 해야 한다. (D라5, 2019년 5월 2일)

소리란 친구이다. 항상, 매일 소리를 들어서 친근하기 때문이다.
악기를 배운다면 비올라를 배우고 싶다. (D라3, 2019년 5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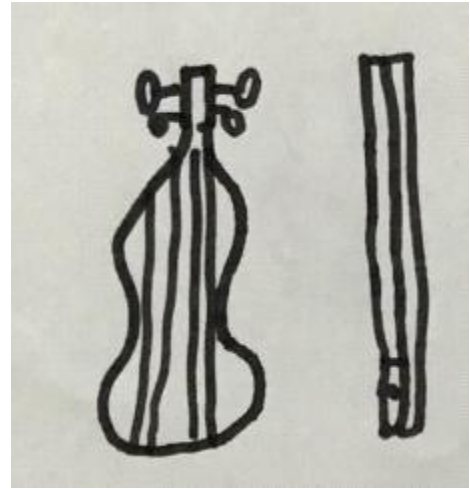
나는 타악기다♡ 넘 기쁘당 난 타악기가 조아유!
이 많은 악기 중에 내가 타악기라니 난 행복해 나는 타악기♡ 내사랑 타악기.
(D라4, 2019년 5월 21일)



입문교육을 마치며 내 몸을 더 소중하게 아끼게 되었고 악기가 내 몸과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악기가 되어 끝까지 열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D라7, 2019년 5월 23일)

입문교육을 마쳤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제대로 된 악기교육을 받으면 어떤 교육을 받을지 궁금하다. (D라8,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비올라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 다 필요 없어 비올라가 최고. (D라7, 2019년 6월 11일)



악기로 장난치면 안 돼. 이걸 깨끗하게 안 쓰면 나는 마음이 아파. (D라1, 2019년 6월 11일)

비올라가 점점 좋아지고 재밌어서 열심히 비올라를 연주할 것이다.
비올라를 멋있게 연주하는 것이 꿈이다. (D라7, 2019년 6월 18일)

■ 음악지식의 향상

내가 생각하는 박자는 음... 음악을 쉽게 들으려고 조개어 낸 거라고 생각해.
(D라8, 2019년 4월 18일)



악기 한 종류로도 여러 명이 하는 걸 보고 새롭게 느꼈다.
내가 생각하는 박자는 리듬이다. 음표 하나하나 리듬 치는 것. (D라4, 2019년 4월 18일)

소리란 끝없이 이어지는 점선이다.
왜냐하면 악기 소리가 조금씩 쉬고 이어지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D라1, 2019년 5월 7일)

내가 생각하는 오선지란?! 신비한 것이다.
왜냐 저기에 음표 중 무엇을 써도 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라2, 2019년 5월 9일)

내 악기는 ‘비올라’이다. 비올라 크기는 16cm이다. 비올라 최소 크기는 15cm이다. 비올라 활도 잡아보고, 연주도 해 봤다. 첫째 줄 게이름은 하. 둘째 줄은 레. 셋째 줄은 솔, 넷째 줄은 도이다. 게이름도 맞춰보고, 좋았다. 다음 주부터 악기가 온다하니 기대된다. (D라7, 2019년 5월 30일)

베토벤이 피아노를 그냥 재능으로만 잘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베토벤의 아빠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연습을 시켜서였다.
노력을 하면 뭐든 잘 될 거 같다. (D라6, 2019년 7월 2일)



나에게 음악이란 여러 감정이다.
왜냐하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게 음악이기 때문이다. (D라2, 2019년 7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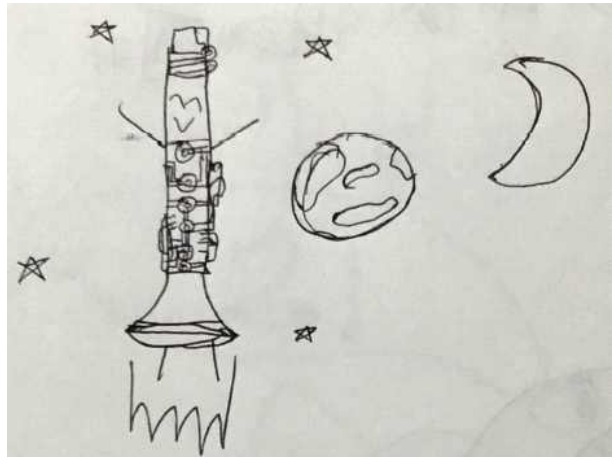
나는 ‘땅위의 기쁨’이 어렵다. 왜냐하면 박자를 외우기 어렵고,
피치카토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D라5, 2019년 10월 31일)

■ 합주의 즐거움

처음으로 모든 악기와 첫 합주를 해보았다. 타악기,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목관악기,
플룻, 클라리넷, 호른과 모여서 같이 합주를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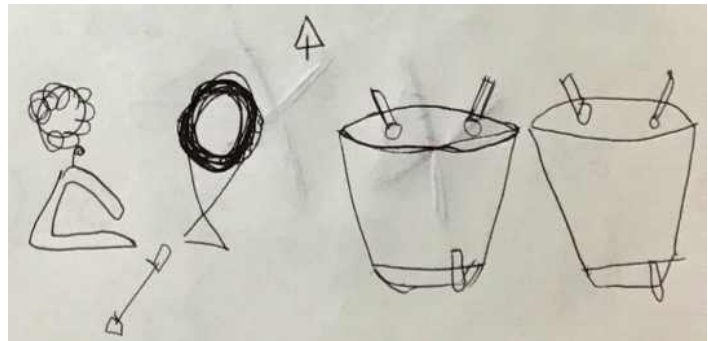
학교에서도 합주를 많이 해보고 3학년 때 학교 합주를 나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더 크게 해본 건 처음인 것 같다.

다음에 더 연습해서 오면 더 멋진 합주를 할 수 있을 거 같다.
(D라7, 2019년 6월 27일)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합주를 했다. 감독님이 지휘를 했다.
힘들었다. 그래도 좋았다. (D라1, 2019년 6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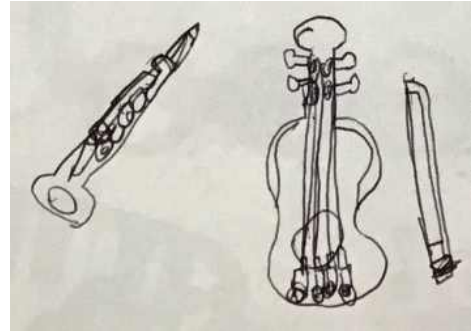
합주 첫날!! 두둥!!
팀파니와 스네어 드럼을 해봤다.
팀파니는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좋아서 하튼 좋았다.
그리고 스네어 드럼은 말만 해도 울려서 웃겼다. 모두 잘한 거 같았다.
하여튼 모두 모두 재밌었다. (D라4, 2019년 6월 27일)



나는 오늘 트럼본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합주를 했다.
하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그리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매일 웃기시다 (D라5, 2019년 7월 4일)

악보를 보고 함께 합주를 하니까 재밌었다.
그리고 나 혼자 탬버린을 쳐서 부끄러웠는데 재밌었다.

내가 특별해진 것 같았다. 오늘도 재밌었다. (D라8, 2019년 7월 25일)



오늘은 관악합주를 했다. 파트만 하다가 같이 하니깐 더 재밌었다.
삼과 제자리표가 헛갈린다. (D라3, 2019년 1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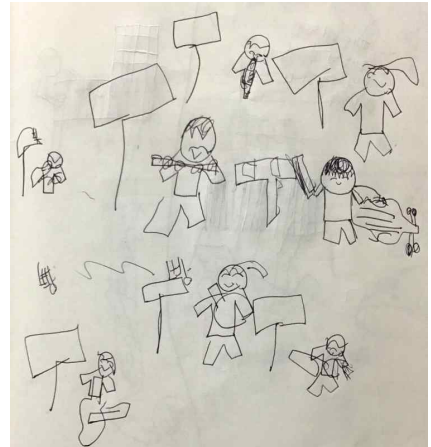
(2) 공공의 의미

-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에서는 공공의 의미와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이에 따른 자부심이 강조되었음. 이러한 단원으로서의 소속감은 특히 합주 시간을 통해 단원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드러남.

■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67명이 모여서 각자 악기를 가지고 하나의 소리로 연주를 하였다.
67명이 모인 것도 멋졌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니깐 더더욱 멋졌다.
팔이 아팠지만 재밌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멋지고, 하나의 소리로 연주하니 좋고, 너무 멋졌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D라7, 2019년 6월 27일)

모든 악기들과 모여서 박수로 쳤는데 살짝 안 맞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잘 맞히는데 좋았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마음이 잘 맞는다. 하나! (D라4, 2019년 7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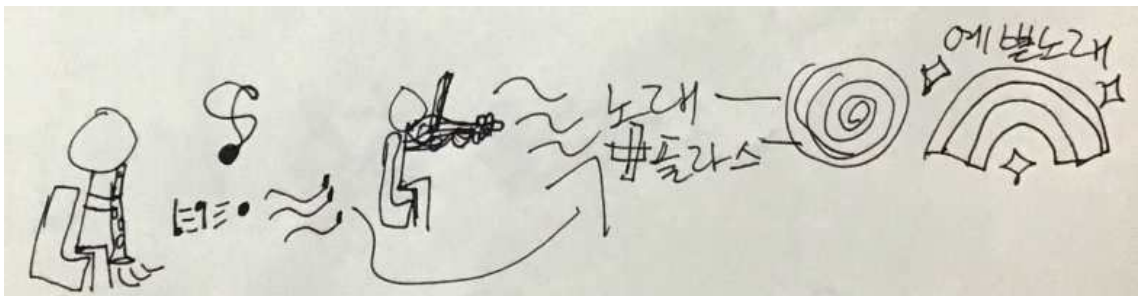
(3) 사회경제적 혜택

- 1년차 단원이 마음기록지에 기술한 사회경제적 혜택으로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향유가 발견되었음.
-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분석하기에는 대부분 7월에 집중된 기술이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이 첫 합주경험 이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기의 일상 안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발견되었음.

■ 음악에 대한 애정과 향유

나는 바이올린을 커서도 다른 직업이랑 연주하고 싶다.
(D라2, 2019년 6월 18일)

나에게 음악이란 소중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음악이 없으면 지루하고, 음악이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하기 때문에
음악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D라8, 2019년 7월 25일)



나에겐 음악이란 가족이다. 왜냐하면 내 곁에 항상 존재하고,
나와 매일을 같이 보내기 때문이다.
매일을 같이 보내는 음악은 행복이다. (D라7, 2019년 7월 25일)

(꿈의 오케스트라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다.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어서 행운이다. (D라5, 2019년 7월 25일)

(4) 참여환경의 촉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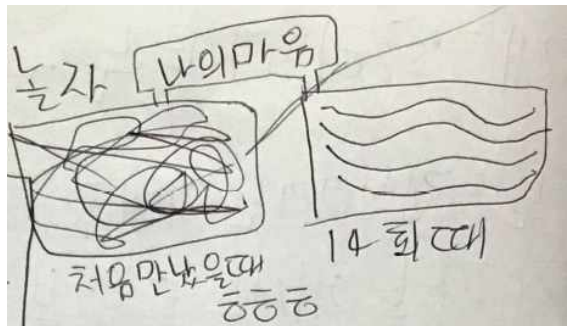
-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의 결과를 포함하여 면접조사 결과 가장 반복적이며 주요하게 언급된 참여환경의 촉진 요인은 ①친구들과 함께 하기, ②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③교육장사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④연주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출되었음.
- 친구들과 함께 하기의 경우에는 초기 첫 만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음기록지 중간 중간에 친구들과 함께 장난친 것, 게임을 한 것, 싸운 것,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파편적으로 기록

되어 있었음. 초기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지고, 이를 통해 단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또한 알 수 있음.

- 맛있는 간식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축진요인임. 마음기록지를 기술하는데 있어 간식이 주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언급이 발견되었음.
- 교육강사의 애정과 관심에서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단원들이 교육강사의 칭찬을 매우 중요하게 기억하고 이를 기록했다는 점이었음.
- 발표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도 마음기록지에는 표현되었는데, 설렘과 걱정스러움, 자기에 대한 격려와 다짐 등이 표현되어 있었음.

■ 친구들과 함께 하기

새로운 애들을 처음 만났을 땐 쑥스럽고, 부끄러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하게 다가가고 친해지니까 좋은 것 같았다. 처음엔 어색해도 같이 놀면서 지내니까 좋고 재밌었다. 몇몇 애들과 친해지고 같이 다니고 노니까 즐거웠다. 이렇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낸다 생각하니 좋았다. 앞으로 애들과 더 친해져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면 좋겠다. (D라3, 2019년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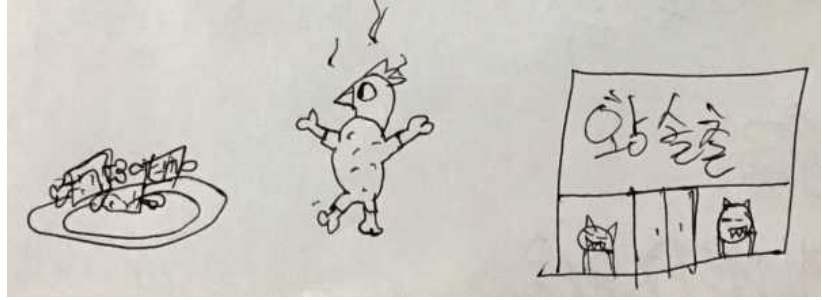


어색한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해보니 즐거웠고, 박자를 가지고 춤을 춘 적은 없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되어서 좋았다. (D라2, 2019년 4월 16일)

처음에는 매우매우 어색했다. 하지만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정말 재밌었다. 특히 박자로 춤을 만들어서 추는 게 제일 재밌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려웠지만 재밌었다. 다음에도 다시 올 거다. (D라1, 2019년 4월 16일)

■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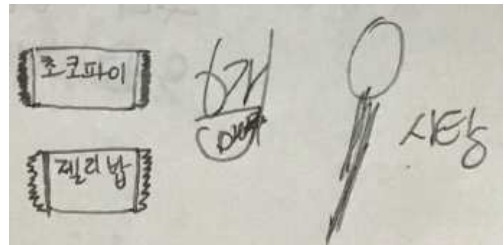
간식도 주셔서 너무 좋았다. 재미있게 다닐 거 같다.(D라6, 2019년 4월 9일)



그리고 오늘 간식으로 햄버거가 나와서 맛있었다. [...] 여러 사람과 친해졌다.
(D라5, 2019년 4월 18일)

오늘도 핫도그가 나왔는데 오늘은 치즈가 안 든 거였다. 그래도 맛있었다.
(D라3, 2019년 4월 25일)

재미있어서 빨라서 조금 쉬워서, 오늘은 간식이 좀 많고 특이했다.
(D라2, 2019년 4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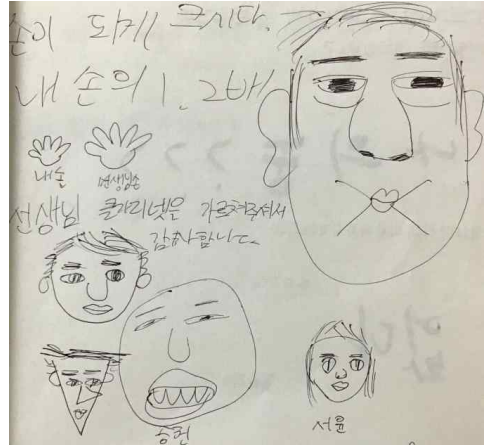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좋았다. 선생님께서 망고젤리 주셨다. 맛있었다.
(D라2, 2019년 6월 4일)

비올라 들 때는 팔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비올라 팀에 들어오길 잘 한 것 같다.
우리 팀에 수석이라서 힘들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힘든 걸 알려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격려
해주셔서 좋다. 비올라가 최고다. 비올라 선생님께서 착하시고 잘 해주셔서 좋당!
(D라7, 2019년 6월 13일)

선생님이 정말로 좋다. 목소리도 좋다.
우리한테 칭찬 많이 해주신다. (D라8, 2019년 10월 17일)



■ 발표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

연주회를 앞두고~♡ 그냥 더 바라는 건 없다. 실수 안하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D라7, 2019년 11월 19일)

조금이라도 더 연습해서 멋진 연주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뿌듯할 거 같음. 공연 전은 긴장할 거 같음. (D라1, 2019년 11월 28일)

연주회를 앞두고 느낀 점. 무척 기대가 된다. 살짝 떨린다.
(D라8, 2019년 11월 28일)

2.10 이탈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례조사(negative case analysis)로 2020년 이탈 단원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활동을 통해 얻은 점과 아쉬운 점, 이탈사유 등을 인터뷰하여 다각화된 시각을 연구에 포함하였음.
- 질적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기법으로 구조적 확증(structural corroboration), 참조적 적절성(referential adequacy), 증가적 복제성(multiplicative replication),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장기간의 현장조사(prolonged engagement in the field), 삼각검증(triangulation-자료원, 연구방법, 연구자, 이론), 동료검토(peer debriefing/critical friend review), 부정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 감사추적(audit trail/expert audit review),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rich/thick description),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researcher reflectivity) 등이 여러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음.
- 이중 부정적 사례분석은 질적 연구의 신뢰성 확보기법 중 하나로 연구의 해석에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과 소수의 집단이지만 유의미한 예외적 사례를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함.

2.10.1 이탈 단원의 면접조사 개요와 이탈 사유

- 이탈 단원은 총 6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패널조사를 위한 모바일 설문 시 인터뷰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음. 인터뷰는 2020년 11월 28일 연구자 두 명이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모두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음.
- 이탈 단원의 평균 나이는 13.5세로 1~2학년 중학생이 3명, 5~6학년 초등학생이 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남녀의 비율은 5:5였음. 이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기간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조사되었음.

〈표 IV-62〉 이탈단원 면접조사 참여자 부여 코드와 이탈사유

구분	거점기관	성별	코드	설문지 기재 이탈사유
이탈 단원	A	여	다1	나가지 않은 진도 / 흥미 떨어짐
	A	여	다2	중학교 진학과 학원 출석
	C	남	다3	중학교 진학과 학원 출석
	C	여	다4	불편한 교통수단 / 먼 거리
	C	남	다5	타 지역으로 이사
	B	남	다6	중학교 진학과 학원 출석
소계			6	

- 이탈 단원과의 면접 시, 기존 단원의 면접질문을 사용하였으나 이들의 환경적 요소와 지속적인 참여에 있어 느꼈던 장애요인 또는 불편함, 제언, 그리고 이탈의 이유 등을 좀 더 섬세하게 질문하였음.
- 추가적으로 전화 인터뷰 전 설문지에 기재된 보호자가 기재한 단원의 이탈사유를 미리 확인한 후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재확인하는 질문을 피하고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질문하였음. 설문에 기재된 이탈사유는 중학교 진학과 학원으로 인한 시간내기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원거리에 의한 불편한 교통수단,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진도로 인한 흥미 감소, 타 지역으로의 이사가 확인되었음.
- 자료수집 과정과 면접일시 조율을 위해 이탈 단원의 부모님에게 우선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참여의사를 다시 확인하였음. 또한 연구참여자 모집 시 연구목적과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공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을 참여자 편의에 맞춘 후 동의서를 사전에 득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2.10.2 이탈 단원의 면접조사의 분석된 의미

- 이탈 단원의 초기 오케스트라 참여 심리를 알기 위해 물었던 입단 동기는 두 가지로, ①악기에 대한 관심과 ②부모님의 권유였음. 이는 2019년 연구에서 도출한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단원들의 동기와의 일치함.
- 이탈 단원 또한 자신들의 변화와 성장을 주로 언급하였는데, 이중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특히 음악적 성장을 강조하였음.
- 개인적 성장의 경우에는 음악을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으로 인내심의 향상을 언급하였으나, 이 외에 다른 유의미한 분석 단위는 발견되지 않았음.
- 이탈 단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음악적 성장의 경우는 ①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②음악 지식의 향상, ③합주의 즐거움이 유의미한 분석 단위로 도출되었음.
- 사회경제적 혜택 또한 이탈 아동에게 있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범주로, 꿈의 오케스트라는 ①소중한 추억 제공, ②일상이 되는 음악활동, ③지역애착심을 갖게 해주었음을 진술하였음.
-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들에게 미친 중요한 촉진요인 또한 기존 단원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들이 말한 중요한 촉진요인은 ①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②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③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그리고 ④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으로 꼽혔음.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기존 단원과 일부 일치하는 점도 있었으나, 기존 단원과의 면접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유의미한 단위의 증언들이 반복적으로 수집되었음. 일치하는 장애요인은 불편한 교통수단과 지리적 거리였으며, 기존 단원과의 인터뷰에 발견되지 않았던 분석된 의미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었음. 특히 이들은 기존 단원들이 친해진 이후 상대적으로 고학년인 4~6학년에 사이에 신입단원으로 입단한 케이스로, 실제 또래들은 이미 서로 친해진 후였기에 더욱 이러한 갈등이 컸던 것으로 사료됨. 더하여 또래 외에도 교육강사의 부당한 꾸짖음이 보고되기도 하였음.
- 이들의 직접적인 이탈 사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됨.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으로, 이는 ①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과 ②타 지역으로의 이사로 나타남. 두 번째는 꿈의 오케스트라 내부에서 발생한 요인으로, ①제자리걸음 진도와 원하지 않는 악기의 배정,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대신하여 ②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을 선택한 경우였음.
- 매 해 새로운 단원의 유입과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주회 구성 수준을 위해 매년 했던 곡들만 반복하는 점에 대한 문제는 기존 5년차 단원들에게도 주요하게 언급된 사항이었음. 따라서 제자리걸음 진도나 하향평준화와 같은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 모든 이탈 단원들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언급한 장애요인과 이탈사유를 통해 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IV-63〉 이탈 단원 면접조사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분석된 의미
배경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	- 악기에 대한 관심 - 부모님의 권유
변화와 성장 (교육효과)	개인적 성장	- 인내심의 향상
	음악적 성장	- 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 음악지식의 향상 - 합주의 즐거움
	사회경제적 혜택	- 소중한 추억 제공 - 일상이 되는 음악활동 - 지역애착심
참여환경	촉진요인	- 맛있는 간식 - 교육강사의 적절한 지도 -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요인	- 불편한 교통수단과 지리적 거리 - 구성원 사이의 갈등
이탈사유	외부적 요인	-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 타 지역으로의 이사
	내부적 요인	- 제자리걸음 진도와 원하지 않는 악기의 배정 -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 선택

(1) 배경: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

- 이탈 단원의 입단 동기는 두 가지로 ①악기에 대한 관심과 ②부모님의 권유였음. 이는 이제까지의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에서 도출된 기존 단원들과의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악기에 대한 관심과 음악 애호

저는 원래 꿈의 오케스트라하기 전부터 플룻이라는 악기를 하고 있었고,
또 마침 플룻이라는 악기를 딱히 배울 곳이 없고 하다가 아는 악기로만 끝날 것 같아서...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플룻을 배우고 싶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고 지원하게 됐어요. (다2)

첼로가 어떻게 치는지 궁금해서 하게 됐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3)

■ 부모님의 권유

엄마가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요. (다1)

저는 이런 거 있는 지도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줘서. (다4)

(2) 개인적 성장

- 개인적 성장의 경우에는 음악을 알아가며 자신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일종의 지혜로 인내심의 향상을 언급하였음.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유의미한 분석 단위는 발견되지 않았음. 이는 이탈리아동의 인터뷰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 것으로 추측됨.

■ 인내심의 향상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음에 따라서 약간 감정이 있잖아요. 베토벤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책 같은 거 읽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 예상을 해요. 어떤 감정으로 만들었을까. 그랬을 때 베토벤은 자기가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나도 뭔가 음악을 하면서 나도 조금만 참아보자. 음악은 나한테 즐거움을 줬으니까. 나도 뭔가 가만히 음악을 즐기지만 하지 않고
나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뭔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거 같아요. (다6)

제가 어 2학년 때부터 외모 때문에 다문화니까 놀림 받다보니까 [...] 그게 상처가 되고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라하면 바로바로 모라모라 하면서 이렇게 화를 자주 냈었는데, 오케스트라에서도 남자애들 외모나 그런 이유로 뭐라 했었는데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제가 인내심이 많아진 거 같았어요.. (다5)

(3) 음악적 성장

- 이탈 단원들이 가장 주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증언한 부분은 음악적 성장으로 ①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②음악지식의 향상, ③합주의 즐거움이 유의미한 분석 단위로 도출되었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2년차 단원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임.

■ 음악에 대한 관심 증가

평소에 저는 그렇게 클래식이나 그런 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주 듣는 용어가 아니고 또 그렇게 연주회나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좀 더 클래식이라던 지 여러 악기들 악보를 보고 이런 거. (다2)

■ 음악지식의 향상

당시 다닐 때는 행복 했어요 [...]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들도 좋아해서 학원도 다니고 방과 후도 악기 관련된 것만 했었는데요.
그때 까지만 해도 그것 말고도 악기가 더 있었다는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라는 걸로 인해서 나한테 많은 경험이 생긴 거 같아요. (다5)

■ 합주의 즐거움

제가 이거 꿈의 오케스트라를 처음 해 봤는데. 음,,,확실히 그냥 다 같이 맞춰 보는 거랑...
딱히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다1)

합주하는 게 재밌었어요.(다4)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니깐 더 연습도 잘 되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은 거 같아요.(다6)

(4) 사회경제적 혜택

- 사회경제적 혜택 또한 이탈 단원들이 주요하게 언급했던 상위범주 중 하나로, 꿈의 오케스트라는 이들에게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①소중한 추억 제공과 ②일상이 되는 음악 활동, ③지역애착심을 갖게 해주었다고 증언하였음.
- 기존 단원들에 비해 이탈 단원의 면접조사에서 사회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의미 단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도출된 이유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더 회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소중한 추억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수의 증언이긴 했으나 혼자 집에서 꾸준히 악기를 연습하며 음악활동을 해나가는 이탈 단원의 증언은, 이들 삶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여운을 남겼다고 판단됨.

■ 소중한 추억 제공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에게 어 되게 다가온 엄청난 행운이었다.
행운이라는 거는 행복 그리고 어 행복과 좋은 것들이 섞인 말이잖아요.
제가 꿈의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 자체를 딱 생각하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때가 기뻐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다5)

꿈의 오케스트라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추억이 그냥 흘러가는 추억이나 스쳐지나가는 추억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나중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말해줄 때 제일 먼저 기억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다3)

■ 일상이 되는 음악활동

(지금은) 집에서 클라리넷 불거나 피아노나 기타해요. 뭔가 속상한 게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거 있었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 멍~해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다5)

■ 지역에착심

제가 앞으로 살면서 여러 도시나 그런 나라들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일수도 있고 도시로 갈수도 있는데, OO지역 살았다 하면 떠오르는 게 꿈의 오케스트라가 떠오르고 첼로, 플루트 이렇게 [...] 오케스트라가 제 기억 속에 각인이 되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1)

(5.1) 참여환경: 촉진요인

- 이탈 단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들에게 미친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①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②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③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그리고 ④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으로 꼽혔음.
- 이는 기존의 단원들과의 면접조사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임. 다만 이탈 단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또는 교육강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 기존 단원들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발견되었음. 또한 실제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증언한 이탈 단원도 소수 존재하였음.

■ 맛있는 간식

중간에 간식도 있어서 간식도 맛있어요. (다4)

(제일 좋았던 것은) 간식 받았던 거요. 도시락이요. (다2)

간식을 주는데 6학년은 원래 좀 저학년 보다 더 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좀 똑같이 주는 게 너무 모자랐어요. (다6)

■ 교육강사의 적절한 지도

첼로 선생님이 잘 리드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도 꿈의 오케스트라 같이 첼로 하는 단원들도 같이 무난하게 같이 잘 하지 않았나 해서 선생님이 잘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1)

싫었던 건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습도 선생님이 리드를 잘 해주셨고,
우리에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레슨을 병행 해주셨고. (다4)

■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캠프 갔었던 거요. 캠프 때는 다 같이 자기도 하고 하루 종일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다1)

여름캠프 했었는데 그때부터 (좋아졌어요). 재밌어가지고. 저녁에 막 자는데 몰래 일어나서 막
하는 거 그런 거 [...] 그냥 얘기 하거나 뭐 그런 거 했는데. 마피아 하거나 뭐 그런 거. (다2)

■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연주회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연주 한 게 처음 해 봐서. (다3)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다른 오케스트라랑 음악 같이 공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
뭔가 다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니깐 이것저것 걱정도 되고, 어 되게 어 뭐라 할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저랑 동갑인 다른 오케스트라 애가 같이 도와주면서
되게 친하게 연주 같이하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기억에 되게 남았어요. (다5)

연주회 하는 거요. [...] 추억을 쌓아서요. (다6)

기억에 남았던 일은 공연한 게 기억이 남거든요. 물론 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합주를 하지만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 인생에서 처음 하는 공연이기도 하고 저에게 엄청 의미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다4)

(5.2) 참여환경: 장애요인

- 이탈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기존 단원과 일부 일치하는 점도 있었지만, 기존 단원과의 면접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유의미한 단위의 증언들이 반복적으로 수집되었음.
- 일치하는 장애요인은 불편한 교통수단과 지리적 거리였으며, 이는 매해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기도 함. 다만 이는 셔틀운행에 있어서나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여 불리한 입지를 가진 거점기관의 단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장애요인으로, 모든 거점기관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기존 단원과의 인터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탈 단원만이 증언한 주요한 분석단위로 구성된 의미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었음. 특히 이들은 기존 단원들이 친해진 이후 상대적으로 고학년인 4~6학년에 사이에 신입단원으로 새롭게 입단한 케이스로, 이미 또래들은

- 서로 친해진 후였기에 더욱 이러한 갈등요소가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사료됨.
- 더하여 또래와의 갈등 외에도 교육강사에게 느낀 부당한 응대 또는 꾸지람이 소수이지만 보고되기도 하였음.

■ 불편한 교통수단과 먼 거리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힘들지는 않았는데...싫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빨리 출발해야 되고 또 집을 또 늦게 도착하고. (다2)

집에서 거기까지 조금 멀어서 버스 탈 때 약간 멀미가 났어요 [...]
한 30분 정도 더 넘게 탔었던 것 같아요. (다3)

다시 가기도 힘들고,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항상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시간 들고
해가지고. 또 멀미나고 그래서 별로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다4)

■ 구성원 사이의 갈등

누명을 당했어요. 어느 여자애가 있었는데 첼로 활을 자기가 부서 놓고 저한테 부서 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 CCTV 돌려 봤어요. (다4)

그냥 아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다 저보다 옛날부터 먼저 왔고 해서
끼리끼리 다니다 보니까 제가 낄 수가 없었어요. (다2)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해서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바꾸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5)

선생님들이 다른 친구들을 더 오래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유 같은 걸로 저를 의심하고
그러면서 저만 더 혼내고 같은 잘못을 했을 때도. (다6)

(6.1) 이탈사유: 외부적 요인

- 이들의 직접적인 이탈 사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됨.
- 꿈의 오케스트라와 전혀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①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과 ②타 지역으로의 이사로 요약됨.
- 실제 초등학교 졸업 후 학업에 대한 압박과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그만두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왔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이탈 사유로 관찰됨.

■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저가 6학년이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중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중학생 되면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고 있었고. 또 이제 중학교를 가면 더 시간이 없고 해서 더 빠듯할 것 같아서 저도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1)

(학교 다니면서) 오케스트라가 너무 늦게 끝나서요. (다3)

6학년 때 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늦게 마치고 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다6)

■ 타 지역으로의 이사

정말 많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사 온 곳이 시골 쪽 이어서 도시 쪽 가려면 엄마가 맨날 데려다주거나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다5)

(6.2) 이탈사유: 내부적 요인

- 중학교 진학이나 이사와 같은 외부적 용인이 아닌, 꿈의 오케스트라 내부 상황에 기인하여 단원이 그만 둔 사유는 두 가지로 분석되었음.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온 ①제자리걸음 진도와 원하지 않는 악기의 배정,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대신하여 ②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을 선택한 경우였음.
- 꿈의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상의 제약도 있었으나, 교통수단의 불편함 때문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나가지 않는 진도와 원하지 않는 악기 배정

1년이 되고, 2년이 됐을 때는 1년차 들어오는 새로운 아이들과 똑 같은 수준으로 계속 연습과 수준이 되면 안 되는 데요. 1년차, 2년차, 3년차 실력이 달라져야 되는데 [...] 상반기 하반기 공연을 위해서 예를 들으면 3곡 5곡 그거만 연주하는 거죠! (다1)

옛날부터 금관악기 하고 싶었는데 이때 처음 갔을 땐 금관악기 없어가지고 타악기 한 거여서.(다3)

■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 선택

지금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다른 음악반을 해가지고 학교 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가 더 재미있기도 하고 거긴 너무 멀어서요. (다2)

V. 결론

1. 요약
2. 제언

V. 결론

1. 요약

1.1 양적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데이터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의 참여 효과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함.
- 1단계 아동 패널은 2016년 신규 단원으로 2020년까지 매년 패널 연구에 참여한 아동 44명으로 구성됨.
- 2단계 아동 패널은 2019년 신규 단원으로 2019년 사전조사(상반기), 2019년, 2020년 매년 패널 연구에 참여한 아동 195명으로 구성됨.
- 아동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는 2016년보다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연속된 연도와 비교에서는 이전 연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음악지식의 경우는 2020년 수준이 2017년보다도 유의하게 높아 참여 5년차(2020년) 수준이 참여 1년(2016년)과 참여 2년(2017년)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냄.
- 2단계 아동 패널의 음악지식은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 2020년에 연차별 유의한 상승세를 보임. 음악향유는 2019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 유의한 상승 이후 2020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음악태도는 2019년과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이후 2020년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함.

〈표 V-1〉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음악적 성장 분석 결과 요약

(5점 만점 기준)

측정 개념		'16	'17	'18	'19상	'19하	'20	F
1단계 패널	음악지식	3.21(0.56)	3.86(0.66)	4.11(0.62)	-	4.28(0.57)	4.18(0.63)	17.61***
	음악향유	3.47(0.60)	3.98(0.85)	4.13(0.75)	-	4.30(0.86)	4.02(0.90)	2.76*
	음악태도	3.35(0.56)	3.87(0.96)	4.16(0.81)	-	4.27(0.70)	4.09(0.87)	8.19***
2단계 패널	음악지식	-	-	-	3.17(0.99)	3.52(0.90)	3.68(0.86)	34.2***
	음악향유	-	-	-	3.93(0.78)	4.19(0.80)	4.20(0.80)	7.90***
	음악태도	-	-	-	3.95(0.84)	4.04(0.81)	4.14(0.75)	5.19**

*p<.05, **p<.01, ***p<.001.

- 아동의 개인 발달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건강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나타남. 또한 2단계 패널부터 추가적으로 평가 지표에 반영된 행동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 있어서도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1단계 아동 패널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의 시기별 변화는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수준은 연차별 비교에서 이전 년도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2020년까지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요인은 2019년에 2018년도보다 유의한 수준은 높아졌으나, 이는 음악적 수준 향상에 따른 부담과 음악적 권태와 관련한 오케스트라 활동 요인의 영향 이외에도, 1단계 패널 아동의 대부분이 중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른 학교 생활 변화와 학업 부담 증가와 같은 오케스트라 활동 이외 외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됨.
- 2단계 아동 패널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에 유의한 향상이 나타남. 또한 행동적 공격성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음. 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모두 2019년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세를 보임. 또한 2020년의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2020년의 2단계 패널의 건강과 언어적 공격성의 수준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행동적 공격성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상반기, 하반기보다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V-2〉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개인 발달 분석 결과 요약

측정 개념		'16	'17	'18	'19상	'19하	'20	F
1단계 패널	자존감	3.44(0.64)	4.02(0.62)	4.08(0.77)	-	4.29(0.82)	4.01(0.81)	3.37**
	의사소통능력	3.45(0.67)	4.11(0.64)	4.21(0.69)	-	4.28(0.71)	4.04(0.69)	6.64***
	미래전망	3.44(0.55)	4.11(0.87)	4.14(0.69)	-	4.27(0.72)	4.01(0.88)	5.42***
	건강	2.01(0.91)	2.13(0.97)	2.21(0.97)	-	2.53(1.06)	2.26(0.89)	2.78*
2단계 패널	자존감	-	-	-	3.83(0.81)	3.87(0.86)	4.21(0.74)	17.12***
	의사소통능력	-	-	-	3.82(0.78)	3.79(0.73)	4.04(0.70)	10.54***
	미래전망	-	-	-	3.96(0.79)	3.88(0.85)	4.23(0.66)	22.10***
	건강	-	-	-	1.97(0.94)	2.13(0.97)	1.98(0.89)	3.79*
	행동적공격성	-	-	-	2.55(1.07)	2.64(1.14)	2.35(1.00)	6.54***
	언어적공격성	-	-	-	1.72(0.79)	1.90(0.95)	1.64(0.70)	8.17***

*p<.05, **p<.01, ***p<.001.

- 아동의 인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협동의 팔로워십과 갈등문제해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협동의 집단축진은 1단계 패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타인수용도는 2016년보다 2017년에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2020년의 타인수용도는 2016년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2017년과 2018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2020년의 타인수용도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1년차인 2016년보다는 향상되었고, 2017년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됨. 타인배려, 협동의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시기별 변화는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수준은 연차별 비교에서 이전 년도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2020년까지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단계 아동 패널의 타인 수용도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에 비해 2020년에 한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성장세를 보임. 협동의 팔로워십은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와 참여 1년차인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참여 2년차인 2020년 유의하게 향상함. 협동의 갈등문제 해결 능력은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참여 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함.

〈표 V-3〉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인적 관계 분석 결과 요약

측정 개념		'16	'17	'18	'19상	'19하	'20	F
1단계 패널	타인수용도	3.40(0.64)	3.92(0.82)	4.21(0.73)	-	4.34(0.68)	3.93(0.91)	6.71***
	타인배려	3.28(0.54)	3.89(0.80)	4.12(0.64)	-	4.29(0.64)	3.98(0.75)	8.60***
	협동(집단축진)	3.19(0.58)	3.95(0.76)	4.10(0.76)	-	4.10(0.78)	3.92(0.86)	7.44***
	협동(팔로워십)	3.40(0.66)	4.00(0.78)	4.27(0.72)	-	4.26(0.74)	4.11(0.73)	4.68***
	협동 (갈등문제해결)	3.23(0.70)	4.00(0.77)	4.18(0.70)	-	4.12(0.86)	3.98(0.77)	7.46***
2단계 패널	타인수용도	-	-	-	3.84(0.84)	3.92(0.93)	4.02(0.79)	2.53 [†]
	협동(팔로워십)	-	-	-	3.75(0.82)	3.75(0.85)	4.14(0.71)	21.84***
	협동 (갈등문제해결)	-	-	-	3.74(0.88)	3.84(0.93)	3.93(0.81)	3.48 [†]

*p<.05, ***p<.001, [†]p<.1.

-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관련 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 아동 패널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속감/유대감은 1단계 패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됨.
- 1단계 아동 패널의 소속감/유대감과 사회자본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고, 2018~2020년은 이전 연도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재화되어 성장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속감/유대감의 2020년 수준은 2017년과 2018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사회자본은 2020년은 2019년과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2018년보다는 유의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적 신뢰,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이고,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러나 2020년의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여 1년차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됨.

- 2단계 아동 패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상반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에는 유의한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감소한 2020년의 수준은 2019년 상반기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남.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하였고, 2020년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음. 사회자본은 2019년 상반기보다 2019년 하반기에는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에도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함.

〈표 V-4〉 양적 연구 아동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분석 결과 요약

측정 개념		'16	'17	'18	'19상	'19하	'20	F
1단계 패널	사회적 신뢰	3.29(0.61)	3.74(0.77)	3.86(0.90)	-	3.50(0.83)	3.20(0.70)	4.73***
	소속감/유대감	3.50(0.64)	3.93(0.77)	4.08(0.77)	-	3.72(0.74)	3.57(0.74)	3.34**
	공동체 참여행동	3.24(0.66)	3.63(0.94)	3.53(0.97)	-	3.53(0.94)	3.39(0.79)	2.49*
	사회자본	3.47(0.67)	4.05(0.87)	4.31(0.75)	-	3.93(0.97)	3.76(1.03)	4.00***
2단계 패널	사회적 신뢰	-	-	-	3.79(0.84)	4.09(0.93)	3.95(0.77)	7.40***
	공동체 참여행동	-	-	-	3.35(0.85)	3.59(0.86)	3.57(0.77)	7.52***
	사회자본	-	-	-	3.81(1.02)	3.99(0.91)	4.24(0.72)	19.52***

*p<.05, **p<.01, ***p<.001.

- 1단계 패널 아동과 2단계 패널 아동 효과성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의미 있는 성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검증됨. 특히 참여 1년 이후부터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었던 1단계 패널과 달리 참여 이전 사전 조사를 통해 변화의 기저점(baseline)의 데이터를 구축한 2단계 패널 데이터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참여 이전보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하였음을 규명할 수 있었음.
-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간 집단 간 효과성의 변화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참여 1년~3년차인 2016년~2019년에는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

회경제적 혜택 영역에 걸쳐 취약계층보다 일반계층의 평균 수준이 높으나, 4년차 이후에는 집단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 2020년도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와 사회자본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자부심, 오케스트라 참여 적극성, 음악적 권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공연활동의 성취감,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의 타 음악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 부모, 동료, 교육강사 지지가 효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됨.
- 보호자 패널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 보호자 패널에서는 평가 시기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의 수준이 다른 차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2단계 보호자 패널의 경우는 평가 시기에 따라 가족 응집력, 돌봄비용,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검증됨.
- 아동의 음악적 지식, 연주 역량, 협동심에 대한 교육 강사의 평가 결과, 1단계 패널 아동과 2단계 패널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에서 평가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성장 추세를 나타냄. 또한 교육강사 자신의 관점의 평가 결과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로 지역사회 예술활동의 기회가 되었다는 인식이 평가 시기에 따라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1.2. 질적 연구 결과요약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질적 연구는 총 3가지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음. 현재 활동 중인 단원들을 중심으로 보호자,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의 초점집단면접조사(n=60), 참여관찰(총 3차),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8개의 노트)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이탈아동의 개인면접조사(n=6)로 부정적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음.
- 질적 연구에 참여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함.
- 개인적 성장의 경우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공통적으로 단원의 자신감 향상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음. 단원과 보호자는 공통적으로 인내심 증진에 주목하였으나, 이후 연구참여자 그룹 별로 각각 주요하게 보고한 단원들의 개인적 성장의 결은 조금씩 다름. 단원들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과 성격의 변화에 주목한 행복함과 즐거움, 좋은 습관, 밝아진 성격, 독립심 증진을 주요한 변화로 보았음. 보호자의 경우 유사하긴 하나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 책임감 신장, 자발적 학습 태도로 의미단위가 분석되었음.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단원들의 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적극적 태도 발현을 보았으며, 행정담당자는 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수업적응과 자율성을 단원들의 주요한 변화로 보았음.
- 음악적 성장의 경우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모두 단원의 악기 실

력의 향상을 주요한 변화로 보고 있음이 분석되었음. 행정담당자를 제외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이에 더해 공통적으로 음악적 지식향상에 주목하였으며, 단원과 보호자는 추가적으로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음악에 대한 관심을 주요한 단원의 변화로 보았음. 특징적인 것은 어른들은 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지식과 기술로만 봤다면, 단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다채롭게 풀이하고 있었는데, 이는 악기에 대한 애착 형성, 합주의 즐거움, 예술의 내재화로 도출되었음.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합주의 즐거움을 음악적 장으로 보지 않고 오케스트라 단원활동의 촉진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점의 차이를 드러냄.

- 인적 상호작용으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 모두 단원의 사회성 증진과 친화력 및 유대감 증진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음. 다만 단원들만이 추가적으로 자신의 인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해 가족 간 음악적 교감과 단원 간 피어터칭을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공공의 의미는 단원과 행정담당자 간 일치하는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공공의식 함양이었음. 보호자와 교육강사를 포함한 음악감독의 경우, 공공의 의미로서 해석가능한 단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단위가 도출되지 않았음. 다만 단원들의 경우는 공공의식 함양을 포함하여 오케스트라 내 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증언함으로써 이들의 고동체적 성숙과 발전과정을 의미화하였음.
- 사회경제적 혜택은 4개 연구참여자 그룹 간 단 하나의 의미단위도 공유되지 않은 독특한 특성을 보임. 단원의 경우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일상화, 편안해지는 쉼터, 자기 주변인의 클래식에 대한 관심 증대를 들었다면, 보호자는 음악교육의 경제적 부담 감소,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단원들의 주요 사회경제적 혜택에 속하는 변화로 보았음. 이에 반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단원들의 문화자본 형성을,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주요한 의미단위로 도출되었음.
- 오케스트라 활동에 있어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모든 연구참여자 그룹이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공통적으로 꼽았음. 단원과 보호자는 추가적인 공통된 요인으로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와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을 증언한 반면,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합주의 즐거움이 이들 단원의 참여촉진 요인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됨.
-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모든 연구참여자 그룹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요인은 불편한 교통수단이었음. 단원과 학부모의 일치한 의견은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었으며, 단원과 행정담당자와 코디의 공통된 의견은 악기 흥미의 감소였음. 단원들의 경우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실수의 두려움, 자유시간의 제약, 단원 간 연령대 격차가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과 코디네이터의 유사한 의견이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은 단원과 어른들 간의 관점의 격차를 재차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의견 또한 각 연구참여자 그룹 별로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음. 유일하게 보호자와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홍보였음. 단원의 경우는 교통수단 개선, 연습악기 지원, 연습공간 개선, 휴식시간 증대, 간식메뉴의 다양화, 오케스트라단 내 악기의 종류 확대,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으로 분석되었음. 보호자의 경우는 비대면 수업이 아닌 소규모 대면교육으로의 전환, 현장학습 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내용 개선이 도출되었음.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홍보 외에 온라인 교육 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 오케스트라 자립의 구조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거점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노력, 오케스트라 자립 준비과정의 개선,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킹 지원이 현재 시급한 개선 방안으로 분석되었음.
- 종합적으로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사이에 유일하게 일치하는 단원의 변화는 자신감 증가(행정담당자 제외), 악기실력의 향상, 사회성 증진, 친화력 및 유대감 증진으로 축약됨. 다만 각 연구참여자 그룹별 도출된 의미단위가 단원들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 그룹은 보호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통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돕는 촉진요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하기, 장애요인으로 불편한 교통수단이 있었으며, 대안 및 개선 방안은 단원은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에 집중하여 증언하였다면, 보호자는 다양한 체험확대를,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는 오케스트라의 자립과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여 증언한 것으로 분석됨.

〈표 V-5〉 질적 연구 종합 분석결과: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범주	분석된 의미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개인적 성장	자신감 향상			-
	인내심 증진		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적극적 태도 발현	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수업적응과 자율성
	행복감과 즐거움 좋은 습관 밝아진 성격 독립심 증진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 책임감 신장 자발적 학습 태도		
음악적 성장	악기 실력의 향상			-
	음악적 지식 향상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음악에 대한 관심			
	악기에 대한 애착 형성 합주의 즐거움 예술의 내재화	-		
인적	사회성 증진			

범주	분석된 의미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행정담당자
상호작용	친화력 및 유대감 증진			
	가족 간 음악적 교감 단원 간 피어티칭	-	-	-
공공의 의미	공공의식 함양*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공동체의식 함양	-	-	공공의식 함양*
사회경제 적 혜택	오케스트라의 일상화 편안해지는 쉼터 주변인의 클래식 관심	음악교육 경제부담 감소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문화 자본 형성	지역 공동체로서 모임
촉진요인	친구들과 함께하기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합주의 재미와 즐거움	-
	강사의 관심과 애정 캠프: 특별한 추억	-	-	-
장애요인	불편한 교통수단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	악기 흥미 감소*
	실수의 두려움 자유시간의 제약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악기 흥미 감소*	-		
대안 및 개선 방안	교통수단 개선 연습악기 지원 연습공간 개선 휴식시간 증대 간식 메뉴의 다양화 악기의 종류 확대 수준별 맞춤형 학습	꿈의 오케스트라 홍보		진흥원의 교류 노력 자립 준비과정의 개선 코디네이터 네트워킹
		소규모 대면교육 현장학습 확대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 내용 개선	온라인 교육방안 강구 자립의 구조적 개선 행정적 지원	

(*: 단원과 행정담당자 간 공통의견)

2.2 단원에 대한 종합적 질적 연구 결과 요약

- 단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참여관찰, 이탈아동 개인면접(부정적 사례조사)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단원들은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적 상호작용,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주요한 변화들이 확장되는 것이 확인되었음.
- 개인적 성장에는 자신감 향상이 가장 주요하고 지속적인 변화로 분석되었으며, 오케스트라 경험의 축적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초기의 행복감과 즐거움에서 자신감을 기반으로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으로 내면적 성숙과 확장이 이어졌음. 이러한 패턴의 특징은 단원들의 면접, 참여관찰, 마음기록지 분석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났음.

- 음악적 성장에서도 다양하며 유의미한 의미단위들이 발견되었지만, 합주의 즐거움과 악기 실력 및 음악지식의 향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견고한 변화로 단원들은 인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향은 단원으로서 투여한 시간, 활동경험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탈 단원들에게도 주요하게 언급된 사항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에 핵심 기저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성장은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 약 3~4년차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매년 어린 신입단원들의 입단과 함께 연주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제자리걸음 진도, 그리고 이로 인한 지루함과 악기 실력의 정체가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적 상호작용,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도 자기 내부에서 점점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 나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의 의미 경우, 공공의식 함양으로 협동심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발전되어 갔으며 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서로 돕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마음임. 또한 이와 같은 변화가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더 주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원들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변화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 사회경제적 혜택의 경우 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일상에서의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쉼터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며 주변인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 유발로 점차 그 영향이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단원도 앞서 설명한 시간에 따라 확장되는 방향성과 특징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차이점은 변화 과정의 패턴에 있었음. 특히 음악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가정 단원들보다는 취약가정 단원들이 조금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달과정을 보였음. 이에 더하여 일반가정 단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성장을, 취약가정 단원들은 개인적 성장에 좀 더 주목하여 진술하는 차이를 보였음.
-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로는 입단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대면수업을 선호하였음. 그 이유는 고유한 즐거움(합주, 친구, 간식 등)이 배제된 오케스트라 활동, 온라인 수업의 한계, 그리고 기술적 문제와 장애 때문이었음.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시간 사용과 기술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경험을 꼽았음.

〈표 V-6〉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주요 변화

(★: 마음기록지 분석된 의미 | ☆: 이탈아동 분석된 의미 | ◎: 참여관찰)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공통의 분석된 의미	
		2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5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자신감 증가◎	
		행복감과 즐거움 좋은 습관	밝아진 성격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음악적 성장	합주의 즐거움★★ 악기 실력의 향상★◎ 음악지식의 향상★★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증가★	예술의 내재화
	인적상호 작용	사회성 증진 ◎ 친화력 증진 ◎	가족 구성원 간 음악적 교감 피어티칭: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공의 의미	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공공의식 함양
	사회경제적 혜택	편안해지는 쉼터	
		일상이 되는 오케스트라 활동	클래식에 대한 주변의 흥미 유발
비대면 교육	장점	효율적인 시간 사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
	단점	고유한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 기술적인 문제와 장애 ◎	
		-	방음문제로 인한 개인 연습의 어려움

- 단원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한 중요한 계기나 사건 (촉진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주회를 준비하며 느낀 즐거움과 도전, 친구와 함께 하는 간식시간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연주회와 간식은 참여관찰,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과 이탈아동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 요소들로, 이들의 활동에 의미를 더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상대적으로 어리고 경험치가 낮은 단원들에게는 교육강사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캠프가 무척 중요한 촉진 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음.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요하게 살펴볼 장애요인으로 앞서 언급한 연령과 악기실력의 편차로 인한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와 함께,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개선 방안으로는 공통적으로 교통수단의 개선,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간식메뉴의 다양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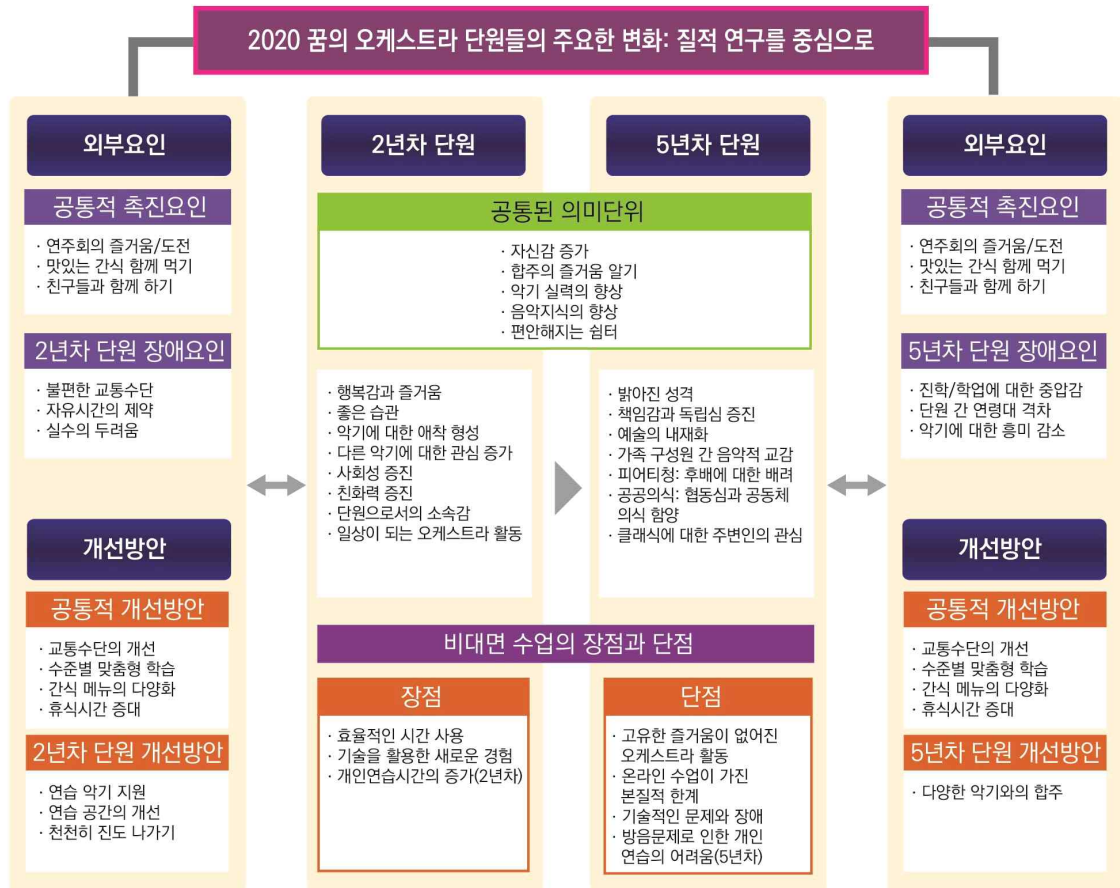
〈표 V-7〉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의 참여환경 변수와 개선 방안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공통의 분석된 의미	
		2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5년차 단원의 분석된 의미
참여 환경	촉진 요인	연주회의 즐거움과 도전★★ 맛있는 간식 함께 먹기★★ 친구들과 함께 하기★◎	
	장애 요인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캠프: 특별한 추억 쌓기★	-
제언	개선 방안	불편한 교통수단★ 자유시간의 제약 실수의 두려움	진학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 단원 간 연령대 격차◎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
		교통수단의 개선★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학습★ 간식 메뉴의 다양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증대	
		연습 악기 지원 연습 공간의 개선 ◎ 부담스럽지 않은 진도 나가기	다양한 악기와의 합주

(★: 마음기록지 분석된 의미 | ☆: 이탈아동 분석된 의미 | ◎: 참여관찰)

- 본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단원들의 성장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로, 가장 주요한 연구의 핵심은 단원들의 고유한 목소리와 의견이라고 사료됨. 단원의 면접조사 결과를 위의 표들과 해당 설명을 압축적인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V-1〉과 같음.

〈그림 V-1〉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회원들의 주요한 변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2.3 행정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요약

- 행정담당자 면접조사에는 기관에 따라 거점 운영기관의 행정담당자가 면접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특히 코디네이터의 임용 기간이 1년 안팎인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과 관찰 기간보다 긴 기관 소속 행정담당자와 함께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자료 수집의 효율성과 내용의 충실도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 행정담당자 대상 면접조사는 이들이 아동의 변화를 지각한 부분과 함께 사업운영 연차별로 상이하게 당면하게 되는 기관별 고민 지점과 주요 이슈,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에 대해 질문하였음.
- 주요 분석 항목은 사업참여 이유, 코로나19로 추가된 비대면 교육의 부정적 측면, 아동의 성장변화에 대한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참여촉진 및 장애요인,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참여 이유 항목에 대해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행정인력과 인터뷰 결과,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행정담당자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 ①단원들과의 유대감 형성, ②동료(음악감독, 교육강사, 행정담당자)의 인정과 격려, 협력관계, 그리고 ③단원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이라고 응답함.
- 2020년 사업 운영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환경이었음. 행정담당자들은 비대면 교육에 대하여 증언할 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 어려운 점, 한계 등 부정적인 측면을 진술했다는 것임. 이처럼 부정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원인으로 행정담당자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비대면 교육을 위한 행정적 준비과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분석 결과 주요 항목으로는 ①가정환경에 따른 편차와 ②학생들이 느끼는 지루함이 도출되었음.
- 2년차를 맞은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 협력적인 태도 향상을 언급하였음. 우선 개인적 성장의 경우에는 ①차분해진 행동과 태도, ②수업 적응과 진중해진 참여 태도, ③자율적 참여 태도가 가장 주요한 변화로 도출됨.
- 음악적 성장의 경우, 행정담당자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짧은 기간 동안의 합주를 관찰하거나, 선생님들의 반응을 통해 판단하고 있었음. 음악적 성장에서 관찰된 것은 ①악기실력의 향상인 것으로 분석됨.
- 인적상호작용 영향에 대해 도출된 분석내용은 ①친구, 선생님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공공의 의미에서는 단원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①협동심과 협력적인 태도 향상으로 요약되어 나타남. 주요한 사회경제적 역량에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①지역 공동체로서 모인 것이 언급됨.
- 행정담당자들이 관찰한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참여 촉진요인으로는 ①맛있는 간식과 ②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음.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학업에서 잠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진술이 소수 의견으로 진술됨.
- 장애요인으로는 학업과 ①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관련하여 ②이동 거리와 차편 문제, 그리고 ③아동의 흥미 저하가 함께 도출됨. 또한 일반가정인 경우 자녀가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의사와, 취약계층가정인 경우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단원의 안전문제로 인해 참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언급됨.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의 의사’가 주요 요인으로 주장되거나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행정담당자들이 제시한 대안 및 개선 방안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과 개입에 대한 수요 및 기대가 드러남. 무엇보다 지자체와 거점기관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

과 같은 ①진홍원의 적극적 교류 노력과, ②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을 제기하였음. 또한 ③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분석결과 도출되었음.

- 살펴보면 실상 ①진홍원의 적극적 교류 노력은 ②자립 준비과정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진홍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깔려 있음.

2.4 보호자 면접조사 결과 요약

- 보호자 면접조사는 배경, 비대면 교육, 아동의 변화와 성장, 참여환경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주요 분석 항목은 사업지원동기, 비대면 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아동의 성장변화에 대한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참여촉진 및 장애요인,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호자의 면접조사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한 동기로는 ①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②자녀의 정서적 안정, ③자녀의 악기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됨. 면접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평소 음악에 대한 관심이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 또는 본인의 학창 시절 음악교육 기회 결핍 등 보호자의 관심과 욕구가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오케스트라 교육은 보호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과 참여 아동들의 학습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이 구분되어 진술됨.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①개별 지도 효과, ②자녀의 학습태도 및 성장 관찰 기회, ③자녀 픽업으로 부터의 자유로 함축될 수 있음.
- 보호자의 관점에서 보는 비대면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①비효율적 학습효과, ②주거 공간이라는 환경 요인, ③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축약되어 나타났음. 무엇보다 단원들이 악기를 배울 때, 손 모양 교정과 같이 대면이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설명 전달 등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점을 지적한 보호자들이 많았음. 동시에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의 주거 환경에서 층간 소음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남.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은 인지와 정서 발달 측면에서 규명됨. 세부적으로 ①자신감 및 자존감 신장, ②책임감 신장, ③자발적 학습 태도, ④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⑤정서적 안정으로 요약되어 나타남.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 변화는 ①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②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③음악 및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 증가가 세부요인으로 도출됨. 비록 보호자들이 음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

거나 많은 성장 변화를 섬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의 칭찬을 통해,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는 상황에서 성장 변화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인적 상호작용에서 관계적 역량, 즉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2년차와 5년차 사업 참여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예년에 비해 인적 상호작용 영향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이 적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운영된 기간이 길었던 환경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사회경제적 효과 관점에서 본 사업 참여는 가족들에게 대화의 기회가 늘어가고, 가계 경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FGI 분석 결과 나타남. 클래식 음악과 같이 악기나 교육비용이 부담되는 음악장르의 교육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보호자들은 아동들의 ①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②가족 간 유대감이 강화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보호자 면접조사에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려는 주요 촉진 요인으로 ①친구들과의 교제, ②간식, ③연주 기회를 지목하였음. 반면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는 ①고학년/중학교 진급, ②통학 교통 문제로 나타났음.
- 보호자들은 아동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제언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꿈의 오케스트라의 주요 개선 방안으로 도출된 내용은 ①비대면 대신 소그룹 대면 강의로 대체 또는 병행, ②현장 학습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③사업에 대한 지역 홍보를 통한 지원의 기회 모색, ④연주 및 교육 내용 개선으로 요약됨.

2.5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면접조사 결과 요약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 면접조사도 배경, 비대면 교육, 아동의 변화와 성장, 참여환경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주요 분석 항목은 사업지원 동기, 비대면 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아동의 성장변화에 대한 개인적 성장,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참여촉진 및 장애요인,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의 면접조사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 ①단원들의 추억과 취미 형성과 ②단원들의 성장을 보며 느끼는 보람 때문인 것으로 요약됨.
-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오케스트라 교육은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에게도 새로운 시도와 경험의 기회였던 것으로 드러남. 공연장 현장의 음향이 중요한 음악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으나, 비대면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보다 가까워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법을 고민할 수 있었음.
- 다만 지역 환경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곳도 있어, 그러한 경우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가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결과 도출된 비대면 교육의 주요 긍정적 측면은 ①단원 대상 개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 ②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고민하면서 ③교육강사의 온라인 강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함축됨.
- 반면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무엇보다 교육 과정에서 ①직접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성과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②기술적 한계로 인해 음질이 좋지 않아 적합한 코칭이나 티칭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박자를 맞추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였음.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의 교육강사를 비롯하여 오케스트라 교육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대면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교육강사들의 시각이 ③아동들이 느끼는 지루함으로 도출되었음.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발견한 주요 변화는 악기실력 향상과 성취감을 통한 ①자신감 신장, 단체 생활과 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연습의 효과로 추정되는 ②행동과 태도의 성숙함,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학습과 연주에 있어 ③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면접조사에서 진술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음악적성장 변화는 ①음악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으로 분석됨.
- 또한 아동의 인적 상호관계와 관련한 관계적 역량이 향상된 것이 나타남. 아동들이 성장 변화한 관계적 역량의 주요 분석결과는 ①사회성 향상, ②교육강사와 유대감 형성으로 도출됨.
- 공공의 의미 범주에서는 단원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①협동심과 협력적인 태도 향상이 요약되어 나타남.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은 면접조사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아동들이 보다 문화자본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련 역량으로 볼 수 있는 성장 변화에 대하여 응답하였음. 이러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은 ①문화 자본 형성이 도출됨.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의 시각에서 아동들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①친구들과 교제, ②맛있는 간식, ③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도출됨. 반면 지속적 참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으로 ①고학년/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과 ②통학 거리와 차편이 지속적 참여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의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①온라인 교육을 위한 방안, ②자립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 ③꿈의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신장을 위한 활동 필요가 도출됨.

2.6 기관 참여관찰 결과 요약

- 2020년 참여 단위들은 인지 및 정서발달, 음악적 성장과 상호작용의 영향 측면에서 2019년 대비 모두 변화와 성장이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관찰 빈도 때문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COVID-19의 여파로 원격 강습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비대면 연습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020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2019년 ‘인지 및 정서 발달’,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에서 관찰되어왔던 특성에 기반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함.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인지 및 정서 발달 측면에서 2019년 관찰되었던 변화는 ①자발성과 적극성, ②향상된 집중력, ③자부심과 자신감, ④책임감과 협동심, ⑤인내심이었으나, 2020년 관찰 결과 자신감 증가가 도출됨.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2019년 관찰되었던 변화는 ①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 ②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 의지, ③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이었음. 2020년 관찰 결과 기존 단위들을 중심으로 악기 실력의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신입 단위들의 연주 실력은 지속되지 못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해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임.
-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 측면에서는 2019년 ①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②배려와 협동, ③유대감과 친밀감이 보고되었음. 2020년 관찰 결과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던 피어티칭이 미흡하다는 점이었으나 사회성이 증진된 모습이 드러남.
 - 단위 간 이루어지는 피어티칭의 경우 악기 연주의 수준과 관계없이 발현되지만, 개인별로 계이름을 익히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는 기초 교습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강사 의존도가 높아 다소 활발하지 못한 경향이 있음. 더불어 비대면 연습상황에서는 피어티칭이 구조적으로 발현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2019년과 2020년도 공통으로 발견된 촉진요인은 ①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②실수에 너그러운 편안한 분위기이며, ③친구들과 함께하기가 발견되었음.
- 2019년과 2020년도 공통으로 발견된 장애요인으로 ①협소한 연습공간, ②부족한 강사 인원이었음. 2020년 추가로 도출된 저해요인은 ③단위 간 연령대 격차, ④온라인 수업 콘텐츠 미흡 및 온라인 수업이 가진 본질적 한계, ⑤긴 연습시간임.

2. 제언

-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제언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2.1.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진흥원의 역할

2.1.1 거점기관의 전문적 역량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MEL(Monitoring & Evaluation)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
- “
- 거점기관의 전문적 역량 확보 및 지속가능성 확보는 중장기발전계획 도출 및 실행, 미래 재원확보, 사업 수행 조직의 지속성 확보, 외부 후원 조직의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17년 이후 자립거점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는 66개의 자립거점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자립거점기관은 타 기관들에게 중요한 모델링이 될 수 있음.
 - 구조적으로 진흥원에서 추가예산 투입의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장 수요가 확인되었음.
- ”
-

- 거점기관의 전문적 역량 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컨설팅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거점기관들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더불어 미래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지원과 전략이 필요함.
- 이에 2017년 이후, 66개의 자립거점기관의 운영 평가 및 전문적 역량과 지속가능성의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전략을 공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지원체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더욱 협력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원하느 것이 필요함.

2.1.2 거점기관 자립에 대한 전략 방안 마련

-
- “
- 거점기관의 운영 연차에 관계없이 자립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 및 교육 인력의 면접조사에서 드러남. 이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가 예산 투입의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

한다는 현장 수요가 확인되었음.

”

- 거점기관의 자립 과정에서 제기된 불안정한 환경요인에 대해 함께 고민과 모색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비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논의되고 모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 지자체 담당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의 성과와 효과로 점철될 수 있는 거점기관의 자립은, 기관의 역량과 지역 구성원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확실한 파트너십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정책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매해 제자리걸음이거나 지자체 지원이 변경 또는 불확실한 사례가 드러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앙-지역 파트너십 측면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고 고려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1.3 기관 담당자(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간의 교류 환경 조성

“

- 행정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중 각 지역 행정담당자 간의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해 진흥원의 거점기관 간의 교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워크숍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존 진행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 기존 자립기관들의 지자체와의 교류, 자립 이후 예산 활용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기관 담당자 간 교류환경 조성을 통해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자립준비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지자체 담당자 변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한 기관들의 경험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코디네이터 교류활동을 통해 행정담당자와 음악감독, 강사, 아동 사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할 것임. 거점기관에 따라 코디네이터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다양할 수 있으나, 주된 업무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코디네이터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 기관 담당자 워크숍에 기관의 행정담당자와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의무화시키고, 워크숍 내에 별도의 세션을 구성하여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1.4 취약가정 단원들을 위한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단원들의 면접조사 결과, 초기에는 취약가정 단원들이 일반가정 단원들보다 음악적 성장이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이러한 차이는 상급단원으로 갈수록 비슷한 수준의 악기 실력을 획득하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신규 취약가정 단원들이 일반가정 단원들보다 음악적 성장이 더딘 이유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도 일부 존재하나, 자기 악기의 유무에 따른 연습시간의 차이, 개인 연습공간의 물리적 차이, 학원이나 개인레슨 등 다양한 환경적 변수에 의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취약가정의 상급 단원들 중 일부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점차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미래 희망전공으로 꿈꾸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환경, 즉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에 따른 좌절을 느끼며 음악전공을 포기하고 점차 대안을 찾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단순 음악교육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취약가정 단원들의 음악적 재능과 성장을 위한 추가적 지원 및 연계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취약가정 단원들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기대여 서비스, 개인 연습공간과 레슨 지원, 추가적인 교육강사의 관심과 지도 등을 통한 초기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섬세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더하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취약가정 단원들의 경우, 자신의 환경적 제약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음악적 성장이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예시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체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예술영재사업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칭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2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

2.2.1 단원 지원 부분

2.2.1.1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발달 수준 차이에 대한 고려와 지속적 참여 유도

-
- “
- 2016년에 신규 단원으로 입단한 1단계 패널의 양적 분석 결과, 참여 1~3년차에는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에 걸쳐 취약계층보다 일반계층의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참여 4년차 이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 ”
-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고른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됨.
 -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이 참여 초기 일반계층 아동과 성장 수준의 격차로 오케스트라 참여 활동에 흥미를 잃거나, 이로 인해 오케스트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원들의 성장 수준 차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 또한 4년 정도의 지속적 참여 이후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의 오케스트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증장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2.2.1.2 거점기관별로 단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

-
- “
- 개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소로는 단원의 자부심으로 나타남. 단원의 자부심은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능력, 배려, 미래전망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냈으며, 단원의 자부심은 언어적 공격성과 행동적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관계의 측면에서도 단원의 자부심은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가족 응집력, 협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더 나아가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영향 요인 중 사회적 신뢰, 소속감과 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인발달과 인적 관계 및 공공적 함의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단원 자부심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 ”

- 각 기관별로 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각 기관별로 어떠한 때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함.
- 단원들의 공통된 표식이나 굿즈 제작 및 다양한 활동 등에 활용함으로써 연대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유튜브 채널 운영, 단원들의 인터뷰 및 공연 영상 등과 연계하여 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접목될 필요가 있음.

2.2.1.3 내재화 단계의 단원 및 지속 단원, 취약가정 단원들의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 내재화 단계의 단원 및 지속 단원 중 취약가정 아동들은 전공 선택과 유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개인발달 중 미래전망과 관련한 분석결과에서는 2016년 평균 3.44점에서 2017년 4.11점, 2018년 4.14점, 2019년 4.27점, 2020년 4.0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취약가정 아동의 경우, 미래전망은 2016년에서 2020년의 측정 시기에 3.43점, 4.10점, 4.15점, 4.31점, 4.07점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일반 아동보다 평균이 높았음.

”

- 이러한 분석결과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긍정적 경험과 내적 발달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내재화 단계의 단원이나 지속단원, 취약가정의 지속활동 단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커리어 개발과 관련된 전공 선택과 유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낮추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립 거점기관들의 참여 단원 중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사례를 통한 모델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공 선택을 희망하는 단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과 더불어, 미래전망에 대한 세부적 전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2.2 교육 운영 측면

2.2.2.1 단원들의 공연활동 성취감 고취 방안 마련

-
- “
- 아동 패널 분석 결과, 아동들은 공연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공연활동 성취감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 개인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효과의 모든 영역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됨.
-

- ”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음악적 경험뿐만 아니라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확대 방안을 제안함.
 - 이를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된 공연 기회 확대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연기회 확대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자본 확충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연활동에서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및, 작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공연을 통해서 단원 스스로가 성취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동의 공연활동 외에도 단원들이 원하는 공연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객 초청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비대면 상황에서도 단원들이 공연활동에서 느끼는 성취감을 맞볼 수 있는 공연방식의 기획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2.2 단원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수업 운영 방안 모색

-
- “
- 단원들의 이탈원인 분석 결과, 상급 학년과 학교 진학에 따른 하교시간 변경에 따른 참여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면접조사결과 단원들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학업 중압감, 행정담당자와 보호자의 면접에서도 고학년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오케스트라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음.
-

- ”
- 꿈의 오케스트라가 장기적 사업으로 지닌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속적 참여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지속적 참여가 필요함. 따라서 주로 초등학교 3~4학년에 입단한 단원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진학 이후 꿈의 오케스트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구성 단원들의 분포와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유연한 수업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2.2.3 단원들의 악기 실력 및 연령대를 고려한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기존 단원과 이탈 단원 면접조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한 장애요인은, 매해 신규 단원이 입단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특성 상 3·4년차 이상이 되면 악기 실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한계를 느낀다는 점임.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상급단원들의 악기에 대한 흥미 감소, 활동의 지루함, 이탈사유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케스트라 활동 안에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촉진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원들이 자신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로 생각하는 음악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단원의 입단 시기별 실력 차이와 연령대를 고려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 단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되풀이 되는 쉬운 악보에서 벗어나 실력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 교육을 제공받는 것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3·4년차 이상 단원들을 위한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원의 입단 시기별 실력 차이와 연령대를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이들이 제안한 대안으로, 상급 단원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3중주(트리오), 4중주(콰르텟), 5중주(퀸텟)형식의 합주나,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레슨 시간의 확보 등이 있음.
- 새로운 곡을 접하여 연주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외에도, 오케스트라 내 악기 편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집되었음. 전반적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적 경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상급 단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2.4 단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함께와 같이’에 대한 전략적 확장

“

- 면접조사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변화를 견인한 가장 주요한 동인과 가치는 이들의 언어를 통해 설명하자면 ‘함께와 같이’로 귀결됨.
- 이러한 ‘함께와 같이’는 합주를 통한 즐거움에서 서로를 위한 이해와 배려에서 소속감으로 발전하며, 구성원으로 서로 돕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마음으로 확장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

-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교육강사, 거점기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단원들이 주목하는 가치인 ‘함께와 같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더욱 의미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면수업의 경우, 이러한 가치는 오케스트라가 가진 본질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함. 다만 단원들은 합주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가치의 발현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예시로 단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2016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에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간식시간도 결국 다른 파트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함. 전체 단원들이 함께 하는 합주 이외에도 입문교육, 간식시간, 캠프, 연주회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이 오케스트라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함께와 같이’를 실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와 교안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됨.
- 추가적으로 비대면수업의 수업의 경우에도, 단원들이 대답한 긍정적인 경험 또한 여전히 ‘함께 그리고 같이’하는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밝혀졌음. 따라서 교수자-학습자의 단방향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쌍방향의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이 더욱 요구되어 진다고 판단되며, 단원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2.3 비대면 교육 측면

2.2.3.1 비대면 방식을 고려한 섬세한 운영 방안 마련

“

- 1단계 아동 패널 분석 결과, 대부분의 효과성 지표에서 2020년 수준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다소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결과는 1단계 아동 패널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함에 따른 발달 단계의 특성과 관련해 해석해볼 수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현장의 수업 운영 방식과 일정 변화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단계 아동 패널의 경우도 참여 1년차와 2년차에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던 1단계 아동 패널과 달리, 일부 효과성 지표에서만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에 유의한 성장을 보였다는 것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수업 방식의 변화가 2020년 측정 값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음.
- 더욱이 프로그램 요소별 만족 요인 평가 결과,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꿈의 오케스트라 현장에서도 시행됨.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자 그룹은 그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교육강사 그룹은 교수법과 기술적 환경에 대한 고민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음. 결론적으로 두 면접조사 대상 그룹에서 향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필연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 비대면 수업 관찰 시 처음 온라인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 낯선 교육강사의 PT 수업 진행과 인터넷 연결 등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들이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음.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교수법과 아동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 다소 미흡했음.

”

- 2021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비대면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의 측면에서 온라인 오케스트라 교육에 필요한 제반과 자원, 교수역량과 교수법 개발 등이 논의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됨. 다만 합주와 음향이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핵심요소와 그것의 완벽한 온라인 상의 재현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대면과 대면 병행 교육에 대한 가능성도 모두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비대면 활동 진행시에는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좀 더 밀착 접근이 필요한 단원들(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신입 단원 등)의 교육 방법과 교육 키드 개발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주어진 환경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시행된 현재, 아직까지 필요 자원에 대한 조사와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전략 계획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음. 면접조사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을 청취하였고, 그 가운데 중첩된 의견들이 나타남. 이러한 수요와 필요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오케스트라 교육을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접근할 때, 어떠한 교육적 측면이 보다 확대되고 시도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논의가 전개될 필요성이 드러남.

2.2.3.2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시 취약가정 단위 및 학습속도가 늦은 참여 단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

“

- 2020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온라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왔음. 특히 사전에 녹화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 교육방식과 실시간 화상교육을 포함하여, 두 가지 유형 혼합 등의 다양한 원격수업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비대면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시간 사용과 개인 연습시간의 증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호 소통이나 개별 지도 등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소외, 교육격차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질적 연구 결과, 일반가정 단위와 취약가정 단위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들은 고유의 즐거움이 없어진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음.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본질적 한계를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음을 보고하고 있음. 실제로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

- 취약계층 및 학습 속도가 늦은 참여 단위에 대한 비대면 교육에서의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호자들이 제안한 개선 방안 중, 학습속도가 늦은 학생에 대한 교육 강사의 지원 등을 중요한 지원방안으로 꼽고 있는 상황 등은, 비대면 교육에서 참여 아동 간의 교육격차를 좁히는데 있어 교육강사 및 기관 차원에서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원들은 꿈의 오케스트라의 인적 상호작용과 피어티칭을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장점을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극대화하는 교육방안이 필요함.

2.2.4 교육 환경 측면

2.2.4.1 연습공간의 개선과 교육강사의 확충

-
- “
- 참여관찰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의 효과를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연습공간의 개선과 교육강사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일부 파트는 악기와 소지품 등을 보관하는 등의 공용공간에서 파트연습을 진행하고 있어 연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아동들이 출입함에 따라 방해받을 받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파트의 단원들과 비교 시 몰입의 정도가 낮음이 관찰됨.
 - 또한 단원의 연령, 참여 기간, 연주 실력이 다름에도 대부분 한 명의 교육강사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시 다른 단원들의 연습 공백 시간이 길고,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강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위를 지속하는 모습이 관찰됨.
-

- ”
- 기관은 단원들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독립된 연습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상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파트의 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단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파트별 교육강사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오케스트라 내에서 단원의 비율이 높은 바이올린, 첼로 파트의 경우 교육강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연령별, 참여 기간별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2.4.2 안전한 음악적 교육 및 치유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충

-
- “
- 단원들의 면접조사, 마음기록지 텍스트분석, 참여관찰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가정과 일반가정 단원들 모두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된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이들의 언어로 직접 수집된 즐거움, 행복, 심터, 스트레스 해소 등은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활동 외에도 기관이 제공하는 공간 자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음.
-

- ”
-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민간 교습소나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오케스트라 활동과는 차별적인 전략과 접근, 그리고 안전한 음악적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 이러한 접근을 위해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한 단순 예비교육이 아닌, 초보 단원과 숙련된 단원 모두를 위한 입문수업(foundational lessons)의 개발과 캠프, 연주회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적 신체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비전과 미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단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식 또한 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확립과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간식은 단원들 모두가 주요하게 꼽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핵심적 촉진요인 중 하나로 거점기관의 운영 전략에 있어 주요한 기능적 요소 중 하나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함.

참고문헌

-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오찬호, 하지영, 손순영(2014).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 보고서(1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설, 최정원, 장혜원, 조혜주, 김희수 (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9 (한국아동패널 II).
- 서덕희(201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중단적 사례연구: 학력에 따른 아비투스과 문화 접변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5-81.
- 서덕희, 테레사(2017).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에 관한 중단적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7(3), 57-98.
- 서정아, 엄지민 (201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 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태화, 손희정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조사결과 자료 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은선민, 이수현, & 이강이.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 이현주, 손승남(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삶과 자녀교육에 관한 질적 중단 연구. 교육종합연구, 12(4), 209-236.
- 이현주, 엄명용(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57-187.
- 임성택, 주동범, 이금주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스트레스, 공부압박감의 중단적 추이와 해석. 29(1), 23-43.
- 임영식, 김인설, 신혜선, 임승희, 정경은 (2018). 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영식, 김인설, 신혜선, 임승희, 정경은 (2019).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혜성 (2016). 한국아동패널(PSKC)을 활용한 연구동향: 복합자료 (Complex Sampling Survey Data) 분석의 방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391-412.
- 전수아, 한윤선. (2016).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팬덤 활동이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층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56), 101-132.
- 정경은 (2018). 국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연구,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콜로키움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준용(2013).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중단적 질적 연구—근거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 최나영, 김성혜 (2017).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입문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교육문화연구, 23(4), 311-332.
- 최인희 (2020). 대학원생의 특징 및 대학원 진학 영향 요인 분석. 열린교육연구, 28, 23-43.

- 최정현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종단적 융합연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9(12), 62-70.
- 홍태화, 황순택 (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545-568.
- Burns, S. (2019). In harmony Liverpool: 2009-2019 reflections on 10 years of learning. Liverpool Philharmonic.
- Carnwath, J. D. & Brown, A. S.(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A Literature Review, Arts Council England.
- Elpus, K. (2013). Arts education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gnitive, behavioral, and social outcomes of adolescents who study the art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Frega, A. L., and J. R. Limongi. (2019). Facts and counterfacts: A semantic and historical overview of El Sistema for the sake of clar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7(4), 561-575.
- Farrall, S. (2006). What is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SE Methodology Institute.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eries, Paper 11.
- Giorgi, A. P., & Giorgi, B. (2008).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65-179.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Hennessy, S. L., Sachs, M. E., Ilari, B. S., & Habibi, A. (2019). Effects of Music Training on Inhibitory Control and Associated Neural Networks in School-Aged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Frontiers in neuroscience, 13, 1080.
-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content analysis).
- Lincoln, Y. S. & Guba, E. G.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Jossey-Bass.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oore, K. & Hakens, C. (2017). Evaluating Sistema-Scotland: Big Noies Torry: Initial finding report. Glasgow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 Morse, J. M., & Field, P. A. (1995).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Cheltenham, Great Britain: Nelson Thornes.
- Stempel, G. H., III. (2003). "Content Analysis", In G. H. Stempel, III, D. H. Weaver, & G. C. Wilhoit (Eds.).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Theory, pp. 209-219. Boston, MA: Allyn and Bacon.
- Weber, R. P. (1985). Basic content analysis. Sage Publications.

부록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아동용) 설문지
2.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보호자용) 설문지
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교육강사: 아동평가용) 설문지
4.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교육강사) 설문지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아동용)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앞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발전과 더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 사 기 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강악표시(피아노, 메조포르테, 포르테 등)와 도돌이표 등 악보에 표기된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악보를 보고 표시된 박자, 리듬, 음에 따라 악기를 연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악보에 있는 음표의 길이를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악보를 잘 읽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빠르기 말(아다지오,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의 뜻을 알고 있으며 빠르기 순으로 나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같은 음이라 하더라도 소리를 듣고 악기를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주요 멜로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B. 여러분의 음악에 대한 생각과 활동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합주를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악기를 연주할 때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음악(악기)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오케스트라 연주경험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에는 시간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음악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9. 음악은 우리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음악이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종종 가족 등 사람들 앞에서 음악발표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곡이나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다른 음악을 찾아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종종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집중해서 연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여러분의 평소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미리미리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잘 참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게임이나 채팅 등의 유혹을 잘 견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약속한 게임/TV시청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위해 질문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PART D.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모습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다른 모습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E. 여러분의 평소 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서 밝은 미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나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에서도 내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 미래와 진로에 대하여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부모님(보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F. 여러분의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배우고 있는 악기 이외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배우고 있는 악기 이외 다른 악기들도 배워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연주회나 공연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좀 더 많이 접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악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먼저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친구들에게 짜증내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힘이 없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들에게 욕을 자주 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G. 여러분의 주변사람과 동네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이웃들은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들은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소속감이나 애착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관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여러분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8.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선생님, 이웃, 친구 등)이
몇 명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PART H. 여러분의 가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서로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 여러분의 그룹 활동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 그룹 활동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그룹 활동 중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그룹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그룹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J.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 음악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 활동과 학교 교육 이외에 악기를 배워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 활동이외에 다른 곳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설문이 끝납니다!”

PART K.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지휘자 선생님과 악기 선생님은 항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케스트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케스트라 연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생활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시간이 지겹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활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따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시간 때문에 오케스트라 활동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오케스트라 수업 및 연습 장소에 오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오케스트라 수업 및 연습 장소는 집과 가까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오케스트라 수업 및 연습 장소에 오는 방법에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PART L.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오케스트라 선생님들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오케스트라 수업과 연습 장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기관 선생님들이 오케스트라 활동 및 연습에 필요한 것들은 잘 도와주시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케스트라 연습할 때 주는 간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참여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PART M.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활동 관련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나면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오케스트라 공연 후에 더 많은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오케스트라 공연 후에 다른 공연을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N.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에 관한 부모님(보호자), 친구, 오케스트라 선생님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음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들은 음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들은 나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나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오케스트라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오케스트라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오케스트라 선생님은 나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PART O.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년	반	성 별		생년				월		일	
					(생년월일이 2009년 5월 7일이면 20090507로 기입)							
			①남	②여								

2. 귀하가 현재 오케스트라에서 맡고 있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

3. 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에 언제부터 참여했습니까? ()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④ 2019년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보호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개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 사 기 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대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꿈의 오케스트라 실시로 지역 내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방과 후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방과 후 자녀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방과 후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꿈의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배우는 악기를 제공하며, 주 2회 총 6시간의 악기와 오케스트라 교육을 진행하고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는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주 1회 1시간 30분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의 일반적인 비용은 한 달, 약 3만원 입니다.)

9. 만일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음악학원이나 사설 교습소에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강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원

PART B.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서로 상의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다음은 양육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돌보는 일 등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D. 다음은 귀하의 음악교육 및 관련 태도 관련 질문입니다.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기, 청소년기에 정규 학교 교육 이외 음악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인이 되어 정규 학교 교육 이외 음악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음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PART E.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댁 자녀의 한 달 사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학교 방과후 수업 비용 포함)?

_____원

2. 귀댁의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한달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_____원

3. 현재 귀댁 자녀의 한 달 음악 교육을 위한 사교육 비용은 얼마 입니까(학교 방과 후 수업 비용 포함)?

_____원

4. 귀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년/ 반		성 별		생년				월		일	
					(생년월일이 2009년 5월 7일이면 20090507로 기입)							
			남	여								

PART F.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농/임/어/축산업 ② 자영업 ③ 전문직 ④ 사무직
 ⑤ 판매/서비스직 ⑥ 숙련 기능직/기술직 ⑦ 문화예술 종사자 ⑧ 공무원
 ⑨ 중/고등학생 ⑩ 대학생/대학원생 ⑪ 전업주부 ⑫ 프리랜서
 ⑬ 정년퇴직 ⑭ 무직 ⑮ 기타()

5. 귀댁의 월평균 가계 소득 수준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600만 원 미만 ⑥ 600만 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교육강사: 아동 평가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개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신 오케스트라 각 단원 학생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각 단원별로 개별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 사 기 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평가할 아동에 대한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학교	학년	반	성별		오케스트라 참여 악기(포지션)
				남	여	

PART B. 위 학생의 음악적 역량 대한 평가입니다. 선생님의 평가 점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못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잘한다
1.	악보 읽기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레퍼토리에서 음악 주제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레퍼토리에서 음악 형식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오케스트라 내에서 자신의 포지션 이해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연주의 기술적 역량(테크닉)	①	②	③	④	⑤
6.	연주의 표현력	①	②	③	④	⑤
7.	앙상블 능력	①	②	③	④	⑤

PART C. 위 학생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생님의 평가 점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오케스트라에서 친구들을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오케스트라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교육강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개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 사 기 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대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꿈의 오케스트라 실시로 지역 내 문화예술소외계층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6.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주체와 협력 기회를 늘리는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 문화예술행사(지역사회 공연,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참여가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10.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로 참여하면서 본 프로그램과 단원들에 대해 점점 애착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나 타인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12.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로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B. 다음의 요인들 중에서 아동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한 순서대로 2개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악적 성장	②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
③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애정과 애착	④ 단원들간의 유대감
⑤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	⑥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
⑦ 또래집단(친구)의 관심과 지지	⑧ 기타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단원들과의 음악적 격차에 따른 소외감	② 연주 수준의 향상에 따른 음악적 부담감
③ 음악적 권태	④ 단원들과의 갈등 요인
⑤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족	⑥ 아동들의 성장 요인(예: 사춘기)
⑦ 학업 부담	⑧ 거주지 이사
⑨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방과 후 일정 변경	⑩ 기타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PART D. 귀하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모습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다른 모습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PART E.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교육강사 경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4.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참여 경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

〈자문위원〉

고은희	용인문화재단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호남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지혜	인컬처컨설팅 대표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윤도경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정준수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조영미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최현찬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연구 협조기관 및 담당자〉

남지효	용인문화재단
이희준	고창문화원
김민영	남양주도시공사
김상현	광주소춘아트팩토리 코디네이터
김영숙	충남문화재단
김하연	부산동구문화원
박진희	세종문화원
박원주	충주중원문화재단
박현진	서울중구문화재단
정새봄	하남문화재단
김소원	김해문화재단문화의전당
장미자	평창문화예술재단
천효정	영월문화재단
조은혜	인제군문화재단
황초롱	창녕군청소년수련관

※ 위 순서는 가나다 순임